

# 숫자로 푸는 요한계시록

## 계시록에 관련한 시대(시간)별 이해

### 1. 계시록이란?

(1)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계시라. 이는 하나님께서 반드시 속히 일어날 일들을 그의 종들에게 보이시려고 그에게 주신 것이요, 그의 천사를 그의 종 요한에게 보내어 알게 하신 것이니라. -1장

안타깝게도 요한계시록이 이해하기 어렵다는 것만으로 많은 사람들이 계시록을 불 엄두를 내지 못하고 있다. 또 그나마 계시록을 해석했다는 많은 사람들의 설명들도 가지각색일 뿐더러 휴거의 시기에 관해서도 여러 가지 설들이 나돌고 있는게 사실이다. 하나님을 믿으면서 미래에 무슨 일이 일어날까 궁금해 하는 것은 필자도 마찬가지였던게 사실인데, 가끔씩 들여야 보는 계시록은, 9장에 메뚜기가 나오는 장면을 보고 “뭐 이런 괴물같이 생긴게 다 있나”, 라는 생각을 하며 덮어버리기 일쑤였다. 또 요한계시록을 읽다 보면 왠지 무섭다라는 느낌이 들었던 것도 사실이다. 그 수많은 상징들이 무엇을 얘기하는지도 어렵고, 그때는 이해하기 쉬운 소설책종류나 읽었던 수준이었으니 계시록처럼 어려운 책이 눈에 들어올리 만무했다.

계시록은 성경전체를 꿰뚫고 있다. 그래서 계시록을 남기신 하나님의 뜻과 함께 성경전체의 정신을 이해하고 있어야 한다. 그리고 연구를 하지 않으면 절대 그 뜻하신 바를 알 수도 없다. 우리가 보는 개역성경이나 개역개정, 킹제임스성경, 킹제임스흠정역 등은 복음적인 내용을 아는 데는 별 문제가 없다. 그러나 자세히 알고 싶어 연구를 하려는 사람들에게는 변개된 부분이 간혹 눈에 띄기도 하고, 또 미묘하고, 섬세한 부분을 이해하는데는 그 오류로 인해 진실을 아는 데에 어려움이 있는게 사실이다. 그래서 성경도 킹제임스흠정역이 좋다느니, 그러나 그것도 번역오류가 있어서 영문성경을 봐야 한다느니 하는 말들이 나오게 되는 것이다. 그러면 안 된다는 것이 아니라, 너무 영문성경쪽으로 몰입하면 하나님께서 영어권에만 역사하는 것처럼 보이는 보편적오류에 빠질 수 있음도 간과하지 말아야 할 것이다. 하나님의 사랑은 인류전체를 포용한다. 사명을 가지고 개인적으로 성경을 번역하시는 분들도 계시고 하니 그러한 모든 것들을 이용한다면 하나님께서 친히 깨우쳐주시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해본다.

(3)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들과 거기에 기록된 것들을 지키는 자들은 복이 있나니 이는 그 때가 가까움이니라.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들은 이 계시록1장3절의 말씀대로 복을 받아 누리기 위해서라도 누구나 읽어야 하고, 또 택함받은 성도라면 당연히 읽어야하는 것이라 본다. 지금도 우리 주위에는 많은 계시록해석집들이 돌아다니고 있다. 운 좋게 처음부터 길을 잘 든 사람은 옳은 해석을 볼 수도 있을 것이고, 그렇지 않은 분들은 잘못된 해석을 볼 수도 있다. 그만큼 계시록 해석이 제각각이기 때문이다. 가끔 일치하는 경우도 있다. 계시록이 쉽다는 것이다. 그러나 그렇지 않다. 계시록은 어렵다. 어려운 글을 싫어하시는 분들은 이 글을 읽어봐야 아무것도 얻는 것이 없을 것이다. 그러나 눈 크게 뜨고 성경을 놓고 확인해 보면서 따라오시면 하나님께서 올바른 길로 인도해 주실 것이라고 믿어 의심치 않는다. 하나님은 필자처럼 작은 자도 쓰신다. 그래서 하나님의 생각은 우리의 생각과는 다르다는 거다.

(25) ○ 그 때에 예수께서 대답하여 말씀하시기를 "오 하늘과 땅의 주이신 아버지여, 이런 일들을 지혜롭고 슬기로운 자들에게는 숨기시고 어린 아이들에게 나타내심을 감사하나이다. - 마태복음 11장

많이 배웠거나 자칭 타칭 슬기롭고 현명한자에게 드러내시는 것이 아니고 어린아이같은 자에

게 드러내신다고 하는 말씀이다. 자신이 어느 정도나 천국에 들어가기로 사모하는지 짚어 봐야 할 때가 되었다는 얘기가 아닐까 싶다. 여기가 종사오니... 라고 현재에 만족하고 있는 성도가 있다면 아마도 주님께서 천국을 주시지 않을 지도 모른다. 가끔 믿는다는 기독인중에도 이런 말씀을 하시는 분들이 계신다. 그래도 저승보다는 이승이 낫다고, 정말 그렇다고 생각하시는가, 아니다. 그런 분은 이사야서나 에스겔서, 요한계시록의 21장, 22장을 읽어보지 않으신 분이 분명하다. 우리가 가게 될 새하늘과 새땅은 우리가 상상하는 것 이상으로 훨씬 더 좋은 곳이다. 우리가 하고 싶은 일들을 얼마든지 할 수 있고, 또 영원히 할 수 있는 곳이 바로 천국이다라는 사실을 모르는 것이다. 천국아니면 어디 가서 하고 싶은 일을 영원토록 하며 살 수 있겠는가, 또 하나님 아니면 누가 우리에게 이런 약속을 주시겠는가, 아무도 없다. 오직 하나님만이 가능하신 일이며, 그 분만이 이런 약속을 하실 수 있는 분인 것이다.

그래서 곧 닥쳐올 일이나 그 천국에 대해 알고 싶어 그것에 대한 말씀을 보려 하는데, 계시록에서 말씀하신 것이 너무 어려웠다. 그래서 억지로 풀려하다가 많은 사람들이 넘어졌다. 이 계시록해석을 보시고 다른 계시록해석을 보시던, 다른 계시록해석을 보시고 이 계시록해석을 보시던 아마 둘 중에 하나이신 분이 많으실 것이다. 다른 계시록해석을 보시다가 이 해석을 보시면 무슨 말인지 전혀 감이 안 오실 것이다. 그만큼 이 계시록은 어렵다. 그러나 이것을 완벽하게 이해하고 나면 아마도 누구에게든 자랑하고 싶고, 또 스스로 미칠듯이 기뻐하게 될 것이다.

(23) ○ 주가 이같이 말하노니, 현명한 자는 자기 지혜를 자랑하지 말며, 용사는 자기 힘을 자랑하지 말고, 부자는 자기의 부를 자랑하지 말라.

(24) 그러나 자랑하는 자는 이것으로 자랑할지니 그가 깨달아 나를 알아서 내가 이 땅에서 자애와 공의와 의를 행사하는 주임을 아는 것이라. 이는 내가 이 일들을 기뻐함이라. 주가 말하노라. -예레미야 9장.

이렇듯 주님의 公義(공의)를 발견하게 되는 것이 자랑이고 기쁨이다. 여러분도 천국을 사모하면 그 분 말씀을 찾게 되고 또 어떨까 상상하게 될 것이다. 그걸 한 번도 해 본적이 없다면 천국을 너무 막연하게 생각하고 있는 것은 아닌가, 스스로 반성해야 할 것이다. 물론 믿는 자의 마음은 지금도 천국이나 눈앞에 펼쳐지는 천국은 아직 도달하지 않았다. 그래서 더욱 기쁜 것이다. 그 날이 오면 감격에 겨워 성도들끼리 서로 부둥켜안고, 울고 웃으며 눈물이 한강을 이룰 지도 모른다. 상상만 해도 너무나 좋지 아니한가. 基督(기독)인들은 天國(천국)에 대한 所望(소망)이 있어야한다. 주님께서도 山上垂訓(산상수훈)에서 말씀하지 않으셨던가, 그 말씀중에도 八(팔)福(복)의 歸結(귀결)이 항상 천국이었다. 그 만큼 좋다는 얘기겠다. 창조주이신 주님께서도 좋다고 말씀하시는 그 곳이 被造物(피조물)인 우리가 봤을 때는 얼마나 더 좋겠는가, 상상불허, 예측불허하다. 그래서 더욱 고맙고 고맙다. 그 아름다운 천국을 허락하심을 말이다.

자, 그럼 이 좋은 천국을 가진 가야하는데 말세를 살고 있는 성도에게 넘어야 할 산이 있다. 무엇인가, 보자.

개인적으로 이 계시록이 풀린 것은 그 때가 가까웠다는 하나님의 계시라고 생각하고 있다.

(21) 이는 그 때에 **대환란**이 있으리니, 그와 같은 것은 세상이 시작된 이후로 지금까지 없었으며, 또 결코 없을 것이기 때문이라 -마태복음24장

(10) 네가 나의 인내의 말을 지켰기 때문에 나도 시험의 때에 너를 지키리니, 이는 온 세상에 임하여 땅 위에 사는 사람들을 시험하는 때라.-계시록3장

이 말씀의 뜻은 장차 시험이 오게 되는데, 그 시험은 온 세상에 임할 것이고, 땅에 거하는 모든 자들이 患亂(환란)으로 인해 어려움을 겪을 때가 있게 될거라는 것이다. 지켜주시는 교회

도 있겠지만, 대부분의 모든 성도들이 시험을 받게 된다는 예정이며 또 예언이다. 그렇다면 모든 사람들이 시험을 받는데 성도는 무엇으로 믿음을 증명해야 하겠는가, 그건 바로 행위다. 믿음이 있는 행위말이다. 어떤 이는 행위구원이 아니고 오직 믿음으로 구원받는다라는 말씀을 하기도 하시는데 그렇다, 그 말은 틀린 말이 아니다. 그러면 행위로 그 믿음을 증명하면 되는 것이다. 그 마음의 중심으로는 우상숭배를 하고 있으면서 입으로만 믿는다고 하면 그게 어디 믿는 것이겠는가, 바로 그런 거다. 행위가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라는 것, 행위를 강조한 야고보는 말할 것도 없고, 믿음을 강조한 바울사도 또한 이런 말씀을 하신 적이 있다.

(16) **저희가 하나님을 시인하나 행위로는 부인하니** 가증한 자요 복종치 아니하는 자요 모든 선한 일을 버리는 자니라 -디도서 1장

이 구절의 뜻은 다시 말하면 믿음의 모양은 있으나 행위로는 부인하는자라고 해석될 수 있겠다. 이렇게 얘기하면 행위구원을 얘기하는 것이라며 따지는 사람 꼭 있다. 이 책은 믿음에 관한 서적이 아니다. 필자는 余(여)의 행위로 믿음을 증명할테니 반대하시는 분들은 본인의 입술로 믿음을 증명하시면 될 것이다.

각설하고, 이 시험에 대해서 주님께서 뭐라 하시는가를 확인해보라. 이 계시록3장10절은 하나님이신 그분께서 직접, 온 땅에 시험이 올 것이라고 미리 알려주시는 것이다. 그리고 그 시험은 믿는 자들이나 믿지 않는 자들 모두에게 닥칠 것이고 믿음을 시험하는 때라는 것을 알 수 있게 되는 것이다. 그럼 도대체 환란은 어떤식으로 또 어떤 모양으로 말세성도에게 닥칠 것인가, 바로 그 시기나 재앙, 환란의 종류를 알려주는 것이 이 계시록의 존재이유이며, 목적이기도 할 것이다.

(22) **거짓 그리스도들과 거짓 선지자들이 일어나서 이적과 기사를 행하여 할 수만 있으면 백하신 백성을 미혹케 하려 하리라**

(23) **너희는 삼가라 내가 모든 일을 너희에게 미리 말하였노라** - 마가복음13장

이렇게 미리 알려주시면서 대비하라고 하신 것이다. 그렇다면 구체적으로 어떤 재앙이 오게 되는 것인지 알아보자.

## 2. 재앙의 종류

- 1) 봉인재앙
- 2) 나팔재앙
- 3) 대접재앙

이렇게 크게 세 가지로 재앙이 떨어진다. 그런데 첫 관문부터 만만치 않다. 첫 번째 봉인이 떨어지고 흰말을 탄자가 나오는데 이 흰말탄 자를 분류함에 있어서도 서로 만만치 않은 설전이 오가기 때문이다. 적그리스도로 보는 측에서는 사탄도 광명의 천사를 가장한다는 말에서부터 정복하고 정복하려고 하는 것을 보니 욕심이 많은 자이니 적그리스도가 확실히 맞다고 분별한다는 일명 계시록박사님도 계시다. 그리고 그런 분들의 뒷부분해석은 거의 천편일률적이다. 그 후에 붉은 말을 탄 자가 전쟁을 일으키고, 검은 말을 탄자가 경제권을 잡아 기아로 사람들을 굶겨죽이고, 창백한 말을 탄자가 나와서 종합적인 재앙으로 환란을 마무리하는 역할을 한다는 것이다. 참 좋은 해석이다. 편하기도 하다. 그런데 그런 뜻이라면 얼마나 좋겠는가, 해석이 편하니 생각할 것도 별로 없다. 그러다보니 그런 해석을 하는 분들은 8장에

(7) **첫째 천사가 나팔을 부니 피섞인 우박과 불이나서 땅에 쏟아지매 땅의 삼분의 일이 타서 사위고 수목의 삼분의 일도 타서 사위고 각종 푸른 풀도 타서 사위더라**

이 재앙을 하늘에서 불이 떨어져서 자연계가 타버린다는 식으로 간단한 해석을 하거나,

두 번째 나팔에

(8) 둘째 천사가 나팔을 부니 불붙는 큰 산과 같은 것이 바다에 던지우매 바다의 삼분의 일이 피가 되고

(9) 바다 가운데 생명 가진 피조물들의 삼분의 일이 죽고 배들의 삼분의 일이 깨어지더라

불붙는 큰 산이 떨어지는 것을 니비루행성이나, 혹은 하늘에서 혜성이 떨어져 많은 바다 피조물이 죽는다는 간단하고도 확실한 것 같은 해석을 하므로 많은 사람들의 열화와 같은 호응을 이끌어 내고 있다. 실로 안타까운 일이 아닐 수 없다. 惑世誣民(혹세무민), 딱 그 말이 어울리는 해석이라 아니할 수 없겠다.

그렇게 간단한 해석이라면 누구나 다 하는거 아닌가? 어려워할 필요가 없다고 하면서 한다는 해석이 그런 해석이라면 무엇하러 연구하는가, 그 말 그대로 믿으면 되지, 그렇지 않은가, 필자는 그런 식의 책임질 수 없는 해석은 절대로 해서는 안 되는 부적절한 해석이라고 생각한다. 이 계시록은 미혹을 당하지 말라고 주님께서 말세의 성도들에게 주신 글임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미혹을 하는 역할을 하고 있으니 어찌 하나님 보시기에 죄 없다 아니 하시겠는가 말이다. 하나님의 섭리를 생각한다면 그런 식의 해석은 지양해야 할 것이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석해야 된다는 얘기인가, 같은 구절을 들어 해석을 해보자.

첫 나팔에 불(재앙)이 떨어져 타서 사위는 풀과 나무는 무엇을 뜻하는가, 하나님의 시각에서 한 번 살펴보자, 하나님은 어느 곳에선가 그 해석을 꼭 마련해 놓고는 하신다. 어디 있는가 살펴보니 그 뒷장인 9장에 그 뜻이 있었다.

(4) 그들에게 명령이 내려지기를 땅의 **풀이나 또 어떤 푸른 것이나 어떤 나무도 해치지 말고** 다만 그들의 이마에 하나님의 인장으로 표시 받지 아니한 사람들만 해치라고 하더라.

이 구절에 의하면 이 풀이나 나무가 일반적인 풀이나 나무가 아니고, 사람을 뜻하는 것임을 알려주고 있다. 이런 식으로 찾고 이해하려는 노력은 하지 않고 그게 그냥 그런거다 라는 식의 해석은 차라리 안하느니만 못한 그런 해석인 것이다. 고로 이 말들의 뜻하신 의미를 찾는 노력도 기울여야 하겠지만, 특히 이 책은 지금이 어느 시기쯤 되었는지, 그 시기(시간)에 집중할 것이므로 이 의미들의 해석은 중간중간 같이 다뤄나가도록 하겠다.

이제 이 책에서는 계시록을 공부하는데 있어 지금까지와는 조금 다른 방법을 사용할까한다. 그 동안 1장부터 시작하는 계시록의 해석은 많이 봐 왔을 것이다. 따라서 여러분들이 거부할지 모르지만 필자는 계시록을 12장부터 시작하겠다. 왜냐하면 그 부분이 예수그리스도의 誕生(탄생)과 昇天(승천)을 설명하고 있기 때문이고, 이 계시록자체가 그 때로부터 시작하고 있기 때문이다. 주님 승천이후 약 이천년정도의 시간이 이 계시록에 담겨 있다는 의미이다. 계시록을 이해하려면 창세기는 물론이고, 최소한 이사야, 에스겔, 다니엘선지서는 한번쯤 보고, (사대복음은 물론이고) 들어오면 도움이 될 것이나 먼저 이 해석서를 본 후에 살펴봐도 무방하다 하겠다. 그동안 다른 해석을 보고 이해하고 계신 분들은 이 해석에 동의하기 어려울 것이다. 그러나 덮어 버리지 마시고 계속 보시기 바란다. 그렇게 해석되어야만 하는 그 이유를 알 수 있게 될테니 말이다. 그리고 한가지, 해석에 들어가기 앞서 꼭 알아두어야 할 계시록의 규칙이 있다. 반드시 외워야 한다.



(27) 가

가

가

9 13 ( ) 13 27 가

13

(1) 가

( 가 )

가

가?

가,^^

가 가

3)

11

3

(12) 가

17

4) 1,260 ,

가

가

가

가

가?

가

가



일단 해석을 해 나가기에 앞서 당부할 말씀은, 이 글은 계시록을 처음 보는 분들을 위한 해석이라는 것을 알아 주셨으면 한다. 따라서 지금 알면 오히려 헷갈릴 수 있는 부분은 그냥 넘어가도록 하고 모두가 충분히 꼭 알아야 할 부분에 대해 숙지했을 때, 다시 그 부분으로 돌아가 해석을 하도록 하겠다, 그냥 넘어가는 부분이 있으면 왜 이 부분은 해석을 하지 않는가 하고 오해는 하지 않았으면 한다. 산수로 치면 덧셈, 뺄셈부터 하고 넘어가겠다는 얘기다.^ 참고로 성경은 킹제임스성경을 사용했다.

(1) 하늘에 큰 이적이 나타났으니 한 여인이 해로 옷 입었고, 달은 그녀의 발 밑에 있으며, 머리에 열두 별이 있는 면류관을 썼는데

(2) 아이를 뱀 그 여인이 산고로 울부짖으며 출산하려 함으로 아파하더라.

이 여인은 이스라엘이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을 신부로 아내로 표현하신 적이 이사야서, 호세아 선지서등을 포함해서 많이 있다. 고로 한 여인이 해로 옷 입었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는 의미이고 머리에 열두별의 면류관은 이스라엘의 열두지파를 얘기하는 것이며 달은 이 땅이 있을 동안까지의 지속성, 영원성을 상징한다. 시편이다.

(5) 저희가 해가 있을 동안에 주를 두려워하며 달이 있을 동안에 대대로 그리하리로다 -시편 72편

다른 부분들은 이해가 쉬워 달이 이런 속성을 가지고 있음을 밝힌다. 사실 우주에 존재하는 모든 것들은 하나님께서 폐하시기 전까지는 영속성과 영존성을 가지고 있으므로 영원을 상징한다고 볼 수 있을 것이다.

(3) 하늘에 또 다른 이적이 나타났으니, 보라, 커다란 붉은 용 한 마리가 있는데 일곱 머리와 열 뿔이 있고 그 머리들 위에는 일곱 왕관이 있더라.

(4) 그런데 그의 꼬리로 하늘의 별 삼분의 일을 끌어다가 땅에 던지더라. 또 그 용이 그 아이가 태어나자마자 삼키려고 출산하려는 그 여인 앞에 서 있더라.

(5) 그녀가 사내 아이를 낳았는데 이 아이는 모든 민족들을 철장으로 다스릴 자라. 그녀의 아이가 하나님과 그의 보좌 앞으로 들려올라 가더라.

이 3절의 붉은 용은 사탄이다. 여기까지는 예수그리스도께서 나실 때 마귀에게 시험받으시고, 십자가에 달려 돌아 가신후 부활하셔서 하나님의 보좌 앞으로 승천하는 장면까지를 아주 간략하게 서술한 것이다. 4절의 하늘의 별 삼분의 일에 대한 것은 이 별들이 사탄을 따르던 천사들 중 삼분의 일로 분별한다. 이것에 대해서는 다음 기회에 자세하게 알아보도록 하겠다.

(6) 그 여인은 광야로 도망하였는데 그 곳에는 그들이 그녀를 일천이백육십 일 동안 부양하려고 하나님께서 그녀를 위하여 마련해 놓으신 곳이 있더라.

문제는 이 광야로 도망하는 여인이다. 이스라엘에게 내려졌던 하나님의 은혜는 이후 그들을 흠쓰시고, 결국 이방인의 사도인 바울에 의해 이스라엘이 아닌 다른 민족에게로 복음이 향하게 되었다. 로마군에 의해 이스라엘은 나라도 잃었지만, AD 70년경 디도장군에 의해 성전마저도 돌위에 돌하나도 남지않고 모두 파괴되어 무너져 버리게 된다. 그리고 결국 그들은 각국에 디아스포라(移住(이주) 유대인)로 뿔뿔이 흩어지게 되며, 그 사실들은 특히나 호세아 1장에 기록되어 있는 내용들, 그대로이다. 그런데 이렇게 뿔뿔이 흩어진 이 여인을 이스라엘로 볼 수도 있겠지만, 문제는 해로 옷 입었던 이 여인은 이제 더 이상 해로 옷을 입지 못하게 됐다는 것이다. 그것은 예수님과 바울사도에 의해 천명되었다. 살펴보자.

(15) 그러나 주께서 그에게 말씀하시기를 "가라, 이는 그가 이방인들과 왕들과 또 이스라엘 자손들 앞에서 내 이름을 증거하기 위하여 내가 선택한 그릇이라.-사도행전9장

(46) 그때 바울과 바나바가 담대하게 말하기를 "하나님의 말씀을 먼저 너희에게 전해야 하는 것이 마땅한 줄 알았으나 너희가 그 말씀을 외면하고 너희 스스로가 영생을 받을 자격이 없다고 판단하였으니, 보라, **이제는 우리가 이방인들에게로 향하노라.**

(47) 이는 주께서 우리에게 명하시기를 '**내가 너를 이방인들의 빛으로 세웠으니, 너는 땅 끝까지 구원을 베풀라.**' 하였음이라." 하더라.-사도행전 13장47절

이스라엘은 이 때부터 하나님의 神恩(신은)을 입지 못했다. 그 신은은 바로 예수님과 바울사도의 말대로 이방에게 향했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이제 예수그리스도를 낳은 여인은 이스라엘에서 교회로 탈바꿈되는 것이다. 하나님의 은혜가 교회와 함께 하게 됨으로 말미암아 이제 모두가 주지하다시피 교회시대로 접어들게 되는 것이다. 이 교회시대에도 많은 재앙이 있었다. 그러나 역시 하나님은 과거 이스라엘을 지키셨듯, 너무도 당연하게 그분의 지체인 교회를 신실하게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이끌어 오셨고 함께 하셨다. 고로 이 여인은 이스라엘에서 교회로 탈바꿈된 상태라고 볼 수 있다. 이것은 구약과 신약의 복음의 원리를 알면 쉽게 이해되는 것이고 알 수 있을 것이다. 7절이다.

(7) 또 하늘에 전쟁이 있으니 미카엘과 그의 천사들이 용을 대항하여 싸우고 용과 그의 천사들도 싸우나

(8) 그들이 이기지 못하여 하늘에서 더 이상 있을 곳을 찾지 못하더라.

(9) 그리하여 그 큰 용이 쫓겨나니 그는 마귀라고도 하고 사탄이라고도 하는 옛 뱀, 곧 온 세상을 미혹하던 자라. 그가 땅으로 쫓겨나고 그의 천사들도 그와 함께 쫓겨나더라.

(10) 또 내가 들으니, 한 큰 음성이 하늘에서 말하기를 "이제 구원과 능력과 우리 하나님의 나라와 그리스도의 권세가 임하는도다. 이는 우리 형제들을 우리 하나님 앞에서 밤낮 고소하던 그 고소자가 쫓겨났기 때문이니라.

(11) 그들이 어린 양의 피와 자기들이 증거한 말로 그를 이겼으니, 그들은 죽기까지 자기들의 생명을 사랑하지 아니하였도다.

(12) 그러므로 너희 하늘들과 그 안에 거하는 너희는 즐거워하라. 땅과 바다에 사는 자들에게는 화 있으리라! 이는 마귀가 자기 때가 얼마 남지 않았음을 알고 크게 분노하며 너희에게로 내려갔음이라."고 하더라.

이것은 하늘에서 하나님의 천사 미카엘과 사탄으로 분별되는 용의 전쟁이 있었는데 이 용(사탄)이 이기지 못하고 땅으로 쫓겨 내려오는 장면을 보여주는 것이다. 그리고 이 용이 내려오는 시기가 표현되어 있는 곳이 9장이다. 앞서서는 13장의 짐승이 바다에서 올라오는 장면이 적그리스도의 출현이라고 얘기한 적이 있다. 그런데 여기서 하늘에서 별이 떨어지더라라는 표현이 바로 이 용인 것이고 이 용이 짐승에게 권세를 주는 것이다. 한 번 보자.

(1) 다섯째 천사가 나팔을 불 때 내가 보니, 하늘에서 별 하나가 땅에 떨어지는데 그가 끝없이 깊은 구렁의 열쇠를 받더라.

바로 이때가 전삼년반에 적그리스도가 올라오는 때이다. 우리가 앞의 규칙에서 본적이 있었던 적그리스도의 한이레가 시작되는 시점이라는 것이다. 바로 9장은 한이레, 즉 칠년 환란의 시작이면서, 비교적 온난한 환란인 전삼년반이고 한때와 두때와 반때의 성도가 주격인 기간인

것이다. 그것을 앞으로 증명해 나갈테니 기대하시기 바란다. 성경에 크게 적으셔도 좋다. 9장 다섯째나팔 전삼년반의 환란, 한때와 두때와 반때라고 말이다.

미가엘과 용의 전쟁에 관한 것은 후에 하늘의 전쟁이란 란에서 따로 다루도록 하겠다.

(13) 그 용이 자기가 땅으로 쫓겨난 것을 알고서 사내 아이를 출산한 그 여인을 박해하더라.

이 용은 교회를 항상 박해해 왔고 넘어뜨리기 위해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았다. 하나님의 도우심이 없었다면 교회(여인)는 존속하지 못했을 것이다.

(14) 그때 그 여인이 큰 독수리의 두 날개를 받았는데, 이는 그녀가 광야에 있는 자기 처소로 날아가서 그 곳에서 그 뱀의 낫을 피하여 한 때와 두 때와 반 때를 부양받으려 함이더라.

이 한때와 두때와 반때는 한이레중 전 삼년반이다.

(15) 그 뱀이 여인 뒤에다 자기 입에서 물을 홍수같이 쏟아 그 여인을 홍수에 떠내려가게 하려 하되

전삼년반에 이 뱀이 쏟은 물은 앞으로도 확인하면서 알게 되겠지만 희생제와 예물을 금지하는 것과 배도자들을 이용해 교회를 삼키려하는 것등, 교회를 삼키려하는 모든 책략을 얘기한다.

(16) 그 땅이 그 여인을 도와 그 입을 벌려 용이 그 입에서 쏟은 홍수를 삼켜 버리더라.

땅이 입을 벌리는 것은 하나님의 도우심이 있었다는 것을 알려주는 것이다.

그리고 아주 대단한 역사를 우리는 읽어 내려왔다. 이 전삼년반기간 동안에 용은 여인을 괴롭게 하긴 하는데 죽이지는 못하고 박해만 한다. 왜 용은 환란기간인데 여인을 죽이지 못하는 걸까, 그것에 대해 확인도 해볼 겸 전삼년반 기간이라고 분별한 9장 다섯째 나팔로 돌아가 중요한 구절을 가져와 보도록 하자.

(5) 또 그들에게 명령이 내려지기를 그 사람들을 죽이지는 말고 오직 다섯 달 동안 고통만 주라고 하는데, 그 고통은 마치 전같이 사람을 쏘 때의 고통과 같은 것이다.-9장

이 명령은 하나님이 내리는 것으로 보이는데 포인트를 짚자면 앞과 뒤에 아무리 엄청난 설명이 있어도 결론은 이것이다. 죽이지는 말고 다섯달동안 고통만 주라고 하는 것, 따라서 이 전삼년반의 고통이 대단해 보이기는 하지만 성도들을 죽일 수는 없다는 것이다. 이게 포인트다. 그러면 이제 14절로 와서 보자, 그 여인이 큰 독수리의 날개를 받았다고 하고, 이 여인이 한때와 두때와 반때를 부양받는다라고 한다. 독수리의 날개는 출애굽기19장4절에 나와 있듯이 하나님의 도우심, 함께하심을 말하는 것이고, 또 우리는 이 한때와 두때와 반때가 전삼년반, 성도의 때라는 규칙을 기억하고 있다. 따라서 이 한때와 두때와 반때의 전삼년반의 여인은 성도라는 것을 알 수 있고, 15절에 뱀이 홍수를 쏟는다는 것은 15절의 해석에서 말한 그것들을 이용해 여인을 무너뜨리려 한다는 것을 알 수 있게 되는 것이다.

우리가 이절에서 잠깐 생각해야 할 것이 있다. 뭐냐하면 계시록에 물이라고 써 있으면 그냥 물이라고 하면 되지 왜 상징적인 의미를 끼워 넣느냐고 반대하는 것이다. 그러나 계시록은 상징의 홍수다. 그래서 거의 2,000년 가까이 풀리지 않았던 것이고, 이제 풀리는 것은 주님오실 때가 머지 않았다는 신호이고, 준비하고 있으라는 얘기다. 주님은 노아때와 같이 오신다고 하셨다. 지금은 노아때와 같다. 그래서 준비하고 있어야 하는 것이다. 더군다나 이것을 상징으로 해석하지 않으면 이 계시는 앞뒤가 안 맞는 삼류소설책이 되어 버리고 만다. 우리가 이 계시를 믿는 것은 계시의 주체가 바로 하나님이신 예수그리스도이시기 때문이고, 모두가 알다시피 그 분은 영적인 분이시고, 그 계시를 받고 있는 사람은 육적이니, 그 영적인 것을 분별하는 것이

어찌 쉽겠는가, 그리고 그동안 읽기 쉬운 소설책을 좋아하는 사람들의 취향이, 이 계시록을 너무 어렵게 만들어버린 결과가 되어 버리기도 했다.

(17) 그러자 그 용이 여인에게 분노하여 여인의 씨 가운데 남은 자들, 즉 하나님의 계명들을 지키며 예수 그리스도의 증거를 가진 자들과 싸우려고 나가더라.

그리고 이 용이 여인의 남은 자들과 싸우러 나가는 기간은 마흔 두달기간인 후삼년반이다. 왜냐하면 이 구절의 주격은 용이고 그가 힘을 발휘하는 시기는 후삼년반이기 때문이다, 그런데 이 구절에는 또 다른 의미가 숨어있다. 이 용이 그 여인과 계속 싸우지 않고 **왜 여인의 남은 자와 싸우느냐 하는 것이다. 이 여인은 어떻게 되었을까, 의문을 품으시고 이 사실을 잘 기억하고 계시기 바란다.** 여기에는 우리가 아직까진 모르지만 톱니바퀴처럼 맞물려 돌아가는 다니엘과 계시록의 숨겨진 비밀이 담겨있기 때문이다.

## 5. 계시록11장. 두증인

왜 1장이나 5장으로 가지 않고 이번에는 11장으로 왔는지 궁금해 하시는 분들이 많을 것이다. 계시록 11장과 12장은 떨어질 수 없는 형제같은, 자매같은, 남매같은, 쌍둥이같은 조합이라서 그렇다. 11장을 12장이 설명해주고, 12장을 11장이 해석해 준다. 따라서 이 두 장은 떨어질래야 떨어질 수 없는 찰떡궁합인 것이다. 그 이유는 바로 12장의 여인과 11장의 두증인이 일천이백육십일로 묶여 있기 때문인데 그러한 이유로 말미암아서라도 계시록이나 다니엘에 나타나있는 숫자가 더욱 중요한 의미를 지니게 되는 것이다. 하나님께서는 그 어려운 고등수학도 만드셨고 인간들로 하여금 깨우치게 하신 분이시니 이런 정도 째는 쉽게 사용하셨을 것이다. -그럼에도 우린 발견을 못했지만..-, 너무 어려운 수학을 사용하지 않으신 것은 계시하신 것을 민초들이 행여라도 모를까봐 노파심에 쉬운 수인 자연수로 계시하셨을 것이다.

그럼 들어가 보자. 일단 11장의 1절과 2절은 10장에 속해 있으므로 제외하기로 하겠다. 그 이유는 원래 성경이란 것이 장과 절의 구분이 없었는데, 후에 말씀을 볼 때나, 찾을 때의 편리를 위해서 삽입해 놓은 것이다. 그러나 이런 장과 절의 구분도 하나님께서 역사하셨을 것이라고 믿는다. 지금은 쉬운 이해를 위해서 1절과 2절을 보지 않겠다. 그것은 후에 10장을 공부할 때 그 때 같이 연결해서 보는 것이 이해하기가 편할 것이기 때문이다.

(3) 내가 나의 두 증인에게 권세를 주리니, 그러면 그들이 짧은 벼옷을 입고 **일천이백육십 일을 예언**하리라."고 하더라.-계시록11장

(6) 그 여인은 광야로 도망하였는데 그 곳에는 그들이 **그녀를 일천이백육십 일 동안 부양**하려고 하나님께서 그녀를 위하여 마련해 놓으신 곳이 있더라.-계시록12장

지금부터는 11장과 12장을 같이 비교하면서 보게 될 것이다. 꼭 이 날짜 때문에 둘을 같은 짝으로 보는 것은 아니다. 하나님께서는 자신을 삼위로 나타내셨고 그렇게 존재하심을 우리는 알고 있다, 그래서 혹시라도 사랑하는 성도도 세 가지 형태로 표현해놓지 않으셨을까하는 개인적인 분별이 있었다. 그 사랑하는 성도의 표현은 바로 교회, 증인, 여인, 이렇게 세가지로 남겨놓으셨음을 깨닫게 되었을 때, 이 해석에 대해 좀 더 강한 확신을 가지게 되었고, 주님주신 해석이 분명하다는 자신감을 갖는 원동력이 되었던 것이다.

우리는 앞에서 12장을 어느 정도 이해하고 넘어왔다. 그리고 11장 3절 앞 절인 2절에는 마흔 두달이 있다. 우리가 앞에서의 규칙을 봤을 때, 2절의 이 기간은 짐승이나 적그리스도, 그리고 이방인의 기간이라고 배웠기에 그 규칙에 의하면 그 이후에 바로 마지막나팔인 일곱 번째 나팔임으로 주의 진노가 떨어져야 한다. 아직 우리가 알아보진 않았지만, 여섯 번째나팔은 후삼년반이고, 그 후에 일곱 번째나팔은 하나님의 진노이다. 그러면 계시록은 거기서 끝이다.

더 이상 계시할 것이 없어진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 시기를 어느 시기까지는 비밀로 하시기 위해 시기를 살짝 헛갈리게 만들어 놓으셨다. 절을 나눌때, 11장의 시작이 3절부터였다면 어느 정도 분별이 쉬웠을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지금에 와서 들기는 하나 역시 하나님의 섭리라면 누구도 깨닫지 못했을 것이다. 그래서 후삼년반의 기간이 끝나고 난후에, 비로소 교회의 태동을 설명하는 것이다. 교회의 태동은 12장에서는 여인으로 표현되어 있고, 11장에서는 두증인으로 표현되어 있다. 그런데 우리는 이 두증인을 모세와 엘리야라고 하는 해석도 들어봤고, 당시에 나올 새로운 두증인이라는 해석도 들어봤다. 그러나 그렇지 않다. 이 두증인에 대한 설명이 바로 구약의 스가랴서에 나와 있다. 이 증인이 누구인가를 설명하는 11장의 구절과 스가랴서의 구절을 서로 비교해보도록 하자. 계시록11장의 4절과 스가랴4장이다.

(4) 이들은 땅의 하나님 앞에서 있는 **두 올리브 나무이며 두 촛대**니라.-계시록11장

#### 스가랴4장

...

(3) 그 곁에는 **두 올리브 나무**가 있는데, 하나는 그 그릇의 오른편 위에, 또 하나는 그것의 왼편 위에 있다." 하고

....

(11) ○ 그때 내가 그에게 대답하여 말하기를 "**촛대 오른편과 왼편에 있는 이 두 올리브 나무**는 무엇이니까?" 하고

...

(14) 그가 말하기를 "**이들은 두 기름 부음 받은 자들이니, 온 땅의 주 곁에 서 있는 자들이니라.**" 하더라.

이 구절의 일반적인 주석을 보면 대제사장 여호수아와 스룹바벨이라고 나와 있다. 그러나 그건 계시록과의 연관성을 몰랐을 때 하는 얘기이고, 주석과는 상관없이 성경에 나와 있는 해석이 중요하다. 바로 기름부음 받은 자 둘이라고 하고, 온 땅의 주 곁에 서있는 자들이라고 한다. 온땅의 주라고 하신다. 유대인들의 주가 아니고, 이스라엘만의 하나님이 아니고, 온 땅의 주라고 하신다는 거다. 사실 하나님은 세상 어디에나 계신다. 이 말은 세상 어떤 곳에도, 세상 어느 곳에도 하나님이 계시다는 얘기와도 같다. 그분은 무소부재하시며 무소불위하시기 때문이다. 그렇다면 이 두증인은 단 두사람만을 얘기하는 것은 아니라는 얘기가 될 것이다. 바로 주님의 몸된 교회를 이루고 있는 세계의 수많은 성도(교회)들을 지칭하는 것이겠다. 근데 왜 두사람인가? 그건 영어로 치면 이런 거다. 하나는 단수, 둘이상은 복수, 교회는 단수, 그 구성원인 성도는 둘이상의 복수, 이스라엘은 단수, 그 국민은 하나인 단수가 될 수 없듯이, 수많은 성도들을 둘이라는 복수로 표현한 것이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능히 그러실 수 있는 분이 라는 사실을 이미 잘 알고 있다. 그분이 영적인 분이시라는 것을 구약과 신약을 통해서 너무도 잘 알고 있기 때문이다. 그리고 특히나 계시록에서는 너무 문자주의에 치우치지 말아야 한다. 그렇게 하는 순간 해석은 물 건너 가버리고 만다.

(5) 누구든지 **그들을 해치려고 하면 그들의 입에서 불이 나와 그들의 원수를 삼킬지니 누구든지 그들을 해치려고 하면 반드시 이와 같이 죽게 되리라.**

(6) 이들에게는 하늘을 닫는 권세가 있어서 그들이 예언하는 날 동안 **비를 오지 못하게 하고, 물을 피로 변하게 하는 권세도 있어 원하는 때면 언제든지 온갖 재앙으로 땅을 치리**로다.

보라, 이 하나님의 몸된 교회를 누가 감히 멸할 수 있겠는가, 이 교회는 하나님께서 보호하신다. 그래서 그 분이 보호하신다는 표현을 5절과 6절에 하고 계신 것이다. 세상 어떤 사람이 이런 능력을 보유한 적이 있었는가? 없다. 불의 능력을 가졌다고 하는 능력의 중, 엘리야도 입에서 불이 나온 적은 없다. 그는 우리와 성정이 똑같은 사람일 뿐이었다.

(17) **엘리야는 우리와 같은 성정에 속한 사람**이지만 비가 오지 않기를 간절히 기도하였더니 삼 년 육 개월이나 땅에 비가 오지 않았고

(18) 다시 기도하였더니 하늘이 비를 내려 땅이 열매를 내었느니라. -야고보서5장

엘리야가 이런 능력을 보일 수 있었던 것도 하나님께서 함께 하실 때 가능한 일이었지, 그 혼자의 힘으로는 절대 불가능한 일이었음을 우리는 익히 알고 있다. 그렇다면 “말세니까 특별히 이런 능력의 종이가 나타날 수 있는 것이 아닌가”, 하는 주장은 하나님의 섭리를 생각한다면 있을 수 없는 일이라는 것을 자연스럽게 알 수 있을 것이다. 그 능력의 종이라는 엘리야도 너무 힘들어서 로렘나무아래서 죽기를 구했음을 안다면 말세에 이런 하나님의 능력을 가진 증인이 나올 거라고 믿는다는 자체가 하나님의 방법을 너무 모르기 때문이 아닐까 싶다. 하나님께서는 그런 식으로 특별한 능력을 주신 종을 사용하지 않으신다. 예수님의 12제자를 봐도 그렇지 않은가, 그런데 그날이라고 해서 특별히 그런 증인을 쓰신다는 것은 하나님의 하시고자 하는 계획들을 올바르게 분별하지 못하는 일이라고 본다. 그 당시에 엘리야나 엘리사등 선지자들과 열두사도들이 그런 능력을 보여야만 했던 것은, 하나님께서 천지의 주재이심을 증명하기 위해서 당연히 그렇게 하셨던 것일 뿐, 지금은 그런 표적이 필요 없는 시대이다. 왜냐하면 우리에게 이미 완성된 성경이 있기 때문이다. 누구나 간절히 바라고 연구하면 하나님의 뜻을 분별할 수 있고 그분의 살아계심도 알 수 있으니 말이다. 지금은 과거처럼 표적을 구하는 세대가 아니고 말씀과 믿음으로 하나님을 찾는 시대이다.

(7) 또 그들이 자기들의 증거를 끝마칠 즈음에 끝없이 깊은 구렁에서 올라온 짐승이 그들과 전쟁을 하여 그들을 이기고 또 죽이리라.

이 상황은 규칙에 의해 짐승이 주격이므로 후삼년반상황이기도 하고 또 마흔두달상황이기도 하다. 그리고 일천이백육십일 동안 이 증인들은 증거를 한다. 이들이 무엇을 증거하는것인지는 계시록6장에 나와 있다.

(9) 어린 양이 다섯째 봉인을 여실 때 내가 보니, 제단 아래에는 **하나님의 말씀과 그들이 가진 증거 때문에 죽임 당한 자들의 혼들이** 있는데...

이 9절의 상황은 후삼년반중에 하늘에서 일어나는 일이다. 바로 하나님의 말씀과 그들이 가진 증거때문인 것이다. 이렇게 왔다갔다하면서 끼워 맞추는 것을 잘 보셔야 한다. 이렇듯 해답은 곳곳에 분산되어 숨어있다. 그런데 억지로 끼워 맞추는 것이 아니라 그것이 확실하다는 근거가 있어야 한다. 그 방법이 바로 이 시기가 어느 시기에 관련된 것인가가 머릿속에 확연히 그려질 때라야 만이 가능한 것이다. 그런 이유로 계시록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바로 시기(시간)라고 하는 것이다. 첫 번째나팔이 어느 시기이고, 두 번째나팔이 어느시기이며, 세 번째, 네 번째, 다섯 번째, 여섯 번째, 일곱번째나팔이 어느 시기인줄만 알면 정리가 가능하며 누구도 부정할 수 없는 증거를 스스로 가지게 될 것이다. 또 그 증거는 객관적으로나 과학적으로 한 점 틀림이 없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어야하며, 그 확신을 하나님께서는 더 많은 증거를 발견케 하심으로 증거해 주실 것이다.

(8) 그리하여 그들의 죽은 몸들이 큰 도성의 길거리에 놓이리니, 그 곳을 영적으로는 소돔과 이집트라고 부르며 우리 주께서 십자가에 처형되신 곳이라.

이 장소는 온 세상을 얘기하거나, 그것이 아니라면 사탄의 세력이 있는 어떤 장소일 수 있다. 그들의 시체를 보관해놓는 어떤 수용소를 얘기할 수 있다는 것이다. 왜냐하면 11절에서 그들이 살아나는 것을 바라보는 자들이 있기 때문이다. 이것은 이들의 시체를 누군가가 주목하고 있거나 또 관리하고 있었다는 사실을 증거하는 것이고, 그 세력들은 이제 주님이 오실 때가 얼마 남지 않았음과 동시에 자신들의 심판날이 얼마 남지 않은 것을 알고 두려움에 떨었을 것이다.

(9) 또 백성들과 족속들과 언어들과 민족들 중에서 온 사람들이 그들의 죽은 몸들을 사흘 반 동안 구경하며 그 죽은 몸들을 무덤에 장사하는 것을 허락하지 아니하리라.

(10) 땅에 사는 자들은 그들로 인하여 즐거워하고 또 기뻐하며 서로 선물을 보내리니 이는 이 두 선지자가 땅에 사는 자들을 괴롭게 하였기 때문이다.

이 괴롭게 했다는 사실은 이들이 세상 사람들과 연합하지 않고, 오직 하나님만 모시는 고집불통들이었음을 말해준다 하겠다. 수많은 종교들 중에 세계가 하나되는 종교연합에 반대하는 종교는 오직 기독교뿐이다. 필경 그것이 성도들이 세상에서 미움받는 가장 큰 이유일 것이다. 그러나 기독교인들은 그런 것에 개의치 않는다. 세상사람들과의 연합보다는 하나님과의 연합을 더 중요시하기 때문이다.

(11) 사흘 반 후에 하나님께로부터 온 그 생명의 영이 그들에게로 들어가니 그들이 자기 발로 서더라. 그러자 그들을 바라보던 자들에게 큰 두려움이 임하더라.

### 8절 참조.

(12) 그들이 하늘로부터 나는 큰 음성을 들었는데 그들에게 말하기를 "이리 올라오라." 하므로, 그들이 구름을 타고 하늘로 올라가니 그들의 원수들이 그들을 바라보더라.

또 이 두증인이 올라가는 계시록14장에서 천사가 예리한 낫으로 곡식을 수확하는 장면과 시기적으로 같다. 6장에서도 유리바다에 증거를 가지고 죽은 혼들과도 후삼년반중의 시기가 같다. 그러므로 이 세편의 장면들은 후 삼년반에 일어날 시간들과 장면들임을 알 수 있다. 아직은 처음이라 이것이 눈에 들어오지 않을 것이다. 그러나 걱정할 필요는 없다. 앞으로 계속 증명해 나갈 것이며 확인할 수 있을 것이기 때문이다.

(13) 또 같은 시간에 큰 지진이 일어나서 도성의 십분의 일이 무너지니 그 지진으로 죽은 사람들이 칠천 명이었더라. 남은 자들은 무서워하며 하늘의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더라.

이 장면은 앞서 얘기한 계시록14장에서 곡식이 수확되고 난 이후에, 또 다른 천사에 의해 수확된 포도즙들에 짓밟히는 포도송이이다. 14장을 보자

(18) 불을 다스리는 권세를 가진 또 한 천사가 제단에서 나와 예리한 낫을 가진 자에게 큰 소리로 외쳐 말하기를 "너의 예리한 낫을 대어 땅의 포도송이를 거두라. 이는 그 포도들이 다 익었음이라."고 하더라.

이 포도송이는 악인이다. 아마도 두증인들의 죽은 몸을 감시하고 있었던 어느 공간(수용소)의 개들(악인들, 배도자들)이 아니었을까 분별하고 있다. 다른 의미로 본다면 13절에 도성의 십분의 일이라 하는 것은 용이 만들었고, 음녀가 관리하는 어떤 종교를 얘기하는 것일 수도 있다. 왜냐하면 계시록17장에 큰 도성의 의미는 가증한 종교들의 어미인 음녀이기 때문이다. 이 음녀의 이 때쯤 무너진 성, 십분의 일은 사소한 일일 것이다. 그러나 작은 것이 곧 큰 화를 불러온다는 법을 잊어선 안될 것이다. 그리고 이후에 실제로 하나님의 진노의 일곱 대접이 쏟아지기 때문이다.

(14) 둘째 화는 지나갔으나, 보라, 셋째 화가 속히 오리라.

이 장면이 후삼년반임을 증명하는 14절이다. 첫째화는 전삼년반, 그리고 둘째화는 실로 엄청난 환란의 후삼년반, 그리고 셋째화는 하나님의 진노의 대접이 쏟아지는 일곱 번째 마지막나팔이다. 날짜로는 45일간의 진노가 떨어지고 난 이후에 주님께서 재림하신다. 이 45일은 후에 다시 다니엘과 계시록의 숫자를 계산함으로 알아 볼 것이다. 하나님의 진노가 쏟아지고 난 이

후에 비로소 주님 말씀하신 대환란이 마무리 된다고 할 수 있다. 그런데 이 기간이 줄어들지 않으면 구원받을 육체가 없다고 하신다. 실로 짐승들에 의한 기독인들의 대학살이 시작되는 것이다. 그 때는 어떤 법이나 질서도 소용이 없을 것이다. 무법이 판을 치고, 짐승경태가 마치 당연한 듯, 우상숭배가 믿지 않는 자들 안에서 일어날 것이다. 성도들은 외로울 것이고, 심지어 가족들에게 버림받는 사태마저도 각오해야 할 것이다.

(21) 또 형제가 형제를, 아버가 자식을 죽음에 내어주며, 자식들이 부모를 대적하고 일어나 부모를 죽게 하리라.

(22) 또 너희는 내 이름으로 인하여 모든 사람으로부터 미움을 받을 것이라. 그러나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마태복음10장

(20) 너희는 피난하는 일이 겨울에나 안식일에 일어나지 않도록 기도하라.

(21) 이는 그 때에 대환란이 있으리니, 그와 같은 것은 세상이 시작된 이후로 지금까지 없었으며, 또 결코 없을 것이기 때문이다.

(22) 만일 그 날들이 단축되지 아니하면 어떤 육체도 구원받지 못하리라. 그러나 택함 받은 사람들을 위하여 그 날들이 단축될 것이라. -마태복음24장

하나님의 말씀이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다. 이 책에서 어떤 공포를 조장하려고 하는 것이 아님은 성경을 한번이라도 읽어보신 분들은 아실 것이라 생각한다. 믿는 성도라면 항상 준비하고 있어야 한다. 주님은 노아때처럼, 그리고 도둑처럼 오실 것이다. 그 뚫는 경점을 주시하기위해 항상 깨어 있어야만 한다.

이상으로 12장과 11장에 대한 간단한 신고식을 마쳤다. 처음 듣는 얘기들이 많아 여러분께서는 머리가 복잡하실 것이다.

간략하게 다시 한번 정리하자면,

이 세상에는 앞으로 적그리스도가 권세를 잡아 세상을 통치하는 한이레, 즉 칠년이란 환란기간이 오게 되는데, 그 전삼년반은 성도의 때로서 비교적 견딜만한 환란기이고, 후삼년반은 짐승의 때로서 주님께서도 말씀하셨듯이 신자로서는 견디기 힘든 참으로 혹독한 대환란이 오게 된다는 것이다. 그리고 그 후삼년반의 기간이 끝나면 다시 하나님의 진노의 대접이 45일간 이 땅에 쏟아지고, 음녀가 멸망을 받으며, 대지진이 일어나고, 짐승의 세력이 주님과 대항하기위해 아마겟돈에 모일 때, 비로소 주님이 재림하시면서 그 악한 세력을 물리치심으로 대환란은 끝이 나게 될 것이다. 그리고 그 때 벌어지는 1차심판에 의해 짐승과 그를 따르는 무리들이 불못에 던져지게 되고, 그 후에야 비로소 기다리고 기다리던 천년동안의 왕국이 주님과 함께 이 땅에 펼쳐지게 되는 것이다. 이것이 큰 틀이다. 이것만 주지하고 있다면 어려울 것은 없다. 나머지는 계시록의 각각의 장들이 어느 시기에 속하는지만 알면 간단하게 정리가 될 것이다. 이 큰 그림을 꼭 기억하시기 바란다.

## 6. 계시록 6장, 봉인재앙

우리는 앞에서 11장과 12장에서 말씀하시는바가, 예수그리스도의 부활승천을 기점으로, 은혜의 시대이며 교회시대인 1,260일이 개막된다고 하는 것을 알아본 바가 있다. 그런 장이 또 하나가 있는데 그것이 바로 이 6장이다. 이 6장과 11장과 12장, 이 세장이 모여 하나를 이룬다. 하나님께서 삼위이심을 증명하듯이 말이다. 신기한 일이다. 그런데 이 6장은 참으로 많은

해석가들에 의해 곡해되어 왔다. 지금부터가 정말 중요한 장이니 확실하게 알고 넘어가도록 하자. 이 장은 영적인 장의 시작이기도 하거니와 복음의 사역과 심판이 어떻게 진행되어 가는가를 보여주는 압축장이며, 계시록의 뼈대를 이루는, 시간과 내용의 시놉시스라는 것을 해석 중에 알게 될 것이다.

## 1) 흰말을 탄자.

(1) 또 그 어린 양이 그 봉인 가운데 하나를 여실 때 내가 보고, 내가 들으니 네 생물 가운데 하나가 천둥 같은 소리로 말하기를 "와서 보라." 하기에

(2) 내가 보니, 보라, 흰 말 한 마리가 있는데 그 위에 탄 자가 활을 가졌더라. 그에게 한 면류관이 주어졌고 그는 나가서 정복하고 정복하려 하더라.

이 흰 말을 탄자가 관건이다. 이 흰말탄자에 대해서는 첫 부분에 잠깐 언급한 적이 있음을 알 것이다. 그러므로 이 장에서는 이 흰말탄자가 예수그리스도임을 증명하고, 그 이후에 말탄자들의 속성을 알아보면서 왜 이 흰말탄자가 예수그리스도인가를 설명하도록 하겠다. 다른 해석가들이 이 흰말탄자를 적그리스도로 보는 이유에 대해서는 앞에 설명한 그대로이다. 그래서 본인은 이 흰말탄자가 예수그리스도임을 네가지의 이유를 들어 반론을 하겠다.

### 첫 번째,

계시록 19장에 주님 재림하실 때 흰말을 타고 오신다는 말씀이 있다. 물론 상징적인 의미일 것이다.

(11) 또 내가 하늘이 열린 것을 보니 **흰 말이 보이더라. 그 위에 앉으신 분은** 신실과 진실이라 불리며 의로 심판하고 싸우시더라.

이 말을 타신 분이 바로 재림주이신 우리주 예수그리스도이시다. 사탄은 어디에서도 흰말을 타거나 탄다라는 것으로 표현된 적이 없다. 따라서 이 흰말을 탄자는 무조건 예수그리스도이다.

### 두 번째,

예수그리스도께서 활을 가지셨다는것도 역시 상징적인 표현이긴 하지만 시편에 등장한다.

#### 시편 7편

(12) 그가 돌아키지 아니하면 그 분께서 자기의 칼을 가실 것이니, **그 분께서 활을 당기어 준비하셨도다.**

#### 또 시편 21편

(12) 그러므로 주께서 그들을 돌아서게 하시리니, **주께서 그들의 얼굴을 향하여 활시위를 당기시리이다.**

그리고 세 번째는 면류관이다. 사탄도 면류관이 주어지긴 했었다. 짐승의 정체에 대해 알아볼 때 나올 머리가 일곱이고 열뿔을 가진 짐승말이다.

(1) 내가 바닷가 모래 위에 서서 보니, 한 짐승이 바다에서 올라오는데 일곱 머리와 열 뿔을 가졌더라. 그 뿔들에는 **열 개의 왕관**이 있고 그 머리들에는 하나님을 모독하는 이름이 있더라. -계시록 13장.

이 짐승은 용의 권세를 받기 때문에 적그리스도이지만 용처럼 묘사되고 있음을 간과해서는 안 된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사탄이 진정한 승리는 거두지 못했음을 우리는 알고

있다. 따라서 이 흰말탄자의 면류관은 의심할 바 없는 진정한 십자가의 승리를 의미하는 것으로 봐야 할 것이다.

네 번째,

정복하고 정복하려 하더라. 이 말의 의미는 복음을 주신 예수님의 사역이 제자들과 성도들을 통해 온세상 끝까지 전파되어 간다라는것을 의미한다. 혹자는 이것을 욕심 많다고 표현하기도 하나 복음이 땅끝까지 이루어지는 역사는 욕심과 그 나라에 대한 소망이 없다면 불가능한 일이다. 이사야 42장이다.

(4) 그가 땅에 심판을 세우기까지는 쇠하거나 낙담하지 아니할 것이니, 심들이 그의 율법을 기다리리라.

**그리고 이 절을 인용한 12제자중 마태사도의 복음이다. 12장.**

(20) 상한 갈대를 꺾지 아니할 것이며, 연기나는 심지도 끄지 아니하리니, 그가 심판하여 승리할 때까지 하리라.

이 두 구절의 말씀은 뉘앙스는 조금 다를지 모르지만 결국 뜻하는 의미는 같다. 심판이라 함은 주님께서 초림하시고 복음을 전하사 전파케하시고 이 땅에 왕으로 다시 재림하신후에 악의 세력을 심판하실 것임을 말씀함이오, 또 그가 심판하여 승리할 때까지 하리라는 마태복음의 말씀은 그의 복음사역이 승리하는 그날까지 지속될 것이라는 말씀이 아니면 그 무엇이란 말인가, 따라서 승리할 때까지라는 말씀과 정복하고 정복하려한다는 말씀은 같은 의미로 볼 수 있는 것이다. 이것으로 흰말을 탄자가 예수그리스도임을 증거했으나 미심쩍은 분들은 다음 해석에 집중하시기 바란다. 이후 붉은말을 탄자와 검은말을 탄자, 창백한 말을 탄자의 해석을 보시면 이 해석에 대한 감을 잡으실 것이다.

## 2) 붉은말을 탄자

(3) 어린 양이 둘째 봉인을 여실 때 내가 들으니 둘째 생물이 말하기를 "와서 보라." 하더라.

(4) 이에 붉은 다른 말이 나오는데 그 위에 앉은 자에게 땅에서 평화를 제거하는 권세가 주어졌으니 그들이 서로 죽이더라. 또 그에게 큰 칼도 주어졌더라.

이 붉은 말을 탄자는 사탄이다. 예수그리스도의 공생애때 잠시 물러났던 사탄은 이제 본격적으로 평화를 제거하고 복음을 허물어뜨리는 자신의 역할을 충실히 감당하며 마수를 드러내기 시작한다. 이 말씀은 예수그리스도의 설교중에도 언뜻 드러내신 적이 있다.

(34) 내가 세상에 화평을 주러 온 줄 생각하지 말라. 나는 화평을 주러 온 것이 아니라 칼을 주러 왔노라. -마태복음10장

이 칼을 누구에게 주시는가, 바로 사탄에게 주는 것이다. 따라서 사탄조차도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들어있음을 알 수 있다. 그런데 우리는 그동안 이 칼을 이러한 뜻으로 해석하지 않았고 일반적인 전쟁의 뜻으로 받아들여 왔다. 주님오실 때가 되었으므로, 이제 그런 일반적인 뜻이 아니고 이렇듯 실체가 있는 것임을 계시록을 통해 알게 된 것이다. 예수그리스도이후 칼을 받은 사탄은 이 땅에 화평을 제하고 성도를 넘어뜨리는 권세를 허락받게 된 것이다.

그렇다면 이제 지금까지의 해석을 다시 한번 점검을 하도록 해보자.

예수그리스도의 복음선포이후 그 복음은 땅 끝까지 전파되어 나가려고 한다. 그러자 뒤이어 등장한 사탄은 복음전파의 사역을 방해하기위해 세상곳곳에서 전쟁을 일으키기도 하고, 구원을 방해하고 교회의 변질을 피하기 위해 갖은 술수와 음모를 부리며, 세상을 조종함으로써 사람들로 하여금 올바른 복음을 접하지 못하도록 끊임없이 危害(위해)를 가한다. 성경구절을 바

꾸기도하고 빼기도하며서 變改(변개)를 시키는 것이다. 또한 迷惑(미혹)과 魔術(마술)로 성경을 보지 못하도록 땅의 민족들을 속이는 것이며, 그것이 바로 사탄이 맡은 역할인 것이다.

하나님께서 관심있는 것은 바로 하늘의 백성들인 교회요, 성도들이다. 그래서 그것에 관련된 것들을 계시록에 기록해 놓은 것이지, 성 밖에 있는 자들은 이방인으로 치부할 뿐이요, 더더군다나 하나님의 주의를 끌지 못한다. 마지막으로 이 붉은 말을 탄자가 사탄이라고 분별해야만 했던 한 가지 주장을 더 하고 이 장을 마치도록 하겠다.

(3) 하늘에 또 다른 이적이 보이니 보라 한 큰 붉은 용이 있어 머리가 일곱이요 뿔이 열이라 그 여러 머리에 일곱 면류관이 있는데

이 붉은 용은 사탄이다. 붉은색의 용이니까 붉은 말을 탄자가 사탄이라고 주장하는거냐며 웃는 분이 있을 수도 있겠다. 그러나 한번 생각해 보자, 하고 많은 색중에 하필 이 용이 붉은 용이라고 하실 이유가 뭐냐 말이다. 붉은색은 피와 전쟁을 뜻하는 것이 분명할 것이다. 그리고 그 실체가 사탄이 아니라면, 하나님께서 누구에게 그러한 권세를 허락하시겠는가, 사탄처럼 하나님께 불순종하는 영이 또 있더라 말인가, 하나님께서는 그를 통해 성도들을 연단시키기로 결정하셨고, 그러한 결정을 통해 당신의 백성들을 선택하시는 것이다. 스가랴13장이다.

(9) 내가 그 삼분지 일을 불 가운데 던져 은같이 연단하며 금 같이 시험할 것이라 그들이 내 이름을 부르리니 내가 들을 것이며 나는 말하기를 이는 내 백성이라 할 것이요 그들은 말하기를 여호와와 내 하나님이라 하리라

이 구절이 어느 때를 뜻하는 것인지는 중요하지 않다. 그저 이렇게 연단시키신다는 것이 중요하다. 따라서 이 붉은말을 탄자의 역할은 예수그리스도의 복음과 교회이후 사탄의 등장-교회의 박해, 혹은 교리의 변개, 이런 그림을 그려나간다고 보는 것이 역사적으로나 교리적으로나 큰 무리없이 올바른 해석을 하는 지혜라 할 수 있을 것이다.

### 3) 검은말을 탄자

말도 많고 탈도 많은 검은말을 탄자가 드디어 등장을 했다. 많은 해석가들이 해석하듯 이 검은말을 탄자가 기아(굶주림)를 몰고온다라고 생각하기에는 뒤에 나오는 칼과 굶주림을 동반한 창백한 말을 탄자의 포스가 너무 강해서 이 검은말을 탄자의 기세가 묻혀버리는 해석이 나오게 됨을 보고 그 해석이 좋아 보이기는 하지만 너무 단순하다라는 생각이 들었다. 그래서 그건 아닐것이다라는 생각이 들었던 것이다. 일단 한 번 읽어 보도록 하자.

(5) 어린 양이 셋째 봉인을 여실 때 내가 들으니 셋째 생물이 말하기를 "와서 보라." 하더라. 그리하여 내가 보니, 보라, 검은 말 한 마리가 있는데 그 위에 탄 자가 그의 손에 저울을 가졌더라.

(6) 그때 네 짐승들의 한가운데서 한 음성을 들었는데, 말하기를 "밀 한 되가 한 데나리온이요, 보리 석 되가 한 데나리온이라." 하고 또 "너는 기름과 포도주는 손상시키지 말라." 하더라.

붉은말을 탄자는 칼을 받았었는데 이 검은말을 탄자가 가지고 있는 것은 저울이다. 저울은 아시다시피 무엇인가를 재는 역할을 한다. 그렇다면 이 자는 무엇을 재겠는가, 돈의 무게를 재겠는가, 아니면 금이나 은의 무게를 재겠는가, 하나님앞에 이런 재물이 왜 필요가 있는가, 하나님께서 관심있는 것이 이런 물질이나 재물이었던가? 해서 저울로 무엇을 재나 보니 밀과 보리인 곡식을 재고 있고 그 값을 얘기하고 있다. 한 데나리온이라하면 노동자의 하루 품값이다. 그 하루품값으로 살 수 있는 양이 4인가족 간신히 한끼분량의 밀과 보리이다. 백번양보해

서 이 밀과 보리가 가격이 급등해서 그렇게 비싼 가격대를 형성하고 있다고 치자. 그렇다고 하더라도 사실 아프리카등 빈민국에서는 예전부터 많은 사람들이 굶주림으로 죽어왔고 지금도 죽어가고 있다. 그런 현실들은 무시하고 잘사는 나라들만 기준으로 해서 이 당시에 곡식 값이 비싸지는 것이고, 그래서 중진국이상의 국민들도 많이 굶어죽을 것이라고 해석하는 것은 너무나 일방적인 아전인수격의 해석이 되지는 않나 생각해봐야 할 문제는 아니겠는가, 이 계시록이 부유한나라만을 위해 주어졌던가, 아닐 것이다. 그렇지 않을 것임을 주의 모든 백성들은 알고 있다. 하나님은 가난한자나 고아와 과부들을 불쌍히 여기시며 어린영혼들을 사랑하시고, 그런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시기위해 이 땅에 오셨고, 또 그런 그들을 위해 이 계시록을 기록하신 것이다. 따라서 이 검은말을 탄자가 기아를 물고오는 것이라고 해석하는 것은 우리에게 주어진 복음이나 세계역사를 주장해 가시는 하나님의 섭리를 이해하지 못하는 발상에서 출발한 것이라고 볼 수 밖에 없다. 그러므로 이제 이 검은말을 탄자의 해석은 다시 시도되어야만 한다.

우리는 항상 하나님께서 무엇을 중심으로 생각하고 계신지 알아야하고, 이미 알고 있다. 바로 그분의 백성인 성도라는 것, 따라서 이 저울은 믿지 않는 자들과 믿는 자들을 나누는 역할, 즉 성도와 비성도를 나누는 역할을 해야 한다고 봐야 함이 옳을 것이다. 여기서 더 한 발자욱 진보된 형태의 해석이라면 믿음의 경중을 달아 상급을 결정짓는 역할이라고 볼 수도 있을 것이다. 그렇게 해석될 수 있다면 이 저울의 역할은 믿음의 경중을 재는 것이라고 할 수 있겠다. 그럼 믿음의 경중을 재는데 이 한테나리온의 값은 무엇이겠는가, 그것은 바로 우리를 사신 예수님의 피값일 것이다. 그 보혈의 피값으로 교회는 세워진 것이고, 그 교회의 구성원인 성도 또한 예수님의 피값으로 지불되어졌고, 그로 말미암아 완전히 죽을 수 밖에 없었던 성도를 사셨고 영원한 생명으로 인도하신 것이다. 그 구원의 의미가 바로 한테나리온의 곡식인 것이고, 곧 곡식과 알곡인 성도를 결정하는 역할이 이 저울의 의미인 것이다.

아마도 이 구절이 잘 이해되지 않으실 분들이 많이 계실 줄 믿는다, 그러하다면 이 글을 몇 번 정도 다시 읽어보면서 이해를 해주셨으면 한다. 또 이렇게 해석을 했던 결정적인 증거의 하나는 이 검은말을 탄자의 역할을 설명해주는 소리가 하늘의 네 짐승들中(중)에서 나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이 검은말을 탄자가 하는 역할은 하늘의 명령을 받았음이 確實(확실)하다는 證據(증거)라고 볼 수 있었던 것이다.

기름과 포도주의 의미는 우리가 전 장인 두증인에서 살펴본 바와 같다. 기름이란 기름부음 받은 종, 택함받은 종을 의미하는 것이라고 볼 수있겠다고, 포도주는 기름부음받은 종과는 반대의 세력을 의미한다. 주님께서 이런 자들은 마지막 심판의 날까지 판결을 유보하신다는 의미이다.

(41) 그가 또 영화로운 땅에 들어갈 것이요 많은 나라를 패망케 할 것이나 오직 **에돔과 모압과 암몬 자손의 존귀한 자들은 그 손에서 벗어나리라** -다니엘11장

에돔과 모압과 암몬자손은 하나님앞에 가증한 자들이다, 그런데 오히려 이런 자들이 패망케 하는 자의 손에서 피할 것이라고 말씀하신 것이다. 역시 이들의 심판은 하나님손에서 이루어지게 될 것이라는 의미를 內包(내포)하고 있는 구절이다. 따라서 이 구절의 해석은 하나님께서 택하신 종들이나 혹은 그렇지 않고 죄가 밝히 드러난 죄인들은 따로 하나님께서 상급을 주시거나 심판을 내리시겠다는 의미로 볼 수 있다. 이것에 대한 증거는 이런 구절에서 짐작해 볼 수 있다.

디모테전서 5장

....

(24) 어떤 사람들의 죄는 밝히 드러나 **먼저 심판에 나아가고** 어떤 사람들의 죄는 그 뒤를 쫓나니

(25) 이와 같이 선행도 밝히 드러나고 그렇지 아니한 것도 숨길 수 없느니라

이와같이 이런 말씀만으로도 모든 예비하신 것들이 단순하게 천편일률적으로 진행되는 것이 아님을 알 수 있다. 우리의 생각과 하나님의 생각은 다르다.

#### 하나님의 미련한 것이 사람보다 지혜 있고 하나님의 약한 것이 사람보다 강하니라

-고전1장25절

사람은 단순하게 만들고 싶어 하지만, 하나님의 가장 단순한 것이 인간에게는 가장 복잡한 일이라는 것이다. 그러므로 **말씀에 근거하지 않은, 사람의 생각으로 하나님의 일을 먼저 速斷(속단)하거나 判斷(판단)하는일은 止揚(지양)해야 할 것이다.**

#### 4) 창백한 말을 탄자

드디어 기다리고 기다리던 자가 나타났다, 이자가 바로 한이레의 약속을 받고, 바다에서 올라오는 짐승인 적그리스도이다. 확인해보자.

(7) 어린 양이 넷째 봉인을 여실 때 내가 넷째 생물의 음성을 들었는데, 말하기를 "와서 보라." 하더라.

(8) 이에 내가 보니, 보라, 창백한 말 한 마리가 있는데 그 위에 탄 자의 이름은 사망이요 지옥이 그 뒤를 따르니, 그들이 땅의 사분의 일을 다스릴 권능을 받아 칼과 굶주림과 사망과 땅의 짐승들로 죽이더라.- **개역, 킹제임스흠정역** (킹제임스는 번역에 오류 있음)

땅의 사분의 일이란 후삼년반에 죽는 성도의 수를 얘기하는 듯 하다, 지금까지 분별된 바로는 네교회가 그 기간중, 곧 후삼년반에 순교를 하게 되는데. 그 수는 사역으로 분별된다. 그 중에 사분의 일인 일억명의 성도를 이 짐승들, 즉 적그리스도를 중심으로 한 거짓선지자와 열왕들이 죽이게 되는 것으로 보인다. 그렇다면 나머지 삼억정도의 성도들은 어떻게 순교하게 되겠는가, 그건 계시록9장에서 알아보기로 하고 일단 넘어가자.

이 자에게 주어진 것은 칼과 굶주림과 사망과 땅의 짐승들이다, 우리는 앞에서 칼을 가진 자가 누구인지 알아본 바 있다. 그리고 그 칼은 땅에서 평화를 제거하는 권세이다. 그런데용이 자신이 받은 그 권세를 누구에게 주는가를 알아보자.

(2) 또 내가 본 그 짐승은 표범과 같고, 발은 곰의 발 같고, 입은 사자의 입 같은데, **용이 자기의 능력과 자리와 큰 권세를 그 짐승에게 주더라.** -계시록13장

이렇듯 용(사탄)은 자신의 능력과 큰 권세를 짐승에게 준다, 그리고 바로 이 짐승이 우리가 기다리고 있는 적그리스도라는 것은 이미 알고 있다. 그런데 그에게 그것 말고도 주어진 것이 또 있다. 무엇인가보자, 굶주림과 사망과 땅의 짐승들이다. 굶주림(기아)으로 사람을 죽일 수 있는 권세와, 그리고 여기는 가리워졌으므로 표기되어 있지는 않지만 자신을 경배하지 않는 성도들을 죽일 수 있는 권세(사망), 그리고 땅의 짐승들이라고 표현된 13장11절에 땅에서 올라와 힘을 합치는 거짓선지자와 마지막 때 한시간 동안 권력을 받는 열왕등이 있다. 이렇듯 그에게 주어지는 것은 막강한 것들이고, 이러한 것들을 도구로 삼아 성도들을 죽일 것이다. 따라서 그 때문에 주님의 증언을 지키고자 목숨을 버리는 순교자들이 양산될 것이며, 이 짐승들을 무기로 땅에 대환란을 일으킬 권세가, 적그리스도가 가진 또 다른 도구인 것이다. 이는 결국 이 땅에 대환란이 올 수 밖에 없는 필연적인 결과로 나타나게 될 것이다. 이날들이 감해지지 아니하면 구원받을 육체가 없다고 하셨으니 얼마나 큰 患亂(환란)일지는 그저 짐작만 해볼 수 있을 뿐이다.

이로써 네종류의 말을 탄자에 대한 分別(분별)을 모두 마친다. 同意(동의)할 수 없는 분들도 있을거라 생각한다. 그러나 본인은 앞으로 이것이 옳다는 것을 계속 증명해 나갈 것이니 速斷(속단)은 하지 마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동안 들어왔던 계시록 해석은 잠시 잊으시고 이 해석을 처음 본다는 기분으로 연구하시다보면 좋은 결과를 얻으실 수 있으리라 믿어 의심치 않는다.

## 5)다섯째봉인, 제단아래 죽임 당한자들의 혼들

이제 우리는 넷째봉인의 적그리스도가 전삼년반에 드러남으로 다섯째봉인에서는 대환란의 중심인 후삼년반의 중반에 들어와 있다. 이 때에는 우리가 앞서도 알아봤지만 그에게 주어진 도구들, 즉 칼과 굶주림과 사망과 짐승들로 인해 죽어가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유추해낼 수 있겠다. 그러므로써 대환란기간중에 하나님의 말씀과 그들이 가진 증거 때문에 죽임을 당할 수 밖에 없었던 證人(증인)들의 혼을 하나님의 寶座(보좌)앞, 祭壇(제단)아래에서 만나볼 수 있게 된 것이다.

(9) 어린 양이 다섯째 封印(봉인)을 여실 때 내가 보니, 제단 아래에는 하나님의 말씀과 그들이 가진 증거 때문에 죽임 당한 자들의 혼들이 있는데

(10) 그들이 큰 음성으로 울부짖으며 말하기를 "오 기록하시고 참되신 주여, 땅에 살고 있는 그들을 심판하시어 우리의 피를 갚아 주실 날이 얼마나 남았나이까?" 하더라.

(11) 그러자 그들 각자에게 긴 흰 옷을 주시면서, 그들의 동료 종과 형제도 그들처럼 죽임을 당하여 그 수가 가득 채워질 때까지 잠시만 더 쉬라고 말씀하시더라.

이렇듯 이들은 갖은 모욕과 핍박, 고통가운데 순교하였음을, 자신들의 원수를 갚아달라고, 곧 伸冤(신원)케 해달라고 함으로써 그들의 입으로 증거하고 있다. 억울하게 죽은 영혼들의 成火(성화)에 주님께서도 잠시 기다리라고 하신다. 이제 주의 震怒(진노)가 얼마 남지 않았음을 알 수 있는 다섯째봉인이다.

## 6)여섯째봉인, 하나님의 진노 (곧 마지막 일곱번째나팔의 진노대접)

(12) 또 내가 보니, 어린 양이 여섯째 봉인을 여실 때, 보라, 큰 지진이 나며 해가 머리털로 짠 천같이 검어지고 달은 피처럼 되었으며

(13) 하늘의 별들이 마치 무화과나무가 강한 바람에 흔들려 실익은 무화과가 떨어지듯이 땅에 떨어지며

(14) 하늘은 두루마리같이 말려서 쓸려가고 모든 산과 섬도 각기 제자리에서 옮겨졌으니

(15) 땅의 왕들과 위대한 자들과 부자들과 대장들과 힘 있는 자들과 모든 종과 모든 자유인이 각자 토굴과 산들의 바위틈에 숨어서

(16) 산들과 바위들에게 말하기를 "우리 위에 떨어져서 보좌에 앉으신 분의 얼굴과 어린 양의 진노에서 우리를 숨기라.

(17) 이는 **그분의 진노의 큰 날이 임하였으니 누가 감히 설 수 있으리요?**" 하더라.

17절의 이 한마디가 모든 것을 설명해준다. 바로 후삼년반이후 이 땅에 쏟아지는 하나님의 진노를 표현한 것이다. 이 사실에 대해서는 더 이상 설명이 필요 없을 정도이다. 이것에 대한 자세한 설명은 이후 펼쳐질 나팔제앙에서 다루기로 하고 일단, 이것으로 우리는 첫째봉인 예수그리스도의 복음의 정복사역 시작으로부터 사탄의 방해, 그리고 천사의 저울질로 믿음의 경중이 달리는 상징과 적그리스도의 출현으로 전삼년반의 대환란의 준비과정, 그리고 짐승의 때인 후삼년반 대환란때 성도들의 순교와, 여섯째 봉인인 마지막으로 하나님의 진노가 쏟아지는 장면까지 전체적인 진행과정의 시놉시스를 짚어 왔다. 아직까지 큰 그림을 그린다는 것이 무리인 분들이 많이 계실 것이다. 다음으로 넘어가기 전에 말 한마디도 무심코 넘기지 마시고 되짚어 보시면서 따라오셨으면 하는 바램이다.

하나님께서서는 다니엘서에서 보게 되겠지만 **구절하나**에 전삼년반, 후삼년반 그리고 진노까지 칠년이 넘는 세월을 담으신 적도 있다. 접속사하나에도 몇 년의 세월이 담기게 하실 수 있는 분이시기에 우리가 감당 못할 것이 너무 많다. 천년이 하루같으신 분에게는 그것이 너무도 당연하고 쉬운 일이겠지만 우리는 짧은 인생을 사는 인간이기에 그 분의 단어 한마디라도 소홀히 보면 안 되고, 봐서도 안되는 것이다. 이 계시록은 소설책처럼 쉽게 읽어 나갈 수 있는 책이 아니다. 앞으로 그 이유를 더욱 확실히 알게 되실 것이라 믿으며 이 글을 읽는 성도여러분께 하나님의 동행하심이 있기를 간절히 바란다. 이제 계시록 7장으로 가자.

## 7. 전삼년반末(말)의 십사만사천과 후삼년반末(말)의 순교성도, 들림과 승천

제목에 모든 것을 다 말씀드렸다. 諸位(제위)께서는 그것을 確認(확인)만 하시면 된다.

(1) 이 일들 후에 내가 보니, 네 천사가 땅의 네 모퉁이에 서서, 땅의 사방에서 부는 바람을 붙잡아 그 바람이 땅이나 바다나 어떤 나무에도 불지 못하게 하더라.

**이 바람은 앞으로 우리가 살펴 봐야 할 여섯째나팔의 후삼년반에 모습을 드러낼 9장 14절에 나오는 네천사이다. 한번 보도록 하자. 계시록 9장이다.**

(14) 나팔을 가진 여섯째 천사에게 말하기를 "큰 강 유프라테스에 결박하여 놓은 네 천사를 풀어 주라."고 하니...

**이 천사의 수는 이만만(이억)이고 주의 성도, 삼분의 일을 죽이려고 예비된 자들이다. 그곳에 기록된 사람 삼분의 일이란 바로 주의 백성들을 가리킨다, 그 이유는 9장에서 자세히 설명하면서 알아보도록 하겠다. 7장으로 돌아와서 2절이다.**

(2) 또 내가 보니, 다른 천사가 동쪽에서 올라오는데 살아 계신 하나님의 인장을 가지고 있더라. 그가 땅과 바다를 손상시킬 권세를 받은 네 천사에게 큰 음성으로 소리질러

(3) 말하기를 "우리가 우리 하나님의 종들인 그들의 이마에 인장으로 표시할 때까지 땅이나 바다나 또는 나무들을 손상시키지 말라."고 하더라.

(4) 또 내가 인장으로 표시를 받은 자들의 숫자를 들었는데 이스라엘 자손의 모든 지파에서 십사만 사천 명이 인장으로 표시를 받았더라.

**이 인맞는 장면의 시기를 절대로 무심코 그냥 넘겨선 안 된다. 이 때는 아직 인을 맞기 전이면 서도 동시에 인을 맞고 있는 장면이다. 이것이 중요한 이유는 하나님께서 시험의 때에 넘기지 않고 지켜주신다고 약속하셨던 바로 그 빌라델비아교회이면서, 또 하나님께 선택된 첫 열매이**

기 때문이기도 해서이다. 이들은 전삼년반에는 이 땅에 모든 성도들과 같이 있지만, 그 전삼년 반末(말)인 한때와 두때와 반때末(말)에 들림을 받아 시온산에 거하게 되고 따라서 후삼년반인 마흔두달의 대환란에는 들어가지 않는다. 이것에 대한 것은 9장에서 역시 세가지 증거를 들어 다시 증명하도록 하겠다.

(5) 유다 지파에서 일만 이천 명이 인장으로 표시를 받았고, 르우벤 지파에서 일만 이천명이 인장으로 표시를 받았고, 갓 지파에서 일만 이천 명이 인장으로 표시를 받았고

또 우리가 중요시해야 할 게 한 가지 더 있다. 가장 먼저 언급된 지파가 바로 이 유다지파라는 것을 기억하고 있어야만 한다는 것이다. 이것은 후에 이 구절이 가진 象徴(상징)성이 얼마나 큰가를 알게 되는 試金石(시금석)이 될 것이기 때문이다. 기억하시라, 원래 이스라엘의 장자는 르우벤이다.

(6) 아셀 지파에서 일만 이천 명이 인장으로 표시를 받았고, 납탈리 지파에서 일만 이천명이 인장으로 표시를 받았고, 므낫세 지파에서 일만 이천 명이 인장으로 표시를 받았고

(7) 시므온 지파에서 일만 이천 명이 인장으로 표시를 받았고, 레위 지파에서 일만 이천명이 인장으로 표시를 받았고, 잇사갈 지파에서 일만 이천 명이 인장으로 표시를 받았고,

(8) 스불론 지파에서 일만 이천 명이 인장으로 표시를 받았고, 요셉 지파에서 일만 이천명이 인장으로 표시를 받았고, 베냐민 지파에서 일만 이천 명이 인장으로 표시를 받았더라.

이상 이것이 전삼년반末(말)에 들림받아 나오게 될 십사만사천의 숫자이다. 이들이 어떤 자들인지 한 번 알아보자. 계시록14장이다.

(4) 이들은 여자들과 더불어 더럽혀지지 아니한 자들이니 이는 그들이 동정들임이라. 이들은 어린 양이 어디로 가든지 따라가는 자들로 하나님과 어린 양께 첫 열매들이 되어 사람들 가운데서 구속을 받았느니라.

이들은 童貞(동정)들이고 어린양이 어디로 가든지 따라가는 자들이며, 어린양께 첫 열매들이 된 성도들인 것이다. 그런데 보라, 이들이 첫 열매라면 두 번째 열매도 있을 수 있고, 세 번째 열매도 있을 수 있음을 반증해 주는 것은 아니겠는가, 한번 생각해 보실만한 질문을 던져드린다. 이들의 믿음은 첫 열매임으로 증명하였다시피 어디에 내놔도, 필경 죽음앞에서도 별질되지 않는 믿음을 가졌다는 것을 하나님께서도 인정한 놀라운 믿음의 소유자들인 것이다. 그런데 이것을 받아 들이지 못하는 신도들의 얘기는 어떻게 구원받는 백성에게 차별이 있을 수 있는냐는 것이다. 그러므로 이것은 상징적인 의미일 뿐이므로 십사만사천을 모든 성도들로 봐야한다 라고 주장을 한다. 그러나 그런 인간적인 생각과 대답은 하나님이신 예수님의 말씀에 의해 단호히 거부된다. 거기에 대한것을 아시아의 일곱교회중에 일단 세 곳만 들어 증거하겠다.

서머나교회에 하시는 말씀이다.

(10) 너는 고난받게 될 일들을 전혀 두려워하지 말라. 보라, 마귀가 너희 중 몇 사람을 감옥에 던져서 시련을 당하게 하리니 그러면 너희가 열흘 동안 환란을 받으리라. 죽기까지 신실하라. 그러면 내가 네게 생명의 면류관을 주리라.

이 서머나교회에게는 열흘동안의 완전한 환란이 주어진다. 그리고 죽기까지 신실하면 네게 생명의 면류관을 주실거라 하신다. 이 서머나교회는 대환란에 들어가서 순교하게 된다.

또 빌라델비아교회이다.

(10) 네가 나의 인내의 말을 지켰기 때문에 **나도 시험의 때에 너를 지키리니**, 이는 온 세상에 임하여 땅 위에 사는 사람들을 시험하는 때라.

이들은 서머나교회와 달리 시험의 때에 하나님께서 지켜주신다. 이것이 들림을 당하는 것이던 그렇지 않던 상관없이, 지켜주신다라는 사실을 기억해야 할 것이다. 또 이들에게 하시는 말씀 중에 우리가 기억해야 할 가장 중요한 구절이 있다.

(12) 이기는 자는 내가 내 하나님의 성전에 기둥으로 삼으리니, 그가 결코 다시 나가지 아니 하리라. 또 **내가 그 사람 위에 내 하나님의 이름과 내 하나님의 도성의 이름, 즉 내 하나님으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는 새 예루살렘을 기록하고, 또 나의 새 이름도 그 사람 위에 기록하리라.**

바로 이 말씀이 인맞은 십사만사천을 의미하는 것이라고 보고 있다. 이 구절의 의미에 담긴 뜻이 너무 커서 믿을 수가 없을 것이다. 이들은 가장 먼저 구속받은 첫 열매이며, 동정이며, 하나님께 신실한 자로 인정받은 하나님나라의 기둥들이 되는 것이다. 그리고 이들은 환란에 들어갈 필요가 없고, 또 그 이마에 인을 전삼년반에 이미 맞은 자들인 것이다. 확인해 보자.

계시록9장-전삼년반

...

(4) 그들에게 명령이 내려지기를 땅의 풀이나 또 어떤 푸른 것이나 어떤 나무도 해치지 말고 다만 **그들의 이마에 하나님의 인장으로 표시받지 아니한 사람들만 해치라**고 하더라.

혹시 전삼년반에 성도를 죽일 수 없다는 것을 기억하는가, 이 해치라는 뜻은 이런 뜻을 가지고 있다. 이것에 대한 영문성경의 표기는 hurt이다. 그 뜻은 다음과 같다.

□hurt [h□ : rt] v. (p., pp. ~)

-vt. ① 상처 내다, □을 다치게 하다(wound).

② □에 아픔을 느끼게 하다[주다].

③ (감정을) 상하게 하다(offend); (아무를) 불쾌하게 하다.

④ (비유) 상하게 하다, 해치다.

-vi. ① 고통을 주다.

② 아프다.

③ (미국속어) 궁지에[곤란에] 처해 있다.

□uc0□uc0•be badly [seriously] ~ 중상을 입다.-vt. ①

□uc0□uc0•My head ~s me. 머리가 아프다.②

□uc0□uc0•Is that tight shoe ~ing you [your foot]? 신이 꼭 끼어서 (발이) 아프냐.

□uc0□uc0•? one's reputation 명성을 손상시키다.④

□uc0□uc0•Dirty oil can ~ a car's engine. 더러운 오일은 엔진을 손상시킬 수 있다.

□uc0□uc0•My finger still ~s. 손가락이 아직 아프다.-vi. ②

해치는 것을 죽이는 것이라고 생각하는 분들이 있을까봐 미리 알려드리는 것이다. 따라서 이 빌라델비아교회는 환란에 들지않고 들림받는 십사만사천을 상징하는 교회이다.

그리고 사데교회다.

(2) 깨어 있으라. 그리고 남아 있으나 죽어가는 것들에게 힘을 돋우어 주라. **나는 네 행위가 하나님 앞에 온전함을 발견치 못하였노니**

(3) 그러므로 네가 어떻게 받았으며 또 어떻게 들었는지 기억하고 굳게 지키어 회개하라. 만일 **네가 깨어 있지 아니하면 내가 도둑같이 네게 임하리니 어느 때에 너에게 올 것인지 내가 알지 못하리라.**

이 사데교회에는 행위가 온전하지 못하여 주님께서 계속 책망하신다. 깨어 있으라는 것이다. 약속을 어떻게 들었는지 기억하고 지켜서 회개하라는 것이다. 그렇지 않으면 도적같이 네게 임하여 네가 어찌 될지 모른다고 주의와 경고를 하시는 것이다. 이 사데교회는 주님께로써 휴거되는 교회로 분별한다. 이것에 대한 증거는 교회에 대한 해석에서 할 것이니 조금만 참으시기 바란다.

이상으로 간절하나마 주의 말씀을 잘 지키는 자와 그렇지 못한 자들 간의 구원의 방법과 차이와 상급에 대해 알아보았다. 이것은 앞으로 우리가 알아볼 비밀에 비해서 너무 작은 것이다. 이 책에서는 이 말씀들이 사실인가 증명하며 확인하여 하나님의 신실한 약속을 찾아낼 것이다. 주님께서 함께 하심을 믿는다. 이제 다음절을 보자.

(9) 이 일 후에 내가 보니, 보라, 모든 민족들과 족속들과 백성들과 언어들에서 온 아무도 셀 수 없는 큰 무리가 흰 옷을 입고 그들의 손에는 종려나무 가지를 들고 보좌 앞과 어린 양 앞에서 서서

(10) 큰 음성으로 소리질러 말하기를 "구원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있도다."라고 하더라.

(11) 또 그 보좌와 장로들과 네 생물 주위에 둘러선 모든 천사가 그 보좌 앞에 얼굴을 대고 엎드려, 하나님께 경배드리며

(12) 말하기를 "아멘. 찬송과 영광과 지혜와 감사와 존귀와 권세와 능력이 우리 하나님께 영원 무궁토록 있나이다. 아멘." 하더라.

(13) 그때 장로 가운데 한 사람이 대답하여 나에게 말하기를 "흰 옷을 입은 이 사람들이 누구이며 어디서 왔느냐?" 하기에

(14) 내가 그에게 말씀드리기를 "주여, 당신이 아시나이다." 하니 그가 내게 말하기를 "이들은 **대환란에서 나온 사람들**이며 자기들의 옷을 씻어 어린 양의 피로 희게 하였느니라.

보라, 이들이 어디에서 나오는 자들이라고 하시는가? 우리는 이들이 대환란에서 나온다고 얘기하는, 장로가운데 한 사람의 얘기를 듣고 있다. 이 대환란은 후삼년반의 짐승이 마흔두달동안 활동할 권세를 받은 그 기간을 얘기하고 있음을 이제 알고 있다. 따라서 이 들은 후삼년반에 짐승의 표를 거절하고 짐승에게 경배하기를 거절한 그 순교성도임을 알 수 있게 된 것이다. 또 이 때는 사흘반동안 죽어 있다가 승천한 계시록11장의 두증인과도 시기가 같은 후삼년반이다. 그 두증인의 숫자가 지금 이렇게 수를 셀 수 없을 만큼의 숫자들임을 증거하며 구원을 받은 것이다. 이 셀 수 없는 숫자의 성도수는 사역정도가 된다. 이 상황이 후삼년반이라면 이후 분명히 하나님의 진노대접이 나와야 함을 알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이 칠장에서 그 장면은 생략되어 있다. 왜 그렇겠는가, 그것은 바로 이 글이 계시록이기 때문이다.

(15) 그러므로 그들이 하나님의 보좌 앞에 있으며 그의 성전에서 그를 밤낮 섬기고, 보좌에 앉으신 분께서 그들 가운데 거하시리라.

(16) 그들이 다시는 굶주리지 아니하고 다시는 목마르지도 아니할 것이며, 태양이나 어떤 열기도 그들 위에 내리찍지 못할 것이라.

(17) 이는 그 보좌 가운데 계신 어린 양이 그들을 먹이시고 생수의 샘들로 인도하시며, 하나님께서 그들의 눈에서 모든 눈물을 씻어 주실 것이기 때문이다."고 하더라.

**이들이 행위로 자신들의 믿음을 증명하였으므로 말미암아 하나님앞에 인정받게 되는 것을**

서술한 것이다. 그들에게는 두 번째사망이 균림하지 못할 것이다.

(11) 귀 있는 자는 성령께서 교회들에게 말씀하시는 것을 들을지어다. 이기는 자는 **둘째 사망으로부터 해를 받지 아니하리라.** -2장

이상으로 삽입장인 7장에 대한 것을 마치도록 하겠다. 혹시 눈치채신 분들도 계시겠지만 이 십사만사천은 6장의 네 번째봉인과 다섯 번째봉인 사이에 들어가면 되고, 또 그 후에 수를 셀 수 없이 많은 성도는 다섯번째와 여섯번째 봉인사이에 삽입되는 장면들이다. 그래서 7장을 삽입장이라고 하는지 모르겠다. 의심이 나면 확인하시고, 微塵(미진)하다면 앞으로도 계속 전개해 나갈 것이니 확인들 하시기 바란다.

## 8. 나팔재앙

우리가 나팔재앙에 들어가기 앞서 생각해 봐야 할 일이 한가지 있다. 앞선 두 해석에서 보았듯이 계시록은 예수그리스도의 재림이후에 일어난 일들과, 또 일어난 일들을 기록한 역사적 관점에서 본 黙(묵시)형태라는 것을 강조한 것이 과연 올바른 것이냐 하는 것이다. 이 계시록에 쓰여진 것은,

(19) 그러므로 네(요한) 본 것과 이제 있는 일과 장차 될 일을 기록하라-1장

에 전혀 벗어남이 없는 말씀에 기초를 둔 것이다.

따라서 요한이 AD96년경에 이 글을 기록할 때는 이미 그는 로마디도장군의 예루살렘성전붕괴사건이라든지, 또 네로에 의한 초대교인학살사건이라든지하는 일련의 역사적인 사건들을 모두 알고 겪었었다는 얘기가 된다. 따라서 이렇게 해석하는 것이 시간과 시대, 그리고 말씀에도 전혀 어긋남이 없다는 것을 피력하는 바이다.

(1) 어린 양이 일곱째 봉인을 여실 때 하늘에 **약 반 시간쯤** 정적이 있더라.

우리는 앞서 한때와 두때와 반때나 마흔두달, 사흘반, 그리고 칠십이레, 한이레, 한시간등 사용하신 시간들에 주체가 있고 주체에 맞는 시간적의미가 구별되어 있음을 알아본 바가 있다. 그렇다면 이 반시간도 어떤 숨겨져 있는 뜻이 있지 않겠는가 싶었고, 완벽하신 하나님께서 아무 뜻 없이 이 반시간을 쓰시지는 않았을 것이란 결론에 도달했다. 그래서 그 의미에 대해 생각하던 중 열왕에게 쓴 한시간이 7년이라면 반시간이면 삼년반을 뜻한다는 것을 떠올리기에 이르렀다. 그렇다면 이 반시간, 즉 삼년반이 어떤 의미가 있는결까, 묵상한 끝에 결론을 내릴 수 있었다. 알아보자.

### ### 반시간의 의미

(1) 어린 양이 일곱째 봉인을 여실 때 하늘에 **약 반 시간쯤** 정적이 있더라.\_KJV

(1) 일곱째 인을 떼실 때에 하늘이 반시 동안쯤 고요하더니 -NIV

우리는 계시록에 일어나는 모든 것을 실제로 일어나는 일로 받아들여야 할 때가 있고, 또 상징적으로 받아들여야 할 때도 있다. 우리가 앞에서 본 이 일은 실제로 하늘에서 일어난 일 일수도 있고, 또 앞으로 일어날 일들을 상징하는 것이므로 환상을 통해 사도요한에게 보여주는 것 일수도 있다. 앞에서 잠깐 일곱나팔이 주님부활승천이후, 초대교회부터 성도들이 박해를 받은 사실부터 기록했다는 것으로 분별한 바도 있다. 그렇다면 그것이 사실인가 다시 한 번 살펴보기로 하고 검증도 해 보도록 하겠다.

**(12) 또 네가 본 그 열 뿔은 열 왕이라. 아직 왕국을 받지는 못하였으나 그 짐승과 더불어 한 시간 동안 왕들로서의 권세를 받으리라.** - 계시록 17장

이 한 시간은 열왕이 받는 7년의 시기라고 앞서 얘기한 바가 있었다. 그런데 8장 1절에서는 반시간이라고 한다. 한시간이 7년을 뜻하는 것이라고 분별을 했는데, 그럼 반시간이면 3년반을 뜻하는 것이겠다. 한 번 생각을 해보자. 혹시 주님의 공생애기간이 얼마였었는지 기억나는가? 주님의 사역기간은 침례요한에게 침례를 받음으로 시작하였다. 그리고 광야에 나가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시고, 이후 두 제자를 만나시고 첫 유월절에 가나에서 포도주기적을 일으키심으로 그분의 메시아되심을 증명해 나가신다. 그리고 유월절을 두 번 지내시고, 여행하시며 전도사역을 하신 후에 마지막 주간 유월절이 끝나고 가롯유다에 팔려 십자가에 달리신다. 성경은 이렇게 증명한다. 그 시작부터 찾아보자.

마가복음1장

(9) 그 무렵에 예수께서 갈릴리 나사렛으로부터 오셔서, 요단 강에서 요한에게 침례를 받으시더라.

(10) 곧 물 속에서 올라오시자, 하늘들이 열리고 성령이 비둘기처럼 자기 위에 내려오는 것을 보시더라.

(11) 그때 하늘에서 한 음성이 나기를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네 안에서 내가 매우 기뻐하노라."고 하시니라.

(12) 그리고 즉시 성령께서 주를 광야로 내보내시니라.

**그리고 나서 첫 제자를 얻는데 침례요한의 제자 들이 그를 좇게 된다.**

요한복음1장

...

(35) 또 이튿날 요한이 자기 제자 중 두 사람과 함께 섰다가

(36) 예수의 다니심을 보고 말하되 보라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37) 두 제자가 그의 말을 듣고 예수를 좇거늘 ...

**그리고 첫 이적인 포도주사건을 일으키신다.**

(1) 셋째 날에 갈릴리 카나에서 혼인식이 있었는데 예수의 모친도 거기에 있더라.

(2) 예수와 그의 제자들도 그 혼인식에 초대되었는데...-요2장

**이렇게 요한에게 침례(개역성경은 세례)를 받으심으로 시작해서 약 삼년 반에 이르는 것으로 연구되어져 있다.**

그럼 이 때 이후 공생애기간 1년차 첫 유월절을 보자

(13) ○ 유대인의 유월절이 가까워지니 예수께서는 예루살렘에 올라가시니라.

(14) 그런데 성전 안에서 소와 양과 비둘기를 파는 자들과, 환전상들이 앉아 있는 것을 보시고-요한복음2장

우리가 주님의 공생애기간을 파악함에 있어 가장 중요한 것이 바로 이 유월절이다. 이곳에서 어느정도의 단서를 발견할 수가 있는 것이다.

그리고 이후 1년동안의 일들은 이렇다.

니고데모와의 대화, 초기유대인전도(침례주심), 요한의 증거와 감금, 요한의 소식을 들으시고 예수께서 갈릴리로 가심, 사마리아 여인전도사건, 갈릴리전도(이 때부터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하는 복음 선포), 다시 가나로 가심(신하의 아들 구제사건), 그리고 이후 나사렛에서 배척을 받으시고, 가버나움에서 가르치시고 베드로 물고기 사건, 이후 네 제자를 부르시고(베드로, 안드레, 야고보, 요한) 귀신을 쫓아내시며 베드로의 장모와 병자들을 고치시고, 두 번째 갈릴리전도여행을 가시고 이후 문둥병자, 중풍병자를 고치신 후에 다시 제자 마태를 부르시고 두 번째 유월절 상경을 하시게 된다.

또 이후 베데스다못가의 병자를 고치시고 안식일의 주인말씀, 손마른자를 고침. 바리새인들의 반대에 부딪히시고 나서, 자신을 따르는 수 많은 제자들중에 특별히 12제자를 임명하시게 된다. 그리고 그 유명한 산상설교(심령이 가난한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것임이요...) 를 하시고, 백부장의 하인을 고치시고, 나인성 과부의 아들을 살리시며, 침례요한의 메시아이신가? 질문을 받으시고 회개치 않은 도성에 대한 심판을 경고하시고, 예수님께 첫 번째 향유를 붓는 여인사건이 일어나고 그러면서 두 명의 빛 진자 비유를 말씀하시고, 세 번째 갈릴리 전도 여행을 가셨을 때, 이때 예수님의 기적의 능력을 바알세불의 힘을 빈다는 서기관과 바리새인의 망발이 터져 나오게 된다. 이후 성령님을 거역하면 사하심을 받지 못한다는 말씀을 하였고, 표적을 구하는 자에게 요나의 비유로 말씀하시고, 하나님나라에서의 영적관계에 대한 말씀, 바리새인을 책망하시고 어리석은 부자의 비유를 들려주시고. 이 후 너희는 머리카락까지도 세신바 되었다며 제자들을 격려하시고, 혼인잔치비유, 지혜로운 청지기비유, 열매없는 무화과나무비유, 씨뿌리는비유, 알곡과 가라지비유, 겨자씨비유, 누룩비유, 감추인 보화비유, 값진 진주 비유, 그물비유등 천국에 대한 말씀을 하시고, 가다라(거사라)지방으로 전도여행을 떠나신다. 이후 제자들과 배타고 가는 중에 폭풍을 잔잔케하시고, 무덤에 거하는 군대귀신 들린자를 고치시고, 혈루병여인을 고치시며, 아이로의 딸을 살리시고, 두 소경을 고치시며, 귀신들려 병어리된자를 고치신후에,

(이 때까지를 이년차 마지막 공생애로 보고 있다)

삼년차 시작에 고향 나사렛에서 다시 배척(이 사람은 목수가 아니나라며 의심받는 사건)을 받으시게 된다. 그리고 열두제자를 파송하시고, 세 번째 갈릴리여행을 가시며, 세례요한의 죽음을 들으시고, 파송에서 돌아온 열두제자의 보고와, 휴식할 여유가 없으심의 말씀, 오병이어사건, 바다위 도보사건, 게네사렛에서 병을 고치시고, 생명의 떡에 관한 말씀을 하신 이후 말씀이 어렵다며 많은 제자들이 떠나가게 된다, 다시 장로들의 유전에 관한 논쟁, 두로와 시돈지방에 거하시며, 가나안여인( 개들도 자기 주인의 상밑에 앉아 부스러기를 먹나이다)사건 이후에 거하시던 시돈을 나와 데가볼리 통과 갈릴리호수에 이르셔서 에바다사건, 그리고 많은 이적을 일으키시고, 이후 칠병이어사건, 표적구하는자를 책망, 베새다 소경사건, 가이사랴빌립보에서의 베드로신앙고백, 죽음과 부활에 대한 예고, 변화산에서의 변모, 간질병아이의 치료, 수난을 예고하시고, 납세문제언급, 천국에서 큰자와 작은자 비유, 잃은양의 비유, 무자비한 종의 비유, 갈릴리에서 베레아로 가시고, 70인제자 파송, 다시 예루살렘으로 떠나시고 제자 야고보와 요한의 하늘에서 불을 내려 저들을 멸하리이까사건이 있고, 죽은자는 죽은자에게 말기라는 말씀을 하시고, 초막절교훈, 간음한 여인(너희 가운데 죄없는 자가 먼저치라), 선한 사마리아인이 비유, 마리아와 마르다방문, 밤중에 찾아온 친구비유, 파송나갔던 70인이 돌아오고. 나면서 소경된자를 고치시고, 선한목자비유, 수전절, 요단강건너편(요한이 처음 침례를 주던곳)에 가시게 된다.

자 한숨을 돌리자. 여기까지가 삼년차사역의 마지막이고,

이제 마지막 주간까지만이 남아 있다. 이 후 나사로를 살리시고, 에브라임으로 가셨다가, 18년간 불구가 된 여인을 치료하시고, 구원에 이르는 좁은문 비유, 고창병자, 큰잔치 비유, 제자

가 되는 어려움, 이후 어린아이축복, 주님의 재림에 관한 비유, 부자청년, 포도원 품꾼 비유, 나사로, 마르다의 동생인 마리아의 기름부음을 받으시고, 이후 천국에 관한 여러 비유를 하시고 **마지막 유월절**에 식사를 하시고 가롯인 유다에 팔려 십자가에 달리게 되는 것이다. 예수님께서 하신 일이 너무 많아서 다 기록하지 못했다. 어쨌든 이렇게 해서 주님의 공생애 기간은 의견은 분분하겠지만 **약 3년 반**으로 보고 있는 것이다.

그리고 계시록 8장 1절은 그것에 맞춰 약 반시간이란 표현으로 주님의 공생애 기간을 복음의 시작으로 기록하고 있는 것이다. 그럼 이것에 대한 상징적인 비유는 없으셨을까? 그 의미를 내포하고 있는 비유를 찾아보자, 예수님의 공생애 기간은 바로 그 분께서 뿌린 천국복음이 이 땅에 뿌려지는 시기이고, 이 의미는 곧 천국도래를 위해 심겨진 겨자씨 기간이며, 또 여자가 서말가루속에 넣은 누룩비유가 시작되는 지점이다. 이 겨자씨 비유는 주님께서 겨자씨가 되어 싹을 틔움으로 결국 천국을 이 땅에 이루시겠다는 것이며, 여자가 넣은 서말(세상 열방)에 넣은 누룩(천국을 이루기 위한 뜬씨, 효소(酵素))의 역할을 감당하셨다라는 것이다. 이렇듯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으신 역할이 바로 그 분께서 하신 역할인 것이다.

#### **(24) 진실로 진실로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한 알 그대로 남아 있지만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는다.** -요한복음 12장

이 반시간(겨자씨, 누룩, 한알의 밀알)이 가지는 의미가 바로 그런 상징성을 가지고 있는 것이다. 그럼 이후에는 어떤 식으로 이루어지겠는가, 이 반시간이 씨가 되어 잎이 나고 줄기가 나는 표현을 어떻게 하셨을까. 콩 심은데 콩이 나고, 팥 심은데 팥이 나듯 반시간을 심었으면, 이 반시간에 걸맞는 날짜가 나와야 한다. 즉 삼년반이 주님 공생애라면, 그럼 이 공생애의 기간 3년반이 가장 크게 확대된 시간 곧 1,260일이 나와야 한다는 것이다. 누룩도 그런 의미가 있다. 가루 사이사이에 스며 들어가 부풀게 만드는 효과 말이다. 바로 그것이다. 가장 작은 시간인 반시간이 커지고 커져서 1,260일, 즉 은혜시대를 이루고, 이제 열매인 성도를 수확하고 더욱 거대해져서 주님의 나라를 이룬다는 마스터플랜이 바로 이 계시록 8장에(씨앗, 줄기) 9장(가지) 10장(주님재림(열매))에 담겨 있는 내용인 것이다.

결론을 다시 한번 정리하면 이렇다.

이 반시간, 즉 약 삼년반의 의미는 주님께서 복음을 뿌리는 공생애 기간이며, 이 복음의 씨앗을 기초로 그 확대된 기간인 1,260일간의 은혜시대(교회시대)가 피어나가고 이제 7년 환란에 이르러 주님께서 뿌리셨던 열매(성도)를 수확하시고 이 땅에 재림하시는 것으로 이 계시록의 목적은 달성되는 것이다. 이제 이렇게 반시간에 대한 의미를 파악했으므로 그 이후 절들을 살펴보기로 하자.

(2) 그때 내가 보니, 일곱 천사가 하나님 앞에 섰고

(3) 다른 천사가 나와서 금향로를 가지고 제단에 서서 많은 향을 받았으니, 이는 모든 성도의 기도와 함께 그것을 보좌 앞에 있는 금제단에 드리려고 함이더라.

(4) 그 향의 연기가 성도들의 기도와 함께 그 천사의 손에서 하나님 앞으로 올라가더라.

(5) 그 천사가 향로를 가져다가 제단 불을 담아서 땅에 쏟으니 거기에서 음성들과 천둥들과 번개들과 지진이 일어나더라.

(6) 그때 일곱 나팔을 가진 일곱 천사가 나팔을 불려고 준비하더라.

이상은 일곱나팔을 준비하는 과정을 기록한 것인데 숨은 의미가 많이 있음을 알 수 있다. 4절의 향이란 것은 성도들의 기도를 의미하는 것이고, 5절의 음성들과 천둥들과 번개들과 지진은 하나님께서 재앙을 이 땅에 허락하시는 것으로 보여진다.

(7) 첫째 천사가 나팔을 부니, 피가 섞인 우박과 불이 따르더라. 그것들이 땅에 쏟아지니 나무의 삼분의 일이 타버리고 모든 푸른 풀도 타버리더라.

이 나무와 푸른 풀의 의미는 앞서서도 잠깐 언급했지만 9장에 있다. 찾아보자.

(4) 그들에게 명령이 내려지기를 땅의 풀이나 또 어떤 푸른 것이나 어떤 나무도 해치지 말고 다만 그들의 이마에 하나님의 인장으로 표시받지 아니한 사람들만 해치라고 하더라.

이 풀과 나무는 이 말이 쓰이는 상황으로 보아 이마에 인 받은 자들을 의미한다 하겠다. 풀은 성도이며 나무는 장로급의 인사라고 볼 수 있다. 나무에 대한 근거를 든다면, 같은 의미는 아니겠지만 다니엘서의 느부갓네살이 나무로 비유된 적이 있던 것으로 보아 역시 나무는 고관대작을 의미함이 아닌가 보고 있다. 믿는 자들 중에서 그러한 자라고 하면 장로급의 신앙을 가진 자들을 의미할 수 있고, 혹은 기름부음 받은자, 즉 감람나무로 온 땅의 주 곁에 선 증인들을 의미할 수도 있다. 따라서 풀과 나무는 주께서 택한 주의 백성들이다. 초대교회 당시에 푸른 풀에 속한 성도들은 갖은 이유로 죽임을 당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복음의 전파사역을 위해 장로급에 속한 자들의 생명, 삼분의 이를 보호하시고 그들로 말미암아 세상에 복음이 전파되도록 하셨음을 짐작할 수 있다. 푸른 풀도 다 사위고 모든 나무도 다 타버린다면 주님의 복음사역은 그것으로 끝이 났을 것이나, 그것을 방지하기 위해 그 중에 삼분의 일만 타도록 허락하신 것이다.

(8) 둘째 천사가 나팔을 부니, 거대한 산이 불에 타서 바다로 던져지는 것 같더니 바다의 삼분의 일이 피가 되더라.

이 불탄 산에 대한 의미는 예레미야 51장에 있다.

(1) 주가 이같이 말하노라. 보라, 내가 멸망시키는 바람을 일으켜 바빌론과 나를 대적하여 일어나는 그들 가운데 거하는 그들을 칠 것이며

(2) 키질하는 자를 바빌론에 보내어 그녀를 키질하여 그 땅을 비우게 하리니, 이는 고난의 날에 그들이 주위에서 그녀를 칠 것임이라.

.....  
(25) 주가 말하노라. 온 땅을 멸하는, 오 파괴시키는 산아, 보라, 내가 너를 대적하노라. 내가 네게 내 손을 펴서 너를 바위들로부터 굴러 내리고 너를 불탄 산이 되게 하리라.

(26) 그리하면 사람들이 네게서 모퉁이 돌이나 기초를 놓을 돌을 취하지 아니할 것이며 너는 영원히 황폐하게 되리라. 주가 말하노라

이 25절에 산이란 문맥상 바빌론을 의미하고 있다. 이 바빌론이 누구인가? 아마도 이 바빌론 집단이란 것은 세상의 주인인 세계사를 주름잡는 사탄이 자리를 잡고 앉아 있는 그러한 곳으로 분별이 된다. 그럼 세상에서 가장 성공했고 과거로부터 지금까지 정치적으로나 종교적으로나 가장 인정받는 곳이 어디인가를 살펴보면 이 바빌론의 정체를 알아내기가 쉬울 것 같다. 우리가 또 여기서 잊지 말아야 할 것은 항상 사탄은 주님부활이후부터 믿는 자들을 박해해 왔고, 넘어뜨리기 위해 수많은 기만전술을 사용해 왔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한다는 것이다.

아우구스투스황제의 명으로 기독교가 국가공인종교가 된 로마에선 그 해로부터, 즉 313년 이후에, 각 가정에서 모여 숨어서 예배를 드리던 교회(에클레시아-敎會)를, 거대한 건물을 예배당으로 만들었고, 당시 지하에 숨어서 예배드리던 교인들을 밖으로 끄집어내어 예배당으로 밀어 넣는데 성공했다. 그 이후 이제 기독교는 종교의 자유 위에서 신앙의 꽃을 피우는 듯했으나, 역시 사탄적인 바빌론종교가 교회 안으로 스며들게 된다. 그러함으로 말미암아 아는 듯 모르는 듯, 하는 듯 안하는 듯, 교리의 변개가 일어나게 되고 서서히 그들의 손아귀에 넘어

간 성경은 변개가 되기 시작한다. 그와 더불어 그들의 거짓된 교리들로 인해, 많은 성도들이 복음의 근간을 모르게 되는 신앙의 변질을 가져오게 된 것이다. 바빌론종교에 관해서는 궁극해 하시는 분들이 많을 것이나 앞으로 조금씩 알아가도록 하기로 하고, 직접 본문으로 넘어가도록 하겠다. 기억해야 할 것은 이 바빌론종교는 세상 모든 가증한 종교를 포함한다는 것이다. 그러나 이곳에서는 그 대표적인 카톨릭만을 논하기로 한다.

기독교를 표방하는듯 보이는 카톨릭은 보편적인 교회라는 의미를 담고 있다. 그러나 말만 보편적이라고 할 뿐, 전혀 보편적이지 않다. 그들은 니콜라당의 형태를 간직하고 있고, 이세벨의 교훈을 가진 교회이기도 하며, 발람의 교리를 교회에 끌고 들어온 음녀의 본색을 감추고 있는 것이다.

첫째로 니콜라당이라함은 계시록2장 6절에 가장 먼저 등장하는 어떤 파당이다. 무엇을 의미하는지 한 번 보도록 하자. 에베소교회에 하시는 말씀이다.

2:6 오직 네게 이것이 있으니 네가 니콜라당의 행위를 미워하는도다 나도 이것을 미워하노라.

'니콜라당'에 관해서는 본서 이외에서는 언급되지 않는다. 일반적으로 이것의 기원에 대해서는 두 가지 차원에서 이해된다. 첫 번째는 역사적으로 이는 사도행전에 언급된(행6:5) 일곱 집사 가운데 한 사람인 니콜라가 타락하여 만든 이단이라고 추측한다 그리고 두 번째는 언어적으로 '니콜라'에 해당하는 헬리어 '니콜라이톤'은 '백성'을 뜻하는 '라오스'와 '없애다' 혹은 '정복하다'를 의미하는 '니카오'의 합성어로 구약성경에 기록된(민22:12) '발람'과 동일한 의미를 지닌다. 그래서 발람의 행위와 동일시하여 하나님의 백성들을 파괴하는 거짓 무리들로 추측한다. 대부분의 학자들이 동의하는 바와 같이 니콜라당은 발람의 교훈을 따른 자들로 이해된다 (14,15절).- 주석

멀리 갈 것도 없이 이런 해석을 가진다. 여기서 언급하지 않은 것이 있다. 니콜라당에는 또 이런 뜻이 내포되어 있다. 그들은 지배계급을 만들어 평신도를 지배한다. 정복한다는 의미는 그런 뜻을 내포하고 있는 것이다. 그럼 이들은 백성을 지배하기 위해 어떤 계급체제를 만들었는지를 보도록 하자.

교 : 황 (Pope, **Holy Father**)  
(敎皇)가톨릭교의 최고 지도자인 성직자. 로마 교황.

추기-경 (cardinal)  
(樞機卿) 교황 다음가는 고위 성직자. 추기경 회의를 구성하며 교황의 고문으로서 그를 보좌함. 교황 선거권을 가짐. 홍의(紅衣) 주교.

대 : -주교 (archbishop.)  
(大主教) 관구(管區)를 주관하는 최고 성직, 또는 그 직에 있는 사람을 이르는 말.

주교 (bishop)  
(主教) 교구를 관할하는 교직. 또는 그 직에 있는 사람. 대주교의 아래, 사제의 위임.

신부 (Catholic priest; **Father.**)  
(神父) 사제(司祭) 서품을 받은 성직자. 주교 다음가는 위치로, 성사를 집행하고 미사를 드리며 강론을 함.

이렇게 계급을 만들어 성도들 위에 군림하며 자신들을 아버지라고 부르게 하고 있다. 역시 오해를 방지하기 위해 다시 한마디 달자면 이 바빌론이란 것은 **비단 카톨릭에만 국한시킨 것은 아니고 예를 든 것임을 잊지 말자. 사탄은 세상 모든 가증스런 종교의 아버지다. 따라서 이 바**

**빌론은 세상에 존재하는 기독교를 제외한 모든 종교를 포함한다.**

그런데 이렇게 성직자계급에 대해 말하면 군림하는 것이 아니고, 봉사하고 섬기는 것이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있다. 봉사하고 섬긴다면 명칭을 종이라고 하던지, 하인이라고 하면 되지 꼭 아버지라고 해야 되는가, 성경에 성직자로서 대우 받고 싶어 하는 사람중에 항상 끌어오는 사람이 있는데 그 이름이 디오드레베다. 어떤 사람인가 한번 알아보자. 요한 삼서다.

(9) 내가 그 교회에 편지를 썼으나 그들 중에 으뜸이 되기를 좋아하는 디오트레페가 우리를 영접하지 아니하니라.

(10) 그러므로 내가 가면 그가 행하는 일들을 기억하리라. 그가 악한 말로 우리를 헐뜯고, 그것으로도 만족하지 않고 형제들도 영접하지 아니하며, 그렇게 하고자 하는 자들을 방해하여 교회에서 내어쫓는도다.

디오드레베가 사도들의 후계자요 지역 교회의 최고의 권위를 가지는 **장로, 감독의 위치에 대해 야심이 있었음**을 지적한다. 디오드레베가 '으뜸이 되기를 좋아한다'는 진술은 요한이 계속적으로 교회에 영향력을 행사하는 것에 대해 디오드레베가 불만을 품고 거부하였을 가능성을 암시한다(Barker, Smalley). '으뜸되기를 좋아하는'의 헬라어 '필로프로투온')은 디오드레베의 독립 성향이 그 직업에 있어 우려 이상으로 현실화되어 있음을 암시함과 동시에, 그의 **행위의 동기가 진리에서 벗어나 사회적 명성과 자기 야심에 있었음을 시사한다**. 이러한 디오드레베의 성향은 도덕적인 문제 이상으로 상황을 악화시켜서 정치적인 다툼을 야기시키고 분열과 붕괴를 초래하기도 한다. 그 결과 **여행하는 형제들을 접대하고 교회에서 지원해 주기를 요청했던 요한의 권면과 요구를 거절하게 되었다**. '접대하지 아니하니'에 해당하는 헬라어 '우크에피테케이')는 신약성경에서 본문과 10절에서만 발견되는 단어로'...의 권위를 받아들이기를 거부하다'라는 의미이다. 이는 사도적 권위로 제안한 요한의 권면을 무시하고 디오드레베가 요한의 믿음안에 형제들을 영접하기를 거절했음을 뜻한다. 이러한 디오드레베에게서 나타나는 개인적인 야망과 세력 다툼은 초대 교회의 사역에 실패를 초래하는 위험 요소들이었다 -주석

**이 당시에도 이런 일이 있었으니 이런 디오드레베같이 사람들위에 군림하려하는 자들의 행위는 시간이 가면 갈수록 그 행태의 수위를 더해간다. 이 에베소교회의 니콜라당의 행위는 후에 버가모교회에서 교리로 발전하게 된다. 그것을 암시하시는 것이 버가모교회에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가운데 나타난다.**

(15) 그리고 네게 역시 니콜라파의 교리(교훈-NIV)를 지키는 자들도 있도다. 내가 그것을 미워하노라.

**이렇듯 이들의 교리로 말미암아 교회안에 계급이 생성되게 된 것이다. 그리고 땅에 있는 자를 아버지라고 부르지 말라고, 이런 일이 있을 것을 미리 알고 예수님께서 이미 말씀하셨는데도 이들은 그것을 애써 무시한다. 마 23장이다.**

(5) 그들이 행하는 모든 일은 사람들에게 보이려는 것으로, 가족 성구함을 크게 만들어 지니고 옷단을 넓혀 입느니라.

(6) 또 잔치에서는 최상의 자리를, 회당에서는 가장 좋은 좌석을 좋아하며

(7) 또 시장에서 인사받는 것과 사람들에게 '랍비여, 랍비여.'라고 불리는 것을 좋아하느니라.

(8) 그러나 너희는 랍비라 불림을 받지 말라. 이는 너희 선생은 한 분, 곧 그리스도시요, 너희는 모두 형제이기 때문이라.

(9) 또 땅에 있는 사람을 너희 아버지라 부르지 말라. 이는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는 한 분이시기 때문이다.

(10) 또 너희는 선생들이라고도 불리지 말라. 이는 너희 선생님은 한 분, 곧 그리스도시기 때문이다.

(11) 너희 가운데서 가장 큰 자는 너희의 종이 되어야 하리라.

(12) 누구든지 자신을 높이는 자는 낮아질 것이요, 자신을 낮추는 자는 높아지리라.

이건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에게 하신 말씀이 분명하지만 바로 교회안에서 받아야 할 말은 아니겠는가 다시 한 번 되돌아 봐야 할 때이다. 이제 9절로 넘어가자.

(9) 또 바다에 있는 생명을 가진 피조물 삼분의 일이 죽고 배들의 삼분의 일이 파괴되더라.

바다의 피조물이나 배의 삼분의 일이라는 것은 땅에서의 풀과 나무와 같은 의미일 것으로 본다. 이 바빌론의 박해로 인해 목숨을 잃게 되는 성도들을 의미한다고 보고 있다. 또 이 때에는 세상안에 종교가 포함되어 있어서, 진정으로 하나님을 찾는 일이 불가능하지 않았겠는가도 추측해 볼 수 있겠다. 하나님의 진노는 공의로워야 한다. 이 때 죽은 이 성도들도 주님재림시에 일으킴을 받을 것이다. 목숨을 지켜 믿음을 수호한 자들과 그렇지 않은 자의 심판과 상급은 달라야한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공의인 것이다.

(10) 셋째 천사가 나팔을 부니, 하늘에서 등불처럼 타는 큰 별이 떨어졌는데 그것이 강들의 삼분의 일과 물들의 원천에 떨어지더라.

(11) 그 별의 이름은 썩이라 하고 물의 삼분의 일이 썩이 되니 그 물이 쓰게 됨을 인하여 많은 사람이 그 물로 죽더라.

중요한 것은 10절이 아니고 11절이다. 햇불같이 타는 큰 별이 하늘에서 떨어진다고 했으니 하나님의 진노를 표현한 것일 것이고, 어떤 재앙이나 하는 것이 주어진 과제라 하겠다. 해석중에 항상 유념하고 있어야 할 것은 계시록의 모든 것을 세상사 측면에서 해석하는 것은 하나님의 섭리를 모르고 하는 해석이라는 사실이다. 모든 상징의 의미는 복음이나, 사탄의 변개, 믿는 성도, 그리고 믿지 않는 자들에 의한 핍박, 이런 측면에서 성경과 계시록을 詳考(상고)해야 함을 피력하는 것이었다. 그렇다면 이 썩이 강에 떨어졌다고 하는 것은 무슨 의미이겠는가?

사람은 물의 근원인 강이 없이는 존재할 수 없다. 믿는 우리에게 물이라 함은 또 그것에 대한渴症(갈증)이라함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없고 그 의미를 파악할 수 없을 때의 갈증일 것이다. 생명의 물인 그 말씀이 없으면 크리스찬은 죽을 수 밖에 없다. 그 생명의 말씀을 들을 수 없다는 것은 살아 있으나 산 것이 아니요, 이미 죽은 것일 것이다. 몸은 살아 있으나 영이 죽었으니 그 사람은 하나님이 보았을 때 죽은 것이나 마찬가지라는 얘기다. 영을 구원하는 것이 바로 福音(복음)이요, 그 복음은 예수그리스도로 말미암는다. 그 분이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라고 말씀하신 그 약속을 믿는 것이 바로 복음인 것이다.

그런데 이 복음에 쓰디 쓴 썩이 떨어졌다는것의 의미는 복음이 變質(변질)됐음을 의미하는 것이다. 에베소교회의 첫사랑을 잃어버리게 한 것이나, 서머나교회에 떨어진 박해에 목숨으로 믿음을 지키지 못했던 신자들이나. 벵가모교회의 우상에 절하는 일이나, 두아디라교회의 우상섬기는 음란한 교리들이나. 깨어있지 못하고 사탄의 기만에 속아 넘어가 결국 사탄의 종이 되어버린 사데교회의 온전하지 못한 자들의 행위처럼 하나님앞에 믿음으로 온전하지 못한 자들이 죽어가는 모습을 설명하신 것이다. 같은 측면으로 카톨릭에서 마리아를 예수그리스도의 어머니라고 했다가 결국은 하늘의 여신으로까지 神格化(신격화)시킨 일이나. 또 그 안에서

일어났던 수많은 敎理(교리)들의 변질은 그 안에 있는 信者(신자)들을 많이도 우상숭배사상으로 이끌고 들어갔다. 이렇듯 사탄은 교리를 변질시킴으로 사람들을 속이고 기만하고 소중한 생명들을 끌어갔던 것이다. 일견 이것은 그의 승리로 보이기도 하지만, 믿지 않는 자들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에 불과한 것이다. 또한 하나님의 公義(공의)는 그들 중에 온전한 자들이 있었다면 천년왕국후에 審判(심판)을 받을 때 자신의 行爲(행위)로 옳음을 증명하면 될 것이다.

이렇듯 붉은 용(사탄)은 교리의 변개, 혹은 변질이라는 속임수로 하나님에 대한 진정한 믿음을 소유하지 않는 자들을 자신의 종으로 끌여가는 것이다. 그래서 이것 또한 정확히 알지 못하는 것도 죄요(말씀을 상고하지 않았으므로...) 믿지 않는 자들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이다.

(12) 넷째 천사가 나팔을 부니, 해 삼분의 일과 달 삼분의 일과 별 삼분의 일이 강타를 당하여 그것들의 삼분의 일이 어두워지니 낮이 그 삼분의 일 동안 비치지 못하고 또 밤도 마찬가지로 지더라.

(13) 내가 보고 들으니, 하늘 한가운데로 날아가는 한 천사가 큰 음성으로 말하기를 "땅에 사는 자들에게 **화 있으리라, 화 있으리라, 화 있으리라**. 이는 세 천사가 이제 불려고 하는 다른 나팔 소리들 때문이라."고 하더라.

13절의 화 있으리라, 화 있으리라, 화 있으리라, 는 앞으로 불릴 다섯째, 여섯째, 일곱째 나팔을 순서대로 의미하는 것이고, 여기서 문제는 12절이다. 해와 달과 별은 무슨 의미인가?

일단 해를 보자 1장이다.

(16) 그 오른손에 일곱 별이 있고 그 입에서 좌우에 날선 검이 나오고 그 얼굴은 **해가 힘있게 비취는 것 같더라**

해는 모든 빛의 근원이다. 달은 앞에서 알아보았듯 영원성을 상징한다. 우리의 빛의 근원은 예수그리스도이시다. 그런데 그분의 말씀이 빛을 잃는 것이다. 해가 빛을 잃으면 해의 구실을 못하게 되는 것이고 곧바로 따뜻함을 잃음으로 해의 존재감을 상실하게 되어 버린것을 표현하신 것이다. 해가 힘 있게 비취듯 교리가 바로 서있고, 그 교리를 바탕으로 말씀이 살아나고 그러함으로 말미암아 믿음의 분량이 자라나서, 그 믿음을 뒷받침하는 행위가 당연히 뒤따름으로 우리의 믿음을 하나님 앞에서 증명할 수 있게 되는 것이다. 그런데 지금 성도들의 믿음은 어떤가, 혹시 라오디게아교회에 주셨던 말씀처럼 차갑지도 뜨겁지도 않은 미지근한 신앙을 소요한 것은 아닌가, 한번쯤 생각해 봐야 할 때가 아닌가 싶다. 이렇듯 이 세대가 하나님 앞에 뜨겁지 못한 신앙을 가지게 된 것은 무슨 이유일까,

그건 아마도 풍족한 삶이 원인이되어 그렇게 된 것일 거라고 보고 있다. 흔히 하는 말로 부자들은 하나님의 필요성을 그리 크게 느끼지 않는다. 그분께 기도하지 않아도 먹고 사는데 별 아쉬움이 없는데 왜 구태여 목을 매며 그 분에게 매달리겠는가, 제 판에는 나까지 기도하면 하나님을 귀찮게 해드리는 것이라고 생각하고 기도하는 생활을 접는 사람도 많이 있을 것이다. 아마 그래서 부자들은 천국에 들어가기 어렵다고 하셨으리라. 너희는 부자되기에 힘쓰지 말라고 하셨고, 그저 가진 것에 만족하라고도 하셨다.

잠언 23장

....

(4) 부자 되기에 애쓰지 말고 네 사사로운 지혜를 버릴지어다

(5) 네가 어찌 허무한 것에 주목하겠느냐 정녕히 재물은 날개를 내어 하늘에 나는 독수리처럼 날아가리라

답전 6장

.....

(5) 마음이 부패하여지고 진리를 잃어버려 경건을 이익의 재료로 생각하는 자들의 다툼이 일어나느니라

(6) 그러나 지족하는 마음이 있으면 경건이 큰 이익이 되느니라

(7) 우리가 세상에 아무것도 가지고 온 것이 없으며 또한 아무것도 가지고 가지 못하리니

(8) 우리가 먹을 것과 입을 것이 있은즉 족한 줄로 알 것이니라

하나님에 대한 사랑이 뜨겁지 아니하면 구원은 요원해 지는 것이다. 이 땅에서 명예를 구하는 자나 영광을 구하는자, 재물을 구하는자는 모두 사탄의 울무에 걸려 넘어질 것이다. 오히려 **섭기는 자가 크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신 예수그리스도의 말씀을 깨닫고 그 분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이, 또 그렇게 自高(자고)하지 않는 것이 주님께 칭찬받는 종의 모습일 것이며 그 분의 나라에서 상급을 획득할 수 있는 秘訣(비결)이 될 것이다. 어렵겠지만 그리해야 주님의 誠命(계명)을 지켰다고 주님 앞에 가서 뭐라도 한마디 할 수 있지 않겠는가. 그러나 그런 자들은 주님께서 먼저 보시고 그를 안다고 하시며 위로해 주실테지만 말이다.

또 다른 의미에서 찾아보자면 소위 믿는 자들의 타락한 행위를 의미하는 것이다. 말씀을 가지고 가르치는자들 중에서도 복음을 모르는 자들이 있으니 빛을 잃고 있는 것이며, 한 성경을 가지고 수 많은 교리들이 판을 치는 시대에 살고 있으니, 신자들의 분별이 어찌 쉬울 수 있겠는가, 카톨릭을 중심으로 세계의 종교는 하나라며 에큐메니칼운동을 하면서 음녀의 가증한 짓을 계속하고 있는 기독교인들까지 있으니, 이 어찌 통탄하지 아니할 수 있으며 하나님앞에 책망받을 세대가 아니라 할 수 있겠는가, 세대가 이러니 성경 한번 읽어보지 않은 교인들은 어떻게 올바른 말씀을 알 수 있으며, 무슨 수로 옳고 그름의 분별을 제대로 할 수 있겠는가 말이다. 자신의 소중한 생명을 소위 성직자란 사람들에게 맡겨버리고, 자신을 한낱 세상에서 돈 버는 일꾼으로 만들어 버린 그 사람들, 스스로에게 위안이란, 십일조를 내니 나는 구원받았겠지하는 안일한 생각을 가진 신자들로 우리 주위는 짝 차있음을 어렵지 않게 볼 수 있다. 주님은 그런 자를 환란에 던져 넣으실지도 모른다. 그래서 그런 신앙인들을 입에서 내 뱉겠다고 한 것이다. 진정으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두려워하는 자들은 그렇게 安逸(안일)한 생각을 하지 않는다. 그 분의 嚴威(엄위)하심과 심판의 두려움을 알기에 조금 더 그 분을 알기위해 힘쓰는 것이다. 바로 그러한 자들을 하나님께서는 사랑하는 자녀라고 부르시며 위로해주실 것이다.

이제 우리는 넷째나팔까지 마쳤다.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는 바로 이 넷째나팔시대이다.** 이후 9장에서는 다섯째나팔인 전삼년반과 여섯째 나팔인 후삼년반의 시대가 펼쳐진다. 너무 나도 명확한 그것을 앞으로 증명해 나갈 것이지만, 정말 중요한 것은 우리가 지금 말씀위에 제대로 서 있는지 다시 한번 돌아보고 점검해보는 시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빈다.

## 9. 계시록 9장, 前(전)삼년반과 後(후)삼년반

(1) 다섯째 천사가 나팔을 불 때 내가 보니, 하늘에서 별 하나가 땅에 떨어지는데 그가 끝없이 깊은 구렁의 열쇠를 받더라.

**지금까지 보아온 네 나팔들에는 이토록 구체적인 형태의 환란의 정체가 드러나지 않았었다.**

그러나 이 다섯째천사의 나팔이 불림으로 하늘에서 별 하나가 떨어지고 그가 무저갱의 열쇠를 가지고 있고 구렁을 열므로써 재앙이 시작된다. 또 이 별은 천사를 뜻한다. 계시록1장이다.

(20) 네가 본 것은 나의 오른손 위의 일곱 별과 일곱 금촛대의 신비라. **일곱 별은 일곱 교회의 천사들이요**, 네가 본 일곱 촛대는 일곱 교회라.

(20) The mystery of the seven stars which thou sawest in my right hand, and the seven golden candlesticks. **The seven stars are the angels of the seven churches:** and the seven candlesticks which thou sawest are the seven churches. -KJB

주님이 하신 말씀이니 확실하겠다. 그렇다면 하늘에서 떨어지는 이 별은 누구일까. 그것은 우리가 앞에서 알아본 12장에 나와 있음을 알게 되겠는데 다시 살펴보자면, 하늘에서 미가엘과 용間(간)에 전쟁이 벌어지고, 이 전쟁에서 패한 龍(용)이 하늘에서 거할 곳을 찾지 못하고 땅으로 내어쫓기게 된다. 바로 이 용이 옛뱀이고, 魔鬼(마귀)라 불리는 자이며, 처음부터 거짓말한자인 것이다. 그리고 이 전삼년반에 자기의 권세를 짐승(적그리스도)에게 주어 성도들을 죽이고 핍박하는 사탄인 것이다. 이 전삼년반인 다섯째나팔때는 적그리스도의 모습은 보이지 않는 것처럼 보이나 11절에 아바돈이요, 아블루온(아폴톤)이라는 이름을 언급함으로써 그 사실을 隱然(은연)중 알려주고 있다. 또 전삼년반 끝무렵인 11절에 그의 이름이 드러남은 배도하는 일이 있고, 멸망의 아들이 드러난다고 하는 데살로니가전서2장3절의 말씀과도 순서적으로 매치가 됨을 알 수 있다.

(2) 그가 끝없이 깊은 구렁을 여니, 큰 용광로의 연기 같은 연기가 구렁에서 올라오는데 해와 공기가 그 구렁의 연기로 말미암아 어두워지더라.

(3) 또 그 연기에서 메뚜기들이 땅 위로 나왔는데 땅의 전갈들이 지닌 권세와 같은 권세를 받더라.

이 묘사를 봄에 있어서 우리가 有意(유의)해야 할 것이 있다. 끝없이 깊은 구렁(무저갱)을 여니 먼저 연기가 구렁에서 나오고, 그 구렁의 연기로 해와 공기가 어두워지는 것이다. 그리고 그런 이후에야 전갈의 권세를 가진 메뚜기들이 땅위로 나오는 것이다. 이 순서를 잘 기억하셔야 한다. 우리가 다니엘의 숫자로 되어있는 기간들을 공부할 때 이 순서를 사용할 것이다. 이 또(그리고, and)라는 간단한 접속사에는 삼년의 시간이 들어있다. 이것은 날짜에 대한 설명을 통해 확실히 알게 될 것이다. 이 煙氣(연기)가 무엇인가에 관해서는 다니엘서에 기록되어 있다.

(27) 그가 많은 사람들과 더불어 한 주 동안 언약을 확정하고 **그 주의 중간에 그가 희생제와 예물을 금지시킬 것이요**, 그는 가증함을 확산시킴으로 황폐케 하리니 진멸할 때까지 할 것이며, 정해진 것이 황폐케 한 자에게 쏟아지리라." 하더라.

바로 이 연기는 犧牲(희생)제와 禮物(예물)을 禁止(금지)한다는 의미를 가지고 있다. 이 시기는 이후에 활동을 할 메뚜기들의 전상황인데 결국 그들을 위한 초석을 다져놓는 역할을 한다고 볼 수 있을 것이다. 사탄은 하나님의 이름을 모욕하고, 자신이 하나님의 자리에 앉으려고 하는 불순종의 영이다. 한 이레의 기간 중 전삼년반에 성도들을 죽일 수는 없으므로 예물이나 희생제를 금지하는 것으로 小心(소심)한 患亂(환란)을 시작하는 것이다. 또 환란의 前奏(전주)곡이라고 할 수도 있겠다.

이제 메뚜기에 관한 설명을 하려 한다. 메뚜기라는 것의 습성은 때로 몰려다니며 곡식을 먹어치운다. 영적으로 보면 곡식에 속하는 성도들을 먹어치운다는 의미가 내포되어 있는 것이다. 이제부터 그러한가 알아보도록 하자. 메뚜기가 누구인가 설명을 하려는데 문제가 발생했다. 지금 세대는 어렸을 때부터 TV나 영화에서 공상과학영화들을 너무 많이 보았다. 그래서 이 메뚜기들의 모습을 상상하는것이 그리 어렵지 않게 되어 버린 것이다. 그러함으로 근래의 많은 계시록연구자들이 이렇게 생긴 괴물이 미래의 어느 시기, 어느 환란시점에 이런 모양으로

나타나 사람들을 해친다고 해석을 해 버리는 것이다. 이 글을 읽는 여러분들의 생각은 어떤가, 혹시라도 그 해석이 옳다고 생각이 된다면 너무 영화에 몰두한 사람들이거나, 어렸을 때부터 그런 것들에 심취되어 있는 사람들일 가능성이 많다. 그러나 그렇지 않다. 세상에 이런 메뚜기모양을 한 메뚜기가 어디 있는가, 그들의 모양을 보라.

그 메뚜기들의 모양은 전쟁을 위하여 준비한 말들 같고, 그 머리에는 금면류관 같은 것을 썼으며, 그 얼굴은 사람들의 얼굴과 같고, 그들의 머리카락은 여인들의 머리카락 같았으며, 그 이빨은 사자들의 이빨 같고, 또 그들의 흉배(가슴방어용방패)는 철흉배 같았으며, 날개 소리는 전정어로 달려가는 많은 말들이 끄는 병거 소리 같고 전갈과 같은 꼬리가 있고 그들의 꼬리에는 쏘는 침이 있다.

이것을 어떻게 상상해서 그려야 할지도 어렵다. 그렇다고 그려보시라는 말씀은 아니다. 상식적으로 생각을 해보자, 하나님께서 이렇게 묘사하심은 이런 괴물이 있을 수 없다는 것을 말씀하신 것이기도 하거니와, 또 그분께서 가증스럽게 여기는 것의 모양을 모두 갖췄다고 볼 수 있는 어떤 상징적인 것을 계시하신 것이라고 보이지 않는가 하는 것이다, 백번 양보해서 이런 것들을 유전자결합으로 창조했다고 보는 것이나, 또 색 다르게 이러한 외계인류의 존재 자체를 생각하는 것은, 너무 앞서 나가는 상상이기도 하거니와, 하나님의 자리를 넘보는 자들을 신의 자리에 앉히는 결과를 낳게 되는 것도 아니겠는가 한번쯤 考慮(고려)해봐야 하지 않을까 싶다 또 稀罕(희한)한것은 이렇게 엄청난게 흉칙한 모양을 갖추었음에도 불구하고, 이들은 사람들을 단 한명도 죽이지 못한다는 것이다. 아이러니다. 이 말을 증거하는 구절인 10절을 보면 다섯달동안 괴롭게만 할 수 있을 뿐이라는 것을 알 수 있다.

(10) 그들에게는 전갈과 같은 꼬리가 있고 그들의 꼬리에는 쏘는 침이 있으며 **다섯 달 동안이나 사람들을 해치게 하는 권세**가 있더라.

이 해치다는 의미를 가진 영어의 hurt의 의미는 앞에서 알아본 바와 같다.

\*상처 내다, □을 다치게 하다  
□에 아픔을 느끼게 하다  
(감정을) 상하게 하다(offend)  
(아무를) 불쾌하게 하다.  
(비유) 상하게 하다, 해치다.  
고통을 주다.  
아프다.

이런 뜻을 가지고 있다. 그러므로 이들은 사람을 죽일 수 있는 그런 괴물들이 아님을 알 수 있을 것이다. 그럼 이들이 누구이겠는가, 명백하게 알 수 있을 뿐더러 설명할 수도 있다. 바로 배도자들이다. 믿는데서 돌아서 적그리스도의 등장을 예고하는 말세때 하나된 종교에 연합한 배도자들인 것이다. 하나님께서 가장 가증히 여기시는 것이 바로 우상숭배이며, 피조물이 하나님자리에 앉으려는 것임을 우리는 구약과 신약의 말씀들을 통해 이미 알고 배웠다. 그래서 가장 첫째명이 너는 나 이외에 다른 신을 네게 두지 말라인 것이다. 그렇다면 배도자의 이러한 사태를 바울사도는 뭐라 대언했던가,

(3) 누가 아무렇게 하여도 너희가 미혹하지 말라 **먼저 배도하는 일이있고 저 불법의 사람 곧 멸망의 아들이 나타나기 전에는 이르지 아니하리니** - 데살로니가후서2장, 개역성경.

이 말씀에는 배도하는 일이 먼저 있고 멸망의 아들이 나타난다(reveal, 숨겨졌던 것을 드러낸다, 나타낸다)고 되어있다. 이 멸망의 아들은 누구이겠는가, 바로 후삼년반에 짐승인 자신의 본모습을, 즉 마성을 드러내는 적그리스도이다. 이 배도는 넷째나팔시대인 지금 세대를 의미할 수도 있겠지만, 눈에 띄게 배도가 드러나는 때인 전삼년末(말)이라는 것을 이 구절을 통해 확실히 알 수 있다. 이 시기에 관해서도 시기를 설명하며 다시 한번 자세히 설명하도록 하겠으니, 궁금하셔도 조금만 참으시기 바란다. 후에 또 다른 증거인 숫자를 들어서도 따로 설명

을 하도록 할 것이다. 그러나 잘 이해가 되지 않을 것이므로 이 모든 것을 먼저 확인을 하시고, 그 숫자를 살피시고 돌아와 다시 처음부터 읽어보시면 완전한 이해가 되실 것이라 믿는다.

(4) 그들에게 명령이 내려지기를 땅의 풀이나 또 어떤 푸른 것이나 어떤 나무도 해치지 말고 다만 그들의 **이마에 하나님의 인장으로 표시받지 아니한 사람들만 해치라**고 하더라.

(5) 또 그들에게 명령이 내려지기를 **그 사람들을 죽이지는 말고 오직 다섯 달 동안 고통만 주라고 하는데**, 그 고통은 마치 전갈이 사람을 쏘 때의 고통과 같은 것이다.

(6) 그 날들에는 사람들이 **죽음을 구하여도 찾지 못할 것이요 또 죽으려고 애를 써도 죽음이 그들을 피하리라**.

(7) 또 그 메뚜기들의 모양은 전쟁을 위하여 준비한 말들 같고, 그 머리에는 금면류관 같은 것을 썼으며, 그 얼굴은 사람들의 얼굴과 같고

(8) 그들의 머리카락은 여인들의 머리카락 같았으며, 그 이빨은 사자들의 이빨 같더라.

(9) 또 그들의 흉배는 철흉배 같았으며, 날개 소리는 전쟁터로 달려가는 많은 말들이 끄는 병거 소리 같더라.

(10) 그들에게는 전갈과 같은 꼬리가 있고 그들의 꼬리에는 쏘는 침이 있으며 **다섯 달 동안이나 사람들을 해치게 하는 권세가 있더라**.

아무리 앞과 뒤에, 많은 설명이 장황하게 되어 있어도 결론은 하나다. 죽이지는 못하고 괴롭게만 할 수 있다는 것, 그러므로 6절에 사람들이 죽음을 구하여도 찾지 못할 것이요, 죽으려고 애를 써도 죽음이 그들을 피한다는 것은 사람들이 마음의 안식과 평안을 찾으나 찾지 못한다고 해석되어야 한다. 먼저 말한 배도와 같은 의미이겠지만 이 배도자들중에서도 나무들에 속하는 목사들이나 장로들이 앞장서서 배도한다면 그들을 따르던 신자들은 그 갈등에 죽을 것 같은 고통을 느낄 수 밖에 없을 것이다. 바로 그것을 가리킨 것이므로 이 세대는 스스로 말 씀을 깨우쳐서 그런 미혹에 빠지는 일이 없도록 해야 할 것이다. 이들이 다섯달동안 괴롭힌다고 하는 의미는 말 그대로 다섯달이다. 짧다면 짧고 길다면 긴 시간이 될 것이다. 그리고 4절을 보면 인맞은 사람들이 존재함을 알 수 있게 되는데, 우리가 앞에서 보았던 7장에서는 인을 치기 전에는 손상시키지 말라고 했었음을 볼 수 있었다. 그런데 이 때는 인을 맞은 상태의 성도를 볼 수가 있다. 미루어 짐작하건대, 이 인(인)은 전삼년반기간中(중)에 맞을 것으로 분별이 된다. 숫자로 풀이할 때에 보면 확실히 알게 되겠지만 이 메뚜기같은 배도자들이 나오는 때는 적그리스도의 7년기간중 딱 3년이 지나갈 무렵이다. 한때와 두때와 반때중에 반때(6개월)에 해당하는 기간의 시작 때인 것이다. 그러므로 이 때 이전에 인을 맞는다고 봐야함이 시간적으로 오류가 없음을 알 수 있을 것이다.

(11) 또 그들에게는 자기들을 다스리는 왕이 있으니 끝없이 깊은 구렁의 천사요, **그의 이름은 히브리어로 아바돈이며 헬라어로 그의 이름은 아폴루온이더라**.

아바돈은 히브리어로 파괴를 의미하고 헬라인인 아폴루온도 파괴자라는 뜻을 가지고 있다. 적그리스도의 또 다른 이름이라 하겠다. 이 다섯째나팔이 전삼년반일 수 밖에 없음을 증명하는 또 다른 단서이다. 이 깊은 구렁의 천사는 용으로 불리는 사탄이다. 그리고 그는 짐승에게 자신의 권세를 준 것이다. 용이 곧 짐승이고 짐승이 곧 용이다. 이것은 하나님아버지와 아들을 흉내 내는 것에 불과하다. 넷째나팔까지는 그의 존재가 입증되지 않았지만 비로소 이 때에야 그가 등장함으로 말미암아 한이레 동안 약속을 맺는다는 다니엘 9장의 말씀이 성취되는 것이다.

(27) 그가 장차 많은 사람으로 더불어 **한 이레 동안의 언약을 굳게 정하겠고** 그가 그 이레의

절반에 제사와 예물을 금지할 것이며 또 잔포하여 미운 물건이 날개를 의지하여 설 것이며 또 이미 정한 종말까지 진노가 황폐케 하는 자에게 쏟아지리라 하였느니라

이렇게 전삼년반의 환란은 지나간다. 이 전 삼년반은 한때와 두때와 반때의 때로서 성도의 기간이다. 그래서 그나마 이렇게 환란의 정도가 약한 것이다. 그러나 후삼년반은 마흔두달의 기간으로 짐승의 때이다. 이 때로부터 말로할 수 없는 대환란이 펼쳐지게 될 것이고 또 시작되게 된다. 그 시작은 이역의 군대가 이역의 성도들을 죽임으로써 시작이 될 것이다.

## 2) 여섯 번째 나팔, 후삼년반의 대환란

(12) 한 가지 화는 지나갔으나, 보라, 아직도 이후에 두 가지 화가 더 오리로다.

이 처음에 나오는 한가지 화는 한때와 두때와 반때의 환란, 즉 전삼년반의 환란을 얘기하는 것이고, 아직도 두가지 화가 더 온다는 것은 여섯째나팔인 후삼년반의 환란, 그리고 마지막 일곱 번째 나팔인 하나님 진노의대접의 화가 더 온다는 것을 말함이다.

(13) 여섯째 천사가 나팔을 불 때 내가 들으니, 하나님 앞에 있는 금제단의 네 뿔에서 한 음성이 나는데

(14) 나팔을 가진 여섯째 천사에게 말하기를 "큰 강 유프라테스에 결박하여 놓은 네 천사를 풀어 주라."고 하니

(15) 그 네 천사가 풀려나더라. 그들은 사람들 삼분의 일을 죽이려고 그 연, 월, 일, 시를 위하여 예비해 둔 자들이라.

(16) 기병대의 수는 이역이니 내가 그들의 숫자를 들었노라.

이 네천사가 누구인지 얘기하면 받아들이기 어렵겠지만, 그럼에도 설명을 해보도록 하겠다.

계시록12장이다.

...

(7) 또 하늘에 전쟁이 있으니 미카엘과 그의 천사들이 용을 대항하여 싸우고 **용과 그의 천사들**도 싸우나..

이 미카엘과 그의 천사들이 용을 대항하여 싸우고 용과 그의 천사들도 용을 대항해 싸운다. 이 때 용을 따르는 그의 천사들의 숫자가 바로 이역인 것이다. 또 이들이 유프라테스강의 천사들인 것이고 어느 시기까지 활동을 제약받게 된 어둠의 天使(천사)들이기도 한 것이다. 같은 이치로 같은장인 12장 4절에 보면 하늘의 별 삼분의 일을 땅에 던지게 되는데,

(4) 그런데 그의 꼬리로 **하늘의 별 삼분의 일**을 끌어다가 땅에 던지더라. 또 그 용이 그 아이가 태어나자마자 삼키려고 출산하려는 그 여인 앞에서 있더라.

이를 확인해 推論(추론)해 보면 그를 따르는 천사들의 수가 무려 삼억정도나 됨을 알 수가 있게 되는 것이어서 하나님께 反逆(반역)한 무리들의 수가 실로 엄청남을 알 수 있다. 이것은 다시 창세기 6장2절의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 딸들의 아름다움을 보고 마음에 드는 모든 여자로 아내를 삼는지라, 라고 하신 그 하나님의 아들들이 누구인가를 헤아려볼 수도 있는 좋은 구절이라 하지 아니 할 수 없겠다. 이 하나님의 아들들에 대해서는 잠시후에 다시 한번 세세히 알아보기로 하자.

본론으로 돌아와서 이 네천사의 수는 이역이다. 이 이역이란 숫자를 굳이 언급하신 것은 그 사실을 우리로 하여금 깨달아 알라고 하신 하나님의 배려라고 할 수 있다. 이 천사는 기병대이고, 넷이라는 숫자가 이역이 된 것이다. 하나님의 계시방법을 알 수 있는 한 단면이라고 볼 수도 있겠다. 그렇다면 이 네천사중 한 천사의 수가 무려 오천만명이란 계산이 나온다. 그런데 그런 그들이 그 연, 월, 일, 시에 사람들 삼분의 일을 죽인다고 한다. 자세히 들여다 보자. 그 年(년)도 아니고 그 月(월)도 아니며, 그 日(일)도 아니고, 그 時(시)에 사람삼분의 일을 죽인다고 하는 자세한 설명말이다. 이것은 그들이 죽여야 할 대상(성도)가 가까이 이미 접근하고 있었음을 알려주는 것이라 하겠다. 그리고 어떤 지령을 받은 후에야 일을 실행할 것이거나, 그게 아니라면 그 定(정)해놓은 時(시)를 기다려서 사람 삼분의일을 죽인다는 것을 演繹的(연역적) 方法(방법)에 의해 推理(추리)해 볼 수 있을 것이다. 그렇다면 이역의 군사는 같은 수의 성도 이역명을 죽이는 것이라고 볼 수 있음을 아시겠는가, 믿으시기 어려울 것이다. 강요는 하지 않는다. 아시아의 일곱교회를 언급하면서 다시 한번 설명하도록 하겠으니 기다리시라. 다음절이다.

(17) 또 내가 환상 가운데 말들과 그 위에 탄 자들을 보았는데 그들은 불과 제신스와 유황으로 된 흉배를 지녔으며, 말들의 머리는 사자들의 머리 같고 그들의 입에서는 불과 연기와 유황이 나오더라.

(18) 이 세 가지, 즉 그들의 입에서 나오는 불과 연기와 유황으로 말미암아 사람들의 삼분의 일이 죽더라.

(19) 그것들의 힘은 그들의 입과 꼬리에 있으니, 이는 그들의 꼬리가 뱀 같고 머리가 달렸으며 그것으로 상하게 하더라.

바로 이것이 일반 사람들이 아닌 사탄을 따르는 타락한 천사들이라고 하는 것을 증명해 주는 구절이다. 주석을 보자

요한은 자신이 보는 광경이 실제의 기병대를 보고 있음이 아니라 미래에 되어질 종말적 환상의 상황에 대한 서술임을 밝히고 있다. 그 말들과 그 탄 자들을 보니 불빛과 자주빛과 유황빛 흉갑이 있고, 에서 이 세 가지 빛깔의 흉갑은 전후문맥의 기술 방식이 환상적인 것으로 보아 흉갑의 색깔이 반드시 세가지 색깔로 이루어진 것이라기보다는 초자연적인 모습의 흉폭함을 암시하는 듯하다. 말들의 머리는 사자 머리 같고 그 입에서는 불과 연기와 유황이 나오더라는 불과 유황을 내뿜는 괴물로 기술하는 표현은 고대신화에서 흔히 등장하며 이것은 괴물의 잔인성과 파괴성을 보여준다 할 수 있겠다.

이상 주석에서 얘기하듯이 영적인 힘을 가지고 있는 어떤 존재들임을 표현한 것이라고 볼 수 있겠다. 그런데 우리가 主義(주의)깊게 한번 짚어보아야 할 문제가 있다. 바로 18절이다. 15절에서의 삼분의일과 이 18절에서의 삼분의 일은 같은 삼분의 일인가 하는 것이다. 이것은 같은 삼분의일 일수도 있겠지만 다른 삼분의일 일 수도 있음을 좌시하지 말아야 할 것이다. 그렇다면 이 부분에 대해서도 앞서 잠깐 설명한 바 있지만 이역의 순교성도가 삼분의 일이라면 두 번째 삼분의 일도 바로 이역이 됨을 알 수 있을 것이다. 그래서 모든 순교성도의 숫자가 사역 정도가 된다고 계시록7장을 설명하며 언급했던 것이다. (이것에 대해서는 후에 일곱교회를 설명하면서 다시 설명하도록 하겠다)

그리고 앞으로 교회의 상급에 관한 얘기를 하면서도 다루게 되겠지만 대환란중에 이렇게 수 없이 많은 순교자가 배출되는 것은 믿음의 승리이기도 하겠지만 도저히 인간의 힘으로서는 어찌해 볼 수 없는 건잡을 수 없는 상황이 오기 때문이다. 바로 영적인 존재들의 드러남이 있을 것이라고 보기 때문이다. 여기서 그것에 대한 이해를 돕기 위해 다니엘서 9장을 다시 한번 보도록 하자.

(26) 육십 이 이레 후에 기름부음을 받은 자가 끊어져 없어질 것이며 장차 한 왕의 백성이 와서 그 성읍과 성소를 훼파하려니와 그의 종말은 홍수에 엄몰됨 같을 것이며 또 끝까지 전쟁이 있으리니 **황폐할 것이 작정되었느니라** -다니엘9장,개역

장차 한 왕의 백성이라는 것은 짐승을 얘기함이고요, 성읍과 성소를 훼파하고, 그의 종말이 홍수에 엄몰된다는 것은 끝이 있다는 것이요, **황폐할 것이 작정되었다**라는 것의 의미는 그렇게 될 것으로 정해졌다는 것이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시겠다고 결정내리신 부분이다. 이것에 대해서는 누구도 돌이킬 수 없는 하나님의 예정하심에 관한 것이라는 宣言(선언)이다. 짐승의 마흔두달이 다시없을 대환란이며 땅이 생겨난 이래 그런 환란이 없을 것이라는 사실도 예수님 말씀을 통해 잘 알고 있다. 그리고 삼년반이라는 세월은 결코 짧은 시간이 아닐 것이다. 후삼년반이 당시의 성도들은 물론 일반사람들에게도 다시 없을 환란임에는 틀림없을 것이므로, 그렇다면 그 때는 상식이 통하지 않은 무엇인가가 활동하는 것임을 무언중 성도에게 암시하고 있는 것은 아닐까, 앞서 언급한 영적인 무엇인가가 활동을 한다면 그 무리들은 용을 따르고 있는 **타락한 천사**가 될 가능성이 높을 것이다. 그것에 대해서는 앞서 잠깐 언급했었다. 이제 자세히 한 번 알아보도록 하자.

창세기6장

(1) 사람들이 지면에서 번성하기 시작하고 딸들이 그들에게서 태어났을 때

(2)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들의 딸들이 아름다운 것을 보고, 그들이 택한 모든 자를 아내들로 삼으니라.**

(3)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나의 신이 영원히 사람과 함께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그들이 육체가 됨이라** 그러나 **그들의 날은 일백 이십년**이 되리라 하시니라

(4) 당시에 땅에 **네피림**이 있었고 **그 후에도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을 취하여 자식을 낳았으니** 그들이 용사라 고대에 유명한 사람이었더라

-히브리어인 네피림(nephirim)은 nephal이 어원인 타락한자라는 뜻을 가지고 있고, 그리스어로 번역한(70인역)에는 gigantes,(땅에서 난자) 그리고 영어KJB성경에는 giants(거인)로 번역되어 있다 -

여기서 하나님의 아들들은 누구를 말함인가, 주후 5세기경 성경학자들은 이 하나님의 아들들이란 것에 困惑(곤혹)감을 느꼈다. 그래서 그 때부터 아담의 아들 중 아벨대신에 얻은 아들, 셋을 하나님의 아들들이라 보는, 소위 경건한 셋라인을 만들어서 가르쳤다. 이들이 하나님의 아들들인데 사람의 딸들인 가인의 딸들을 취하여 자식을 낳은 것이 하나님께 犯罪(범죄)함이 되었다라고 지금도 신학교에서는 그렇게 가르친다. 글썽 그럴 수도 있겠다. 하지만 그렇다고 하더라도 셋라인이 사람의 아들이 아니라고 보는 것은 우스꽝스럽게 보이는게 사실이다. 이 셋을 낳기 전에도 하나님께서는 사람을 하나님의 아들들같은 不滅(불멸)의 存在(존재)로 보시지는 않으셨다. 사랑하신 것은 사실이겠지만 말이다. 창세기 3장이다.

(19) 네가 얼굴에 땀이 흘러야 식물을 먹고 필경은 **흙으로 돌아 가리니 그 속에서 네가 취함을 입었음이라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갈 것이니라** 하시니라

그리고 이것과 대조해 창세기6장 6절의 肉體(육체)가 됨이라“하는 말씀을 한 번 비교해 보자. 원래 셋라인이든 아담라인이든 혹은 가인라인이든간에 상관없이 이들은 흙에서 지음받은 사람이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을 詳考(상고)해보면 마치 하나님의 아들들은 땅에서 지음받지 않았지만 그들이 스스로 타락하여 사람처럼 되어 버린 것을 언급하시는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가 하는 것이다. 아무리 하나님을 잘 믿는다고 해도 육체로는 죄를 아니 질 수가 없다. 혹시 이 당시에 태어난 사람들이 정말 하나님을 잘 믿었을거라는 믿음이나 그들에

대한 敬畏(경외)감을 가지고 있지 않다면, 사실 그대로를 볼 수 있는 시각을 가질 수 있을 것이다.

단적인 예를 들어보자.

가인이 왜 범죄했는가, 우리하고 똑같은 질투심과 죄를 짓는 습성을 가지고 있지 않았고, 소위 경건함만이 있었다면 그가 동생을 죽일 수 있었을거라고 생각하는가, 왜 아벨은 그렇지 않았는데 가인만 그런 습성을 가졌을 거라고 생각하는가, 바로 이것이, 사람이 가지고 있는 인성이나 습성은 그 때나 지금이나 별반 차이가 없음을 보여주는 것은 아니겠는가 말이다.

그렇다면 우리는 이 하나님의 아들들을 굳이 셋라인이라고 고집하거나 생각해야 할 필요가 없을 것이다. 바로 이 하나님의 아들들은 사람의 딸들을 취해 네피림(잡종)을 낳았던 하나님의 천사들이었다고 보는 것이 앞으로 일어나는 사건들에 대해 가장 합당한 事由(사유)가 될 것이다. 왜냐하면 그 후에도 네피림이 있었다는 사실을 보아도 그렇다. 그로 인해 하나님께서는 네피림과 피가 섞이게 하지 않기 위해 이집트에서 사백년간 이스라엘민족을 따로 분리해서 보살피실 수 밖에 없으셨던 것이다. 그건 이후 출애굽을 한 후에 가데스바네아에서 가나안 땅을 탐지하기 위해 12정탐꾼을 보냈을 때, 그 정탐꾼들이 돌아와서 했던 얘기를 들어보면 이러한 사실이 조금 더 확실해 진다. 민수기 13장이다.

(32)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그 탐지한 땅을 악평하여 가로되 우리가 두루 다니며 탐지한 땅은 그 거민을 삼키는 땅이요 거기서 본 모든 백성은 **신장이 장대한 자들**이며

(33) 거기서 또 **네피림 후손 아나 자손 대장부들**을 보았나니 우리는 스스로 보기에도 메뚜기 같으니 그들의 보기에도 그와 같았을 것이니라

그럼 창세기6장에서의 네피림사건등, 이러한 일련의 사건들에 대해 주님께서서는 뭐라 말씀하시는지 알아보자.

마태복음24장

(37) **노아의 때와 같이 인자의 임함도 그러하리라**

(38) 홍수 전에 노아가 방주에 들어가던 날까지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장가 들고 시집 가고 있으면서

(39) 홍수가 나서 저희를 다 멸하기까지 깨닫지 못하였으니 인자의 임함도 이와 같으리라

여기서 37절의 “노아의 때와 같다” 라는 것을 38, 39절에서 설명하고 있다고 이해해도 좋다. 그리고 그렇게 보고 있지만 제위께서는 이미 당시 노아의 때에 단지 이런 일만 있지는 않았었다라는 사실을 미리 살펴 보았다. 바로 네피림의 때가 있었다는 것이다. 그럼 이렇게 말도 안 될 것 같은 일들이 과연 적그리스도의 한이레중 후삼년반에도 일어날 수 있는 상황인가를 알아보기 위해 이번에는 다니엘서 2장으로 가보자.

(40) 넷째 왕국은 철같이 강한 왕국이 될 것이니 철은 모든 것을 산산조각 내며 이기는 것이다. 철이 모든 것을 부수는 것같이 그 왕국이 산산조각을 내고 깨뜨릴 것이니이다.

이 넷째왕국은 세계정부(NWO)로 불리며 가까운 시일내에 이루어질 것이고, 열왕이 있으며, 적그리스도가 권세를 잡는 사탄의 마지막왕국이다.

(41) 그 일부는 토기장이의 진흙이며 일부는 철인 발과 발가락을 왕께서 보셨으니 그 왕국이 나뉘어질 것이며, 왕께서 철과 차진 진흙이 섞인 것을 보셨으니 그 왕국에는 철의 강함이 있을 것이니이다.

(42) 또한 그 **발가락의 일부는 철이요 일부는 진흙이므로 그 왕국이 부분적으로 튼튼하고 부분적으로 부서질 것이니이다.**

(43) 왕께서 철과 차진 진흙이 섞인 것을 보셨으니, **그들은 다른 인종과 섞일 것**이나 그들이 서로 합하지 못하는 것이 **철이 진흙과 섞이지 못함과 같으리이다.** -**킹제임스**

#### 43절만 다른 성경을 같이 살펴보자.

(43) 왕께서 철과 진흙이 섞인 것을 보셨은즉 그들이 **다른 인종과 서로 섞일 것**이나 피차에 합하지 아니함이 철과 진흙이 합하지 않음과 같으리이다 -**개역성경**

(43) 왕께서 쇠와 진흙이 섞인것을 보신 것같이 **그들이 자신을 사람들의 쇠와 섞을 터이나 쇠와 진흙이 섞이지 아니함같이 그들이 서로에게 달라붙지 못하리이다.**-**킹제임스흠정**

(43) And whereas thou sawest iron mixed with miry clay, **they shall mingle themselves with the seed of men:** but they shall not cleave one to another, even as iron is not mixed with clay. **KJB**

한글킹제임스와 개역에는 의역이라고 볼 수도 있는 오역이 되어 있지만 킹제임스흠정역과 영문킹제임스에 보듯이 바른 번역을 보면 인종이 아니고 **그들이 자신을 사람들의 쇠와 섞는 다고** 표기 되어 있다. 이것이 곧 창세기에서 보았던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을 취한다는 것과 어떤 연관성이 있어 보이지는 않으나, 바로 노아의 때와 같이 후삼년반때도 하나님의 아들들이라고 불렸던 타락한 천사들이 사람의 딸들을 취하여 타락한자를 낳으려는 것을 시도 할 것이라고 볼 수도 있는 것이다. 그럼으로써 이 때에는 남자들보다 여자들에게 특히 크나 큰 시련이 있을 것임을 알 수 있겠다. 그것을 허락하시고 또 마지막으로 그렇게 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주님께서는 이 타락한 천사들마저 모두 심판에 던져 넣으실 것이다. 그러므로 마지막이 황폐하게 될 것이라고 미리 말씀하셨으며, 그렇게 정하셨다는 말씀을 남기셨다고 볼 수 있겠다. 마지막으로 이 하나님의 아들들인 타락한 천사에게 수욕을 당할 사람의 딸들에 관해 예수님이 남기신 말씀이 있는 마태복음24장을 보자.

(19) 그 날들에는 **아이를 뱀 자들과 젓 먹이는 자들에게 화 있으리라!**

그리고 스가랴14장이다.

(1) 여호와와 날이 이르리라 그 날에 네 재물이 약탈되어 너의 중에서 나누이리라

(2) 내가 모든 민족들을 모아 예루살렘을 대적하여 싸우게 하리라. 성읍은 함락되고 집들은 강탈당하며 **여자들이 욕을 당하고**, 성읍의 절반이 사로잡혀 갈 것이나 백성의 나머지는 성읍에서 끊어지지 아니하리라.

이 아이를 뱀 자들과 젓먹이는 자들은 모두 여자들임을 부정할 수 없고, 스가랴14장도 마찬가지이다. 특히 이 스가랴 14장의 예루살렘은 성도들이 당할 후삼년반의 환란을 말씀하신 것이다. 여기 끌어온 1절과 2절은 후삼년반의 상황을 묘사한 것이라는 것이다. 그리고 타락한 천사들은 어차피 자신들의 운명이 어찌될지를 잘 아는 자들이다. 이들에 대해 조금 더 살펴보자면 하나님께서 세상과 사람을 처음 만드셨을 때, 모든 천사들이 노래하며 기뻐소리했으나,

욥기38장

....

- (4) 내가 땅의 기초를 놓을 때에 네가 어디 있었느냐 네가 깨달아 알았거든 말할지니라
- (5) 누가 그 도량을 정하였었는지 누가 그 준승을 그 위에 띄웠었는지 네가 아느냐
- (6) 그 주초는 무엇 위에 세웠으며 그 모퉁이 돌은 누가 놓았었느냐
- (7) 그 때에 새벽 별들이 함께 노래하며 **하나님의 아들들이 다 기쁘게 소리하였었느니라**

특히 사람의 탄생을 누구보다 좋아하고 반겼던 이들중에 바로 이 타락한 천사들이 있었던 것이다. 그들은 여자의 탄생을 너무 좋아해서 자신이 좋아하는 모든 여자로 아내를 삼아 네피림을 낳게 했었고, 그것이 하나님의 진노를 불러 홍수에 진멸되는 결과를 낳았으며 그 후에도 그들의 범죄는 계속되었으나, 정한 때, 어느 날까지는 활동이 금지되어 더 이상 범죄하지 못했을 것이라고 보이며, 이제 이 대환란날에 그들이 풀려남으로 재앙의 한 면을 맡은 주체가 되어 믿는 자들을 넘어뜨리려 할 것이다“라는 것이다.

사실 초대교회에서는 네피림이 있었다라는 이 사실을 받아들이는데 아무런 거부감이 없었다고 한다. 말씀 그대로를 믿었기 때문일 것이다. 그런데 소위 배웠다는 사람들의 자칭 타칭 理性(이성)적인 판단이라는 것에 하나님의 일들이 축소되고, 그로 말미암아 창세기의 이적들이 싸구려 神話(신화)로 내몰리게 되버린 것이다. 믿는다는자들부터 그렇게 몰아가고 있는 것은 아닌지 반성하며 한번 되돌아봐야 할 때가 아닌가 싶다. 하나님의 일들은 靈(영)적이어서 우리의 이성으로 정확히 알지 못하고 이해하기 힘든 일이 있음을 스스로 알고 깨달아 그분 말씀 앞에 겸손히 서야 할 것으로 본다. 한가지 더 언급하자면 창세기6장3절에 성도들이 오해할 수 있는 부분이 있다. 그리고 그들의 날은 일백이십년이 되리라고 하신 말씀은 그들의 나이가 일백이십년이 될 것이라는 말씀이 아니고, 그로부터 일백이십년후에 모든 것을 쓸어버릴 홍수가 있을 것이라는 말씀이다.

다시 본론으로 돌아와서 후삼년반에 있을 그들의 출현은 믿는자들에게 많은 시련을 줄 것이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존재하심에 대한 믿음에 회의가 생길 것으로 보기 때문이다. 그 이유는 그 영적인 존재들의 출현이 외계인처럼 보이는 것과 무관하지 않을 것이고, 특히 UFO(미확인비행물체)의 본격적인 등장과 함께 시작될 것으로 보기 때문이다. 믿는자들로서 지금 심심찮게 UFO의 출현이 잦아지고 있음도 간과하지 말아야 할 것이다. 특히 미국정부는 그것에 대한 정보를 은폐하는데 온 힘을 기울이고 있다고, 오히려 그에 대한 잘못된 정보들을 철세 없이 쏟아내고 있다. 마지막날에 믿는 자들을 혼란에 빠뜨리기 위한 것으로 분별이 되고 있으니, 특히 성도들은 이것에 관한 지식도 어느 정도는 습득하고 있어야 할 것으로 보인다. 이에 대한 정보는 블로그나 카페에서 습득하시기 바란다. 특히 이 UFO는 7장에 있는 십사만사천 사건이 터진 이후인 후삼년반, 짐승의 때에 더욱 기승을 부릴 것이라 보고 있다. 여기에 대한 설명은 이만 접도록 하고 이제 20절을 보도록 하자.

- (20) 그리고 이러한 재앙으로 죽지 않은 나머지 사람들은 자기들의 손으로 행한 행실을 여전히 회개하지 않고, 마귀들과 보지도 듣지도 견지도 못하는 금, 은, 동, 돌과 나무로 된 우상들에게 경배하기를 그치지 아니하며
- (21) 또 자기들의 살인과 마술과 음행과 도둑질을 회개하지 아니하더라.

여기에서도 이 말씀이 쓰여질 수 있겠다.

(41) 그는 또한 영광스러운 땅에 들어갈 것이요 많은 나라들이 전복될 것이라. 그러나 이들을 곧 **에돔과 모압, 그리고 암몬 자손의 우두머리는 그의 손에서 피하리라.** -다니엘11장

악의 축을 맡은 쪽의 고귀한 자들은 마지막심판의 진노하심의 격렬함을 위하여 하나님께서 피하게 하심을 알 수 있다. 20절은 우상숭배를 말씀하심이요, 21절은 그들이 늘상 습관처럼

해왔던 살인(미혹)이나 마술(음모와 술수), 음행(우상숭배), 도둑질(사람의 영혼탈취)등을 회개하지 않고 하나님께 등을 돌리고 **짐승과 거짓선지자**의 편에 선 것을 알 수 있다. 이 짐승 들은 불뭇에 던져질 것이니 이제 그들은 어찌되겠는가,

(20) 그러나 그 **짐승이 잡히고, 짐승 앞에서 기적을 행하던 거짓 선지자**도 그와 함께 잡혔으니 그는 짐승과 더불어 그 짐승의 표를 받은 자들과 그의 형상에 경배한 자들을 속이던 자라. 이 둘이 유황으로 불타오르는 불뭇에 산채로 던져지더라.-계시록19장

오직 뜨거운 형벌만이 있을 뿐이다.

## 10. 계시록 10장, 이 천사를 예수그리스도로 볼 수 있는가,

우리는 9장에서 후삼년반의 극심한 대환란을 겪고 이제 막 빠져 나왔다. 그렇다면 이제 그 다음에 올 것은 하나님의 심판이 이 땅에 떨어지는 45일간의 마지막 일곱 번째 나팔재앙, 즉 하나님의 진노의 일곱 대접이 떨어지는 일을 남겨두고 있음을 큰 그림을 통해서 알고 있다. 그런데 그 진노에 관해서는 계시록15장과 16장에 자세히 서술이 되어 있으므로 건너뛰시고 **예수그리스도의 강림을 다루고 계신다**. 그렇다, 그렇게 순차적인 것을 뻔하게 드러나게 계시하셨다면 11장이나 12장에서 계시록은 끝나야한다. 그럼 누구나 다 알고 풀이할 수 있었을 것이다. 그런데 그렇게 하지 않으셨다. 대신 10장은 예수그리스도께서 내려오시는 것을 감추시고 힘센 천사로 상징화함으로써 끝내시고, 11장3절에서 우리가 처음에 살펴봤던 예수님의 지체가 되는 교회의 탄생으로 되돌리시는 것이다. 이 사실을 염두에 두고 살펴보도록 하자. 10장은 주석형식으로 풀이를 밑쪽에 다는 방식으로 진행하겠다.

(1) **내가 보니, 다른 힘센 천사가 하늘에서 내려오는데 구름으로 옷입고 머리에 무지개가 있으며, 얼굴은 해와 같고 그의 발은 불기둥 같더라.**

구름으로 옷 입는 것은 주님께서 재림하실 때 구름을 타고 오는 것과 연관관계가 있으며, 또한 머리에 무지개는 계시록4장3절의 하나님의 보좌에서 보았던 무지개가 연상이 된다. 또한 얼굴은 해와 같고 그의 발은 불기둥같더라 라는 말씀은 그의 영광과 굳건한 능력을 드러내고 있음도 알 수 있다.

(2) 그의 손에는 작은 책이 펴 있고 오른쪽 발은 바다를, 왼쪽 발은 땅을 밟고서

(3) 사자가 포효하는 것처럼 큰 음성으로 외치니, 그가 외칠 때 일곱 천둥이 소리를 발하더라.

(4) 그 일곱 천둥이 소리를 발할 때 내가 막 기록하려는데, 하늘에서 한 음성이 내게 들리며 말하기를 "**일곱 천둥이 말한 것들을 봉인하고 기록하지 말라.**"고 하시더라.

하늘에서 나는 이 음성은 성부하나님의 음성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

문제는 기록하지 말라고 하는 음성인데, 그 이유는 그것을 적는 순간 너무나 명백히 우리가 알고 있는 그 무엇이 드러나는 결과가 오기 때문에 그럴 것이다. 무엇일까, 확실하지는 않지만 일곱천둥이 낸 소리는 혹시 하나님의 진노, 즉 일곱 대접재앙을 암시하는 것은 아닐까 분별하고 있다. 그러나 아무도 그것을 확신할 수는 없다. 비밀이기 때문이다. 그러나 그 궁금증은 밑에 절을 읽어보면 어렵듯이 알려주시듯이 드러난다.

(5) 또 내가 본 그 천사가 바다와 땅 위에 서서 하늘을 향하여 그의 손을 들고

(6) 하늘과 그 안에 있는 것들과 땅과 그 안에 있는 것들과 바다와 그 안에 있는 것들을 창조

하신 영원 무궁토록 살아 계신 그 분을 두고 맹세하기를 "더이상 지체하지 않을 것이다."

(7) 일곱째 천사가 소리를 내는 날들에 그가 나팔을 불게 되리니, **그때에 하나님의 신비가 그 분께서 자기의 종들인 선지자들에게 선포하신 것과 같이 이루어질 것이다.**"고 하더라.

6절의 더 이상지체하지 않을 것이라는 이 말씀은 명백히 주님 재림의 상황을 말씀하시는 것이다. 지체하지 않으신다는 것은 속히 오시겠다는 말과 같은 말이다. 주님께서는 항상 속히 오마시며 성도들을 위로하셨다. 하나님의 신비가 선지자들에게 선포하신 것과 같이 이루어진다고 하는 구절을 알아보기 위해서 우리는 주님께서 그보다 앞선 선지들에게 무슨 말씀을 선포하셨는가를 알아야 한다.

우선 예언적선지서라고 하면 다니엘을 꼽을 수 있다. 예수그리스도께서 직접 다니엘에게 나타나셔서 미래의 일을 알려주셨으니 다니엘은 하나님의 사랑받는 종이 틀림없다 하겠다. 또한 이사야, 아모스, 에스겔, 다니엘, 요엘, 스가랴, 말라기가 있으며 은혜의 시대에 마태, 누가, 베드로, 바울, 그리고 요한을 포함하여 말씀하시는 것일 거다. 이렇게 거침없이 말씀하실 수 있으신 분이 예수그리스도가 아니라면 도대체 누구란 말인가,

또 하나의 증거를 살펴보면 이 천사가 누구를 두고 맹세하는가를 보라. 주님께서는 우리더러 하늘을 두고도 땅을 두고도 맹세는 하지 말라고 하셨다. 그저 맞으면 맞다 아니면 아니다 하라 하고 우리가 맹세를 하는 것에 제한을 두셨던 것이다. 그런데 이 천사는 하늘이나 땅도 아닌 하나님 그 분을 두고 맹세하고 있다. 백번 양보해서 천사니까 우리 인간들보다는 격이 높으니 하늘과 땅에 대고 맹세하는 것은 가능할지 모르겠으나, 그러나 감히 피조물의 신분으로써 하나님을 두고 맹세할 수는 없을 것이다. 더군다나 계시록에 나오는 천사들은 항상 겸손하며 하나님을 모시는 자신의 신분을 결코 잊지 않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 그런데 이 천사는 다르다. 하나님을 두고 맹세한다. 그 이유는 바로 이 분이 하나님자체이시고 또 우리의 왕되시며, 우리의 주가 되신 예수그리스도이기 때문에 가능하다는 것을 누가 감히 부인할 수 있겠는가,

(8) 또 내가 하늘로부터 들은 그 음성이 내게 다시 말하여 이르기를 **"가서 바다와 땅 위에서 서 있는 그 천사의 손에 찢은 작은 책을 가지라."**고 하더라.

(9) 그래서 내가 그 천사에게 가서 그에게 말하기를 "그 작은 책을 내게 달라."고 하였더니, 그가 나에게 말하기를 **"잡아서 먹어 버리라. 네 배에는 쓰겠지만 네 입에는 꿀처럼 달 것이다."**고 하더라.

또 하나의 증거가 드러나고 있다.

성부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을 천사가 감히 바꿀 수는 없다. 하늘의 음성은 취하라고 했지만, 이 천사는 먹어 버리라고 한다. 성부하나님과 동등한 권한을 가지신 분이며, 아버지의 뜻을 곧 아들자신의 뜻처럼 행사하는 것을 볼 수 있다.

(10) 그리하여 내가 천사의 손에서 그 작은 책을 가져다가 먹으니, 내 입에는 꿀처럼 달다 먹고 나니 내 배에는 쓰더라.

(11) 그때 그가 내게 말하기를 "네가 많은 백성들과 민족들과 언어들과 왕들 앞에서 다시 예언해야 하리라."고 하더라.

11장의 2절까지는 0장에서 그대로 이어진다.

(1) 또 내게 지팡이 같은 갈대를 주며 그 천사가 서서 말하기를 "일어나서 하나님의 성전과 제단과 그 안에서 경배하는 자들을 측량하라.

**2절에 마흔두달이 있음을 보고 그 상황은 후삼년반임을 안다면 이 1절의 상황은 전삼년반임을 자연적으로 알 수 있겠다. 하나님의 제단과 그 안에서 경배하는 자들을 측량하라는 말씀을**

보고, 또 7장이나 9장의 전삼년반(한때와 두때와 반때)에 인을 맞는 자들이 있다는 것과 연결을 시켜보면 경배하는 자들을 축량하라고 말씀하신 그 의미를 짐작해 볼 수 있을 것이다.

(2) 그러나 성전 밖에 있는 들은 남겨 두고 축량하지 말라. 이는 그것을 이방인들에게 주었으며 그들이 마흔 두 달 동안 그 거룩한 도성을 짓밟을 것이기 때문이다.

마흔두달, 곧 후삼년반에 적그리스도, 짐승들에 의해 성도들이 대환란을 겪을 것을 암시한 말씀이다.

이 후 11장은 3절부터 시작됨으로 이해를 해야 함은 앞에서 살펴봤던 바 그대로다. 원래 성경이라는 것이 장과 절의 구분이 없었던 것을 근래에 들어 이해를 쉽게 하고, 많은 사람이 공부하는 중 찾기 쉽게 하기 위하여, 삽입한 것이기 때문이다. 1절에 "또"와 2절에 "그러나"가 들어 있으므로 1절과 2절이 10장에 속해 있음을 부인 할 수 없다. 그렇다면 11장은 3절부터라고 이해해야 할 것이다.

이 11장의 3절이나 4절이후 절부터는 어느 절부터라도 장으로 분리하기가 애매하고 그렇게 하기도 어렵다.

물론 무엇을 믿느냐 하는 것은 본인의 판단이다. 이렇게 나누는 것도 학설의 일종이긴 하지만 이 주장에 지극히 공감한다는 얘기가.

(3) 내가 나의 두 증인에게 권세를 주리니, 그러면 그들이 굵은 베옷을 입고 일천이백육십 일을 예언하리라."고 하더라.

(4) 이들은 땅의 하나님 앞에 서 있는 두 올리브 나무이며 두 촛대니라.

이 두 증인을 나의 증인이라고 한다. 어떤 천사가 자신의 증인을 가질 수 있을까, 우리가 스가랴4장에서 미리 살펴보았듯이 이 두 올리브나무와 두 촛대는 기름부음받은 하나님의 특별히 선택된 백성들을 뜻한다. 이들은 하나님의 택함을 받은 것은 물론이요, 이미 하나님의 백성으로 구별되어진 자들이다. 그래서 이렇게 확정적으로 말씀하실 수 있는 분은 하나님밖에 없다. 그러니 이 천사를 우리 주이신 예수그리스도로밖에 볼 수 없는 것이다.

그리고 이후에 나오는 절들은 앞서서 이미 설명을 했으므로 이제 그 전에 말씀드렸던 12장의 하늘의 전쟁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다.

## 11. 계시록 12장, 하늘의 전쟁

이 12장은 앞서했던 설명들이 또 있을 수 있다. 참고하시기 바란다.

(1) 하늘에 큰 이적이 나타났으니 한 여인이 해로 옷 입었고, 달은 그녀의 발 밑에 있으며, 머리에는 열두 별이 있는 면류관을 썼는데

(2) 아이를 뱀 그 여인이 산고로 울부짖으며 출산하려 함으로 아파하더라.

현재 시점으로 쓰여져 있다. 그리고 이 장면은 우리가 이미 알아본 바가 있듯이 예수그리스도의 초림을 앞둔 이스라엘의 상태이다.

(3) 하늘에 또 다른 이적이 나타났으니, 보라, 커다란 붉은 용 한 마리가 있는데 일곱 머리와

열 뿔이 있고 그 머리들 위에는 일곱 왕관이 있더라.

12장 전체는 긴 시간(2,000년 이상) 임에도 불구하고 항상 시점이 현재다. 그것을 주의하여 보자. 12장 마지막 17절에 그러자 그 용이 여인에게 분노하여 여인의 씨 가운데 남은 자들, 즉 하나님의 계명들을 지키며 “예수 그리스도의 증거를 가진 자들과 싸우려고 나가더라”라고 하는데까지도 현재 시각이라는 얘기다. 17절의 이 전쟁은 전삼년반이 지난 후다. 미래의 이 시간은 아직 도달하지 않았다. 그런 시점으로 쓰여진 기록이기에 용은 이미 일곱머리와 열뿔을 가지고 있는 듯이 서술되어 있는 것이다. 또 일곱머리는 그가 이 땅에서 가졌으며 또한 앞으로 가질 것인 땅의 권세를 의미하는 것이기도 하다. 일곱머리는 역사적인 일곱나라요, 열뿔은 아직 나라를 얻지 못한 말세의 넷째짐승의 왕들을 얘기한다. 이 짐승과 열뿔에 관해서는 계시록 13장과 17장에서 나누어 설명하도록 하겠다.

(4) 그런데 그의 꼬리로 하늘의 별 삼분의 일을 끌어다가 땅에 던지더라. 또 그 용이 그 아이가 태어나자마자 삼키려고 출산하려는 그 여인 앞에서 있더라.

보자, 용이 자신의 꼬리로 하늘의 별 삼분의 일, (이 별은 천사다, 계시록1장20절 네가 본 것은 나의 오른손 위의 일곱 별과 일곱 금촛대의 신비라. 일곱 별은 일곱 교회의 천사들이요, 네가 본 일곱 촛대는 일곱 교회라) 즉 천사들을 땅위로 던지듯 끌어내리는 장면이다. 이때 천사들 중 삼분의 일이 땅으로 끌려 내려왔지만, 아직 이 용은 하늘에서 쫓겨나지 않았음을 주목하자. 그리고 이 천사들이 어떤 역할을 하는지도 우리는 알지 못한다. 그런데 예수님이 오셔서 많은 귀신들린 자들을 고치신 것이 혹시 바로 이 천사들의 영향이 아닐까라는 의문이 생긴다. 왜냐하면 구약에서는 사람이 귀신이나 마귀가 들렸다는 사실을 쉽게 찾아볼 수 없기 때문이다. uc0 마귀를 섬긴다는 것이나, 영을 불러내는 일(접신하는자)은 귀신들리지 않은 사람도 해낼 수 있다. 그렇다면 uc0 말라기선지자때까지는 귀신들리는 일이 없었다고 봐야 할 것이다. 그럼 이 천사들이 끌려내려오는 시기는 예수그리스도초림 전 어느 때라고 볼 수 있을 것이다. 물론 이것에 대해 고대에도 정신병을 고치려고 사람의 머리에 구멍을 뚫어 고치려 시도한 흔적이 있다는 것을 주장하는 사람이 있을지 모르겠다. 그러나 진화론이 추측이고 믿음이듯이, 그 또한 추측하는 것일 뿐이다. 그러나 본인의 이런 분별 또한 어쩔수 없는 추측에 불과할 뿐임도 인정하는 바이다. 너무 신경쓰지 마시기 바란다.^^

(5) 그녀가 사내 아이를 낳았는데 이 아이는 모든 민족들을 철장으로 다스릴 자라. 그녀의 아이가 하나님과 그의 보좌 앞으로 들려올라 가더라.

예수그리스도의 부활, 승천을 얘기한다고 이미 우리는 알아본 바가 있다.

(6) 그 여인은 광야로 도망하였는데 그 곳에는 그들이 그녀를 일천이백육십 일 동안 부양하려고 하나님께서 그녀를 위하여 마련해 놓으신 곳이 있더라.

이 여인은 누구로부터 도망하는가? 왜 도망가는가? 이제 이 여인은 예수그리스도의 지체인 교회로 탈바꿈된 상태이다. 이스라엘은 초림한 메시아를 받아 들이지 않았고 그로 인해 이제 꿈은 접붙임 받은 양자의 영을 소유한 교회로 化(화)한 것이다. 이 廣野(광야)는 하나님이 예비한 특별한 장소이다. 그 의미는 하나님으로부터 보호받는다라는 것이다. 일천 이백 육십 일은 보이지 않는 교회의시대이며 은혜의시대라고 분별하였다. 이 여인은 자신을 해치려는 마귀의 세력으로부터 도망치는 것이다. 그런데 이 일천이백육십일 말고도 이후에 다시 여자는 한 때와 두 때와 반때에도 광야로 피신한다고 한다. 이 두 때사이에는 하늘의 전쟁이라는 시간이 존재하므로 일천이백육십일과 한때와 두때와 반때는 같은 때가 될 수 없음을 알 수 있다.

(7) 또 하늘에 전쟁이 있으니 미카엘과 그의 천사들이 용을 대항하여 싸우고 용과 그의 천사들도 싸우나

(8) 그들이 이기지 못하여 하늘에서 더이상 있을 곳을 찾지 못하더라.

(9) 그리하여 그 큰 용이 쫓겨나니 그는 마귀라고도 하고 사탄이라고도 하는 옛 뱀, 곧 온 세상을 미혹하던 자라. 그가 땅으로 쫓겨나고 그의 천사들도 그와 함께 쫓겨나더라.

그런데 이 용과 미가엘이 싸우는 시점이 참 오묘하다. 이 하늘의 전쟁이 끝나고 나서 패한 후에야 용은 자신이 하늘에서 쫓겨난 것을 알고 크게 분노하여, 땅으로 쫓겨난 후에 부양받고 있는 한 때와 두 때와 반 때의 여인을 홍수로 떠내려 가려 하게 한다. 이 홍수시점은 전 삼년 반이다. 그렇다면 이 용이 쫓겨난 때는 언제쯤이란 말인가?

10) 또 내가 들으니, 한 큰 음성이 하늘에서 말하기를 "이제 구원과 능력과 우리 하나님의 나라와 그리스도의 권세가 임하는도다. 이는 우리 형제들을 우리 하나님 앞에서 밤낮 고소하던 그 고소자가 쫓겨났기 때문이니라.

이 큰 음성이 말하는 소리를 들어보라. 이제부터라고 한다. 이 용이 땅으로 내어 쫓긴 시점부터 본격적으로 하나님의 나라와 그리스도의 권세가 임하는 듯이 말을 한다. 이때까지도 마귀는 성도를 끊임없이 참소했음을 알려준다. 용이 내어 쫓긴 때는 언제이겠는가?

(11) 그들이 어린 양의 피와 자기들이 증거한 말로 그를 이겼으니, 그들은 죽기까지 자기들의 생명을 사랑하지 아니하였도다.

여기서 그들은 누구를 말함인가? 그들이 어린 양의 피와 자기들이 증거한 말로 그를 이겼으니... 앞에 그들은 죽음으로 믿음을 지킨 성도를 얘기함이고, 뒤에 그는 용을 얘기한다. 그리고 죽기까지 자기들의 생명을 사랑하지 아니하는 그들도 바로 이 죽음으로 용을 이긴 성도를 얘기하는 것이다.

(12) 그러므로 너희 하늘들과 그 안에 거하는 너희는 즐거워하라. 땅과 바다에 사는 자들에게는 화 있으리라! 이는 마귀가 자기 때가 얼마 남지 않았음을 알고 크게 분노하며 너희에게로 내려갔음이라."고 하더라.

여기 그러므로는 11절의 접속사인가? 아니면 10절에서의 접속사인가? 10절로 이어지는 접속사라면 용이 내어 쫓긴 때를 말함이고, 11절에 대한 접속사라면 성도들이 순교로 구원을 받을 수 있는 때인 후 삼년을 의미한다고 볼 수 있다. 그렇담 바로 이때가 칠년환란때로 보이는데, 문제는 마귀가 자기 때가 얼마 남지 않았음을 알았다라는 사실이 중요하다. 이는 그가 땅으로 내어 쫓긴 때가 바로 마지막 한이레전이라고 볼 수 있는 근거가 된다고 해석되어 질 수 있다.

(13) 그 용이 자기가 땅으로 쫓겨난 것을 알고서 사내 아이를 출산한 그 여인을 박해하더라.

(14) 그때 그 여인이 큰 독수리의 두 날개를 받았는데, 이는 그녀가 광야에 있는 자기 처소로 날아가서 그 곳에서 그 뱀의 낫을 피하여 한 때와 두 때와 반 때를 부양받으려 함이더라.

결론이 다가오고 있다.

글을 주목하여 보자, 그 여인이 날개를 받은 시기는 용이 박해를 시작하고 나서 부터이다. 하나님으로부터 보호를 받고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그리고 이때는 한 때와 두 때와 반때 전이다. 이 한때와 두때와 반때는 전 삼년반이므로. 그렇다면 용이 땅으로 내 쫓긴 시기는 칠년 환란이 시작되기 얼마 전이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이 독수리의 두 날개를 받아 간 광야는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말하는 것이다. 이들이 곧 십사만사천이다, 이 들은 이후 들림 받는다. 광야로 표현된 것은 출애굽한 이스라엘민족들을 낮에는 구름기둥으로 밤에는 불기둥으로 인도 하였던 하나님의 보호하시는 장소를 뜻하는 것이다. -- 여자를 홍수에 떠내려가려 하게 한, 한때와 두때와 반때후인 것이다.

그렇다면 우리가 살고 있는 현재 이 시대는 아직 용이, 즉 마귀가 아직도 하늘에 있어 우리를 고소하고 있다라는 얘기가 된다. 따라서 그는 아직 미가엘과 전쟁하지 않았다고 보여진다.

다니엘 8장이다.

...

(23) 그들 왕국의 나중 때에 범죄자들이 가득 차게 되면 무서운 용모를 하고 **난해한 문장들 (감춰진 문장들)**을 깨닫는 한 왕이 일어나리라.

(23) And in the latter time of their kingdom, when the transgressors are come to the full, a king of fierce countenance, and **understanding dark sentences**, shall stand up.- KJB

이 왕은 적그리스도이다. 감춰진 문장들은 어디에 있는 문장들인가? 바로 성경에 있는 비밀들 일 것이다. 특히 다니엘과 계시록이다. 그 문장들을 깨닫는다고 한다. 이미 깨달은 것이 아니고 그 때 깨닫는 것처럼 보인다는 것에 주목하자. 다시 말하지만 이 적그리스도는 자신의 힘으로 그런 능력을 발휘하는 것이 아니다. 역시 다니엘8장이다.

(24) 그의 권세가 막강할 것이나 **자기 자신의 권세에 의한 것은 아니니**, 그가 놀랍도록 파괴시킬 것이며 번성할 것이고 마음대로 행하며, 강한 자들과 거룩한 백성을 멸하리라.

자기 자신의 권세가 아니라함은 그럼 누구의 권세인가? 바로 용이 자기의 권세를 이 적그리스도에게 주는 것이라고 설명한바 있다. 그럼 이 난해한 문장들을 깨닫는다는 것은 이 때 이후에나 가능하다는 얘기다. 만일 이 난해한 문장이 성경이 아니고 고대 문자들이라면 아직 우리가 알지 못하고 있는 고대사의 비밀들을 그가 풀어낼 수도 있다. 우리가 의문시하는 것들이 그의 등장으로 말미암아 풀리게 될 수도 있을 것이다. 세계의 불가사의가 그의 능력으로 풀릴지도 모른다. 그러나 결국 그의 정체는 성도들에게는 邪神(사신)과 같은 존재이고, 용과 짐승들에게 권세를 받아 성도들을 대환란으로 내몰게 되는 首腦(수뇌)가 되는 짐승이며 곧 적그리스도인 것이다.

(15) 그 뱀이 여인 뒤에다 자기 입에서 물을 홍수같이 쏟아 그 여인을 홍수에 떠내려가게 하려 하되

(16) 그 땅이 그 여인을 도와 그 입을 벌려 용이 그 입에서 쏟은 홍수를 삼켜 버리더라.

(17) 그러자 그 용이 여인에게 분노하여 여인의 씨 가운데 남은 자들, 즉 하나님의 계명들을 지키며 **예수 그리스도의 증거를 가진 자들과 싸우려고 나가더라**.

(17) And the dragon was wroth with the woman, and went to **make war** with the remnant of her seed, which keep the commandments of God, and have the testimony of Jesus Christ.

15, 16, 17절은 시간대가 거의 같다. 한 때와 두 때와 반때에 여자는 날개를 받았고, 용은 그 세때 반에 여인을 홍수에 떠내려 가게 하려 한다. 홍수가 나오는 때와 땅이 물을 삼키는 때는 동 시대, 거의 동 시간대여야 한다. 그리고 한 때 두때 반 때를 넘기자 용은 여자를 더 이상 발 견할 수 없다. 그래서 이 여자가 아닌 **이 여자의 남은 자손과 전쟁을 하려 한 것이다**. 그럼 이상 살펴본 것으로 결론을 내려보자.

용이 하늘의 삼분의 일을 끌어내리는 시점은 예수그리스도 초림 전, 용과 그의 천사들이 하늘에서 쫓겨나는 시점은 미가엘과의 전쟁 후이다.

용이 여자를 핍박하는 기간은 한때와 두때와 반때, 즉 전 삼년 반일 때,

결국 용이 쫓겨나는 시점은 천이백육십일중의 어느 날, 바로 전삼년반이 시작되기 전이다.

이것은 결국 우리가 앞서 알아 본대로 칠째나팔과 다섯째 나팔사이에 용이 하늘에서 쫓겨난다는 것이다. 그럼 그것을 증명하는 구절이 있던가? 앞에서 분별해 보았던 계시록 9 장 1절이다.

(1) 다섯째 천사가 나팔을 불 때 내가 보니, 하늘에서 별 하나가 땅에 떨어지는데 그가 끝없이 깊은 구렁의 열쇠를 받더라.

바로 이 하늘에서 떨어지는 별이 용을 뜻하는바 이 별이 떨어지기 전에 하늘에서 전쟁이 있게 될 것이며 하늘의 전쟁에서 패배한 용이 무저갱을 여는 것이다.

계시록8장의 다섯째 천사가 나팔을 불기 전, 그러니까 전 삼년반전에 용은 하늘에서 있을 곳을 찾지 못하고 쫓겨나는 것이다. 그렇기에 그것에 관한 표현도 천사가 내려오는 것이 아니라 떨어진다고 하는 것이고 결국 아직도 마귀는 하나님앞에서 성도들을 모략하고 있다는 결론이 난다. 그는 지금도 땅과 하늘을 오가면서 우리 성도들을 讒訴(참소)하고 있을 것이다. 그것마저도 하나님의 섭리임을 깨닫는다면 사단은 물론이요, 우리 또한 영적인 싸움을 계속해 나가야 한다는 사실을 깨달아야 할 것이다.

그리고 중요한 것, 방금 전에도 얘기했지만 용이 더 이상 여인을 발견할 수 없다라고 하는 것은 이 여인이 그 후 땅에는 존재하고 있지 않다는 것을 알려주는 것이다. 이 여인이 땅에 계속 있었다라면 땅으로 내어 쫓긴 용이 그 여인을 발견하지 못할 이유는 없다. 그러므로 그들의 정체는 계시록7장에 그 이마에 인을 맞고 들림받아 시온산에 거하게 되는 십사만사천인이라고 보는 것이 옳음을 알 수 있다. 그리고 그 여인의 남은 자들은 11장에서 무저갱에서 올라온 짐승과 전쟁을 하게 되어 사흘반동안, 즉 후삼년반때동안 죽게 되는 두증인이 되는 것이다. 그 시기에 대한 증거는 계시록11장14절에 있다.

(14) 둘째 화는 지나갔으나 보라 세째 화가 속히 이르는도다

이 둘째화는 앞에서도 얘기했다시피 후삼년반이고 셋째화는 마지막 일곱 번째 나팔인 하나님의 일곱대접진노인 것이다. 아직도 시기에 대한 감이 오지 않으신다해서 고민하실 필요는 없다. 끝까지 정독하신후에 두 세 번정도 혹은 그 이상 반복하시면 명확히 그려질 것이기 때문이다.^^

## 12. 성도가 들어갈 천년왕국에 대한 말씀들.

잠시 머리를 식히는 차원에서 천년왕국참여자의 기쁨에 대해 성경에서는 어떻게 말씀하고 있는가를 살펴보도록 하자. 성도라면 누구나 천국에 대한 소망이 있다. 그것이 없다면 이 땅에서 살아가야 할 아무런 이유와 가치를 발견하지 못하기 때문이다. 주님이 왕이신 나라, 주님과 함께 거할 수 있는 나라, 굳이 입으로 말하지 않아도 내 부족함을 아시고 채워주시는 나라, 그런 그의 나라를 간절히 바라고 원할 때, 우리에게 허락하실 것이며, 그곳에 소망을 두고, 또 그곳을 바탕으로 해서 살아가는 힘도 생길 것이다. 그곳은 이 땅에 이루어지는 천국이 될 것이다. 그리고 이 글을 읽을 때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이스라엘은 대부분 천년왕국때에 승리한 모든 그리스도인들을 의미하는 것이요, 예루살렘은 그 승리한 자들이 거하는 땅을 얘기하는 경우가 많다. 이해를 돕기 위해 첨가하니 참고하시기 바란다.

이사야2장

(1) 아모스의 아들 이사야가 유다와 예루살렘에 관하여 본 말씀이라.

(2) 마지막 날들에 주의 전의 산이 산들의 정상에 세워질 것이요, 작은 산들 위에 높아지리니, 모든 민족들이 그 곳으로 몰려들 것이다.

(3) 많은 백성이 가며 말하기를 "너희는 오라, 우리가 주의 산에, 야곱의 하나님의 전에 올라가자. 그리하면 그가 그의 길을 우리에게 가르치실 것이며 우리는 그의 길에서 행하리니,

이는 율법이 시온에서 나오며 주의 말씀은 예루살렘으로부터 나올 것임이라." 하리라.

야곱의 하나님이라함은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신 육적인 이스라엘의 하나님이심을 가리키신 것이다. 그러므로 구약의 하나님이 바로 그 때에 모두가 알게 되는 그 하나님이 되신다고 하는 사실을 지칭한다고 볼 수 있다.

(4) 그가 모든 민족들 가운데서 심판하시며 많은 백성을 책망하시리니, 그들이 자기 칼들을 두들겨서 보습을 만들며 자기 창들을 두들겨서 낫을 만들 것이요, 민족이 민족을 대적하여 칼을 들어올리지 아니할 것이며 그들이 더이상 전쟁을 연습하지 아니하리라.

이사야11장

(6) 또한 이리가 어린 양과 함께 거하며 표범이 새끼 염소와 함께 누울 것이요, 송아지와 어린 사자와 살진 짐승이 함께하며 어린 아이가 그들을 이끌리라.

(7) 암소와 곰이 함께 먹으며 그것들의 새끼들이 함께 누울 것이요, 사자가 소처럼 짚을 먹으리라.

(8) 또 젓먹는 아이가 독사의 구멍에서 장난하며, 젓뎀 아이가 독사의 굴에 손을 넣으리라.

(9) 그들은 나의 모든 거룩한 산에서 해치거나 파괴시키지 않으리니, 이는 마치 물들이 바다를 덮음같이 세상이 주의 지식으로 충만할 것임이니라.

이사야35장

(1) 광야와 메마른 곳이 그들을 기뻐하고, 사막이 기뻐하며 장미처럼 피리라.

(2) 그것이 무성하게 피어 기쁨과 노래로 즐거워할 것이요, 레바논의 영광, 곧 칼멜과 사론의 아름다움이 그것에게 주어지리라. 그들이 주의 영광과 우리 하나님의 아름다움을 보리로다.

...

(6) 그때에 질름발이가 사슴처럼 뛰고, 병어리의 혀는 노래하리라. 광야에는 물이 솟아나오며 사막에는 시내가 흐르리라.

(7) 바짝 마른 듯한 땅은 연못이 되며, 갈한 땅은 샘물을 내리라. 용들이 각자 늪의 처소에는 갈대와 골풀들로 잡초가 자라리라.

(8) 한 대로가 거기에 있겠고 그 길은 거룩한 길이라 불리리니 깨끗하지 못한 자는 그 길을 지나가지 못할 것이나, 이런 자들은 지나가리니 어리석지만 도보로 여행하는 자는 그 길에 잘 못 들지 않을 것이다.

(9) 거기에는 사자도 없겠고 다른 사나운 짐승도 올라가지 않으리니, 거기서는 그러한 것들을 만나지 못할 것이요, 오직 구속받은 자들만이 그리로 행할 것이다.

(10) 주의 속량받은 자들이 돌아오리니, 그들의 머리 위에 노래와 영원한 기쁨을 가지고 시온으로 오리라. 그들이 기쁨과 즐거움을 얻으리니, 슬픔과 탄식은 달아나리라.

이사야60장

(1) 일어나라, 빛을 비추라. 이는 네 빛이 왔고 주의 영광이 네 위에 솟아났음이라.

(2) 보라, 어두움이 땅을 덮을 것이며 심한 어두움이 백성을 덮으리라. 그러나 주께서는 네 위에 일어나시고 그의 영광이 네 위에 나타나리라.

(3) 이방인들이 네 빛으로 올 것이요 또 왕들도 너의 솟아나는 광명으로 오리라.

(4) 네 눈을 들고 사면으로 보라. 그들이 모두 다 함께 모여 그들이 네게로 오니, 네 아들들은 먼 곳에서 올 것이며 네 딸들은 네 곁에 안길 것이니라.

(5) 그때에 내가 보고 함께 휩쓸려 네 마음이 두려워하고 커지리니, 이는 바다의 풍성함이 네게로 전향될 것이요 이방인의 재물이 네게로 올 것임이라.

(6) 낙타들의 무리, 즉 미디안과 에파의 낙타들이 너를 덮을 것이다. 그들 모두가 시바로부터 올 것이요, 그들이 금과 향을 가져와서 주의 찬양을 보여 줄 것이니라.

(7) 케달의 모든 양무리는 네게로 모이고, 느바웃의 수양들은 너를 섬길 것이다. 그것들이 내 제단에 받아들여져 올라오리니, 내가 내 영광의 집을 영화롭게 하리라.

(8) 구름처럼, 비둘기들이 그들의 집으로 날아가는 것처럼 날아오는 이들은 누구인가?

(9) 실로, 섬들이 나를 기다릴 것이요, 타시스의 배들이 먼저 네 아들들을 그들의 은과 금과 함께 먼 곳에서 데려와 주 너의 하나님의 이름과 이스라엘의 거룩한 분에게 바칠 것이니, 이는 그가 너를 영화롭게 하였음이니라.

(10) 타국인들의 아들들이 네 성벽을 쌓을 것이며 그들의 왕들이 너를 섬기리니, 이는 나의 진노로 내가 너를 쳤으나 나의 은총으로 네게 자비를 베풀었음이니라.

(11) 그러므로 네 성문이 항상 열려 있을 것이며 주야로 닫히지 아니하리니, 사람들이 네게로 이방인의 재물을 가져오고 그들의 왕들을 인도하여 오리라.

(12) 너를 섬기지 아니하는 민족과 나라는 멸망하리니, 정녕, 그러한 민족들은 완전히 황폐하리라.

(13) 레바논의 영광인 잣나무와 소나무와 상자나무가 함께 네게 와서, 내 성소의 장소를 아름답게 할 것이요 또 내가 내 발 들 곳을 영화롭게 만들 것이니라.

(14) 너를 괴롭혔던 그들의 아들들도 몸을 굽혀 네게로 나올 것이며, 너를 멸시했던 모든 자들도 다 네 발 아래 엎드릴 것이요, 그들이 너를 '주의 도성'이라,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이의 시온'이라 부르리라.

(15) 네가 버림을 받고 미움을 받았기에 아무도 너를 통과하는 자가 없었으나, 내가 너를 영원한 아름다움과 많은 세대들에 걸쳐 기쁨이 되게 하리라.

(16) 너는 또한 이방인들의 젖을 빨며 왕들의 가슴을 빨 것이요, 너는 나 주가 네 구주와 야곱의 능하신 이, 네 구속주임을 알게 되리라.

(17) 이는 내가 놋 대신 금을 가져오겠고 철 대신 은을 가져오겠으며, 나무 대신 놋을, 돌 대신 철을 가져올 것이요, 또 내가 네 관원을 평안하게, 네 감독자를 의롭게 할 것임이라.

(18) 폭력이 네 땅에서, 황폐함과 멸망이 네 접경 안에서 다시는 들리지 아니하리니, 오직 네

가 네 성벽들을 구원이라, 네 성문들을 찬양이라 부르리라.

(19) 태양이 더 이상 낮에 네 빛이 되지 아니할 것이요, 달도 광명으로 네게 빛을 내지 아니하리니, 오직 주께서 네게 영원한 빛이 되시며 네 하나님이 네 영광이 되시리라.

(20) 네 태양은 더 이상 지지 아니하며 네 달도 물러가지 아니하리니, 이는 주가 너의 영원한 빛이 될 것이며 또 네 슬픔의 날이 끝나게 될 것임이라.

(21) 네 백성도 모두 의롭게 될 것이요, 그들이 영원히 땅을 상속받으리니, 이 땅은 내가 영광을 받기 위하여 심은 가지요 내 손의 작품이니라.

(22) 작은 자가 일천이 되겠고 약한 자가 강한 민족이 되리라. 나 주가 자기 때에 그것을 속히 이루리라.

이사야65장

(8) ○ 주가 이같이 말하노라. 포도송이에 새 술이 보였으니, 누가 말하기를 "그것을 상하게 말라. 이는 복이 그 안에 있음이라." 하나니 나도 내 종들을 위하여 그들 모두를 상하게 하지 아니하리라.

(9) 내가 야곱에게서 씨를 내고 유다에게서 내 산들의 상속자를 내리니, 나의 택한 자가 그것을 유업으로 받고 내 종이 거기에 거하리라.

(10) 사론이 양떼의 우리가 되겠고 아콜 골짜기는 소떼가 눕는 자리가 되며, 나를 찾는 내 백성을 위한 자리가 되리라.

.....

(17) ○ 보라, 내가 새 하늘들과 새 땅을 창조하나니, 이전 것이 기억되거나 생각나지 아니할 것이라.

(18) 그러나 너희는 내가 창조하는 것으로 영원히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보라, 내가 예루살렘을 즐거움으로 창조하고 그 백성을 기쁨으로 창조하노라.

(19) 내가 예루살렘에서 즐거워하며 내 백성 가운데서 기뻐하리니 우는 소리와 부르짖는 소리가 그 가운데서 더이상 들리지 아니하리라.

(20) 거기에는 날 수로 되는 아기도 자기 수명을 다 채우지 못한 노인도 더이상 없을 것이니, 이는 백 세에 죽는 자가 아이요 백 세가 된 죄인은 저주를 받은 것이 될 것임이라.

(21) 그들은 집들을 지어 그곳에 거주하며, 또 그들은 포도원을 가꿔서 그것의 열매를 먹을 것이라.

(22) 자기가 지은 곳에 다른 사람이 살지 아니할 것이며, 자기가 심은 것을 다른 사람이 먹지 아니하리라. 이는 내 백성의 수명이 나무의 수명과 같겠고, 나의 택한 자가 그들의 손으로 일한 것을 오래 즐길 것임이라.

(23) 그들은 헛되이 수고하지 아니할 것이요 괴로움으로 출산하지 않을 것이니, 이는 그들이 주의 복 받은 자의 자손이요 그들의 후손도 그들과 함께할 것임이라.

(24) 그때에는 그들이 부르기 전에 내가 대답할 것이요 그들이 말을 마치지 아니하였는데도 내가 들으리라.

(25) 이리와 어린 양이 함께 먹을 것이요 사자가 송아지처럼 짚을 먹을 것이며 흙이 뱀의 양식이 될 것이라. 그들이 나의 모든 거룩한 산에서 해치지도 손상시키지도 않으리라. 주가 말하노라.

#### 에스겔36장

(8) ○ 그러나, 오 너희 이스라엘의 산들아, 너희가 너희 가지들을 내고 너희 열매를 나의 이스라엘 백성에게 내리니, 이는 그들이 오는 것이 가까움이라.

(9) 보라, 이는 내가 너희를 위하여 너희에게로 돌이키리니 너희가 밭을 갈고 씨를 뿌리리라.

(10) 내가 너희 위에 사람들을 늘리리니, 이스라엘의 온 집 즉 전체에게라. 성읍들에는 사람이 살게 될 것이요 폐허에는 집을 짓게 되리라.

(11) 내가 너희 위에 사람과 짐승을 늘릴 것이니 그들은 번성하고 소산을 낼 것이라. 내가 너희를 너희의 옛 땅을 따라 정착시키며 너희의 처음보다 너희에게 더 잘해 주리라. 그러면 너희는 내가 주인 줄 알리라.

(12) 참으로 내가 사람들로 너희 위에 행하도록 하리니, 즉 내 백성 이스라엘이라. 그들이 너를 소유할 것이며 너는 그들의 유업이 될 것이요 네가 그 때부터 다시는 사람들 중에서 그들을 빼앗기지 아니하리라.

(13) 주 하나님이 이같이 말하노라. 그들이 너희에게 말하기를 "너 땅아, 너는 사람을 삼키며 네 민족들의 생명을 빼앗는도다." 하니

(14) 그러므로 너는 사람을 다시는 삼키지 아니하며 더이상 네 민족들을 빼앗지 아니하리라. 주 하나님이 말하노라.

(15) 또 내가 사람들로 네게서 더이상 이방의 수치를 듣지 않게 할 것이요, 네가 더이상 백성의 비난을 당하지 아니하게 할 것이며, 네가 네 민족들을 더이상 넘어뜨리지 않게 하리라. 주 하나님이 말하노라.

...

(25) ○ 그때 너희 위에 깨끗한 물을 뿌리리라. 그리하면 너희가 깨끗케 되리니, 너희 모든 더러움과 너희의 모든 우상들로부터 내가 너희를 깨끗케 하리라.

(26) 내가 또 너희에게 새 마음을 주고 너희 안에 새 영을 넣으리라. 내가 너희 육체에서 돌같은 마음을 제거하고 살 같은 마음을 주리라.

(27) 또 내가 나의 영을 네 안에 두어 너희로 나의 규례대로 행하게 하리니, 너희가 나의 명령을 준수하고 행하리라.

(28) 너희는 내가 너희 조상들에게 주었던 땅에서 거하리니, 너희는 나의 백성이 되고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리라.

(29) 내가 또한 너희를 너희의 모든 더러움으로부터 구원할 것이며, 또 내가 곡식을 가져와

서 풍성케 하여 너희에게 기근을 두지 아니하리라.

(30) 내가 나무의 열매와 밭의 소산을 많게 하여 너희로 다시는 이방 가운데서 기근의 비난을 받지 않게 하리라.

(31) 그때에 너희는 너희 자신의 악한 행위와 선하지 아니한 너희의 행실을 기억하고, 너희의 죄악과 가증함으로 인하여 너희 자신의 목전에서 자신들을 싫어하리라.

(32) 주 하나님이 말하노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이것을 행하지 않음을 너희로 알게 하려는 것이다. 오 이스라엘 집아, 너희 자신의 행위로 인하여 부끄러워하며 수치를 알라.

(33) 주 하나님이 이같이 말하노라. 내가 너희를 너희의 모든 죄악에서 깨끗케 하는 날에 내가 또한 너희로 그 성읍들에서 살게 하리니, 폐허에 집을 짓게 되리라.

(34) 지나가는 모든 사람들의 목전에 황폐하게 버려졌던 곳, **황폐한 땅이 경작되리라.**

(35) 그러면 그들이 말하기를 "**황폐했던 이 땅이 에덴의 동산같이 되었고도다.** 삭막하고 황폐하고 파괴된 성읍들이 성벽이 세워지고 사람들이 살고 있도다." 하리라.

스가랴8장

(1) 만군의 주의 말씀이 다시 내게 임하여 말씀하시니라.

(2) 만군의 주가 이같이 말하노라. 내가 시온을 큰 질투로 질투하며 그 곳을 큰 진노로 질투하노라.

(3) 주가 이같이 말하노라. 내가 시온으로 돌아와서 예루살렘 가운데 거하리라. 예루살렘은 진리의 성읍이라 불리겠고, 만군의 주의 산은 거룩한 산이라 불리리라.

(4) 만군의 주가 이같이 말하노라. 예루살렘의 거리들에는 **여전히 늙은 남자와 늙은 여자들이 살 것이며, 사람마다 나이 많음으로 인하여 손에 지팡이를 잡을 것이다.**

(5) 성읍의 거리들은 거리에서 뛰어 노는 소년들과 소녀들로 가득 찰 것이다.

(6) 만군의 주가 이같이 말하노니, 그것이 그 날에 그 백성의 남은 자의 눈에는 놀랍겠으나, 그 일이 내 눈에도 놀랍겠느냐? 만군의 주가 말하노라.

(7) 만군의 주가 이같이 말하노라. 보라, 내가 내 백성을 동쪽 지방과 서쪽 지방으로부터 구원하리라.

(8) 또 내가 그들을 데려오리니, 그들이 예루살렘 가운데서 거하리라. 그들은 나의 백성이 되고 나는 진리와 의 안에서 그들의 하나님이 되리라.

(9) ○ 만군의 주가 이같이 말하노라. 성전을 건축하려고 만군의 주의 집의 기초가 놓이던 날에 있었던 선지자들의 입을 통하여 나온 이 말씀들을 그 날에 들은 너희는 손을 튼튼하게 할지어다.

(10) 이 날들 이전에는 사람을 쓰거나 짐승을 쓰는 일도 없었으며, 고통으로 인하여 나가거나 들어오는 사람에게 어떤 화평도 없었나니, 이는 내가 모든 사람으로 각기 자기 이웃을 대

적하도록 세웠음이라.

(11) 그러나 이제는 내가 이 백성의 남은 자들에게 이전 날들처럼 하지 아니하리라. 만군의 주가 말하노라.

(12) 씨가 번성하리니 포도는 그 열매를 내고 땅은 그 산물을 내며 하늘들은 그들의 이슬을 내리리니, 내가 이 백성의 남은 자들로 이 모든 것을 차지하게 하리라.

(13) 오 유다 집과 이스라엘 집아, 너희가 이방 가운데서 저주가 되었던 것같이, 이제는 내가 너희를 구원하리니 너희는 축복이 되리라. 두려워 말라. 오직 너희의 손을 튼튼하게 하라.

**이곳에서의 유다집과 이스라엘집은 장자로 선택받은 이스라엘로 보인다. 그들은 장자로 선택되어진 만큼 그에 합당한 대접을 받게 될 것이다.**

(14) 만군의 주가 이같이 말하노라. 너희 조상들이 나를 진노케 했을 때 내가 너희를 벌할 생각을 하고 후회하지 아니하였듯이, 만군의 주가 말하노라,

(15) 이 날들에도 내가 예루살렘과 유다 집에 잘 해 주려고 다시 생각하였나니, 너희는 두려워 말라.

(16) ○ 너희가 행할 일들이 이러하니라. 너희 각자는 자기 이웃에게 진리를 말하며 너희 성문들에서는 진리와 화평의 재판을 하고

(17) 너희 가운데 아무도 자기 이웃을 거역하여 너희 마음 속에 악을 피하지 말며 거짓 맹세를 사랑하지 말지니, 이는 이 모든 것들을 내가 미워함이라. 주가 말하노라.

(18) ○ 또 만군의 주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말씀하시니라.

(19) 만군의 주가 이같이 말하노라. 제 사월의 금식과, 제 오월의 금식과, 제 칠월의 금식과, 제 시월의 금식은 유다 집에 기쁨과 즐거움과 유쾌한 명절들이 되리라. 그러므로 진리와 화평을 사랑하라.

(20) 만군의 주가 이같이 말하노라. 백성과 많은 성읍의 거민들이 오게 되리라.

(21) 한 성읍의 거민들이 다른 곳으로 가서 말하기를 "우리가 속히 주 앞에 기도하고 만군의 주를 찾으러 가자. 나도 또한 가겠노라."

(22) 정녕, 많은 백성과 강대한 나라들이 예루살렘에 계신 만군의 주를 찾으러 와서 주 앞에 기도하리라.

(23) 만군의 주가 이같이 말하노라. 그 날들에는 열 사람이 민족들의 모든 언어에서 나와 붙잡으리니, 즉 유대인인 사람의 옷자락을 붙잡고 말하기를 "우리가 너희와 함께 가리니, 이는 하나님께서 너희와 함께 계심을 우리가 들었음이라." 하리라.

스가랴14장

(16) ○ 예루살렘을 치러 온 모든 민족들 가운데서 남아 있는 자도 각기 그 왕, 만군의 주께 경배하러, 또 장막절을 지키려고 해마다 올라올 것이라.

(17) 땅의 모든 족속 중에서 그 왕, 만군의 주를 경배하려고 예루살렘에 올라오지 아니하는

자들에게는 비가 내리지 아니하리라.

(18) 만일 이집트의 족속이 올라오지 아니하면 비가 없을 것이며, 재앙이 있으리니 그 재앙으로 주께서 장막절을 지키려고 올라오지 아니하는 그 이방을 치시리라.

(19) 이것이 이집트의 별이 될 것이요, 장막절을 지키려고 올라오지 아니하는 모든 민족들의 별이 되리라.

(20) ○ 그 날에는 말들의 방울들 위에 "주께 거룩함"이 있을 것이요, 주의 집에 있는 술들도 제단 앞에 있는 대접들과 같게 되리라.

(21) 정녕, 예루살렘과 유다에 있는 모든 술이 만군의 주께 거룩함이 될 것이요, 희생제를 드리는 자들이 모두 와서 술들을 가져다가 거기에 삼으리라. 또 그 날에는 만군의 주의 집에 카나안인이 더이상 있지 아니하리라.

이상은 천년왕국에 참여한 **이스라엘(택함받은자들)**과 **각 민족들(구원받은 모든 족속들)**이 어떻게 살게 될 것인가를 기록한 말씀들이다. 그런데 이 말씀들을 어느 지역에만 국한되어 일어날 것으로 믿지 말고 그 땅이 그러하다면 다른 민족의 땅들은 어떤 것인가를 생각하며 읽어야 할 것이다. 예를 들어 사막이 물이 흐르는 초원으로 변한다면 나머지 다른 땅들은 어떠하겠나 하는 것이다. 이 말씀들중에 특별히 선택된 자들에 관한 말씀들이 다수를 차지하는 것이 사실이지만 그에 못지 않게 천년왕국에 참여한 모든 민족들도 축복된 땅을 받을 것이며 풍족한 삶을 기대할 수 있을 것이다. 과학의 발전이 이루어지고 공개되어 反(반)重力(중력)기술을 이용하게 될 것이며, 무한한 태양에너지와 地熱(지열), 그리고 潮水(조수)간만을 이용한 潮力(조력)발전, 風力(풍력), 등 우리가 자연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에너지는 무궁무진하게 개발될 것이며 그것들을 모두 프리로 이용하게 될 것이다. 그 때에는 行星(행성)간 우주여행이 허락될지도 모르고, 바닷속 深海(심해)도 탐험이 가능하게 될지 모른다. 그야말로 樂園(낙원)이 되는 것이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것은 우리의 상상을 초월한 것이다. 천년왕국 끝에 새 하늘과 새 땅에 들어가는 소망이야 두말하면 잔소리다. 우리는 이런 모든 것들을 맛볼 수 있다. 주님만 사모한다면 말이다.

### 13. 계시록 13장, 짐승과 거짓선지자의 출현, 그리고 666표.

이제 적그리스도와 거짓선지자에 대해 알아볼 때가 되었다. 우리는 이미 앞의 규칙을 통해 이 적그리스도는 한이레동안(칠년)의 약속을 받으므로 전삼년반에, 즉 한때와 두때와 반때의 기간에 출현한다는 것을 알고 있었다. 그렇다면 여기 13장1절의 짐승이 바다에서 올라오는 이 시점은 전삼년반이라고 봐야하는 것이겠다. 앞으로 그것이 사실인가를 증명할 것이다.

(1) 내가 바닷가 모래 위에 서서 보니, 한 짐승이 바다에서 올라오는데 **일곱 머리와 열 뿔을 가졌더라**. 그 뿔들에는 열 개의 왕관이 있고 그 머리들에는 하나님을 모독하는 이름이 있더라.

이 시점은 앞에서 얘기했듯이 전삼년반이다. 이 바다는 세상열국을 의미하는 것이고, 일곱머리는 사탄이 주축이 되어 그동안 세웠던 나라들이며 열뿔은 마지막네번째나라에 속한 열왕을 의미한다, 그들이 쓰고 있는 왕관은 그들이 세상을 통일했다는 것을 의미한다. 또 그들은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다. 오히려 거룩한 이름을 모독하는 것을 서슴치 않는다. 다니엘과 계시록에 언급되는 일곱머리에 해당하는 나라들은 잠시 후에 알아보도록 하겠다.

(2) 또 내가 본 그 짐승은 표범과 같고, 발은 곰의 발 같고, 입은 사자의 입 같은데, 용이 자기의 능력과 자리와 큰 권세를 그 짐승에게 주더라.

이 짐승은 다니엘서7장에 나온다.

.....

(23) 모신 자가 이처럼 이르되 네째 짐승은 곧 **땅의 네째 나라**인데 이는 모든 나라보다 달라서 천하를 삼키고 밟아 부숴뜨릴 것이며

(24) 그 **열 뿔은 이 나라에서 일어날 열 왕**이요 그 후에 또 하나가 일어나리니 그는 **먼저 있던 자들과 다르고 또 세 왕을 복종**시킬 것이며

(25) 그가 장차 말로 지극히 높으신 자를 대적하며 또 지극히 높으신 자의 성도를 괴롭게 할 것이며 그가 또 때와 법을 번개코자 할 것이며 성도는 그의 손에 붙인 바 되어 **한 때와 두 때와 반 때를 지내리라**

(26) 그러나 심판이 시작된즉 그는 권세를 빼앗기고 끝까지 멸망할 것이요

이 넷째나라가 짐승(적그리스도)이 왕으로 군림하게 될 나라이며, 열왕을 등에 업은 나라이며 24절을 통해 알 수 있고, 25절과 26절을 봄으로 그가 적그리스도이며 심판이 시작되고 패망하게 됨을 알 수 있다. 여기서 잠깐, 25절에 한때와 두때와 반때는 후삼년반으로 보여 규칙에 어긋나는듯 보이기도 하지만 한때와 두때와 반때앞에 성도가 있으므로 그 주격은 성도임을 알 수 있다. 그러니 전삼년반이 맞다. 그렇게 후삼년반으로 보이는 이유는 다니엘서에는 후삼년반인 **마흔두달**이란 말자체가 언급된 적이 없다. 한이레와 한때와 두때와 반때만이 언급되어 있는 것이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한때와 두때와 반때로 모든 것을 설명하시는 것이며, 그것으로 인해 이 글이 봉해졌다고 하는 것이다. **계시록없이 다니엘서를 푸는것은 그래서 不可能(불가능)하다.**

(3) 또 내가 보니, 그의 머리들 가운데 하나가 상처를 입어 죽게 된 것 같았으나, 그의 치명적인 상처가 나오니 **온 세상이 기이히 여겨 그 짐승을 따르더라.**

이 머리가 무엇을 뜻하는가는 17장에 나타나 있다.

(9) 지혜 있는 생각이 여기 있으니 **일곱 머리는 그 여자가 앉은 일곱 산**이요

(10) **일곱 왕이 있는데 다섯은 패망하였으나 하나는 남아 있고, 또 하나는 아직 오지 아니하였으나 그가 오면 잠시 동안 머물러야만 되리라.**

(11) **전에는 있었으나 지금은 없는 그 짐승이 여덟 번째지만 일곱 중에 속한 자라.** 그가 멸망으로 들어가리라.

이것에 대한 해석은 17장에서 자세히 하겠지만 이해를 위해 잠깐 언급하자면 일곱산이란것은 창세로부터 있어온 나라, 즉 왕조를 얘기한다. 이 계시를 받은 요한이전에 다섯은 이미 패망하였다고 한다. 그 다섯은 첫 번째 니므롯의 바빌론을 시작으로 파라오의 이집트, 이후 다니엘 금신상의 머리에 해당하는 바빌론의 느부갓네살, 그리고 이후 나라인 메대와 바사(메디아와 페르시아), 그리고 다섯 번째인 알렉산더의 헬라(그리스), 를 의미한다. 그래서 다섯은 패망하였고, 하나(로마)는 남아있다고 하는 것이다. 그리고 이 일곱 번째가 다니엘에서 말하는 넷째나라인데 열왕이 짐승과 더불어 한시간동안 권력을 받는 나라인 것이다. 이해가 되지 않으시면 다니엘서를 정독해보시기를 권해드린다. 그리고 본 해석서에서도 17장에서 다시 한번 자세히 설명하도록 하겠다. 그런데 그의 머리들 가운데 하나가 상처를 입어 죽게 된 것 같았으나, 그의 치명적인 상처가 나오니라는 말이 뜻하는 바가 무엇이나 하는 것이다. 바로 이 로마이전 다섯나라들중에 치명적인 상처를 입은 나라가 있다는 의미인데, 그 나라가 어디

가 될지는 이후 17장을 다루면서 설명을 하도록 하겠다. 어쨌든 이 짐승의 출현으로 열왕은 놀라운 시선으로 그를 바라보며 자신들의 권력을 양도하게 된다. 그것에 대한 설명은 계시록17장이다.

(12) 또 네가 본 그 열 뿔은 열 왕이라. 아직 왕국을 받지는 못하였으나 그 짐승과 더불어 한 시간 동안 왕들로서의 권세를 받으리라.

(13) 이들이 한 생각을 가지고 자기들의 권세와 능력을 그 짐승에게 넘겨주리라. -계시록17장

따라서 그 짐승을 바라보는 세상의 시선은 13장3절에서 보듯이 영웅을 바라보는 듯 할 것이다.

(4) 사람들이 그 짐승에게 권세를 준 용에게 경배하고 또 그 짐승에게도 경배하며 말하기를 "누가 그 짐승과 같으며 누가 감히 그와 더불어 싸울 수 있으리요?"라고 하더라.

역시 전삼년반의 그의 등장은 앞에서 알아본바와 같이 영웅의 출연을 반기고 기뻐하게 될 것이다. 그러나 그는 전삼년반에는 성도의 시기인 한때와 두때와 반때이므로 크게 힘을 발휘하지 못한다.

(5) 그 짐승이 큰 일들과 모독하는 말을 하는 입을 받았으며 또 마흔 두 달 동안 활동할 권세를 받았더라. 킹제임스역

이 구절을 보면 마치 짐승이 전 삼년반에 마흔두달동안 활동할 권세를 받는 것처럼 느껴진다, 그래서 오역이 될 수도 있고, 또 오해의 소지가 발생할 가능성이 아주 농후하므로 다른 버전의 역본을 보도록 하겠다.

(5) 또 짐승이 큰 말과 참람된 말하는 입을 받고 또 마흔 두달 일할 권세를 받으니라 -개역

(5) 또 용이 그에게 큰것들을 말하며 신성모독하는 입을 주고 또 마흔두달동안 지속할 권능을 주매 - 킹제임스흠정역

(5) And there was given unto him a mouth speaking great things and blasphemies; and power was given unto him to continue forty [and] two months. -KJB

이와 같이 이 짐승은 전삼년반에 이어서 후삼년반에도 지속적으로 활동할 수 있는 권능을 얻는 것이다. 이 짐승이 용이 권세를 주는 전삼년반에 대한 언급이 없는 것은 그 때가 한때와 두때와 반때이고 그 주역은 성도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그가 권력을 받는다는 이 마흔두달은 후삼년반이며 전삼년반에 이어 계속 권세를 받고 있다고 해석이 가능하게 되는 것이다.

(6) 그 짐승이 입을 벌려 하나님을 향하여 모독하되 그의 이름과 그의 성막과 하늘에 거하는 자들을 모독하더라.

(7) 그가 성도들과 싸워 그들을 이기는 권세를 받았으며 모든 족속과 언어와 민족을 다스리는 권세를 받았더라.

(8) 세상의 기초가 놓인 이래로 죽임당한 어린 양의 생명의 책에 그들의 이름이 기록되지 못하고 땅에 사는 모든 자는 그에게 경배할 것이라.

역시 이 때부터 본격적인 힘을 발휘하는 마흔두달, 후삼년반의 짐승의 때임을 알 수 있다.

(9) 누구든지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10) 포로로 삼는 자는 그도 포로가 될 것이요, 칼로 죽이는 자는 그도 칼에 죽게 될 것이라. 여기에 성도들의 인내와 믿음이 있느니라.

귀있는자는 들을지어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바 이 말을 듣고 인내와 믿음으로 구원을 지켜내라는 말씀이시다. 10절의 단축되어 있는 글을 길게 풀이하면 이렇다. “**지금 포로로 삼는 자는 하나님의 심판날에 그가 포로가 될 것이요, 지금 칼로 죽이는 자는 주의 심판날에 도리어 칼로 죽게 되리라. 그러니 나의 백성들이여, “원수값음이 내게 있으니 그 때를 위하여 참으며 인내로 견디고 믿음을 잃지 말라”** 라는 뜻이다. 이해가 되실 것이라 믿는다.

하나님께서 원수를 갚아주신다는 것에 대한 증명은 신명기와 로마서와 히브리서에 있다.

(35) **보수는 내 것이라** 그들의 실족할 그 때에 갚으리로다 그들의 환난의 날이 가까우니 당할 그 일이 속히 임하리로다 -신명기32장

(19) 내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친히 원수를 갚지 말고 진노하심에 맡기라** 기록되었으되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으니 내가 갚으리라**고 주께서 말씀하시니라 -로마서12장

(30)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으니 내가 갚으리라** 하시고 또 다시 주께서 그의 백성을 심판하리라 말씀하신 것을 우리가 아노니 -히브리서10장

따라서 어떠한 고난가운데라도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신 신실한 그 약속을 믿고 참고 이겨내야 할 것이다.

(11) 또 내가 보니, 다른 짐승이 땅에서 올라오는데 어린 양처럼 두 뿔을 가졌으며 용과 같이 말하더라.

**드디어 거짓선지자의 출현이다.**

(12) 그가 자기 앞에 있던 첫째 짐승의 모든 권세를 행사하고 또 땅과 거기에 사는 자들로 하여금 치명적인 상처를 치유받은 그 첫째 짐승에게 경배하게 하더라.

(13) 또 큰 이적들을 행하는데 심지어는 사람들 앞에서 불을 하늘에서 땅 위로 내려오게 하더라.

(14) 그가 짐승 앞에서 행할 권세를 받아 그같은 기적들을 통하여 땅에 거하는 자들을 미혹하며, 또 땅에 거하는 자들에게 말하기를 칼로 상처를 입었다가 살아난 그 짐승을 위하여 형상을 만들어야 한다고 하더라.

(15) 또 그가 짐승의 형상에게 생명을 주는 권세를 받아 그 짐승의 형상으로 말도 하게 하고, 그 짐승의 형상에게 경배하지 아니하는 자는 다 죽이도록 하니라.

(16) 그가 모든 자, 즉 작은 자나 큰 자, 부자나 가난한 자, 자유자나 종이나 그들의 오른손이나 이마에 표를 받게 하고

(17) 그 표나 그 짐승의 이름이나 그의 이름의 숫자를 지닌 사람을 제외하고는 아무도 사거나 팔 수 없게 하더라.

(18) 지혜가 여기에 있으니 지각이 있는 자는 그 짐승의 숫자를 헤아려 보라. 그것은 **한 사**

랍의 숫자이니, 그의 숫자는 육백육십육이니라.

12절부터 18절까지는 베리칩과 666표에 대한 것을 언급함으로써 한번 풀어 가볼까 한다. 여기에는 깊은 뜻이 있고 자칫 잘못하면 그들의 마술과 미혹에 넘어가기 쉽다. 따라서 냉철한 판단력을 가지고 있지 않으면 분별하기 어려울 것이다. 얼마전에 컬럼형식으로 써놓은 글이 있어 그 글을 옮기도록 하겠다.

666은 무엇인가?

결론부터 말하면 666은 눈에 보이는 어떤 표가 아니다. 따라서 베리칩은 666표가 아니고 이름을 바꿔서 새로 했다는 포지티브칩도 아니다. 그리고 앞으로 나타날 어떤 칩도 666표가 될 수 없다. 단언한다. 이것은 미혹이고 사탄이 성도를 속이려고 일찍부터 계획한 것이다.

그는 하나님의 인을 찍는 것을 흉내 내는 것뿐이다. 하나님의 인을 받는다는 것이 눈으로 보이는가? 아니다. 그건 눈으로 보이지 않는다. 하나님의 생명책에 이름이 기록되었다는 의미인 것이다. 그렇다면 이를 흉내 내어 사탄도 자신을 경배하게 만들고 또 그런 자들을 자신의 것으로 삼을 수 있지 않겠는가, 자신을 높임으로써 말이다. 자신이 신이라고 하면서 말이다. 공교롭게도 하나님은 그 사실을 감추어 기록하신 것이다. 이것이 바로 감춰져있었다라는 의미이기도 하다. 눈에 보이게 드러나게 계시한다면 그건 하나님의 방법이 아니다. 계시를 하시면서 눈에 보이는 어떤 물질적인 것을 받지 않아야 한다고 기록하는 정도의 하나님이시겠는가, 성도들은 하나님의 방법을 몰라도 너무 몰랐던 것이다. 그리고 그것을 이용해 사탄은 그동안 주의 백성을 잘도 속여 왔다. 그 결정판이 속임수의 정수, 바로 베리칩 666이론인 것이다.

666표의 의미는 우리가 하나님을 경배하는 것이 하나님의 인을 받는 것이듯이 사탄도 자신을 경배하는 자들에게 인을 찍을 수 있다는 것이다. 하나님의 수는 777이다. 그리고 성도들은 하나님의 인을 받았다. 그러나 짐승이며 사람의 수는 666이다. 사탄(용)은 사람인 적그리스도에게 권세를 주었다. 따라서 짐승에게 경배하는 것은 곧 용에게 경배하는 것이고 그에게 경배하는 것이 바로 그의 표를 받는다는 의미인 것이다. 그때에는 대환란이 임해 사람들을 시험하는 때이다. 우리는 전삼년반동안에 십사만사천이 인을 받는 것을 보았다. 그렇다면 사탄도 자신의 시간인 후삼년반 동안 사람을 미혹하여 어떻게든 많은 사람들을 경배하게 함으로 해서 인을 찍게 하고 싶을 것이라는 얘기다. 그것이 그가 할 수 있는 최대의 방법일 것이다. 666표가 바로 사탄을 경배하게 하려 한다는 의미이고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경고로 기록하고 계신 것이다. 그렇다면 그러한가 한번 알아보자.

(15) 저가 권세를 받아 그 짐승의 우상에게 생기를 주어 그 짐승의 우상으로 말하게 하고 또 짐승의 우상에게 경배하지 아니하는 자는 몇이든지 다 죽이게 하더라

짐승의 우상에게 말을 하게 한다는 것은 무엇을 뜻하는가? 짐승의 대리자인 거짓선지자는 짐승의 우상을 세우고, 그 우상을 신으로 경배하게 한다는 뜻이다. 그렇다면 우리가 알고 있는 신이란 무슨 일을 할 수 있는가,

이사야41장이다.

...

(21) 나 여호와와가 말하노니 너희 우상들은 소송을 일으키라 야곱의 왕이 말하노니 너희는 확실한 증거를 보이라

(22) 장차 당할 일을 우리에게 진술하라(말하라) 또 이전 일의 어떠한 것도 고하라(말하라) 우리가 연구하여 그 결국을 알리라 혹 장래사를 보이며

(23) 후래사를 진술하라(말하라) 너희의 신 됄을 우리가 알리라 또 복을 내리든지 화를 내리라 우리가 함께 보고 놀라리라

바로 이러한 일을 하는 것이 신이다. 하나님께서 우상에게 말을 하라고 하신다. 그리고 그 뜻은 너 우상이 신이라면... 이란 뜻을 내포하고 있는 것이다. 그러면 이 짐승의 경배에 관한 것을 미래의 일을 三層(삼층)天(천)에서 본 바있는 바울사도는 무엇이라 서술하고 있는가,

(4) 저는 대적하는 자라 범사에 일컫는 하나님이나 숭배함을 받는 자위에 뛰어나 자존하여 하나님 성전에 앉아 자기를 보여 하나님이라 하느니라 -살후2장

**그가 스스로 하나님이라고 한다고 한다. 하나님은 오직 한 분뿐이심에도 말이다. 이렇듯 우상에게 말을 하게 한다는 것은 그 짐승이나 偶像(우상)을 신으로 만들어 경배하게 한다는 의미를 지니고 있는 것이다.**

(16) 저가 모든 자 곧 작은 자나 큰 자나 부자나 빈궁한 자나 자유한 자나 종들로 그 오른손에나 이마에 표를 받게 하고

(17) 누구든지 이 표를 가진 자 외에는 賣買(매매)를 못하게 하니 이 標(표)는 곧 짐승의 이름이나 그 이름의 수라

(18) 지혜가 여기 있으니 총명 있는 자는 그 짐승의 수를 세어 보라 그 수는 사람의 수니 육백 육십 육이니라 -계시록13장

사실 이 13장만 제대로 분별해도 이 666표가 베리칩이 아님을 알 수 있다. 그 이유는 이 표가 짐승의 수고 사람의 수인데 666이라고 한다는 것이다. 이 표를 가진 자 외에는 매매를 못하게 한다면 그는 죽을 수 밖에 없다. 그래서 이 얘기는 곧 죽인다는 얘기이다, **우상을 경배하지 않으면 죽여 없애버린다는 뜻인 것이다.**

(9) 또 다른 천사 곧 세제가 그 뒤를 따라 큰 음성으로 가로되 만일 누구든지 **짐승과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고 이마에나 손에 표를 받으면**

(10) 그도 하나님의 진노의 포도주를 마시리니 그 진노의 잔에 섞인 것이 없이 부은 포도주라 거룩한 천사들 앞과 어린 양 앞에서 불과 유황으로 고난을 받으리니

(11) 그 고난의 연기가 세세토록 올라가리니 **짐승과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고 그 이름의 표를 받는 자는 누구든지 밤낮 쉼을 얻지 못하리라 하더라 - 계시록14장**

(4) 또 내가 보좌들을 보니 거기 앉은 자들이 있어 심판하는 권세를 받았더라 또 내가 보니 예수의 증거와 하나님의 말씀을 인하여 목 베임을 받은 자의 영혼들과 또 **짐승과 그의 우상에게 경배 하지도 아니하고 이마와 손에 그의 표를 받지도 아니한 자들이** 살아서 그리스도로 더불어 천년 동안 왕노릇하니 -계시록20장

사실 주님께서 이미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계신다. 666이 무엇인가라는 것을 말이다. 그러나 가리워져 있음으로, 뒤에 다시 그의 표라는 것을 넣으심으로 깨닫지 못하는 자들은 절대로 깨닫지 못하게 하시는 것이다. 주께서 택한 자가 아니라면 들어도 못 듣고, 보아도 못 보며, 이해도 못할 것이며 아예 생각도 못하게 하시겠다는 의미인 것이다.

주의 신실하시고 기록하심을.

주님만이 높임받으시며, 오직 하나님만이 대주재이심을,  
만유의 주인이 되시며 홀로 영광받으실 분임을 만 천하에 선포합니다.

찬양합니다 그 이름,  
찬양합니다 그 성호,

공의로 택하신 자들을 높이시는 하나님,  
능력의 오른손으로 정하신 백성을 구하시는 하나님,  
그 능력과 신성이 오늘 이 땅에 보여 지나니,  
강하고 능하며 온 땅의 주인이신 아버지의 이름만이 찬양받으시옵소서,  
오직 주의 성호만이 높임과 경배를 받으시옵소서,  
할렐루야  
아멘.

자 그럼 이제 이마나 오른손이 무엇을 뜻하는가를 보자.  
이마는 그의 것, 그의 소속, 그의 백성이 되는 것을 뜻함을 우리는 계시록을 보아서 알고 있다.

(3) 말하기를 "우리가 우리 하나님의 종들인 그들의 이마에 인장으로 표시할 때까지 땅이나 바다나 또는 나무들을 손상시키지 말라."고 하더라.-7장

(4) 그들은 그의 얼굴을 볼 것이며 그의 이름이 그들의 이마 위에 있으리라.- 22장

이렇듯 이마에 이름은 그의 소유됨을 의미하는 것이다.  
그렇다면 오른손은 무엇을 뜻하는가?

(6) 이제 나는 주께서 그의 기름 부음 받은 이를 구원하심을 아노니, 그는 그의 오른손의 구원하시는 힘으로 그의 거룩한 하늘에서 그의 말을 들으시리라.-시편20편

사실 오른손에 대한 의미는 창세기48장에서 야곱이 요셉의 아들,에브라임과 므낫세를 축복하는 장면에 이미 잘 나와 있다. 오른손은 능력을 의미한다. 모든 힘이 오른손에 있고 오른손으로부터 능력이 나오며 오른손이 또한 기력이다. 그리고 오른손은 구원을 청할 때 쓰는 손이다.

(35) 주께서 또 나에게 주의 구원의 방패를 주셨으며 주의 오른손이 나를 붙들어 주셨고 주의 온유하심이 나를 위대하게 하셨나이다. -18편

(23) 그럼에도 내가 항상 주와 함께하오니, 주께서 내 오른손을 붙잡아 주셨나이다. -73편

주의 오른손으로 사람의 오른손을 붙드신 것은 그의 백성임을 천명하는 것이고, 또 사람이 오른손을 뺏는 것은 하나님께 도움을 청하는 것이며, 동시에 그의 선처를 바라고, 그의 자비함을 기대하는 것이다. 이런 의미가 오른손에 담겨져 있음을 성경은 증명하고 있다. 그럼 짐승을 경배하는 것이 라는 건 무엇을 뜻하겠는가, 그건 하나님을 떠나 그의 백성이 되겠다는 것이며, 그의 오른손을 하나님을 향해 뺏는 것이 아니고, 가증한 사탄에게로 퍼서 그의 도움을 구하고, 동시에 그의 자비를 구한다는 뜻이 되는 것이다. 그럼으로 그는 사탄의 표를 받게 되는 것이다. 이것이 바로 666표의 의미였던 것이다.

화제를 잠깐 다른데로 돌려서,  
혹시 다니엘시대에 느부갓네살이 자신의 금신상을 만들어 모든 사람에게 경배를 하게 했던 사건을 기억하시는가, 그것을 이 때에 대입해보자, 애기인 즉은 이렇다. 바로 7년간의 환란 중에 후 삼년반의 어느기간에 다니엘 시대에 일어났던 그런 종류의 일이 일어난다는 것이다. 그것을 미리 예비해 보여주기 위한 것이 다니엘서의 존재이유이기도하며 미래를 代言(대언)한 豫言(예언)서이기도 한 것이다. 과거에 했던 일을 후에 다시 할 수 있겠는가라고 말하지 말라, 하나님께서는 그 이전에도 그 이후에도, 다시는 없을 지혜자를 통해 이런 말씀을 하셨다.

(9) 이미 있던 것이 후에 다시 있겠고 이미 한 일을 후에 다시 할지라 해 아래는 새 것이 없나니...전도서1장

(15) 이제 있는 것이 옛적에 있었고 장래에 있을 것도 옛적에 있었나니 하나님은 이미 지난 것을 다시 찾으시느니라... 전도서3장

이러한 일이 일어난다면 후 삼년반에 거짓선지자로부터 시작될 것이다. 사탄, 용, 옛뱀 그는 이미 알고 있었던 것이다. 이런 일이 일어나리라는 것을.... 그래서 성도들을 迷惑(미혹)하기 위해 666표가 실제로 존재하는 것처럼 보이게 함으로 속이고 있었던 것이다. 베리칩이 지금 666표라고하며 많은 사람들을 미혹하고 있다. 믿는 자들 중에, 교회를 다니는 자라면, 아니 세상사람들조차도 그것에 대해 들어보지 않은 자가 거의 없을 정도이다. 속이는 것이다. 만일 그러하다면 어떤 일이 벌어질 것인가,

666표를 기다리는 사람들은 베리칩이 666표라고 철썩같이 믿고 있다. 그런데 환란전에 휴거될 것이라고 믿는 성도들은 오시지 않는 주님 때문에 점점 지쳐갈 것이다. 그러다보니 전세계적으로 퍼져야 할 666표 사건은 점점 멀리만 있어 보인다. 바로 이 때, 그것을 이용해 은근슬쩍 NWO(세계정부)는 경제적으로 세계를 통일하게 된다. 그리고 그런 때에 끝을 알 수 없는 지혜를 가진 嚴壯(엄장)한 統治者(통치자)가 나타나게 되는데 바로 그가 적그리스도이다. 지금 이 모든 것을 주도하고 있는 나라는 미국과 그들에게 동조하는 세력들인 EU이다. 그들을 주도하는자가 누구인지는 알 수 없으나 성경에 대해, 그리고 이 짐승의 표에 대해 정확히 알고 있는 자일 것이다. 그는 또 용의 사주를 받고 있는 듯 보일만큼 치밀해 보인다. 그럼 이제 다니엘3장을 보며 승리를 위한 각오를 다지시는 시간이 되시기를 바란다.

### 다니엘 3장

- (1) 느부갓네살 왕이 금으로 신상을 만들었으니 고는 육십 규빗이요 광은 여섯 규빗이라 그것을 바벨론 도의 두라 평지에 세웠더라
- (2) 느부갓네살 왕이 보내어 방백과 수령과 도백과 재판관과 재무관과 모사와 법률사와 각 도 모든 관원을 자기 느부갓네살 왕의 세운 신상의 낙성 예식에 참집하게 하매
- (3) 이에 방백과 수령과 도백과 재판관과 재무관과 모사와 법률사와 각 도 모든 관원이 느부갓네살 왕의 세운 신상의 낙성 예식에 참집하여 느부갓네살의 세운 신상 앞에 서니라
- (4) 반포하는 자가 크게 외쳐 가로되 백성들과 나라들과 각 방언하는 자들아 왕이 너희 무리에게 명하시나니
- (5) 너희는 나팔과 피리와 수금과 삼현금과 양금과 생황과 및 모든 악기 소리를 들을 때에 엎드리어 느부갓네살 왕의 세운 금신상에게 절하라
- (6) 누구든지 엎드리어 절하지 아니하는 자는 즉시 극렬히 타는 풀무에 던져 넣으리라 하매
- (7) 모든 백성과 나라들과 각 방언하는 자들이 나팔과 피리와 수금과 삼현금과 양금과 및 모든 악기 소리를 듣자 곧 느부갓네살 왕의 세운 금신상에게 엎드리어 절하니라
- (8) 그 때에 어떤 갈대아 사람들이 나아와 유다 사람들을 참조하니라
- (9) 그들이 느부갓네살왕에게 고하여 가로되 왕이여 만세수를 하옵소서
- (10) 왕이여 왕이 명령을 내리사 무릇 사람마다 나팔과 피리와 수금과 삼현금과 양금과 생황과 및 모든 악기 소리를 듣거든 엎드리어 금 신상에게 절할 것이라

(11) 누구든지 엎드리어 절하지 아니하는 자는 극렬히 타는 풀무 가운데 던져 넣음을 당하리라 하지 아니하셨나이까

(12) 이제 몇 유다 사람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는 왕이 세워 바벨론 도를 다스리게 하신 자이어늘 왕이여 이 사람들이 왕을 높이지 아니하며 왕의 신들을 섬기지 아니하며 왕이 세우신 금 신상에게 절하지 아니하나이다

(13) 느부갓네살 왕이 노하고 분하여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를 끌어 오라 명하매 드디어 그 사람들을 왕의 앞으로 끌어온지라

(14) 느부갓네살이 그들에게 물어 가로되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야 너희가 내 신을 섬기지 아니하며 내가 세운 그 신상에게 절하지 아니하니 짐짓 그리하였느냐

(15) 이제라도 너희가 예비하였다가 언제든지 나팔과 피리와 수금과 삼현금과 양금과 생황과 및 모든 악기 소리를 듣거든 내가 만든 신상 앞에 엎드리어 절하면 좋거니와 너희가 만일 절하지 아니하면 즉시 너희를 극렬히 타는 풀무 가운데 던져 넣을 것이니 능히 너희를 내 손에서 건져 낼 신이 어떤 신이겠느냐

(16)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가 왕에게 대답하여 가로되 느부갓네살이여 우리가 이 일에 대하여 왕에게 대답할 필요가 없나이다

(17) 만일 그럴 것이면 왕이여 우리가 섬기는 우리 하나님은 우리를 극렬히 타는 풀무 가운데서 능히 건져 내시겠고 왕의 손에서도 건져내시리이다

(18)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왕이여 우리가 왕의 신들을 섬기지도 아니하고 왕의 세우신 금 신상에게 절하지도 아니할 줄을 아옵소서

(19) 느부갓네살이 분이 가득하여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를 향하여 낮빛을 변하고 명하여 이르되 그 풀무를 뜨겁게 하기를 평일보다 칠배나 뜨겁게 하라 하고

(20) 군대 중 용사 몇 사람을 명하여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를 결박하여 극렬히 타는 풀무 가운데 던지라 하니

(21) 이 사람들을 고의와 속옷과 겹옷과 별다른 옷을 입은채 결박하여 극렬히 타는 풀무 가운데 던질 때에

(22) 왕의 명령이 엄하고 풀무가 심히 뜨거우므로 불꽃이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를 붙든 사람을 태워 죽였고

(23) 이 세 사람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는 결박된채 극렬히 타는 풀무 가운데 떨어졌더라

(24) 때에 느부갓네살 왕이 놀라 급히 일어나서 모사들에게 물어 가로되 우리가 결박하여 불 가운데 던진 자는 세 사람이 아니었느냐 그들이 왕에게 대답하여 가로되 왕이여 옳소이다

(25) 왕이 또 말하여 가로되 내가 보니 결박되지 아니한 네 사람이 불 가운데로 다니는데 상하지도 아니하였고 그 네체의 모양은 신들의 아들과 같도다 하고

(26) 느부갓네살이 극렬히 타는 풀무 아구 가까이 가서 불러 가로되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종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야 나와서 이리로 오라 하매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가 불 가운데서 나온지라

(27) 방백과 수령과 도백과 왕의 모사들이 모여 이 사람들을 본즉 불이 능히 그 몸을 해하지 못하였고 머리털도 그슬리지 아니하였고 고의 빛도 변하지 아니하였고 불 탄 냄새도 없었더라

(28) 느부갓네살이 말하여 가로되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의 하나님을 찬송할지로다 그가 그 사자를 보내사 자기를 의뢰하고 그 몸을 버려서 왕의 명을 거역하고 그 하나님 밖에는 다른 신을 섬기지 아니하며 그에게 절하지 아니한 종들을 구원하셨도다

(29) 그러므로 내가 이제 조서를 내리노니 각 백성과 각 나라와 각 방언하는 자가 무릇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의 하나님께 설만히 말하거든 그 몸을 쪼개고 그 집으로 거름터를 삼을 지니 이는 이 같이 사람을 구원할 다른 신이 없음이니라 하고

(30) 왕이 드디어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를 바벨론 도에서 더욱 높이니라

**환란을 당하는 성도들은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가 되어야 한다. 그러면 바벨론왕 느부갓네살이 그들을 그의 나라인 바벨론도에서 더욱 높였듯이, 주님의 나라에서는 하나님께서 승리한 성도들을 더욱 높이실 것이다.**

#### 14. 십사만사천의 들림과 두증인의 승천, 그리고 곡식과 가라지.

우리는 앞에서 후삼년반, 즉 짐승의 때인 마흔두달에 많은 성도들이 짐승에게 경배를 하지 않으면서 당하는 핍박과 고문등 말로 다 할 수 없는 환란을 받았음을 알게 되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이겨내는 자에게 주시는 축복된 약속들을 이제 14장에서 서술하실 것이다. 십사만사천이 한때와 두때와 반때를 지내고 들림을 받아 시온산에 거하고 있음도 알아보았고, 두증인이 사흘반동안 죽어 있다가 이리로 올라오라는 하늘의 말씀을 듣고 승천했음도 알아 보았다. 또 이 때의 화가 후삼년반과 같은 기간인 사흘반이란 것도 알아 보았다. 다시 말하면 이 십사만사천은 전삼년반에 들림을 받아 시온산에 거하게 되고, 두 증인은 화 있으리라, 화 있으리라, 화 있으리라중 둘째화인 후삼년반에 승천을 함으로 유리바다에 거하니 두 번에 걸쳐 들림과 승천이 일어남을 알아보았던 것이다. 이것을 알아보았음에도 아마 이해하기 힘들고 받아들이기 힘들실 것이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런 놀라운 일을 왜 이제야 알게 하시는 것일까, 미리미리 알려주셨으면 미혹에 넘어가지 않았을텐데 말이다. 거기에 대한 것은 한 가지 이유밖에 없다. 주님오실 때가 가까웠다는 것이다. 이제 다른 계시록해석은 잊으시기 바란다. 이것이 참됨을 계속 확인하고 또 확인하며 옳다는 것을 필자는 체감하고 있고, 수 많은 오류를 고치고 고쳐서 이 결론에 이르니 더 이상 오류가 보이지 않으므로 바로 이것이 하나님이 풀어주신 옳은 해석임을 자신할 수 있게 된 것이다. 자신의 생각은 버리고 이제 하나님께서 어떤 말씀을 하셨나를 생각해야 할 때다. 그것이 옳은 分別(분별)력을 가질 수 있게 할 것이다. 이 時期(시기)에 대한 誤謬(오류)를 발견할 시에 천만원을 드리겠다고 상금을 걸어둔 이유도 그만큼 자신있기에 아니, 하나님께서 주신 해석이라는 것을 확신하기에 그런 것이며, **불의한 재물을 가지고 현명하게 일을 처리한 종처럼 되기 위해 행하는 일 (누가복음16장1절이하) 임을 하나님께서는 아실 것이다.**

감히 주의 말씀에 불경한 돈을 걸었다는 얘기를 하기 전에 얼마나 답답했으면 이런 일을 했을까하는 생각을 먼저 하시기 바란다. 이제 올바른 계시록이 모든 성도에게 알려져야 할 때가 되었다. 지금이 바로 그때이다. 이 책에는 오류가 있을 수 있다. 그러나 들림과 승천, 휴거에 대해서만큼은 오류가 없다고 確信(확신)한다. 부디 성도제위께서는 그 사실을 확인해 보시기 바란다. 전삼년반의 들림과 후삼년반의 승천을 이제 증명하려 한다. 지금까지 들었던 얘기와 비교하면서 확인하시며 보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먼저 전삼년반의 십사만사천의 들림에 대해 알아보자. 이 십사만사천은 몇 장에 나오는가, 바로 7장과 9장, 그리고 14장이다. 이곳에서 살펴보고 또 그 시기가 언제쯤인지를 판단할 줄 안다면 의외로 문제는 쉽게 풀린다.

(3) 말하기를 "우리가 우리 하나님 종들인 그들의 이마에 인장으로 표시할 때까지 땅이나 바다나 또는 나무들을 손상시키지 말라."고 하더라. -계시록7장

이 때는 십사만사천이 인을 받기 전이다. 그리고 이때는 이 시기가 어느 때를 말함을 전혀 분별할 수 없다. 그러나,

(4) 그들에게 명령이 내려지기를 땅의 풀이나 또 어떤 푸른 것이나 어떤 나무도 해치지 말고 다만 그들의 이마에 하나님의 인장으로 표시받지 아니한 사람들만 해치라고 하더라. -계시록9장, 다섯째나팔, 전삼년반기간, 한때와 두때와 반때.

이때가 전삼년반임을 알았고, 이 시기에 십사만사천이 인을 맞았음을 4절말씀으로 보아 알 수 있다. 그리고 여섯째 나팔은 짐승의 때이고 마흔두달이며 거짓선지자의 짐승경배사건, 즉 666표사건이 일어날 것임을 우리는 13장을 분별함으로 알아보았다. 그렇다면 이제 14장이다. 이 14장이 가장 확실한 증거이다. 지금까지 십사만사천이 들림받는 장면 비슷한 것도 언급된 적이 없다. 그런데 14장의 십사만사천은 벌써 어린양과 함께 시온산에 서 있다. 그리고 서 있는 이 시온산이 하나님보좌 앞이며, 대환란때인 후삼년반 전이라면 이들은 들림받았다는 서술이 되어 있지 않다하더라도 그 상황을 보아서라도 들림받은 것을 알 수 있게 되는 것이다. 그렇다면 이제 확인작업에 들어가 보도록 하자.

(1) 또 내가 쳐다보니, 보라, 어린 양이 시온 산 위에서 있고 그와 함께 십사만 사천 명이 있는데 그들의 이마에는 그의 아버지의 이름이 쓰여 있더라.

(2) 또 내가 하늘에서 나는 소리를 들으니, 많은 물 소리와도 같고 큰 천둥 소리와도 같더라. 또 내가 하프 타는 자들의 하프 소리도 들었노라.

(3) 그들이 보좌 앞과 네 생물과 장로들 앞에서 새 노래 같은 것을 불렀는데, 땅에서 구속을 받은 십사만 사천 명 외에는 그 노래를 배울 사람이 없더라.

1절과 2절을 3절을 한꺼번에 보자. 이 십사만사천이 어린양이신 예수님과 함께 시온산에 서 있다. 무엇을 하나 봤더니 노래를 부르고 있다. 그런데 그 노래를 어디서 부르나했더니 그들이 서 있었다던 시온산이란 말은 사라지고 대신 3절에 하나님보좌앞을 얘기하고 있다. 그렇다면 이 시온산은 바로 하나님이 계신 곳을 말함일 것이다. 이것을 부정할 수가 있는가? 그런자가 있다면 이 해석을 믿기 싫어서일 것이다. 그렇게 말씀을 부정하는 자는 도저히 어쩔 수 없는 방도가 없다. 이성적인 생각을 가지고 판단하시기 바란다.

(4) 이들은 여자들과 더불어 더럽혀지지 아니한 자들이니 이는 그들이 동정들임이라. 이들은 어린 양이 어디로 가든지 따라가는 자들로 하나님과 어린 양께 첫 열매들이 되어 사람들 가운데서 구속을 받았느니라.

(5) 그들의 입에서 교활함을 찾아볼 수 없는 것은 그들이 하나님의 보좌 앞에서 흠이 없기 때문이다.

이들은 어떤 자들인가, 여자들과 더불어 더럽혀지지 않았다는 것은 우상숭배를 하지 않았다는 것을 뜻하는 것이다. 그리고 이들은 그런 것 뿐만이 아니고 좋은 일이 있을 때든, 나쁜일이 생길 때든 개의치않고 하나님께 감사와 찬양을 올렸던 자들이다. 말씀을 사모하고 주님만을 바라고, 그 분의 나라를 간절히 원했던 자들인 것이다. 바로 이런 자들이 빌라델비아교회에 말

숨하셨던 그런 교인들이 아니겠는가, 계시록3장, 빌라델비아교회에 하신 말씀이다.

(8) 볼지어다 내가 네 앞에 열린 문을 두었으되 능히 닫을 사람이 없으리라 내가 네 행위를 아노니 **네가 적은 능력을 가지고도 내 말을 지키며 내 이름을 배반치 아니하였도다**

.....

(10) **내가 나의 인내의 말씀을 지켰은즉 내가 또한 너를 지키어 시험의 때를 면하게 하리니** 이는 장차 온 세상에 임하여 땅에 거하는 자들을 시험할 때라

우리는 항상 성도는 똑같다라고 생각한다. 그래서 구원도 한날 한시에 받을 것이고, 상급도 차별없이 똑같이 받을 것이라고도 생각한다. **그러나 이런 생각은 지극히 인간중심적인 생각임을 앞서도 피력한 바 있다.** 이제 자신의 생각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여보고 하나님께서 어떻게 말씀하시는 가를 보라.

(12)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내가 줄 상이 내게 있어 **각 사람에게** 그의 일한대로 갚아 주리라  
-개역

(12)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내가 줄 상이 내게 있어 **각 사람에게** 그의 행위에 따라 주리라.  
-킹제임스

(12)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내가 줄 보상이 있어 내게 있어 **각 사람에게** 그의 행위에 따라 나눠주리라. -킹제임스흠정

(12) And, behold, I come quickly; and my reward [is] with me, to give **every man** according as his work shall be. -KJB

예수그리스도께서 모든 사람이 아니고 **각 사람에게** 그의 행위에 따라 나눠주신다고 하는 것이다. 이 말씀의 의의가 2장,3장에 나와 있는 각 교회에게 하시는 말씀을 다시 한번 정독하시기 바란다. 교회가 받는 상급은 분명히 다 똑같지 않다. **똑같이 받아야 하겠다는 것은 사람의 생각일 뿐인 것이고,** 하나님께서는 그의 행위에 따라 다르게 각 사람에게 보상을 하신다는 것이다. 이것이 하나님의 방법이시고 공평함으로 다tm리시는 공의로우심 인것이다. 주님께 서 왕으로 계실 천년왕국때도 마찬가지다. 왕이 있다라는 것은 왕이 다스릴 백성이 존재해야 왕이 될 수 있는 것이다. 백성이 없는 왕은 왕이 아니다. 이것 또한 모든 성도가 똑같은 상급을 받는 것은 아니라는 것을 뚜렷이 반증하고 있는 것이다. 그러나 이렇게 여러 번역본을 보며 증명을 하는 것은 역공에 부딪힐 수도 있음을 알고 있다. 그러나 하나님의 섭리하심과 그분의 성품을 안다면 어느 번역본을 채택해야 할 것인지는 각 사람이 받은 신령한 은사에 있음 또한 부정할 수 없을 것이다. 이 해석은 가당찮은 공격에 시달릴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흔들리지 말아야 할 것은 이것은 하나님의 이름을 높여드리는 해석이라는 것이다. 그리고 그 사실을 알기 위해서는 말씀을 묵상함으로 자연스럽게 알 수 있게 되는 것이라고 믿는다. 부디 여러분의 현명한 판단이 있기를 바랄 뿐이다.

(6) 또 내가 보니, 다른 천사가 하늘 한가운데로 날아가는데 그가 땅에 사는 자들과 모든 민족과 족속과 언어와 백성에게 전할 영원한 복음을 가지고

(7) 큰 음성으로 말하기를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그 분께 영광을 돌리라. 이는 그 분의 심판의 때가 이르렀음이라. 하늘과 땅과 바다와 물의 원천들을 지으신 그 분께 경배드리라."고 하더라.

(8) 또 다른 천사가 뒤따라가며 말하기를 "큰 도성 바빌론이 무너졌도다, 무너졌도다. 이는 그녀가 모든 민족들에게 그녀의 음행으로 인한 진노의 포도주를 마시게 하였음이로다."라고 하더라.

7절과 8절과 9절은 시간이 역순으로 흐른다. 이것은 시간을 따라 가며 묵상해 보면 알 수 있는데, 7절의 심판의 때가 이르렀다는 것은 진노가 끝나고 심판의 때가 이르렀다는 것이요, 8절에 큰 도성 바빌론이 무너졌다는것은 18장과 19장을 통해 보면 알 수 있게 되겠지만, 진노의 일곱 대적중 아말겟돈전쟁전에 음녀의 멸망이 있다는 것, 그리고 이제 9절에 그 앞서 일어날 일인 후삼년반의 짐승에 대한 경배와 그의 표가 나옴을 보고 알 수 있게 되는 것이다.

(9) 셋째 천사가 그들을 따라가며 큰 음성으로 말하기를 "누구든지 그 짐승과 그의 형상에게 경배하고 그의 표를 자기 이마나 손에 받는다면

(10) 그 역시 하나님의 진노의 포도주를 마시게 되리니 그것은 그의 진노의 잔에 혼합하지 않고 부은 것이니라. 또 그 사람은 거룩한 천사들과 어린 양의 임재 가운데 불과 유향으로 고통을 받으리니

(11) 그 고통의 연기가 영원 무궁토록 올라가리라. 그 짐승과 그 형상에게 경배하고 그의 이름의 표를 받는 자는 누구든지 밤낮 쉼을 얻지 못하리라.

역시 9,10,11절에 보게 되면 후삼년반의 성도가 겪을 환란이 있는데 **우상숭배는 절대로 하지 말라는 말씀이 이 글의 결론이 됨을 알 수 있겠다.** 이런 시간상의 **逆(역)敍述(서술)방식**은 짐승의 경배에 대한 하나님의 뜻을 강조하기 위함인데, 그만큼 하나님께서는 **우상숭배를 싫어하신다고 볼 수 있겠다.** 이 우상에게 경배를 하게 되면 그 어떤 믿음이나 행위도 하나님의 **震怒(진노)에서 구해 낼 수 없음을 力說(역설)하신 것**이라고 할 수 있다.

(12) 여기에 성도들의 인내가 있으며 여기에 하나님의 계명들과 예수의 믿음을 지키는 자들이 있느니라."고 하더라.

보라, 이 부분은 우리가 13장에서 이미 알아보고 넘어온 바다. 어떠한 고통과 피로움, 희생을 치루더라도, 자신의 목숨을 내놓고 **우상숭배를 하지 않았던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의 믿음을 소유해야 할 것을 강조하시는 것이다.**

(13) 또 내가 하늘에서 나는 음성을 들었는데 나에게 말씀하시기를 "기록하라, 이제부터 주 안에서 죽는 자들은 복이 있도다. 성령께서 말씀하시니라. 이는 실로 그들은 자기들의 수고를 그치고 쉴 것이요 그들의 행위가 그들을 따를 것임이라."고 하시니라.

그리하여 이제 순교자가 양산되기 시작한다. 그 수에 대해서는 앞서 언급했지만 이렇게 주 안에서 죽는 자들이 **차라리 복이 있음을 선포하시는 것이 아닌가,**

(14) 또 내가 쳐다보니, 보라, 흰 구름이라. 그 구름 위에 인자와 같은 이가 앉았는데 그분의 머리에는 금면류관을 썼고 손에는 예리한 낫을 가졌더라.

(15) 그때 다른 천사가 성전에서 나와 구름 위에 앉으신 그 분께 큰 음성으로 부르짖기를 "주의 낫을 대어 곡식을 거두소서. 주께서 거두실 때가 되었으니 이는 땅의 곡식이 익었음이니이다."라고 하더라.

(16) 그러자 구름 위에 앉으신 이가 그의 낫을 땅에 대어 땅에서 곡식을 거두시더라.

**주님께서 순교자들을 거두시는 장면이다. 이 장면은 바로 11장에서 알아본바와 같다.**

(11) **사흘 반 후에** 하나님께로부터 온 그 생명의 영이 그들에게로 들어가니 그들이 자기 발로 서더라. 그러자 그들을 바라보던 자들에게 큰 두려움이 임하더라.

(12) 그들이 하늘로부터 나는 큰 음성을 들었는데 그들에게 말하기를 "**이리 올라오라.**" 하므로, 그들이 구름을 타고 하늘로 올라가니 그들의 원수들이 그들을 바라보더라.

....

(14) **둘째 화는 지나갔으나, 보라, 셋째 화가 속히 오리라.** -계시록11장

이 둘째 화는 앞에서 알아보았으나 혹시 잊으신 분들을 위해 다시 가져오겠다.

(13) 내가 보고 들으니, 하늘 한가운데로 날아가는 한 천사가 큰 음성으로 말하기를 "땅에 사는 자들에게 **화 있으리라, 화 있으리라, 화 있으리라.** 이는 세 천사가 이제 불려고 하는 다른 나팔 소리들 때문이라."고 하더라 -계시록8장,개역성경

화있으리라고 세 번 언급이 되어 있는데 다시 설명하지만 첫 번째화는 전삼년반인 다섯 번째 나팔이고, 두 번째 화있으리라는 후삼년반인 여섯 번째나팔, 그리고 세 번째나팔은 하나님의 일곱진노대접인 일곱 번째 나팔이 되겠다. 따라서 이 둘째 화는 후삼년반의 환란때 일어난 일인 것이고 사흘반후에 일어서서 하늘로 올라갔다는 것은 이들이 주의 음성으로 승천했음을 표현한 것이고, 14장에서의 서술은 예리한 낫으로 곡식을 거둠으로 결과적으로는 이들이 승천되었음을 알려주신 것이라 하겠다. 그렇다면 결론은 났다. **바로 지금까지 알아본 바로 십사만사천의 들림과 두증인의 승천은 전삼년반末(말)과 후삼년반末(말)에 각각 따로 일어났음을 명확히 알 수 있게 된 것이다. 이것에 대한 증명은 후에 숫자와 날짜, 그리고 일곱교회로 다시 한번 확증하게 될 것이다.** 기대하셔도 좋다.

(17) 그 후에 또 다른 천사가 하늘에 있는 성전에서 나오는데 그 역시 예리한 낫을 가졌더라.

(18) 불을 다스리는 권세를 가진 또 한 천사가 제단에서 나와 예리한 낫을 가진 자에게 큰 소리로 외쳐 말하기를 "너의 예리한 낫을 대어 땅의 포도송이를 거두라. 이는 그 포도들이 다 익었음이라."고 하더라.

(19) 그러므로 그 천사가 낫을 땅에 대어 땅의 포도송이를 거두어서 하나님의 진노의 큰 포도즙틀에 던져 넣으니라.

(20) 그 포도즙틀이 도성 밖에서 짓밟히니 그 틀에서 피가 흘러나와 말고삐까지 닿고 일천육백 스타디온까지 퍼지더라.

17절부터 20절까지의 이 말씀은 세례요한이 천국복음을 선포하였던 바로 그 곡식과 쪽정이비유가 펼쳐짐을 보여준다고 할 수 있겠다. 곡식을 거두고 난 이후에 이 포도송이는 마태복음 3장에 나오는 쪽정이라고 볼 수 있다.

(12) 손에 키를 들고 자기의 타작 마당을 정하게 하사 **알곡은 모아 곡간에 들이고 쪽정이는 꺼지지 않는 불에 태우시리라** -마태복음3장

이 쪽정이가 바로 이 곳에서는 포도송이로 표현되어 있는 것이고, 말씀을 상고하는 이라면 이 장면이 바로 쪽정이를 불에 태우시는 장면임을 알 수 있을 것이다. 그렇다면 이 쪽정이는 時間(시간)進行(진행)상 두증인 승천후에 **계시록11장의 도성의 십분의 일이 무너지고 칠천명이 죽었더라**고 하는 그 칠천명임을 분별할 수 있을 것이다. 확인해보자.

(13) 또 같은 시간에 큰 지진이 일어나서 도성의 십분의 일이 무너지니 **그 지진으로 죽은 사람들이 칠천 명이었더라.** 남은 자들은 무서워하며 하늘의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더라.

이 들이 바로 포도송이이며 동시에 쪽정이 들이다. 14장 20절에 그 포도즙틀이 도성 밖에서 짓밟히니 그 틀에서 피가 흘러나와 말고삐까지 닿고 일천육백 스타디온까지 퍼지더라.라는 이 말씀은 셀 수 없이 많은 사람이 죽어 피가 일천육백스타디온까지 퍼지더라라는 것이 아니

고, 심판의 격렬함을 표현한 것이다. 이 쪽정자들은 하나님분노의 시험판이다. **이 쪽정자들은 믿는 자를 가장한 거짓성도들이기도 하다.**

지금까지 전삼년반에 들림받는 십사만사천과 후삼년반에 승천하는 두증인에 대해 알아 보았다. 그렇다면 바울사도가 언급했던 고린도전서 15장 51절에서 54절까지의 내용들이나,

(51) 보라, 내가 너희에게 한 가지 신비를 말하노니, 우리가 다 잠잘 것이 아니요 오히려 우리가 모두 변화될 것이니

(52) 마지막 나팔에 눈깜짝하는 순간에 그러하리라. 나팔 소리가 나면 죽은 자들이 썩지 아니하는 몸으로 일으켜지며, 우리도 변화되리라.

(53) 그리하여 이 썩을 몸이 반드시 썩지 아니할 몸을 입고, 이 죽을 몸이 반드시 죽지 아니할 몸을 입으리라.

(54) 이 썩을 몸이 썩지 아니함을 입고, 또 이 죽을 몸이 죽지 아니함을 입게 되면 "사망이 승리 속에 삼킨 바 되었느니라."고 기록된 말씀이 이루어지리라.

마태복음 24장30절이하의 말씀들,

(30) 그 때에 인자의 징조가 하늘에서 보이겠고 그 때에 땅의 모든 족속들이 통곡하며 그들이 인 자가 구름을 타고 능력과 큰 영광으로 오는 것을 보리라

(31) 저가 큰 나팔 소리와 함께 천사들을 보내리니 저희가 그 **택하신 자들을 하늘 이 끝에서 저 끝까지 사망에서 모으리라**

.....

(40) 그 때에 두 사람이 밭에 있으며 **하나는 데려감을 당하고 하나는 버려둠을 당할 것이요**

(41) 두 여자가 매를 갈고 있으며 **하나는 데려감을 당하고 하나는 버려둠을 당할 것이니라**

그리고 데살로니가전서 4장16절의 말씀,

(16)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로 친히 하늘로 좇아 강림하시리니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17) 그 후에 **우리 살아 남은 자도 저희와 함께 구름 속으로 끌어 올려 공중에서 주를 영접하게 하시리니 그리하여 우리가 항상 주와 함께 있으리라**

이 구절들의 말씀들은 언제 일어나는 것인가 하는 의문을 가지게 될 것이다. 이 일들은 바로 **주님께서 재림하실 때 이루어지는 일들이다.** 그럼 확인차 여기서 다시 한번 전체적인 그림을 그려보도록 하자.

약 2000년전에 예수그리스도께서 초림하시고 교회를 세우시는 것이 첫째봉인부터 셋째봉인까지의 출발점이고, 곧 이것이 첫 번째 나팔인데 이 때에 풀과 나무가 타버림으로 초대교회의 순교가 이루어진다, 그리고 그 이후 불타는 산인 바빌론이 떨어지는 것이 둘째나팔이고 이 바빌론종교로 인해 또 다시 많은 사람들이 목숨을 잃게 된다. 그 이후 강에 썩이 떨어진다 는 상징적인 표현으로 복음이 변질되는 셋째나팔, 그 썩의 변질됨으로 복음이 힘을 잃는 현재시대인 넷째나팔까지의 일들이 펼쳐져 왔음을 살펴보았다, 그리고 다시 “화, 화, 화가 있으리라”라고, 세 번 화있음을 외치는 천사의 목소리로, 이후 다섯, 여섯, 일곱번째나팔이기도하면서 그 의미를 가진 세가지 환란이 더 남아있음을 알 수 있다. 드디어 그 세가지화의 첫 환란

인 넷째봉인이기도 하면서 한이레의 시작인 다섯째나팔이 불려지는데, 때 맞춰 하늘에서 별이 떨어짐으로 짐승의 등장과 함께 칠년의 환란의 시작을 알리는 전삼년반이 시작됨을 알아볼 수 있었다. 또 두번째화이며 짐승의 때인 마흔두달에 속하고 후삼년반의 시작이기도하며, 두증인이 순교해서 사흘반동안 목숨을 잃는 기간인 대환란의 기간인 여섯째나팔이 불리게 됨으로 시작되게 되고, 드디어 주님께셔도 언급하셨던 이전에도 없고, 이후에도 없을 대환란이 본격적으로 그 기간중에 시작됨을 알 수 있다. 또 그 마흔두달기간에 수없이 많은 순교자를 배출하게 됨도 알 수 있었다. 그렇다면 이제 마지막 일곱번째나팔인 하나님의 일곱진노대접이 남아있는데 이것은 15장에서의 준비과정과 16장에 들어가 본격적인 진노가 땅에 퍼부어짐으로 그 노여움의 격렬함을 알 수 있게 될 것이다.

지금까지의 나팔순서는 하나님의 진노인 일곱번째나팔로부터 역순으로 계산을 해도 틀림없음을 알 수 있을 것이다. 따라서 지금까지의 해석을 믿고 따라 오신 분들은 오류가 없는 옳은 해석을 보고 있음을 다시 한번 확인하신 것이다.

그리고 이제 하나님의 진노가 준비되는 15장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자

## 15. 일곱째나팔, 하나님의 일곱 대접진노의 준비

(1) 또 내가 하늘에서 크고 놀라운 다른 표적을 보았는데 일곱 천사가 마지막 일곱 재앙을 가졌더라. 이로써 하나님의 진노가 그것들 안에서 끝나치리다.

이 장면이 나오기 이전까지 인류와 성도들이 겪어온 과정을 한번 되짚어 생각해보자. 창세로부터 사탄은 하와를 미혹하여 선악과를 먹게 함으로 범죄하게 만들었고, 모든 인류의 조상인 아담도 하와가 내민 선악과를 받아먹음으로 말미암아 그 안에서 불순종의 죄를 범하는 결과를 낳게 되었다. 그리하여 영원히 살 수 있었던 인류는 죽을 수 밖에 없는 몸이 되었고, 그 죄를 씻어내고자 하나님께서는 독생자 예수그리스도를 보내시고 그 이름을 믿는자에게는 영원한 생명을 허락하신다고 하는 대구원론이 펼쳐지게 되었다. 그렇게 교회는 탄생되었고, 그 교회를 말살하고자, 사탄은 가는 곳곳마다 함정을 놓아 믿는자들을 꾀박하게 됨으로 말미암아 많은 성도들이 올바른 교리를 알지 못하고 죽어가는 결과를 낳게 되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교회는 절대적인 주님의 보호하심과 능력아래 결코 멸망당하지 않고 현 시대까지 면면히 흘러 내려왔으며, 적그리스도의 출현이래로 많은 고난을 받았으나 칠년동안의 환란을 참아내며 이제 하나님의 일곱 대접진노가 쏟아져야하는 이 마지막 일곱번째나팔까지 역사를 진행해 온 것이다. 이제 이 하나님의 진노가 쏟아지므로 주님의 재림이 시작되며, 사탄의 세력은 종지부를 찍게 되는 것이다.

(2) 내가 보니, 불로 뒤섞인 유리 바다 같은 것이 있고, **그 짐승과 그의 형상과 그의 표와 그의 이름의 숫자에 대하여 이긴 자들이 하나님의 하프들을 가지고 유리 바다 위에 섰더라.**

이들 이전에 우리는 십사만사천이 시온산이라 불리는 주의 보좌앞에서 그들 아니면 부를 수 없는 노래를 부르는 것을 보았고, 이제 여기 서있는 이 성도들은 짐승에게 경배하지도 아니 하였을 뿐더러 목숨을 바쳐 순교하여 결국은 승리한 두증인이 유리바다위에 서 있는 것을 보고 있다. 이 상황은 후삼년반의 일임을 지금까지 살펴보며 확인해 왔다.

(3) 그들이 하나님의 종 모세의 노래와 어린 양의 노래를 부르며 말하기를 "전능하신 주 하나님, 주의 행하신 일이 위대하고 놀라우니, 성도들의 왕이여, 주의 길은 의롭고도 진실하나이다.

(4) 오 주여, 누가 주를 두려워하지 아니하며 주의 이름을 영화롭게 하지 아니하리이까? 오직 주만 기록하시나이다. 모든 민족들이 주 앞에 나와 경배하리니 이는 **주의 심판이 나타났기 때문이니이다.**"라고 하더라.

(5) 또 이 후에 내가 보니, 보라, 하늘에 있는 증거의 성막의 성전이 열리며

(6) 일곱 천사가 성전에서 나오는데 일곱 재앙을 가졌으며, 정결하고 흰 세마포를 입고 그들의 가슴에는 금띠를 둘렀더라.

(7) 그때 네 생물 가운데 하나가 영원 무궁토록 살아 계신 하나님의 진노로 가득 찬 일곱 금 호리병을 일곱 천사에게 주니

(8) 성전이 하나님의 영광과 그의 권세로부터 나오는 연기로 가득 차서 일곱 천사의 일곱 재앙이 끝나기까지는 아무도 성전에 들어갈 수 없더라.

하늘에 있는 증거 성막이라함은 출애굽후에 이스라엘이 광야 생활을 했을 때 법궤가 있었던 그 성막의 실체이며 그림자같았던 그 당시의 성막에 비취 하늘에 실제하는 성전을 말하는 것으로 볼 수 있겠다. 이 천사들은 하나님의 영광 안에서 하나님의 진노를 이 땅에 쏟는 거룩한 제사장의 역할을 대신하고 있고, 성전의 연기는 하나님의 영광의 임재를 표한다고 할 수 있다.

## 16. 땅으로 쏟아지는 하나님의 진노.

이제 드디어 하나님의 진노의 심판이 땅에 쏟아지는 것이다. 이하 모든 구절들은 문자 그대로의 재앙들이 쏟아지는 것으로 보는 것이 옳아 보인다. 이집트에 내려졌던 가지의 재앙들이 말 그대로 재앙이었듯이 이 진노 또한 문자 그대로의 재앙일 것이다.

(1) 또 내가 성전에서 나오는 큰 음성을 들었는데, 일곱 천사에게 말하기를 "가서 하나님의 진노의 일곱 호리병을 땅에 쏟으라."고 하시더라.

(2) 그러므로 첫째가 가서 자기 호리병을 땅에 쏟으니, 그 짐승의 표를 가진 자들과 그의 형상에 경배한 자들 위에 악취가 나는 심한 헌데가 생기더라.

(3) 둘째 천사가 자기 호리병을 바다에 쏟으니 바다가 죽은 자의 피같이 되어 모든 살아있는 혼들이 바다에서 죽더라.

(4) 셋째 천사가 자기 호리병을 강들과 물의 원천들에 쏟으니 그것들이 피가 되더라.

(5) 또 내가 들으니, 물의 천사가 말하기를 "오 주여, 주는 지금도 계시고, 전에도 계셨고, 앞으로도 계실, 의로우신 분이시니 주께서 이렇게 심판하셨나이다.

(6) 그들이 성도들과 선지자들의 피를 흘렸으므로 주께서 그들에게 피를 주어 마시게 하신 것이 그들에게는 마땅하니이다."라고 하더라.

(7) 또 내가 들으니, 제단에서 다른 소리가 나서 말하기를 "그러하도다. 전능하신 주 하나님, 주의 심판들은 참되며 의로우니이다."라고 하더라.

(8) 넷째 천사가 자기 호리병을 해에 쏟으니, 해에게 불로 사람들을 태우는 권세가 주어지더라.

(9) 그리하여 큰 열기로 사람들을 태우니 그들이 이러한 재앙에 권세를 가진 하나님의 이름을 모독하더라. 그들이 회개하지 아니하고 그분께 영광을 돌리지 아니하니라.

(10) 다섯째 천사가 자기 호리병을 짐승의 자리에 쏟으니 그의 왕국이 흑암에 싸이며, 그들이 고통으로 인하여 자기 혀를 깨물고

(11) 자신들의 고통과 험테로 인하여 하늘에 계신 하나님을 모독하되 자기들의 행위는 회개치 아니하더라.

이상11절까지는 앞서 말했던대로 문자 그대로의 재앙이 올 것이다. 이것은 상징이랄수도 없는바 쓰여진 바대로 실행될 진노이기 때문이다. 특히 첫 번째와 다섯째 호리병(대접:개역성경)은 짐승과 그를 따르는 자들에게만 쏟아지는 진노임을 알 수 있다.

(12) 여섯째 천사가 자기 호리병을 큰 강 유프라테스에 쏟으니 강물이 말라 버려서 동방의 왕들의 길이 예비되더라.

(13) 또 내가 보니, 개구리 같은 불결한 세 영이 용의 입과 짐승의 입과 거짓 선지자의 입에서 나오는데

(14) 그들은 기적들을 행하는 마귀들의 영들이라. 그 영들은 이 땅과 온 세상의 왕들에게로 가서 전능하신 하나님의 위대한 날의 전쟁을 위하여 그 왕들을 모으더라.

이 12절부터는 우리가 그동안 슬하게 들어왔던 아마겟돈전쟁이 일어나려하는 순간이고, 이후 일곱 번째 나팔은 엄청난 대지진이 발생하게 되는데 이 지진은 우리가 상상할 수 없을 만큼의 큰 지진이 될 것이다. 이 지진이 어떤 지진인지는 18절에서 설명하도록 하겠다.

(15) 보라, 내가 도둑같이 오리니 깨어 있어 자기 옷을 지켜서 벗은 채로 다니지 아니하고, 사람들에게 자기 수치를 보이지 않는 자는 복이 있도다.

이 도둑같이 온다는 것은 계시록3장에서 보던 구절이다.

(3) 그러므로 네가 어떻게 받았으며 또 어떻게 들었는지 기억하고 굳게 지키어 회개하라. 만일 네가 깨어 있지 아니하면 내가 도둑같이 네게 임하리니 어느 때에 너에게 올 것인지 내가 알지 못하리라.

이 말씀은 주님의 재림이 언제 어느 때(시)에 있을지 모르니 항상 깨어 있으라는 주님의 명령이요, 권고이며, 또 한가지 숨은 의미가 있다면, 이 도둑같이 오시는 시기는 강림하실 때 이고 그 때에 휴거될 모든 성도에게 하시는 말씀인 것이다.

(16) 그가 그들을 히브리어로 아마겟돈이라고 하는 곳으로 모으더라.

이 아마겟돈이 어디인가 하는 것은 많은 말들이 있고, 또 거기에 대한 해석도 어느정도 통일이 되어있는 것처럼 보인다. 그러나 이 아마겟돈은 우리가 알 수 있는 어떤 장소가 아니다. 이 장소는 영적인 존재들만이 알 수 있는 장소, 즉 사탄과 하나님만이 아는 장소이다. 그 이유는 이 대지진때문인데, 이 대지진이 대체 어느 정도의 지진이며 그 진실한 의미가 무엇이나 하는 것이다.

(17) 일곱째 천사가 자기 호리병을 공중에 쏟으니 하늘의 성전에서 큰 음성이 보좌로부터 나와 말하기를 "다 이루었다."고 하니

이 장면은 앞선 장인 10장에서 이미 본 바가 있다.

(7) 일곱째 천사가 소리를 내는 날들에 그가 나팔을 불게 되리니, 그때에 하나님의 신비가 그분께서 **자기의 종들인 선지자들에게 선포하신 것과 같이 이루어질 것이다.**"고 하더라.

바로 이 장면이 10장에서는 감추어져 있었지만 이제 그 끝이라 할 수 있는 진노의 결말인 16장에서는 **밝히 드러내어지는 순간이다.** 이 순간을 위해 하나님께서는 그 긴 시간을 참으시고 참으셨던 것이다.

(18) 음성들과 천둥들과 번개들이 있었고 또 **큰 지진이 일어났는데, 그 지진이 너무도 엄청나서 사람이 땅에 거주한 이래로 이처럼 강력하고 큰 지진은 일찍이 없었더라.**

이제 본격적으로 이 지진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자. 먼저 창세기 10장에서 이런 구절을 읽어본 적이 있으나 무심코 지나간 적이 성도들에게는 있을 것이다.

(25) 에벨은 두 아들을 낳고 하나의 이름을 벨렉이라 하였으니 그 때에 **세상이 나뉘었음**이요 벨렉의 아우의 이름은 욥단이며 -개역성경

(25) 에벨은 두 아들을 낳았는데, 한 아들의 이름은 펠렉이라 하였으니, **그 때에 땅이 나뉘었음**이요, 펠렉의 아우의 이름은 욥단이며, -킹제임스

(25) 에벨에게 두 아들이 태어났는데 하나의 이름은 벨렉이었으니 이는 **그의 날들에 땅이 나뉘었기 때문**이더라 그의 형제의 이름은 욥단이며, -킹제임스흠정

(25) And unto Eber were born two sons: the name of one [was] Peleg; **for in his days was the earth divided;** and his brother's name [was] Joktan. -KJB

이상으로 무심히 지나칠 수 있는 땅이 나뉜 부분에 대해 비교번역본을 통해 알아보았다. 이 당시에 일어나는 역사적인 일로는 니므롯이 세상 모든 사람들을 한곳에 모으고 흩어지지 않게 하기 위해 바벨탑을 세우는 일이 있었고, 그로 인해 하나님께서 그들의 언어를 혼잡하게 하시는 일이 발생하게 된다. 그렇게 언어를 혼란시키신 하나님께서는 민족들을 온 땅의 구석 구석으로 퍼뜨리시고 나서 당시 하나였던 땅을 벨렉의 때에 나눔으로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모양, 오대양육대주로 가르신 것이다. 그 벨렉이라는 이름이 가지고 있는 뜻은 히브리어로 나뉘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다. 그러므로 이렇게 갈라졌던 땅은 이제 다시 하나로 회복되어져야만 한다. 하나님께서 이 땅에 왕국을 세우시면 이스라엘을 원상으로 회복하는 역사가 있게 됨을 우리는 그분의 약속에서 알 수 있다. 이 이스라엘은 욥적이기도하고, 또한 더욱 더 영적인 의미로 봐야하겠지만, 또 그들 이스라엘이 거하는 땅도 회복되어져야 함도 당연한 일일 것이다. 바로 이 일곱째 대접진노때 발생하는 대지진은 인간의 죄로 인해 찢기고 갈려졌던 땅들이 하나로 회복되어지는 그런 회복의 대지진이 될 것이다. 그리고 그 땅들은 북극쪽을 중심으로 모일 것이며 그 중앙이 바로 아마겟돈전장(전쟁터)이 될 것이다. 그래야만 약속하신 주님재림시 모든 눈들이 주예수의 강림을 볼 것이라는 말씀이 성취되기 때문이다. 그 때에는 세상 모든 눈들이 주님의 강림하심을 볼 수 있게 될 것이다. 그런데 왜 하필 북쪽인가, 그건 하나님의 보좌가 그곳에 있기 때문이다. 이사야14장이다.

(12) **오 아침의 아들 루시퍼야,** 네가 어찌 하늘에서 떨어졌느냐! 민족들을 연약하게 하였던 네가 어찌 땅으로 끊어져 내렸느냐!

(13) 이는 내가 네 마음 속에 말하기를 "내가 하늘에 올라가서 내 보좌를 하나님의 별들보다 높일 것이요, 내가 또한 북편에 있는 회중의 산 위에 앉으리라.

(14) 내가 구름들의 높은 곳들 위로 올라가서 지극히 높으신 분같이 되리라." 하였음이라.

(15) 그러나 너는 지옥까지 끌어내려질 것이요, 구렁의 사면에까지 끌어내려지리라.

13절의 북편하늘은 예로부터 하나님께서 계신 곳으로 알려져 있다. 그래서 루시퍼(사탄)는 그 북편에 자리를 펴 하나님자리에 앉겠다고 하는 것이다. 이것은 과학적으로도 어림없이 드러나는데 북편하늘을 제외한 다른 모든 방향의 우주 사방에는 수를 셀 수 없을 정도로 많은 별들과 은하계들이 존재하고 있는 것으로 밝혀졌으나, 이 북쪽하늘에는 북극성을 중심으로 있는 별들이 다른 곳에 비하면 거의 없는 것이나 마찬가지로 일정한 소수의 별들만이 존재한다고 한다. 간단히 넘길 수도 있는 일이겠지만 성경과의 연관성을 생각한다면 결코 우연이라고만 할 수 없는 무언가가 있음을 짐작해 볼 수 있을 것이다. 이것에 대해서는 천문학을 참조하시기 바란다.

또 모든 눈이 재림주를 볼 것이라는 말씀이다.

(7) 보라, 그가 구름들과 함께 오시리니 **모든 눈이 그를 볼 것이며, 그를 찌른 자들도 볼 것이요**, 또한 땅의 모든 족속이 그로 인하여 애곡하리라. 그대로 되리로다. 아멘.

TV를 통해 예수그리스도재림상황을 지켜볼 것이라는 것은 우스갯소리에 불과하다. 주님의 재림을 어찌 TV생중계로 보겠는가, 모든 땅이 북극을 중심으로 합쳐지게 되고 그러면 그 중심에 아마겟돈전쟁터가 형성이 된다. 그제서야 모든 사람들이 주님재림하시는 장면을 볼 수 있는 각도가 형성되게 될 것이고, 역시 그렇게 되면 온 세상 모든 민족들의 눈이 그분의 재림을 볼 수 있게 될 것이다.

이때 벌어지는 일로는 사탄의 무리들이 강림하시는 주님과 맞서 싸우기 위해 그들의 군대를 땅의 중앙, 곧 아마겟돈으로 모이게 하며 영적인 의미의 올리브산에서 맞서게 될 것이다. 이 곳에서 재림하시는 만왕의 왕께 대항하려고 하나 그분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으로 그들의 육체는 썩어 糞土(분토)가 될 것이다. 그들이 죽은 그 북편은 예루살렘으로 불릴 것이며 이 예루살렘에 거하는 자들이 하나님의 잔치에 참여하는 자들인 십사만사천과 두증인과 주님재림 때 휴거되는 주의백성들을 포함하는 성도들이 될 것이다. 이 지진 후에 땅의 중앙이 되는 곳을 추측하자면 **지금의 이스라엘땅이 중심이 될 것으로 보이며, 모든 땅들이 북쪽으로 움직여 하나가 될 것으로 분별한다.** 이것에 대한 증명은 스가랴14장이다.

(1) 여호와와의 날이 이르리라 그 날에 네 재물이 약탈되어 너의 중에서 나누이리라

(2) 내가 열국을 모아 예루살렘과 싸우게 하리니 성읍이 함락되며 가옥이 약탈되며 부녀가 욕을 보며 성읍 백성이 절반이나 사로잡혀가려니와 남은 백성은 성읍에서 끊쳐지지 아니하리라

이 때는 후삼년반의 대환란이 있을 것임을 암시한 것이다. 그러므로 지금 이스라엘땅에 있는 예루살렘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다. **이 예루살렘은 영적인 의미의 성도들을 얘기한다.** 그리고 3절 이후가 주님 재림하시는 시점인 것이다.

(3) 그 때에 여호와께서 나가사 그 열국을 치시되 이왕 전쟁 날에 싸운 것 같이 하시리라

(4) 그 날에 그의 발이 예루살렘 앞 곧 동편 감람산에 서실 것이요 감람산은 그 한가운데가 동서로 갈라져 매우 큰 골짜기가 되어서 산 절반은 북으로 절반은 남으로 옮기고

....

(11) 사람이 그 가운데 거하며 다시는 저주가 있지 아니하리니 예루살렘이安然히 서리로다

(12) 예루살렘을 친 모든 백성에게 여호와께서 내리실 재앙이 이러하니 곧 **섰을 때에 그 살이 썩으며 그 눈이 구멍 속에서 썩으며 그 혀가 입속에서 썩을 것이요**

(13) 그 날에 여호와께서 그들로 크게 요란케 하시리니 피차 손으로 붙잡으며 피차 손을 들어 칠 것이며 ...

이 일들 말고 또 어떤 일이 벌어지는가, 그 일로 죽은 많은 왕들과 군대의 시체를 먹어 치우게 하기 위해 새들을 부르시기도 하신다.

에스겔39장 - 아마겟돈전쟁상황이다.

....

(4) 네가 이스라엘의 산들 위에 쓰러지리니, 너와 너의 온 부대와 너와 함께한 백성들이라. 내가 너를 몹시 굶주린 각종 새들과 들의 짐승들에게 주어 삼키게 하리라.

그리고,

(28) 어디든지 시체가 있는 곳에는 독수리들이 함께 모이리라. -마태복음24장

마태복음의 이 28절은 많은 오해를 불러 일으키는 구절이지만 정확한 의미는 모든 것을 내다 보고 계시는 예수님께서 아마겟돈전쟁때 일어날 일을 예고하신 것이다.

그리고 또 다른 증거인 계시록 19장이다. 이제 모두 모인 주의 신부가 된 성도들과 함께 주님 재림하실때의 상황인데, 그 분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으로 짐승과 거짓선지자등 땅의 왕들을 멸하시고 새들을 그 잔치에 초대하는 장면이다.

(17) 또 내가 보니, 한 천사가 해에서 있는데 그가 큰 음성으로 외쳐 하늘 한가운데로 날아가는 모든 새들에게 말하기를 "와서 위대하신 하나님의 만찬에 다 함께 모여

(18) 왕들의 살과 장군들의 살과 용사들의 살과 말들과 그 위에 탄 자들의 살과 자유인이나 종이나 작은 자나 큰 자나 할 것 없이 모든 자의 살을 먹으라."고 하니라. -계시록19장.

이렇듯 하나님의 심판은 격렬할 것이다.

(19) 또 그 큰 도성이 세 부분으로 갈라지고 민족들의 성읍도 붕괴되며 큰 바빌론이 하나님 앞에 기억되었으니 이는 그녀에게 그 분의 맹렬한 진노의 포도주 잔을 주기 위함이니라.

이 도성은 바빌론을 의미하는 것이며, 또 음녀를 의미하는데,

(18) 네가 본 그 여자는 땅의 왕들을 다스리는 큰 도성이라."고 하더라. -17장

세부분으로 갈라짐은 그 심판의 잔혹함을 표한다고 할 수 있겠다. 이 음녀가 멸망하는 때에는 마지막으로 하나님께서 자신의 백성들에게 음녀에게서 나오라고 간곡히 부탁하시는 18장 4절 이하의 말씀들이 삽입될 그 시점이기도 하다. 이 시기에는 많은 일들이 한꺼번에 벌어지는 시기인데 특히 음녀의 멸망이 삽입되어 그녀가 하루만에 붕괴되는 역사의 삽입처이기도 하다. 확인해 보자.

(8) 이로 인하여 그녀의 재앙들이 하루 만에 닥치리니 죽음과 슬픔과 기근이요 또 그녀는 불로 완전히 태워지리니, 이는 그녀를 심판하시는 주 하나님은 강하시기 때문이니라. -18장

그리고 다시 계시록16장으로 돌아와서 19절이후에,

(20) 그러자 모든 섬이 사라지고 산들도 보이지 아니하더라.

또 이 때에는 대 지진으로 인하여 지각이 몸살을 할 때이다. 때문에 **세상 산들은 내려앉을 것이고, 온갖 섬들은 대륙에 편입되어 한 땅이 될 것이다.**

(10) **온 땅이 아라바 같이 되되** 게바에서 예루살렘 남편 립몬까지 미칠 것이며 예루살렘이 높이 들려 그 본처에 있으리니 베냐민 문에서부터 첫문 자리와 성 모퉁이 문까지 또 하나넬 망대에서부터 왕의 포도주 짜는 곳까지라 -스가랴10장

여기 "아라바"는 "평지"를 의미한다. 이 귀절의 주요한 뜻은, 예루살렘이 어디서나 볼 수 있게 드러나게 되리라는 것과 그 곳(예루살렘)이 안전하고 평화롭게 되리라는 것이다. 게바는 베냐민 지경의 북쪽에 있었고, "립몬"은 예루살렘 남쪽에 있었다. 그러면 게바에서 립몬까지가 "아라바" 곧, 평지 같이 됨은, 성전이 있는 지점을 높이 드러나게 하려는 것이다. -주석

주석에 있는 이런 해석을 보더라도, 우리는 이 때의 지진이 우리가 알고 있는 파괴의 지진이 아니고, 회복의 대지진이 될 것임을 미루어 짐작할 수 있을 것이다.

(21) 또 무게가 각기 한 달란트나 되는 큰 우박이 하늘로부터 사람들 위에 떨어졌는데, 사람들은 그 우박의 재앙 때문에 하나님을 모독하니 이는 그 재앙이 심히 크기 때문이라.

그리고 이 우박재앙은 아마겟돈전쟁에 모이지 않은 땅들에 떨어져 하나님의 심판이 광범위하게 믿지 않는 모든 사람에게 미치게 됨을 알 수 있다. 이상 우리는 하나님의 진노의 일곱 대접까지 알아 보았다. 이후 17장, 18장은 음녀의 정체를 설명하는 삽입장인데 인류를 속이고, 마술과 음행으로 땅의 왕들과 믿는 자들을 미혹하기 위해 어떻게 음행을 하였으며 속여왔는지를 보여주며, 이제 그녀가 어떻게 멸망당하는지를 알려주는 장이라고 할 수 있겠다.

## 17. 큰 도성, 바빌론, 음녀의 정체

(1) 또 일곱 호리병을 가진 일곱 천사 가운데 하나가 와서 나와 대화하며 말하기를 "이리 오라, 많은 물 위에 앉은 그 큰 창녀의 심판을 네게 보여 주리라.

(2) 땅의 왕들도 그녀와 더불어 음행하였고 땅에 사는 자들도 그녀의 음행의 포도주에 취하였도다."라고 하고

(3) 그가 나를 영 안에서 광야로 이끌어가니라. 또 내가 보니, 한 여자가 주홍빛 짐승 위에 앉아 있는데, 그 짐승은 하나님을 모독하는 이름들로 가득하고 일곱 머리와 열 뿔을 가졌더라.

(4) 또 그 여자는 자주색과 주홍색 옷을 입고 금과 보석과 진주로 장식하고 손에는 금잔을 가졌는데 그 잔은 가증스런 것들과 그녀가 행한 음행의 더러운 것들로 가득 찼더라.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성전에서 금과 은으로 각종 기명을 만들어 하나님을 받들었듯이 사탄또한 그의 성에서 그러한 것들로 자신을 높이고 경배받으며, 하나님행세를 하며 살았다. 그러한 신적인 것을 흉내내는 것이므로 가증스런 것들과 음행의 더러운 것들로 가득 찼다고 하는 것이다.

(5) 그녀의 이마에 한 이름이 기록되어 있는데 "신비라, 큰 바빌론이라, 땅의 창녀들과 가증한 것들의 어미라."고 하였더라.

사탄은 이 땅에 수많은 문화와 종교를 만들어 냈다. 중동권에 이슬람을 세웠고, 이집트에서는 태양신을 섬기게 하고, 인도권에서 힌두교를 세워 미혹하고, 동양권에 불교를 퍼뜨리므로

사람이 부처가 될 수 있다는 사상을 전파했고, 또 교회의 교리를 변질시켜, 수많은 종파로 갈라놓았으며, 카톨릭, 성공회, 라엘리아무브먼트, 여호와의 증인, 제 칠일안식교, 통일교, 신천지등등, 이름도 알 수 없고, 다 헤아리기도 힘든 그러한 종교들로 사실을 모르는 백성들을 미혹하여 수많은 사람들을 자기 땅으로 끌고 들어갔다. 그렇게 함으로써 지금도 각나라들마다 수 없이 많은 자신들의 종교를 가지고 그것이 진정한 종교인양 믿는 순진한 백성들을 미혹하고 있는 것이다. 그런 거짓 종교들 때문에 복음의 전파가 방해를 받고, 예수그리스도의 말씀이 뿌리를 내리기 어렵게 되는 결과들을 낳았다는 것을 부인하지는 못할 것이다. 바로 이 모든 악한 종교의 뿌리가 바로 이 바빌론이며, 음녀이고, 사탄의 누룩인 것이다. 그래서 그의 이름이 거대한 바빌론인 것이고, 땅의 가증한 것들이며, 음녀의 어머니가 되는 것이다.

(6) 또 내가 보니, 그 여자가 성도들의 피와 예수의 순교자들의 피에 취하였더라. 그러므로 내가 그녀를 보고 크게 의아해 하며 놀랐노라.

(7) 그러자 그 천사가 내게 말하기를 "왜 놀라느냐? 내가 그 여자의 신비와 그녀를 태운 일곱 머리와 열 뿔을 가진 그 짐승의 신비를 너에게 말하리라.

(8) 네가 본 그 짐승은 전에 있었다가 지금은 없고, 앞으로 끝없이 깊은 구렁으로부터 나와서 멸망으로 들어갈 자라. 또 땅 위에 사는 자들, 곧 세상의 기초가 놓인 이래로 생명의 책에 그 이름이 기록되지 않은 자들이 전에 있었다가 지금은 없고 앞으로 나타날 그 짐승을 보고 놀랄 것이라.

(9) 지혜 있는 생각이 여기 있으니 일곱 머리는 그 여자가 앓은 일곱 산이요

(10) 일곱 왕이 있는데 다섯은 패망하였으나 하나는 남아 있고, 또 하나는 아직 오지 아니하였으나 그가 오면 잠시 동안 머물러야만 되리라.

(11) 전에는 있었으나 지금은 없는 그 짐승이 여덟 번째지만 일곱 중에 속한 자라. 그가 멸망으로 들어가리라.

(12) 또 네가 본 그 열 뿔은 열 왕이라. 아직 왕국을 받지는 못하였으나 그 짐승과 더불어 한 시간 동안 왕들로서의 권세를 받으리라.

(13) 이들이 한 생각을 가지고 자기들의 권세와 능력을 그 짐승에게 넘겨주리라.

(14) 이들이 어린 양과 맞서 싸우겠으나 어린 양이 그들을 이기시리라. 이는 그가 만주의 주요 만왕의 왕이시며, 그와 함께한 자들은 부르심을 받았고, 택함을 받았으며, 신실한 자들이라."고 하더라.

앞에서도 잠깐 알아봤지만 이 짐승에 대한 것을 먼저 알아 보도록 하자.  
다니엘과 계시록에서 말하는 첫 왕부터 일곱 왕은 이렇다.

1-고대 바빌론 (니르룻)

2-이집트 (파라오)

3-신 바빌론 (느부갓네살) 다니엘 2장의 금신상 예언은 이 때부터다.

4-메대-바사 (다리오, 고레스왕) 첫 째 짐승- 다니엘이 환상을 보던 때로부터, 8장...

5-그리스-헬라 (알렉산더) 둘째 짐승

6-로마제국 (4나라로 분리) 셋째 짐승

그리고 어둠의 시대. 1,260일 (은혜시대, 교회시대, 넷째나팔까지)

7-세계정부 (열 나라-열뿔, 열왕) 넷째 짐승

8-세 뿔을 뚫고 나오는 나라(위 일곱개 나라중 한 나라)

8번째 나라는 바로 이 일곱 중에 있다고 했고, 일곱 번째 나라는 잠시 동안 머물러야 한다고 한다.-10절

이 일곱 번째가 잠시 동안 머무르는 나라가 마지막시대의 세계정부이고 이들은 권력을 나누어 갖기는 하지만 그 권력의 기간이 한 시간 동안뿐이다.-12절 uc0 uc0 **한시간은 7년을 의미한다.**

결정적으로 이 세계정부의 열왕이 여덟 번째가 아니라는 것은 8절에 있다.

(8) 네가 본 그 짐승은 전에 있었다가 지금은 없고, 앞으로 끝없이 깊은 구렁으로부터 나와서 멸망으로 들어갈 자라. 또 땅 위에 사는 자들, 곧 세상의 기초가 놓인 이래로 생명의 책에 그 이름이 기록되지 않은 자들이 전에 있었다가 지금은 없고 앞으로 나타날 그 짐승을 보고 놀랄 것이라.

이 계시를 받은 시점은 AD 96년경이다, 요한의 영이 미래의 대환란때로 가서 봤다는 것은 이치에 맞지도 않는 헛소리일 뿐이다. uc0 그렇게 보는 것은 다니엘서의 금신상과 그 이후에 나타나는 네 짐승들에 대한 연구가 전혀 없어서이거나. 오류해석을 위한 미혹이던지 할 것이다. 따라서 전에 있었다가 지금은 없다는 것은 다섯 번째인 로마제국이 전에 있어야 한다는 것이며, 그 당시엔 없는 나라라는 뜻이다, 그러니 로마나 그 이후인 세계정부에서는 적그리스도나 그의 나라를 배출할 수 없다는 뜻이 된다. 그렇다면 그 전에 어떤 나라들이 있었는가를 살펴보면 그 중에서 적그리스도나라가 출현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바빌론은 두 짐승을 배출했으므로 한 나라로 치고,-**앗시리아의 산헤립이 빠져있지만 이 앗시리아도 바빌론계열이다.**- 그렇다면 바빌론, 이집트, 바사, 그리스중에 있다고 하겠다. 그런데 천사가 말하는 시점이 현재이므로 당시에 그리스와 바사 (페르시아, 지금의 이란) , 그리고 이집트는 비록 국운이 다 한 듯 보이기 는 하지만 지금은 없다는 말은 합당하지 않다. 따라서 남은 것은 바빌론뿐이다. 바빌론은 메대-바사에 패망했으니 바로 이 바빌론이 적그리스도를 배출한다고 할 수 있을 것이다.

그렇다면 이 바빌론은 어떤 나라이고 또 그 특징은 어떤 것이 있는가?

다니엘 7장이다.

....

8) 내가 그 뿔들을 살펴보았더니, 보라, 그것들 가운데서 또 다른 작은 뿔이 나오더니 먼저 나온 뿔 세 개가 그 앞에서 뿌리 채 뽑혔더라. 또 보라, 이 뿔에는 사람의 눈 같은 눈이 있고, 또 큰 일들을 말하는 입이 있더라.

이 열뿔은 역시 마지막 짐승의나라인 세계정부(NWO)다. 이 열뿔 중에 세 뿔이 뽑힌다. 그들 중에 곧 세계정부주의자들중에서 적그리스도가 나온다면 세 뿔이 굳이 뽑힐 이유가 없다. 그들은 서로 그렇게 하도록 합의를 한 상태이기 때문에 적대적이 될 이유가 전혀 없다. 그렇지 않은가, 전쟁을 할 때도 아군과 적군이 구분되어 있는데 굳이 아군과 전쟁을 일으킬 필요는 없는 것이다. 그리고 또 이 뿔은 역시 왕이며 나라를 뜻한다. 다니엘7장19절이다.

(19) 그때 내가 그 넷째 짐승에 대한 진리를 알고자 하였으니, 그 짐승은 다른 모든 짐승들과 달라서 심히 무서우며 그의 이는 철이고 그의 발톱은 놋이요, 그는 먹어 삼키고 부수며 나머지는 그의 발로 밟으며,

(20) 또 그의 머리에는 열 개의 뿔이 있고 또 다른 뿔이 나오니 그 앞에서 세 뿔이 떨어져 나갔으며, 그 뿔에는 눈들도 있고 매우 큰 일을 말하는 입도 있으니, 그의 모양이 그의 동류들보다 더 강하게 보이더라.

세뿔을 뚫고 나오는 이 작은 뿔이 바로 적그리스도를 배출하는 나라이면서 바로 적그리스도 자신이다. 24절이다.

(24) 이 왕국에서 나온 열 뿔은 장차 일어날 열 왕이며, 또 하나가 그들 뒤에 일어나리라. 그는 먼저 있던 자들과는 다르며 그가 세 왕들을 복종시킬 것이라.

24절에 먼저 있던 자들과는 다르다는 것은 무엇을 뜻하는가?

바로 이 열빨과는 다른 민족이라는 뜻 일수도 있고, 이들과는 상관이 없는 자라는 것을 뜻할 수도 있다. 그러나 **영적인 의미로 붉은 용이 뒤를 봐주고 있는, 즉 사탄의 힘을 받은 그런 왕이기 때문에 사람의 뜻과 힘으로 왕이 된 자들과는 근본이 다르다는 의미이기도 하다.**

그렇다면 그는 어떻게 다른가? 그 나라와 그를 동일시하고 있다는 것을 주목하시기 바란다.

계시록 13장이다.

.....

(3) 또 내가 보니, 그의 머리들 가운데 하나가 상처를 입어 죽게 된 것 같았으나, 그의 치명적인 상처가 나오니 온 세상이 기이히 여겨 그 짐승을 따르더라.

**이 3절을 보면 일견 이 적그리스도는 이 열빨중에 하나로 보이기도 한다. 그러나 12절에**

12) 그가 자기 앞에 있던 첫째 짐승의 모든 권세를 행사하고 또 땅과 거기에 사는 자들로 하여금 **치명적인 상처를 치유 받은 그 첫째 짐승에게 경배**하게 하더라.

이 12절을 보면 이 적그리스도가 排出(배출)되는 나라가 치명적인 상처를 치유 받았다고 한다. 열빨중에서 세 빨을 무너뜨리고 나오는 이 빨은 세 왕을 굴복시킨다, 이 빨을 왕이라고 볼 수도 있지만 국가로 볼 수도 있다는 사실도 잊지 말자.

그렇다면 치명적인 이 상처를 개인적인 상처로 보는 것 보다는 나라자체의 상처로 보는 것이 더 타당한 관점이라는 것을 알 수 있을 것이다.

그래서 이상 살펴본 것을 가지고 결론을 내려 보자면 이렇다, 바빌론이라고 불리는 나라는 지금의 어떤 나라인가? 미국이나 유럽은 아니라는 거다. 바빌론의 현재 이름인 메소포타미아 권(중동권)일 가능성이 높다고 하겠다.

여기까지 얘기를 듣고 나면 무슨 봉창두드리는 소리를 하느냐고 하시는 분들이 계시겠다. 여태 유럽쪽에서 적그리스도가 나온다고 많은 분들이 주장을 해 왔으니 말이다, 혹은 적그리스도를 교황이라고 하시는 분들도 계시니 이런 시각은 관심을 갖지 않으실 수도 있겠다. 그렇다고 강요할 수도 없다. 어쩔 수 없이 이런 류는 추측밖에는 할 수 없기 때문이다. 그래서 우리의 시선은 항상 세계를 향하고 있어서 정사와 권세에 관심을 끄는 일은 없어야 하겠다. 모든 일을 다 알고 있다면 연구에 게을러 질 것이니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를 위해 그런 일은 없도록 하실 것이기 때문이다.

(15) 또 그가 나에게 말하기를 "네가 본 그 창녀가 앉아 있는 물은 백성들과 무리들과 민족들과 언어들이라.

4절 참조,

(16) 네가 그 짐승에게서 본 열 빨은 그 창녀를 증오하며, 그녀를 패망시키고 벌거벗기며, 그녀의 살을 먹고 그녀를 불로 태우리라.

(17) **이는 하나님께서 자신의 뜻을 이루시려고 그들의 마음을 일치시켜** 그들의 왕국을 그 짐승에게 주도록 하셨으니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질 때까지니라.

(18) 네가 본 그 여자는 땅의 왕들을 다스리는 큰 도성이라."고 하더라.

이 16절이 참 묘하다. 그 짐승에게서 본 열빨은 분명 짐승과 함께 나라를 얻을 世界(세계)政府(정부)의 首班(수반)들일 것이다. 그런데 이들이 사탄의 걸작인 淫女(음녀)와 聯合(연합)을 하는 것이 아니고, 오히려 음녀를 미워하여 그녀를 敗亡(패망)시키고, 그녀의 살을 먹고, 그녀를 불로 태울 것이라고 말한다. 우리가 알고 있던 것과는 뭔가 다르고 생각하기에도 이상하지 않은가, 그러나 그 이유는 곧 밝혀진다. 17절에 하나님의 뜻이라고 나와 있는 것인데, 결국 이것은 짐승과 열왕 그리고 음녀 사이에 일어날 분열을 나타낸다고 볼 수 있겠다. 또 이것은

열 왕과 짐승이 음녀를 배반하여 멸망시키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주권과 계획에 있었음을 나타내는 것이기도 하다. 17절의 의미는 하나님께서 악한 세력의 심판의 도구로서 또 다른 악의 세력을 사용하심을 시사한다 하겠다. 사단의 세력들 사이에 일어난 분열, 즉 열 왕과 짐승이 연합하여 자신들의 편이었던 음녀를 공격하고자하는 것을 그대로 내버려 두심으로 음녀가 멸망에 이르도록 한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음녀에게 정한 심판인 것이다. 이후 정체가 밝혀진 음녀의 멸망이 18장에 전개된다.

## 18. 음녀의 멸망

(1) 이 일들 후에 내가 보니, 또 다른 천사가 큰 권세를 가지고 하늘에서 내려오는데, 땅이 그의 영광으로 환하여지더라.

(2) 그가 큰 음성으로 힘있게 외쳐 말하기를 "큰 바빌론이 무너졌도다, 무너졌도다, 마귀들의 거처가 되었고 온갖 더러운 영의 소굴이요, 모든 더럽고 가증한 새의 소굴이로다.

(3) 이는 모든 민족들이 그녀의 음행으로 인한 진노의 포도주로 취한 까닭에 땅의 왕들이 그녀와 더불어 음행하였고 또 땅의 상인들은 그녀의 사치의 풍요함으로 부유하게 되었고도다."라고 하더라.

3절에 있는 부유하게 되었도다라는 말씀의 의미는 이렇다. 세계에 퍼져있는 음녀의 누룩들로 인해 그 신들을 모시는 많은 사람들이 돈벌이를 하고, 사람들의 생명을 도둑질해가는 가운데 땅의 왕들은 그런 것들을 이용해 나라의 안녕을 꾀하기도 하고 정치적인 목적으로 이용하기도 하면서 자신들의 권력을 연장해나가는 도구로 이용하는 것을 말함이다. 이것은 경제인들도 마찬가지인데 종교인들과의 친분관계를 이용해 그것을 믿는 많은 사람들에게 좋은 이미지를 심어주고 매출증대를 꾀하는 그런 부류의 사람들을 땅의 상인들이라고 할 수 있겠다. 이들도 넓은 의미의 왕이라는 의미를 가질 수 있는 자들이며 좁은 의미의 통치자의 자리에 앉아 있음도 알 수 있다. 이 상인들의 진정한 의미는 잠시후에 보도록 하자.

(4) 또 내가 들으니, 하늘에서 다른 음성이 나서 말하기를 "나의 백성들아, 그녀에게서 나오라. 그리하여 그녀의 죄들에 동참자가 되지 말고 그녀의 재앙들도 받지 말라.

이어 8절까지 그런 가증스런 종교들에서 빠져나오기를 바라는 하나님의 간곡한 부탁의 말씀이기도 하고, 마지막권유의 말씀이기도 하다. 이 말씀을 듣지 못한 백성들은 하나님의 심판의 격렬함을 맛보고서야 하나님 한분 외에는 다른 신이 없다는 것을 알게 될 것이다. 그러나 때는 늦으리.

(5) 이는 그녀의 죄들이 하늘에까지 닿았고 또 하나님께서는 그녀의 불의를 기억하셨기 때문이니라.

(6) 그녀가 너희에게 준 만큼 그녀에게 되돌려 주라. 그리고 그녀가 행한 것을 따라 두 배로 갚아 주라. 그녀가 채운 잔에도 그녀에게 두 배로 채워 주라.

(7) 그녀가 자신을 영화롭게 하고 즐기며 산 만큼 그녀에게 고통과 슬픔을 주라. 이는 그녀가 마음에 말하기를 '나는 여왕으로 앉아 있고 과부가 아니로다. 그러므로 내가 결코 슬픔을 당하지 아니하리라.'고 하였기 때문이니라.

이상 알아본 바와 같이 바빌론이자 음녀인 그녀는 세상의 모든 가증스런 종교들을 포함한다. 이 말씀과 같이 이 땅의 온갖 종류의 종교를 다 믿고 있는 자들이라 할지라도, 근본적인 하나

님의 백성임은 틀림없다 할 수 있겠다. 그러나 모든 사람에게 편만하게 전해지는 하나님의 복음을 듣고도 그 가증한 음녀에게서 나오지 않고 돌이키지 않는다면 그를 기다리는 것은 영원한 불못일 수 밖에 없다는 것이 하나님께서 정하신 바라 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말씀을 듣지 못했던 자들 가운데에는 하나님의 은유하심으로 구원을 받는 자들도 더러 있을 수 있을 것이다. 그것은 주님이 베푸신 한 가지 비유를 통해 알 수 있다.

누가복음14장이다.

...

(21) 그러므로 그 종이 와서 이런 일을 주인에게 보고하니, 그 집주인이 화가 나서 그 종에게 말하기를 '빨리 성읍의 거리와 골목에 가서 **가난한 사람들과 불구자들과 저는 자들과 소경들을 이리로 데려오라.**'고 하더라.

(22) 그러자 종이 말하기를 '주여, 당신께서 명령하신 대로 하였으나 아직도 자리가 남아 남아 있다.'라고 하니

(23) 주인이 종에게 말하기를 '**대로와 산간 마을로 가서 사람들을 억지로라도 오게 하여 내 집을 채우도록 하라.**

(24)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전에 초대되었던 그 사람들은 아무도 내 저녁을 맛보지 못하리라.**'하니라."고 하시더라.

이 비유의 의미중 전에 초대되었던 그 사람들은 이스라엘민족을 뜻하는 것일 수도 있겠지만, 넓은 의미로 보면 하나님아버지를 믿고 예수그리스도를 구주로 받아 들이긴 했지만 세상의 즐거움에 취해 살거나, 혹은 세상의 재리에 눈이 멀어 진정한 복을 발견하지 못한 자들을 가리키는 것이라고 할 수 있겠다. 그런데 보라, 하나님께서 복을 베푸사 즐거움을 주시려고 잔치를 베푸시는데 먼저 알았던 그런 자들을 잔치에서 제외시켜버리시고 하나님아버지를 전혀 알지 못하는 자들을 불러 잔치집을 채우시겠다는 것이 아닌가,

이 비유의 의미를 깨달았다면, 믿는데서 돌이키거나 뜨겁지 않은 것이 주님앞에 얼마나 잘못된 일인 것과, 또 그와 더불어 하나님아버지께서 우리를 부르시는 말씀에 항상 귀를 기울여야 되겠다는 결심이 필요함을 알 수 있다. 주님께서 부르시면 언제든지 뛰어갈 수 있는 최상의 상태로 예비하고 있어야 함이 택함받은 자로써 당연하다 하겠다.

(8) **이로 인하여 그녀의 재앙들이 하루 만에 닥치리니 죽음과 슬픔과 기근이요 또 그녀는 불로 완전히 태워지리니, 이는 그녀를 심판하시는 주 하나님은 강하시기 때문이니라.**

이 음녀의 멸망이 하룻만에 이를 수 있는 것은 바로 이러한 종교들이 거짓이었음을 사람들이 깨우쳤다는 의미일 수도 있고, 그것을 안 열왕이 그녀를 버림으로 더 큰 일을 도모한다는것을 은연중 내비치는 것일 수도 있겠다. 앞에서도 알아봤듯이 이 음녀의 멸망은 하나님의 주권에 의해 신속하고 빈틈없이 한치의 오차도 없이 이루어 지게 될 것이다. 하나님의 섭리는 사람들이 감히 생각할 수 없을 정도의 깊은 謀事(모사)를 가지고 계시며, 또 하시고자 하는 일들을 처리하심을 이 음녀의 심판을 보고 알 수 있다.

(9) **그녀와 더불어 행음하고 즐기며 살던 땅의 왕들이 그녀가 불에 타는 연기를 볼 때 그녀로 인하여 울며 애곡하리니**

열왕은 음녀를 패망시키고 벌거벗기며, 그녀의 살을 먹고 그녀를 불로 태웠던 왕들이다. 그런데 이 9절에 나와 있는 王(왕)들은 그 음녀의 멸망을 보고 그녀로 인하여 울며 애곡한다고 한다. 그렇다면 이 王(왕)들은 열王(왕)과는 상관없이 각 나라의 거짓종교들과 야합한 그런 왕들이겠다. 또 이것은 열왕으로 시작된 넷째짐승인 세계정부가 세상을 통일하는데 물리적인 군사적인 힘으로 통일을 하는 것이 아니고, 경제적인 힘으로 통일을 한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라고 볼 수도 있겠다.

현 시대는 경제의 시대다. 돈을 가지고 있는 자가 만국을 지배하는 시대이다. 돈이 곧 왕인 시대인 것이다. 이 돈을 가지면 미디어를 창출하는 방송국도 만들 수 있고, 또 그 미디어를 조종함으로 대통령도 만들어 낼 수 있다. 이 미디어의 힘은 한 사람을 하찮은 바보로 만들 수 있고, 위대한 스타로 만들어 낼 수도 있으며, 사람들이 알면 안 되는 것들은 방송하지 않음으로 말미암아 실체를 깨닫게 하는데 방해하는 일을 할 수도 있다. 또한 수많은 잘못된 정보들로 사람들의 현실감각을 마비시킬 수도 있으니 성도들이 해야 할 일은, 안방이나 거실에 깊숙이 자리잡고 있는 TV를 집밖으로 몰아내는 것이라고 생각한다. 그래야만 그런 미혹들에 속지 않고, 현실감을 잃지 않은 상태로 현실을 직시할 수 있을 것이기 때문이다. 이것은 솔직히 강제하고 싶을 정도로 부탁이고 간곡한 권유이다. 아무쪼록 이것을 실행하는 성도들이 많아 지기를 바랄뿐이다.

(10) 그들은 그녀가 당하는 고통이 두려워 멀리 서서 말하기를 '슬프도다, 슬프도다, 큰 도성 바빌론이여! 견고한 도성이여! 일시에 너의 심판이 임하였구나.'라고 하리라.

(11) 또 땅의 상인들도 그녀로 인하여 울고 애통하리니 이는 이제 자기들의 상품을 사는 사람이 더 이상 없기 때문이니라.

(12) 그 상품들은 금과 은과 보석과 진주와 세마포와 자주색 옷감과 비단과 주홍색 옷감과 각종 향목과 각종 상아 제품과 아주 진귀한 각종 목재 제품과 놋 제품과 철 제품과 대리석 제품과

(13) 계피와 향료와 향유와 유향과 포도주와 기름과 고운 가루와 밀과 짐승들과 양과 말과 마차와 노예들과 사람들의 혼들이라.

(14) 네 혼이 열망하던 과일들이 너에게서 떠나갔으며 또 온갖 기름지고 빛난 것들이 너에게서 떠나갔으니 결코 다시는 그들을 찾지 못하리라.

(15) 그녀로 인하여 치부한 이런 상품들의 상인들이 그녀가 당하는 고통을 무서워하며 멀리 서서 울고 통곡하여

(16) 말하기를 '슬프도다, 슬프도다, 세마포와 자주색과 주홍색으로 옷입고 금과 보석과 진주로 단장한 큰 도성이여!

(17) 것처럼 막대한 부가 일시에 황폐케 되었도다.'라고 하더라. 그러므로 모든 선장과 모든 선객과 선원들과 바다에서 장사하는 모든 자가 멀리 서서

(18) 그녀가 불에 타는 연기를 보고 외쳐 말하기를 '이 큰 도성 같은 도성이 또 어디 있겠는가!'라고 하니라.

(19) 그리고 그들은 티끌을 자기들의 머리 위에 뿌리고, 소리질러 울고 통곡하며 말하기를 '슬프도다, 슬프도다, 큰 도성이여! 바다에 배를 가진 모든 자가 그녀의 값진 상품으로 치부하였는데 일시에 그녀가 황폐하게 되었도다.'라고 하니

그 읍녀로 인해 돈벌이를 하던 많은 상인들(각 종교의 우두머리들)이 이제 그 모든 것의 끝이 왔음을 보고 울부짖는 모습들이다. 또한 자신들이 믿어왔던 신들의 최후를 보고 속았음도 알게 될 것이다. 이 때 그들이 느끼는 당혹감과 좌절감은 말로 표현할 수 없을 정도로 처참할 것이며, 이후 재림하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강림을 보며, 다시 한번 빠져린 후회를 하게 될 것이다.

(20) 오, 너 하늘과 너희 거룩한 사도들과 선지자들이여! 그녀로 인하여 기뻐하라. 이는 하

나눔께서 그녀에게 너희 원수를 갚아 주셨기 때문이로다."라고 하더라.

(21) 그러자 한 힘센 천사가 큰 맷돌 같은 돌을 들어 바다에 던지며 말하기를 "큰 도성 바빌론이 이처럼 세차게 던져져서 결코 다시는 보이지 아니하리라.

**앞에서 알아 보았듯 이 큰도성 바빌론은 음녀이며, 또한 모든 가증한 종교들이다.**

(22) 또 하프 타는 자와 음악하는 자와 피리 부는 자와 나팔 부는 자들의 소리가 결코 다시는 네 안에서 들리지 아니할 것이며, 어떤 공예에 종사하는 장인일지라도 다시는 네 안에서 찾아볼 수 없을 것이며, 맷돌 소리도 결코 더이상 네 안에서 들리지 아니할 것이니라.

(23) 또한 촛불의 빛도 결코 더이상 네 안에서 비치지 아니할 것이며, 신랑과 신부의 음성도 결코 더이상 네 안에서 들리지 아니할 것이니라. 이는 네 상인들이 땅의 귀인들이었으며 네 마술로 모든 민족들이 미혹되었기 때문이니라.

(24) 선지자들과 성도들과 이 땅에서 살해된 모든 사람의 피가 그녀 안에서 보였느니라."고 하니라.

이상 읽어보면 모두 알 수 있는 내용들이기에 사실 어떤 주석도 필요없다. 다만 그 음녀로 인해 화형당하고, 또 고문당하고, 죽임당하며, 사자나 맹수에 찢기고, 칼에 맞아 죽고, 굶주림으로 인해 죽임 당한 수 많은 성도의 영혼들이 이 음녀의 멸망으로 인해 이제 안식을 얻게 될 것이다. 고로 남은 것은 우리주 예수그리스도의 재림과 그의 왕국이 이 땅에 실현될 일만을 남겨놓고 있을 뿐이다.

## 19. 신부의 준비와 예수그리스도의 재림

이제 음녀의 멸망으로 드디어 우리의 주가 되시는 예수그리스도의 재림이 다가 왔다. 이 계시록 19장의 일은 아마겟돈전쟁 바로 전에 시작한다. 그리고 모든 신부들, 즉 십사만사천과, 두 증인(계시록 7장의 인맞은 자 뒤에 대환란에서 나오는 수를 셀 수 없는 많은 성도들)과, 그리고 이제 우리가 바울사도의 마지막때에 대해 말씀했던 죽은 자들이 일어나고 살아있는 우리도 들림을 받게 된다는 데살로니가후서 4장의 말씀들, 즉

(14) 예수께서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신 것을 우리가 믿는다면 그와 같이 **하나님께서서는 예수 안에서 잠든 자들도 그와 함께 데리고 오시리라.**

(15) 우리가 주의 말씀으로 너희에게 이것을 말하노니 **주께서 오실 때까지 살아 남아 있는 우리가 잠들어 있는 자들보다 결단코 앞서지 못하리라.**

(16)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음성과 하나님의 나팔 소리와 함께 하늘로부터 친히 내려오시리니 그러면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17) 그리고 나서 **살아 남아 있는 우리도 공중에서 주와 만나기 위하여 그들과 함께 구름 속으로 끌려올라 가리니 그리하여 우리가 영원히 주와 함께 있으리라.**

라는 말씀들도 이 시기에는 모두 실현이 된 상태이다. 그들이 들려 올려지는 장면이 기록되어 있지 않은 이유는 너무나도 많이 이 때의 상황을(마태복음 24장 31절, 40절, 41절 등) 성경을 통해 말씀해 놓으셨기 때문이다. 하나님께서는 계시록에서도 같은 말씀을 자주 하지 않으

신다. 한번 얘기하시면 그것이 거의 끝일 정도이다. 그러므로 우리가 말씀을 볼 때는 항상 그 사실을 염두에 두고 살펴야 하는 것이다.

(1) 이 일들 후에 내가 들으니, 하늘에서 많은 사람의 큰 음성이 있어 말하기를 "할렐루야, 구원과 영광과 존귀와 권세가 주 우리 하나님께 있도다.

(2) 이는 그분의 심판이 참되고 의롭기 때문이며 또 그 분께서 그녀의 음행으로 땅을 타락케 한 그 큰 창녀를 심판하셔서 그의 종들의 피를 그녀의 손에서 갚아 주셨기 때문이라."고 하더라.

큰 도성, 바빌론, 땅들의 가증한 것, 음녀의 어미라 불리는 큰 창녀의 멸망을 우리는 18장에서 보고 넘어온 상태이나, 다시 언급이 되는 것은 이런 일이 있고난 후에 주님 재림시기가 있다는 것을 알려주시기 위한 하나님의 배려이다.

(3) 또 그들이 다시 말하기를 "할렐루야"라고 하니 그녀의 연기가 영원 무궁토록 올라가더라.

(4) 그때에 스물 네 장로와 네 생물이 엎드려 보좌에 앉으신 하나님께 경배드리며 말하기를 "아멘, 할렐루야"라고 하니

(5) 그 보좌에서 음성이 나서 말하기를 "너희 모든 그분의 종과, 작은 자나 큰 자나 그분을 두려워하는 너희는 우리 하나님을 찬양하라."고 하더라.

(6) 또 내가 들으니, 큰 무리의 음성 같고 많은 물 소리 같으며, 굉장한 천둥 소리 같은데 말하기를 "할렐루야, 전능하신 주 하나님께서 통치하시도다.

(7) 기뻐하고 즐거워하며 그 분께 존귀를 돌리세. 이는 어린 양의 혼인식이 다가왔고 그의 아내도 자신을 예비하였음이라.

이 어린양의 혼인식이 다가왔는데 그의 아내도 자신을 예비하였다고 한다. 이 신부들이 십사만사천뿐이겠는가, 혹은 두증인뿐이겠는가, 혹은 재림전 휴거된 성도들만을 말함하겠는가, 이제 이 모두가 하나가 되어 주님의 아내가 되고 신부가 되는 즐거움과 영광에 참여하는 완전한 신부가 예비된 것이다.

(8) 이제 그녀에게 허락하사 정결하고 흰 세마포를 입게 하셨으니 세마포는 성도들의 의라."고 하더라.

(8) **And to her was granted that she should be arrayed in fine linen, clean and white: for the fine linen is the righteousness of saints.**

이 말씀이 바로 우리가 구원에 대한 마음가짐을 어떻게 가져야 하는가에 대한 해답을 던져주는 구절이라고 볼 수 있을 것이다. 바로 구원에 관한 문제인데, 이 구절말씀에 의하면 그녀에게 정결하고 흰 세마포를 입게 하셨다고 **이제서야** 허락하신다는 것이다. 바로 이때가 되어서야 비로소 성도들이 의롭다고 인정하신다는 얘기이다. 그러므로 이 세마포를 입기전까지는 자신이 의로운 존재이고 구원받았다고 자기 입으로 나팔을 불어서는 안 된다는 의미를 내포하고 있다고 볼 수 있을 것이다. "이 세마포는 성도들의 의라"라고 하는 말씀도 거부할 수 없는 그런 의미를 내포하고 있다. 의롭지 않은 자는 천국에 들어갈 수 없으므로 이 때가 되어서야 주님께서는 그들을 의롭다고 인정하신다는 거다. 그러니 주님께서 이 세마포를 입혀 주실때까지 스스로 의롭다하지 말고, 내 자신을 살펴 좌로나 우로나 치우침이 없어야 할 것이다. 바울 사도께서 거기에 대해 우리에게 목상해 볼 만한 좋은 말씀을 남기셨다.

빌립보서3장

....

(12) 내가 이미 얻었다 함도 아니요 온전히 이루었다 함도 아니라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좇아가노라

(13) 형제들아 나는 아직 내가 잡은 줄로 여기지 아니하고 오직 한 일 즉 뒤에 있는 것은 잊어 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14) 꺾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좇아가노라

(15) 그러므로 누구든지 우리 온전히 이룬 자들은 이렇게 생각할지니 만일 무슨 일에 너희가 달리 생각하면 하나님이 이것도 너희에게 나타내시리라

이 꺾대가 무엇인가, 바로 구원이다. 그런데 바울사도 마저도 이미 자기가 붙잡은 줄로 여기지 아니하고, 또 이루었다함도 하지 않고, 아직도 앞에 있는 그것을 잡으려고 좇아간다고 한다. 또 바울사도는 겸손하여 자신이 얻은 구원을 잃어버릴까 두려워하기까지 했었다.

고린도전서9장

....

(26) 그러므로 내가 달음질하기를 향방 없는것 같이 아니하고 싸우기를 허공을 치는 것 같이 아니하여

(27) 내가 내 몸을 쳐 복종하게 함은 내가 남에게 전파한 후에 자기가 도리어 버림이 될까 두려워함으로라

그러니 성도들이여 스스로 自高(자고)하지 말지어다.

스스로 驕慢(교만)하지 말지어다.

오직 救援(구원)과 그 恩惠(은혜)가 하나님께 있음을 알고 주님께서 우리의 눈에 눈물을 닦아 주시고, 그 날에 의의 세마포를 입혀 주실때까지 우리의 거울인 바울처럼 꺾대를 향하여 달려감이 마땅하지 않겠는가,

(9) 그때 그가 내게 말하기를 "어린 양의 혼인 잔치에 초대된 그들은 복이 있다고 기록하라." 하고 또 내게 말하기를 "이것들은 참된 하나님의 말씀들이라."고 하더라.

그것을 확증해 주는 천사의 말이라 할 수 있겠다.

(10) 내가 그에게 경배하려고 그의 발 앞에 엎드리니 그가 내게 말하기를 "보라, 그리하지 말라. 나는 예수의 증거를 가진 네 형제들과 같은 동료 중이니 하나님께 경배하라. 이는 예수의 증거가 예언의 영임이니라."고 하더라.

천사의 사양, 하나님을 알고 그 분만을 경배하는자들은 결코 자신이 높임받으려 하지 않는다. 자신의 부족함을 알고 스스로 낮은 자리에 앉는다. 바로 그것이 하나님께서 선택한 자들의 기본자세이다.

(11) 또 내가 하늘이 열린 것을 보니 흰 말이 보이더라. 그 위에 앉으신 분은 신실과 진실이라 불리며 의로 심판하고 싸우시더라.

(12) 그의 눈은 불꽃 같고 머리에는 많은 왕관이 있고 또 한 이름이 기록되어 있는데 그 자신 외에는 아무도 모르며

(13) 피에 적신 옷을 입었는데 그의 이름은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불리더라.

(14) 또 하늘에 있는 군대들이 희고 정결한 세마포를 입고 흰 말을 탄 그를 따르더라.

**이 하늘에 있는 군대라 함은 천사들과 신부들을 포함한 하나님의 선택받은 주의 백성들로 불림바 된 주의 성도이다.**

(15) 그의 입에서는 예리한 칼이 나와서 그것으로 민족들을 칠 것이요 또 철장으로 그들을 다스릴 것이며, 그는 전능하신 하나님의 맹렬한 진노의 포도즙들을 밟으실 것이라.

**그의 입에서 나오는 예리한 칼로 어떤 민족을 치시는가, 바로 아마겟돈전쟁에 모인 짐승과 거짓선지자, 그리고 그곳에 모인 왕들과 그의 군대들을 포함한 사탄을 따르는 군사들이다, 이들 중에는 하나님의 아들들중에 타락한 천사들도 포함되어 있을 것으로 분별이 된다.**

(16) 또 그의 옷과 넓적다리에 이름이 기록되어 있는데 **"만왕의 왕, 또 만주의 주"**라 하였더라.

(17) 또 내가 보니, 한 천사가 해에서 있는데 그가 큰 음성으로 외쳐 하늘 한가운데로 **날아가는 모든 새들에게 말하기를 "와서 위대하신 하나님의 만찬에 다 함께 모여"**

(18) **왕들의 살과 장군들의 살과 용사들의 살과 말들과 그 위에 탄 자들의 살과 자유인이나 종이나 작은 자나 큰 자나 할 것 없이 모든 자의 살을 먹으라."**고 하니라.

**이 구절들은 이미 알아본 바가 있으니 눈에들 많이 익으실 거라 생각한다.**

(19) 또 내가 보니, 그 짐승과 땅의 왕들과 그들의 군대가 그 말 탄 분과 그의 군대에 대적하여 전쟁을 하려고 다 함께 모였더라.

(20) 그러나 **그 짐승이 잡히고, 짐승 앞에서 기적을 행하던 거짓 선지자도 그와 함께 잡혔으니 그는 짐승과 더불어 그 짐승의 표를 받은 자들과 그의 형상에 경배한 자들을 속이던 자라. 이 둘이 유황으로 불타오르는 불못에 산채로 던져지더라.**

**이것이 1차심판이다. 이 때 짐승과 거짓선지자는 유황으로 타오르는 불못에 들어가 천년동안 먼저 고통을 받게 되며, 그 이후에도 사탄과 함께 영원한 불못의 고통에 처하게 된다. 하나님의 심판은 정말 무섭다.**

(28) **몸은 죽여도 영혼은 능히 죽이지 못하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오직 몸과 영혼을 능히 지옥에 멸하시는 자를 두려워하라** -마태복음10장

이 말씀을 마음에 새기며 성도들은 자신을 추스르며 믿음에 정진해야 할 것이다. 그리고 다음절이다.

(21) 그리고 그 남은 자들은 말 위에 앉으신 분의 칼, 즉 그의 입에서 나오는 칼로 살해되니 **모든 새들이 그들의 살로 배를 채우더라.**

이상은 우리가 이미 앞에서 알아본 그대로이다. 이 전쟁이 아마겟돈전쟁이고, 새들의 잔칫날이고, 들의 짐승들에게 포식을 시켜주는 날임을 다른 선지서에서 한 번 찾아보자. 에스겔39 장이다. 주님 재림시에 일어나는 장면이다.

(17) ○ 너 인자야, 주 하나님이 이같이 말하노라. 너는 모든 깃달린 새와 들의 모든 짐승들에게 이르라. 모여 오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베푸는 나의 제물, 즉 이스라엘의 산들 위에서 베푸는 큰 제물 사면에 모여서 너희는 살을 먹고 피를 마실지어다.

(18) 너희가 용사의 고기를 먹고 땅의 왕들과 숫양과 어린 양의 피와 바산의 모든 살진 짐승인 숫양과 수송아지의 피를 마실지니라.

(19) 너희는 내가 너희를 위하여 베푼 내 제물에서 배가 부를 때까지 기름을 먹고, 취할 때까지 피를 마실지니라.

(20) 그리하여 너희는 나의 식탁에서 말들과 병거들과 함께 용사들과 모든 병사들로 배부르시니라. 주 하나님이 말하노라.

이 에스겔39장의 장면 역시 바로 이 날에 일어날 아마겟돈전쟁을 서술하신 것이다. 이렇듯 우리가 알아본 대로 하나님께서는 역사와 시간을 관통하시는 모든 것의 처음이자 나중이고, 시작과 끝이신 오직 한 분 대주재이심을 알 수 있을 것이다. 그러므로 이 글을 읽는 제위께서는 깨달으라, 세대주의가 사탄의 누룩임을... 하나님의 구원사역은 결코 세대를 나누시지 않는다. 처음과 끝이신 그분의 거룩함에 해가 되기 때문이다. 그분은 신실하시디의 뜻은 처음과 끝이 똑같이 변함이 없으시디라는 것과 동일한 것이다. 21절이다.

(21) 또 내가 내 영광을 이방 중에 두노니, 모든 이방이 내가 행한 나의 심판과 내가 그들 위에 놓은 내 손을 보리라.

그런 의미에서 이방중에 놓으신 하나님의 섭리를 알아보자. 이것은 필자가 항상 궁금해하고 의문을 품었던 부분이기도 했었다. 하나님의 이방을 향한 말씀은 언제부터 시작되었는가 하는 것이다. 얼마 전에 썼던 글을 옮긴다.

**이스라엘의 하나님은 이방인인 우리는 전혀 염두에 두시지 않으셨던가,**

성경을 읽으며 늘상 그 의문을 지울 수 없었던 것이 사실이다. 어릴때부터도 이스라엘의 하나님은 알고 있었지만 한민족의 하나님이신줄은 몰랐던 것이다. 항상 그 생각이 뇌리를 떠나지 않았고... 아마도 그런 생각은 이스라엘이 아닌 다른 민족들도 마찬가지였을거라 생각한다. 또 그렇게 생각할 수 밖에 없었던 이유가 무엇인가 보면 항상 이런 구절들이 머리에서 떠나지 않았었다.

민수기 24장

...

(8) 하나님이 그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셨으니 그 힘이 들소와 같도다 그 적국을 삼키고 그들의 뼈를 꺾으며 화살을 쏘아 꿰뚫으리로다

(9) **끓어 앓고 누움이 수사자와 같고 암사자와도 같으니 일으킬 자 누구이라 너를 축복하는 자마다 복을 받을 것이요 너를 저주하는 자마다 저주를 받을지로다**

이 말씀은 만유의 하나님께서 발람을 통해 대언하게 하신 말씀이다. 따라서 우리는 이런 말씀 때문에라도 이스라엘을 축복해야하며 절대로 그들을 미워하면 안 되는 것으로 알아 왔다. 사실 믿는 자라면 누가 이스라엘을 저주하겠는가, 우리는 절대 그들을 미워하지 않는다. 그들이 우리를 괴롭힌 일도 없고, 우리도 그들 때문에 어려움당한적도 없다. 그러니 그들을 미워하거나 저주해야 할 일이 없기는 하다.

그런데 문제는 이거다. 하나님이 너무 이스라엘만 위하시는 것 같으니까, 배가 좀 아플 뿐인 거다. 이스라엘은 장자가 맞다. 그렇다하더라도, 우리는 자식아닌가? 이방인들에게도 좀 사랑

을 나눠주시지, 왜 형한테만 몰빵으로 편애를 하시냐는 거다. 창조주이신 그 분이 그렇게 하시겠다는데야 누가 말릴 수 있으랴마는 그래도 쫓~꿈 써운한게 사실이다.

하기사 그 분께서는 신약시대에 들어와서 우리의 큰형님뻘 되시는 바울사도를 통해서 이방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셨으니 그것으로 위안을 삼고 있기는 하지만, 그래도 처음과 끝이신 하나님인데 어떻게 구약에서 그 근거를 발견하기가 하늘의 별따기처럼 느껴지고, 그 분의 전능성을 의심하게까지 하는 사태로 까지 발전하게 되었느냐 말이다. 안 그러신 분들도 계시겠지만 필자는 그렇다는 얘기다. 그래서 생각이 난 김에 정말 이방인인 우리를 위해서 남겨놓으신 말씀이 없는지 찾아보기로 했다.

일단 처음이니까 창세기를 뒤져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하신 말씀을 발견할 수 있다.

(3)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를 인하여 복을 얻을 것이니라 하신지라** -창세기 12장

(18) 또 **네 씨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얻으리니** 이는 내가 나의 말을 준행하였음이니라 하셨다 하니라 -창세기 22장

이렇듯 이 당시만 해도 하나님께서는 모든 열방에게 너로 인해 혹은 너의 씨인 예수그리스도로 인해 복을 받을 것이라고 하셨다. 아주 멋진 말씀이다. 그러나 그 이후로도 계속 이스라엘과만 함께 하시고, 이스라엘만 책망하시고, 또 이스라엘만 사랑하시는것 같은 하나님을 볼 수가 있다. 그래서 余(여)는 너무 오래전에 약속말고 가까운데 있는 약속을 찾고 싶었다. 알파와 오메가이신 하나님인데, 그 때만 이런 말씀을 하시고 이후에는 전혀 언급하지 않으셨을까 하는 의구심도 들었다. 이 의심이 확실해진 건, 심지어 예수님께서 수로보니게여인이 자기의 딸을 고쳐달라고 간구했을 때, 자녀의 떡을 취하여 개에게 던짐이 마땅치 아니하다더라는 말씀으로 필자의 가슴에 못을 박으셨다. 마가복음7장이다.

(25) 이에 더러운 귀신 들린 어린 딸을 둔 한 여자가 예수의 소문을 듣고 곧 와서 그 발 아래 엎드리니

(26) 그 여자는 헬라인이요 수로보니게 족속이라 자기 딸에게서 귀신 쫓아 주시기를 간구하거늘

(27) 예수께서 이르시되 **자녀로 먼저 배불리 먹게 할지니 자녀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던짐이 마땅치 아니하니라**

(28) 여자가 대답하여 가로되 **주여 옳소이다**마는 **상 아래 개들도 아이들의 먹던 부스러기를 먹나이다**

이 여인의 믿음이 대단하긴 하다. 별 망설임없이 이런 대답을 한 이 여인의 대답이 얼마나 가슴을 때렸는지 모른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의 생각에는 “우리는 이런 매정한 분을 창조주로 두었구나, 우리를 이렇게 개취급하는 분을 우리는 사랑해야 하는구나” 라는 생각을 지울 수가 없었던 것이다. 그래서 진정으로 사랑하는 것이 아닌 어쩔 수 없는 짝사랑처럼, “그래 우리를 만든 창조주이시고, 아버지 같은 분이시니까 당연히 사랑해야 하는 거겠지”, 라는 마음으로, 여태 그렇게 믿음을 지켜온 것일 지도 모른다. 이런건 사실 깊이 생각하면 마음만 아프니까 생각하고 싶지 않았던 것이기도 했을 것이다. 그만큼 余(여)는 어린마음에 상처가 컸던 것이다. 똑같이 만드신 하나님의 피조물인데, 왜 어떤 민족은 사랑하고, 어떤 민족은 미워하고 하시는가, 차라리 그분을 알지나 않았더라면, 이렇게 속은 안 상할 텐데, 이렇게 마음아파하지는 않았을텐데, ...하나님은 너무 편파적이다. 그러나 그 이후 하나님께서는 말 안 듣는 이스라엘을 세계각지로 흩으시고, 나라를 잃고 고생하게 하셨으니 똑같은 처지가 된게 아닌가하는 스스로 위로하는 마음도 생겨 그럭저럭 지내올 수 있었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을 무렵, 낭보가 하나 눈에 들어왔다. 에스겔 38,39장 말씀이었다. 모두가

지금 현재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역사하심으로 인해 독립을 했고 또 그 예언으로 인해 각나라에 흩어져있던 이스라엘민족들이 다시 모이는 사건이다라고 생각하고 있는데, 이 말씀을 본 여는 웬지 하나님이 하신게 아닌 것 같다는 의심을 지울 수가 없었다. 아니 거의 확실하게 그렇지 않은것이다라고 다가온 것이다. 지금 이스라엘은 하나님이 모으신게 아니라고? 그렇다. 증거는 에스겔38,39장의 말씀에 있다, 이 모으신다는 때는 분명 천년왕국때에 이스라엘을 다시 모으신다고 하시는 말씀이었다는 거다.

(8) 여러날 후 곧 말년에 네가 명령을 받고 그 땅 곧 오래 황무하였던 이스라엘 산에 이르리니 그 땅 백성은 칼을 벗어나서 열국에서부터 모여 들어 오며 이방에서부터 나와서 다 평안히 거하는 중이라 -38장

...

(25) 그러므로 나 주 여호와가 말하노라 내가 이제 내 거룩한 이름을 위하여 열심을 내어 야곱의 사로잡힌 자를 돌아오게 하며 이스라엘 온 족속에게 긍휼을 베풀지라

(26) 그들이 그 땅에 평안히 거하고 두렵게 할 자가 없게 될 때에 부끄러움을 품고 내게 범한 죄를 뉘우치리니

(27) 곧 내가 그들을 만민 중에서 돌아오게 하고 적국 중에서 모아내어 열국 목전에서 그들로 인하여 나의 거룩함을 나타낼 때에라

(28) 전에는 내가 그들로 사로잡혀 열국에 이르게 하였거니와 후에는 내가 그들을 모아 고토로 돌아오게 하고 그 한 사람도 이방에 남기지 아니하리니 그들이 나를 여호와 자기들의 하나님인줄 알리라 -39장

이 말씀대로라면 지금 이스라엘상황은 절대로 편안한 상황이 아니다. 전쟁의 위협이 도사리고 있다, 그런데 에스겔서의 이 말씀은 평안히 거할 때라고 하신다. 그럼 이스라엘은 언제 평안해지겠는가? 사실 지금 벌어지는 이런 위험한 전쟁상황이 빠른 시일내에 끝날 것 같아 보이지도 않고 말이다. 보아하니 주님 오시고 나서야 간신히 편안해지지 않겠는가 싶다. 사실 이 문제는 간단한 문제가 아니고 깊이 들어가야 할 문제라 여기서는 일단 언급을 피하도록 하겠다.

그러다보니 이 때쯤 되어서 항상 궁금해 했던 우리 이방인들에 대한 말씀을 찾아보게 되었다. 처음에는 찾기가 많이 어려웠으나 한 번 찾으니 고구마덩쿨이 딸려 올라오듯이 열기설기 걸려 올라오는 이방인에 대한 약속들을 드디어 발견하고야 만 것이다. 감격에 겨웠다. 너무 감동먹었다. 역시 하나님이셨다. 그 분은 편애하지 않으셨다. 그 분에 대한 사랑이 더욱 용솟음치는걸 억누를 수가 없어서 감격의 눈물을 뿌렸다. 하나님, 역시 하나님은 하나님이시로군요, 괜히 하나님이 아니셨어요, 역시 처음과 나중이요, 알파와 오메가요, 시작과 끝이시로군요, 말씀하신 그대로의 하나님이신줄 내가 믿습니다. 한동안 눈물이 앞을 가려 감정을 추스르기가 어려웠다. 자 그럼 이제 같이 그 말씀을 나눠보도록 하자.

우리는 다윗이 오실 왕, 예수그리스도의 예표인줄 이미 알고 있다. 그래서 다윗을 통해 어떤 말씀을 하셨는가부터 살펴보기로 하자.

(10) 이르시기를 너희는 가만히 있어 내가 하나님 됨을 알지어다 내가 이방과 세계 중에서 높임을 받으리라 하시도다 -시편46편

(8) 하나님께서 이방을 치리하시며, 하나님께서 그의 거룩하심의 보좌에 앉으셨도다.-47편

(3) 이방 가운데서 그의 영광을, 모든 백성 가운데서 그의 이적들을 선포하라.-96편

(10) 이방 가운데에 주께서 통치하신다고 말하라. 세상도 견고히 서고 흔들리지 아니할 것이다. 그가 그 백성을 의롭게 심판하시리라-96편

그리고 이사야 11장이다.

(10) ○ 그 날에 이새에게서 한 뿌리가 있어 백성의 깃발로 서리니, **이방인들이 그것을 찾을 것이며** 그의 머무는 자리가 영화로우리라.

**이방인들이 그것을 찾을 거라는 것은 예수그리스도께서 자신을 열방에 드러내시고 만왕의 왕 이심을 선포하시겠다는 의미이다.**

(5) ○ 하늘들을 창조하시고 그것들을 펴시며, 땅과 거기에서 소산을 내시고, 그 위에 있는 백성들에게 호흡을 주시며, 그 안에 다니는 자들에게 영을 주신 분이신 하나님 주가 이같이 말하노라.

(6) 나 주가 의로 너를 불렀으니, 내가 네 손을 붙들고 너를 지킬 것이며, 백성의 약속과 **이방인들의 빛으로 너에게 주리라.** -이사야 42장

**이 말씀도 예수그리스도께서 열방의 빛으로 우뚝 서게 된다는 약속이며, 그 분이 이방에 있는 절망과 고통에 신음하는 백성들에게도 메시아로서 임하신다는 약속이다. 이 약속은 바울사도의 전도로서 이루어졌다.**

(1) 오 잉태하지 못한 자여, 아기를 낳지 못한 너는 노래하라. 아기로 인하여 진통하지 못한 너는 노래를 터뜨리고 큰 소리로 외치라. 이는 홀로 사는 여인의 자식이 혼인한 아내의 자식보다 더 많음이라. 주가 말하노라. -이사야 54장

**이 말씀을 보라, 잉태하지 못하고, 아기를 낳지 못한 너는 이스라엘을 말함ियो, 그 아기는 성도를 말함이며, 홀로사는 여인은 이방인을 뜻하고, 또 혼인한 아내는 이스라엘을 뜻함이니, 하나님께서 신랑으로 있는 이스라엘보다, 이방인인 타민족들이 마지막날에 더 많이 구원받을 것이며 선택된다는 말씀이 아니던가, 의심나면 앞뒤를 살펴보고 기뻐하시기를 바란다. 이 문장을 발견하고 나는 감격할 수 밖에 없었다. 지금 교회는 말세에 있고, 이 말세에 교회를 이스라엘민족보다 더 돌아보시고, 사랑하시고, 택하시고, 백성삼으시겠다는 말씀이 아니면 그 무엇이란 말인가, 그러나 역시 이스라엘에게도 위로의 말씀을 잊지 않으신다. 그 이하절들을 보시기 바란다. .**

또 보자, 말라기다.

(11) 이는 해 뜨는 데부터 해 지는 데까지 내 이름이 이방인들 가운데서 위대하게 될 것이기 때문이다. 각처에서 내 이름에 향을 피우며 순결한 제물이 드려질 것이니, 이는 내 이름이 이방 가운데서 위대하게 될 것임이라. 만군의 주가 말하노라.

이렇듯 하나님께서는 우리 이방민족에게도 역사하시고 있다는 말씀을 미리 해 놓으셨던 것이다. 그 사실을 잘 알고 있었던 바울사도도 전도중에 이런 말씀을 남겼다.

(46) 바울과 바나바가 담대히 말하여 가로되 하나님의 말씀을 마땅히 먼저 너희에게 전할 것이로되 너희가 버리고 영생 얻음에 합당치 않은 자로 자처하기로 우리가 이방인에게로 향하노라

(47) 주께서 이같이 우리를 명하시되 내가 너를 이방의 빛을 삼아 너로 땅 끝까지 구원하게 하리라 하셨느니라 하니 -사도행전13장

(16) 하나님이 지나간 세대에는 모든 족속으로 자기의 길들을 다니게 목인하셨으나

(17) 그러나 자기를 증거하지 아니하신 것이 아니니 곧 너희에게 하늘로서 비를 내리시며 결실기를 주시는 선한 일을 하사 음식과 기쁨으로 너희 마음에 만족케 하셨느니라 하고 -사도행

전 14장

(8) **베드로에게 역사하사 그를 할례자의 사도로 삼으신 이가 또한 내게 역사하사 나를 이방인에게 사도로 삼으셨느니라** -갈라디아서2장,개역성경

(13) 내가 이방인인 너희에게 말하노라. 내가 **이방인들의 사도이기에 나의 직분을 영광스럽게 여기나니**-로마서11장 KJB

여기에 부응하듯 하나님께서도 이방인을 위한 사도인 바울에게 그렇게 많은 서신서를 쓰게 함으로 우리에게 그 분의 약속과 말씀의 신실함을 드러내 보이셨던 것이다. 이제 결론을 내려보자. 예수님이 초림하실때는 유대인의 왕으로 오셨다.

(1) 이제 헤롯왕 때에 예수께서 유대의 베들레헴에서 태어나셨으니, 보라, 동방으로부터 현자들이 예루살렘에 와서

(2) 말하기를 "**유대인의 왕으로 태어나신 분이 어디 계신가? 우리가 동방에서 그의 별을 보고 그 분께 경배드리러 왔노라.**"고 하니라.-마태복음2장

(11) 예수께서 총독 앞에 서시니 총독이 예수께 물어 말하기를 "**네가 유대인의 왕이냐?**"고 하니, 예수께서 **그에게 말씀하시기를 "그렇도다."**라고 하시고 -마태복음 27장

유대인의 왕이셨던 예수님께서서는 십자가에 달리셨다. 유대인의 왕이셨던 예수그리스도는 그것으로 유대인에 대한 당신의 사랑을 증명하시고 육신으로 죽음을 맛보시기까지 희생하신 것이다. 그렇게 유대인의 왕은 끝이었다. 그런데 그 일로 말미암아 더 크고 광대한 사랑이 처음 약속처럼 다시 전개되었다. 그것이 끝이 아니었던 것이다. 유대인의 왕으로 오셨던 예수님은 십자가에 달리셨지만 이제 사흘만에 부활과 승천하심으로 하나님 우편에 앉아계시다가 다시 오실 때는 만주의 주, 만왕의 왕으로써 재림하시는 거다. 그것이 지금 우리가 보고있는 계시록19장의 맥이요, 예수그리스도의 참 약속이신 것이다.

(16) 또 그의 옷과 넓적다리에 이름이 기록되어 있는데 "**만왕의 왕, 또 만주의 주**"라 하였더라. -계시록19장

예수그리스도께서는 이제 모든 나라의 왕으로, 곧 만왕의 왕, 열방의 왕으로써 우리에게 오실 것이다. 재림하여 오실때는 유대인의 왕도 되시고, 한민족의 왕도 되시며, 아프리카의 왕, 유럽의 왕, 미주의 왕, 아시아의 왕, 오세아니아의왕, 동남아의 왕, 중동의 왕,등 모든 세계의 왕으로써 재림하시는 거다. 그 때는 차별없이, 선택된 모든 민족들을 사랑하실 것이며, 공평과 정의로 심판하시고, 인자와 자비로 불쌍하고 어린자들을 돌보는 평화의 왕으로 통치하시게 될 것이다. 이 나라가 바로 주님이 말씀하신 천국인 것이다. 주님께서 왕으로 계시는 동안 이 땅에서의 삶은 처음 하늘과 땅을 만드셨던 때로 돌아가게 될 것이며, 아담과 하와가 거했던 에덴동산이 다시 세워지게 될 것이고, 우리는 그곳의 이름을 예루살렘이라 부르게 될 것이다. 그 때에는 어떠한 일들이 일어날 것인가, 이 말씀은 아마겟돈전쟁이 끝난 이후 천년왕국에서 펼쳐지는 일들 중 지극히 일부이다. 다시 한번 보자.

(16) 예루살렘을 치러 왔던 열국 중에 남은 자가 **해마다 올라와서 그 왕 만군의 여호와께 숭배하며 초막절을 지킬 것이라**

(17) **천하 만국 중에 그 왕 만군의 여호와께 숭배하러 예루살렘에 올라 오지 아니하는 자에게는 비를 내리지 아니하실 것인즉**

(18) 만일 애굽 족속이 올라 오지 아니할 때에는 창일함이 있지 아니하리니 **여호와께서 초막절을 지키러 올라오지 아니하는 열국 사람을 치시는 재앙을 그에게 내리실 것이라**

(19) 애굽 사람이나 열국 사람이나 초막절을 지키러 올라오지 아니하는 자의 받을 벌이 이러하니라

(20) 그 날에는 말 방울에까지 여호와께 성결이라 기록될 것이라 여호와와의 전에 모든 솔이 제단 앞 주발과 다름이 없을 것이니

(21) 예루살렘과 유다의 모든 솔이 만군의 여호와의 성물이 될것인즉 제사 드리는 자가 와서 이 솔을 취하여 그 가운데 고기를 삶으리라 그날에는 만군의 여호와의 전에 가나안 사람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라 - 스가라 14장.

그날에는 모든 것이 하나님앞에 거룩하게 될 것이다. 그러나 천국을 간절히 사모하지 않으면 그곳에 들어가지 못한다. 간절히 찾는 자는 찾을 거라 하셨고, 간절히 구하는 자에게 주실거라 하셨으니 모든 성도들은 간절히 그곳을 사모하며 주님 오실 날을 고대했으면 한다.

(22) 그리하여 이스라엘 집이 그 날 이후부터 내가 주 그들의 하나님인 줄 알리라.

따라서 이 22절의 **이스라엘집은 육적인 이스라엘이 아니요, 세 번에 걸쳐 들림받은 모든 민족, 열방백성을 포함하는 진정한 이스라엘이 될 것이며, 하나님나라 백성의 완성이 될 것이다.**

## 20. 옛뱀, 용, 사탄, 마귀라 불리는 자의 심판

(1) 또 내가 보매 천사가 무저갱 열쇠와 큰 쇠사슬을 그 손에 가지고 하늘로서 내려와서

(2) 용을 잡으니 곧 옛 뱀이요 마귀요 사단이라 잡아 일천 년 동안 결박하여

(3) 무저갱에 던져 잠그고 그 위에 인봉하여 천 년이 차도록 다시는 만국을 미혹하지 못하게 하였다가 그 후에는 반드시 잠간 놓이리라

(4) 또 내가 보좌들을 보니 거기 앉은 자들이 있어 심판하는 권세를 받았더라 또 내가 보니 예수의 증거와 하나님의 말씀을 인하여 목 베임을 받은 자의 영혼들과 또 짐승과 그의 우상에게 경배 하지도 아니하고 이마와 손에 그의 표를 받지도 아니한 자들이 살아서 그리스도로 더불어 천년 동안 왕노릇하니

(5) (그 나머지 죽은 자들은 그 천년이 차기까지 살지 못하더라) 이는 첫째 부활이라

(6) 이 첫째 부활에 참여하는 자들은 복이 있고 거룩하도다 둘째 사망이 그들을 다스리는 권세가 없고 도리어 그들이 하나님과 그리스도의 제사장이 되어 천년 동안 그리스도로 더불어 왕노릇 하리라

**드디어 천년왕국의 시작이다.**

우리들은 천년왕국이 어떤 곳인지 잘 모른다. 그러나 이 천년왕국은 분명히 존재한다. 그래서 그곳에 대한 소망을 가지게 하기위해 12단원에서 성경에 있는 말씀들을 들어 추려놓았지만 이해하기 어려울 것이라고 생각이 된다. 그 말씀을 보고 묵상을 하면서 생각해본 바로는 그 의미는 이렇거다라고 생각이 된다. 지금까지 깨우친 바에 의하면 예루살렘이라 불리는 곳은 바로 주의 성전이 있을 곳, 주님께서서 우리와 함께 계시는 곳, 그리고 휴거된 모든 백성들, 첫째부활에 참여하는 자들이 거하는 곳이다. 그곳은 땅의 중앙에 존재할 것이고, 또 그 주변으

로 바깥 어두운 곳에 거하는 자들이 있을 것이다. 그들은 예루살렘에 거하는 자들을 무척이나 부러워 할 것으로 보이나, 그들이 살고 있는 곳도 그리 나쁘지만은 않을 것으로 분별이 된다. 그 때의 세상은 정의가 살아 숨쉬고, 거짓과 가식이 없는 그야말로 정직하고 선한 자들이 힘을 얻는 그런 공평한 세상이 펼쳐질 것이다. 주님께서 예루살렘에 왕들과 함께 거하실지 아니하실지는 알 수 없지만, 첫 번째 열매로 들림받은 십사만사천을 중심으로 왕국의 모든 일들을 처리해 나가지 않을까 싶다. 그때는 하나님이 처음 만드셨던 그 상태 그대로 하늘에는 물층이 존재하고, 그러함으로 말미암아 지구 전체가 따뜻한 온난한 기후가 될 것이며, 자연의 모든 에너지를 개발하여 무한대로 사용하고, 또 과학기술의 발달이 지금과는 상상할 수 없을 정도로 진행되어서, 행성간 우주여행, 그리고 바다속 심해여행은 기본으로 이루어 질 것이라고 본다. 우리가 지금까지 가보지 못했던 하나님의 또 다른 은하계를 여행하며 하나님의 창조사역들을 목격하게 될 것이며, 그리고 그 때는 어떠한 것도 성도들을 해치지 못하는 불멸의 몸, 불사의 몸이 되어, 산소가 없어도, 물이 없어도, 여행자들은 지치지 아니할 것이다.(물론 이건 추측이다^^) 그러나 이것은 죽음으로 믿음을 지킨 첫째부활에 참여한 자들만이 가능한 일일 것이다. 무엇을 상상하든 그대로 되는 곳이 바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왕으로 계시는 천년왕국이 될 것이요, 또 이 첫째부활에 참여한 자들이 새하늘과 새땅에 들어가는 완벽한 천국 백성이 됨은 물론이다. .

우리는 짧은 이 인생을 살면서 그 곳에 들어갈 수 있는가, 없는가를 테스트받고 있는 것과 마찬가지로 상황이다. 지금 살아가는 인생동안 하나님을 올바로 믿고, 그분을 알기에 힘쓴다면 하나님께서 이러한 천국을 허락하실 것이고, 그러나 그곳에 소망을 두지 않고, 지금 이 육적인 세상에서 천국을 찾는다면 그는 하나님께서 버린 자로 남아 영원히 이를 값이 있으리라는 것을 자신의 몸으로 체험하게 될 것이다. 이것이 성경을 관통하고 있는 중요한 흐름이다.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 “비록 너희가 세상에서는 핍박을 받으나 담대하라”, 라는 말씀은 그날에, 세상을 이겨낸 너희는 나의 피로 산 나의 백성들이니라 라고 위로해주시며 안아 주실테니 이겨내라는 말씀인 것이다. 결정을 하라 성도들이여, 당신의 소망을 이 땅에 두고 살텐가, 아니면 천국에 두고 살텐가, 지금 비록 어려워도 하나님을 믿고 찾으면 그분은 신실하시기에 성도들을 향한 이 모든 약속들을 굳게 지키시고, 성도된 그대를 인도하실 것이다.

**(7) 천년이 차매 사단이 그 옥에서 놓여**

**(8) 나와서 땅의 사방 백성 곧 곡과 마곡을 미혹하고 모아 싸움을 붙이리니 그 수가 바다 모래 같으리라**

**(9) 저희가 지면에 널리 퍼져 성도들의 진과 사랑하시는 성을 두르매 하늘에서 불이 내려와 저희를 소멸하고**

보시다시피 문제는 천년후에 사단이 놓임으로 다시 한번 발생된다. 에스겔 38장이 이 때의 전쟁상황을 서술하고 있다. 이 전쟁은 곡과 마곡전쟁이라 불린다.

(4) 내가 너에게 돌이켜 네 아가리에 갈고리를 꿰어 너를 끌어내리니, 네 모든 군대와 말들과 기병들이라, 그들 모두가 모든 종류의 완전한 갑옷을 입었으며 큰 방패와 작은 방패를 가진 큰 무리로 그들 모두가 칼을 든 무리요,

(5) 그들과 함께한 페르시아와 에디오피아와 리비아인데, 그들 모두는 방패와 투구로 갖추었고

(6) 고멜과 그의 모든 부대인데, 북쪽 지방의 토갈마의 집과 그의 모든 부대이며, 너와 함께한 많은 백성들이라.

(7) 너는 예비하고, 너와 네게 모인 모든 집단은 스스로 예비하며 너는 그들에게 감시자가 되라.

(8) ○ 여러 날 후에 네가 감찰받게 되리니, **말년에 네가 칼로부터 되찾고** 많은 백성 가운데서 모아진 그 땅에 이르러, 항상 황폐하였던 이스라엘의 산들을 대적하리라. 그러나 그 땅은 민족들에서 나왔으니, **그들 모두는 안전하게 거하리라.**

(9) **네가 올라오되 폭풍같이 올 것이며, 너와 네 모든 부대와 너와 함께한 많은 백성이 구름처럼 땅을 덮으리라.**

(10) 주 하나님이 이같이 말하노라. 또한 동시에 일들이 네 마음 속에 들어오리니 네가 악한 생각을 하게 되어

(11) 네가 말하기를 "내가 성벽이 없는 고장들의 땅으로 올라가 성벽이 없이 빗장이나 문도 없이 모두가 평안하고 안전하게 사는 그들에게로 가서

(12) 전리품을 취하며 약탈물을 취하고, 네 손을 지금은 사람이 사는 황폐한 처소들 위와 민족들에서 모여든 백성들 위에 돌리리라. 이들은 가축과 재물을 얻는 자요, 그 땅의 한가운데 거하는 자들이라." 하리라.

(13) 시바와, 드단과, 타시스의 상인들이 거기 있는 모든 젊은 사자들과 더불어 네게 말하기를 "네가 약탈하려고 왔느냐? 너는 물건을 탈취하려고 네 무리들을 모았느냐? 은과 금을 가져가고 가축과 재물을 빼앗아 가며 크게 약탈해 가려느냐?" 하리라.

(14) ○ 그러므로 인자야, 곡에게 예언하여 말하라. 주 하나님이 이같이 말하노라. 내 백성 이스라엘이 안전하게 거하는 날에 네가 그것을 알지 못하겠느냐?

(15) 네가 북방에서 많은 백성과 더불어 네 지역으로부터 오리니, 그들 모두가 말을 탄 큰 집단이며 막강한 군대라.

(16) **네가 내 백성 이스라엘을 대적하여 구름이 땅을 덮듯이 올라오리라.** 이것은 훗날에 있을 것이다. 내가 너를 내 땅으로 인도하리니, 오 곡아, 이방의 눈 앞에서 내가 네 안에서 거룩하게 될 때에 이방이 나를 알게 하려 함이라.

(17) 주 하나님이 이같이 말하노라. 너는 내가 옛날에 내 종 이스라엘의 선지자들로 너에 대해 말하게 했던 그 사람이 아니냐? 그들이 그 때에 여러 해 동안 예언하였으니, **곧 내가 그들을 대적하여 너를 불러올 것이라는 것이다.**

(18) 주 하나님이 말하노라. **곡이 이스라엘 땅을 치러 오는 그 날에 내 진노가 내 얼굴에 나타나리라.**

(19) 내가 내 질투와 내 진노의 불 속에서 말하였나니, 그 날에는 이스라엘 땅에 반드시 큰 진동이 있어서

(20) 바다의 고기들과 하늘의 새들과 들의 짐승들과 땅 위를 기어다니는 모든 기는 것들과 지면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내 앞에서 떨 것이요, 산들이 무너져 내리고 절벽들이 떨어지며 모든 성벽이 바닥으로 무너져 내리리라.

(21) 주 하나님이 말하노라. 내가 내 모든 산 구석구석에서 그를 대적할 칼을 부를 것이요, 각 사람의 칼이 자기 형제를 칠 것이다.

(22) 또 내가 전염병과 피로 그를 대적하여 항변할 것이요, 내가 그와 그의 부대와 그와 함

계한 많은 백성들 위에 비를 내리리니, 범람한 비와 큰 우박과 불과 유황으로 내리리라.

(23) 내가 이같이 나 자신을 높이고 나 자신을 거룩케 하여 많은 민족들의 눈에 나를 알게 하리니, 그들은 내가 주인 줄 알리라.

천년후에 다시 한번 사탄이 올라올 때 하나님께서 이들을 멸하시는 장면이다. 그런데 이런 행복하고 아름다운 천국에서 왜 또 다시 미혹을 당하는 것일까, 살펴보자. 다니엘7장이다.

(11) 그때에 내가 그 큰 말하는 작은 뿔의 목소리로 인하여 주목하여 보는 사이에 짐승이 죽임을 당하고 그 시체가 상한 바 되어 붙는 불에 던진 바 되었으며

천년왕국전 1차심판때 짐승(적그리스도)과 거짓선지자가 잡혀 불못에 던져지는 것을 말한다. 우리는 계시록19장 20절에서 이미 이 상황을 보고 넘어왔다.

(12) 그 남은 모든 짐승은 그 권세를 빼앗겼으나 그 생명은 보존되어 정한 시기가 이르기를 기다리게 되었더라

문제는 바로 이 12절이 되겠다. 이 남은 짐승이 누구냐 하는 것이다, 이 남은 짐승들은 열왕일 가능성도 있고, 또 사탄을 따르는 영적인 존재들을 의미하는 것 일수도 있겠다. 이들이 바깥 어두운곳에 거하게 되는 것인지 아니면 무저갱에 사탄과 같이 거하는 것인지, 혹은 양분되어 있는 것인지는 알 수가 없다. 중요한 것은 이들이 다시 천년후에 바깥어두운곳에 거하는 자들을 모아 주의 백성이 모여살고 있는 예루살렘을 공격하게 된다는 것이다. 바다모래같이 많은 그들이 지면에 널리 퍼져, 주의 백성들이 안전하게 모여 평안히 거하고 있을 그 곳,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주의 백성을 멸하고자 하는 것이다. 바로 이 때 주님의 얼굴에 노가 드러나리라는 말씀이고, 또 하늘에서 불이 내려와 그들을 멸해 버릴것이라는 말씀이다. 다음 10절이다.

(10) 또 저희를 미혹하는 마귀가 불과 유황 못에 던지우니 거기는 그 짐승과 거짓 선지자도 있어 세세토록 밤낮 괴로움을 받으리라

천년전에는 짐승과 거짓선지자만 불못에 있었으나 이제 사탄도 함께 불못에 있게 되었다. 아무래도 셋이 같이 있으니 둘보다는 덜 외로울 것이다.

(11) 또 내가 크고 흰 보좌와 그 위에 앉으신 자를 보니 땅과 하늘이 그 앞에서 피하여 간데 없더라

(12) 또 내가 보니 죽은 자들이 무론대소하고 그 보좌 앞에 섰는데 책들이 펴 있고 또 다른 책이 펴졌으니 곧 생명책이라 죽은 자들이 자기 행위를 따라 책들에 기록된 대로 심판을 받으니

이제 마지막심판인 백보좌(흰 왕좌) 심판이 펼쳐진다. 바로 이 때에 우리가 알고 있는 우리 조상들(예를 들어 우리의 영웅, 이 순신장군을 포함한 그 이전과 그 후의 모든 왕과 백성들, 그리고 이방 모든 민족도 마찬가지)도 모두 살아나 그 행위에 따라 심판을 받게 될 것이다. 그 심판에 따라 그들이 어찌 될런지는 성경에 나와 있지 않다. 묻지 마시라. 그러나 한가지 그들 중에도 생명책에 이름이 기록되어 있는 자들도 있을 수 있음을 15절을 보며 짐작은 할 수 있겠다.

(13) 바다가 그 가운데서 죽은 자들을 내어주고 또 사망과 음부도 그 가운데서 죽은 자들을 내어주매 각 사람이 자기의 행위대로 심판을 받고

바로 이 13절이 시사하는바가 상당히 크다. 이 때는 死亡(사망)과 陰部(음부, 地獄(지옥))에서도 죽은 자들을 내어 놓는다고 한다. 그렇다면 천년왕국전 일차심판을 받지 않고도 지옥에 들어가는 자가 있었다라는 얘기가 되지는 않겠는가, 이것은 앞에서도 잠깐 얘기했지만 죄가

드러나지 아니하여 지옥과 천국이 결정되지 않은 자들은 잠을 자게 되고, 그리고 죄가 많히 드러난 자들은 審判(심판)받을 필요도 없이 지옥으로 가게 되는 것이라는 걸로 설명한 바 있다. 이같이 죄가 드러난 자들은 이 백보좌심판때까지 계속 지옥에서 고통을 당하고 있을 것이다. 그리고 이 지옥을 管掌(관장)하는 자들이 계시록 12장에서 용이 하늘의 별 삼분의 일을 끌어내렸었던 그 천사들이 아닐까도 싶다. 그 이유는 예수님의 魔鬼(마귀) 逐邪(축사) 때 무저갱에 들어갔던 마귀들도 있었고, 그 후에도 붙잡힘되어 이곳으로 쫓겨갔을 수 있는 천사들중의 일부로 보이기 때문이다. 이것은 본인의 추측일 뿐이니 아닐 수도 있다. 그런데 이렇게 추측하는 근거는 바로 이 구절들에 있다. 이 구절들을 보시고 다시 한 번 묵상해 보시기 바란다.

디모테전서 5장

....

(24) 어떤 사람들의 죄는 밝히 드러나 먼저 심판에 나아가고 어떤 사람들의 죄는 그 뒤를 좇나니 ...

뭐 좀 다가오는게 있으신지 모르겠다. 다음 절이다.

(14) 사망과 음부도 불못에 던지우니 이것은 둘째 사망 곧 불못이라

(15) 누구든지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한 자는 불못에 던지우더라

이 말씀은 뒤집어 해석하면 생명책에 기록된 자들도 있음을 언뜻 비추고 있음은 아니겠는가, 이로써 새하늘과 새땅에 들어가기 전에 일어나는 곡과 마곡전쟁, 그리고 사탄의 멸망까지 모두 알아보았다. 이것으로써 이 땅에서의 길고 긴 삶은 진정으로 끝이 났다. 이제는 선택받은 그들에게 영원한 집이라 할 수 있는 하늘의 예루살렘도성이 내려옴으로 그 곳으로 성도들과 왕들이 들어가게 된다. 영원한 행복의 진정한 시작인 것이다. 그 기쁨은 조금 후에 맛보기로 하고 우리가 지금까지 해석해 온 모든 것들이 옳은지 살펴볼 겸, 그리고 어떤 교회가 이런 천국의 잔치를 맛볼 수 있는지 교회를 통해 최종적인 점검을 해 보도록 하자.

## 21. 계시록 2장, 네 교회가 받을 상급과 시기분별.

드디어 일곱교회에 대한 것을 알아보게 되었다. 가장 먼저 나와야 할 교회가 이제 나오게 되고 또 이런 순서로 배열하게 된 이유는 6장이후 전개되는 재앙에 관련된 것들을 알지 못하고서는 이 교회에 담긴 의미들을 제대로 파악할 수가 없어서이기 때문이다. 지금부터는 그동안 연구하고 확인했던 내용들을 총체적으로 집약하는 시간이 될 것이다. 이 교회에 대한 것을 이해하기 힘들다면 처음부터 다시 한번 읽어보실 것을 권해 드린다. 이 교회는 계시록이 집약된 형태라고 볼 수 있기 때문이다. 우리는 이 일곱 개의 교회를 통해서 구원받는 성도의 숫자라던가 그동안은 알 수 없었던, 숫자들에 관한 의미들을 이해할 수 있게 될 것이다. 이 일곱교회에 대해 담겨있는 의미는 이렇다.

첫째, 이 일곱교회는 주님승천이후 초대교회에 존재해온 형태였다.

둘째, 이 일곱교회는 시대순으로 흘러내려온 교회이다.

셋째, 이 일곱교회는 현재에도 존재하는 교회이다.

넷째, 이 일곱교회는 각나라별, 각민족별로도 교회로서 존재한다.

다섯째, 이 일곱교회는 가장 좁은 지역안에서도 존재한다.

여섯째, 이 일곱교회는 구원의 시기를 결정한다.

일곱째, 이 일곱교회는 상급의 종류를 결정한다.

이상을 잘 각인시키시고 그 의미를 분별하시기 바란다.

## 1) 에베소교회, 후삼년반환란中(중)에 순교.

(1) 에베소 교회의 사자(angel, 천사)에게 편지하기를 오른 손에 일곱 별을 붙잡고 일곱 금촛대 사이에 다니시는 이가 가라사대

'사자'는 그리스도에 의해 책임을 갖고 교회를 수호하는 **하늘의 천사들**을 가리킨다. 오른손에 일곱 별을 붙잡고 일곱 금 촛대 사이에 다니시는 이가 가라사대. - 본문은 에베소 교회에 계시된 그리스도의 모습에 대한 묘사이다. '오른손에 일곱 별을 붙잡고'에서 '붙잡고'에 해당하는 헬라어 '크라톤'은 단순히 '잡는다'는 의미가 아니라 **요동할 수 없도록 확실하게 움켜쥐고 있는 것을 가리킨다.** 이는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보호하시고 통치하시며 지배하고 계심을 시사한다.** -주석.

지금까지 우리는 11장의 두증인과 12장의 여인이 일천이백육십일동안 하나님께서 강하신 능력으로 보호하신다는 사실을 보아 왔다. 11장의 두증인이 가진 능력과 12장의 여인의 보호 받는 광야생활이 바로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것이라는 의미 또한 알아보았다. 복음의 시초부터 지금까지 교회는 굳건히 흘러내려왔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함께 하셨다는 증거이며, 그 깊은 의미가 담겨 있는 것이다.

(2) 내가 네 행위와 수고와 네 인내를 알고 또 악한 자들을 용납지 아니한 것과 자칭 사도라 하되 아닌 자들을 시험하여 그 거짓된 것을 네가 드러낸 것과

지금도 자칭 사도라 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다. 그들이 정말 사도인지 한 번 시험해 보라는 말씀이시겠다. 최근에 신사도들이 많아 지고 있는데 바로 이 말씀을 보아서라도, 그들이 하나님이 보내신 사도인지 아닌지 시험해볼 필요가 있지는 않겠는가, 고로 은사주의는 경계해야 할 사탄의 누룩이다.

(3) **또 네가 참고 내 이름을 위하여 견디고 게으르지 아니한 것을 아노라**

(4) 그러나 너를 책망할 것이 있나니 너의 처음 사랑을 버렸느니라

이 사랑은 라오디게아교회에 하시는 말씀과도 같이 느껴진다. 이 처음사랑은 형제에 대한 사랑일 수도 있고, 하나님아버지와 예수그리스도에 대한 사랑일 수도 있다. 어느쪽이든지 분별심을 갖고, 주님주신 두 계명을 잊어선 안될 것이다. 바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라는 두 가지 계명말이다.

(5) 그러므로 어디서 떨어진 것을 생각하고 회개하여 처음 행위를 가지라 만일 그리하지 아니하고 회개치 아니하면 내가 네게 임하여 네 촛대를 그 자리에서 옮기리라

처음 행위를 가지지 아니하고 회개치 아니한다면 그 촛대(교회)를 너의 자리에서 옮기겠다는 말씀이시다. 무서운 말씀이다. 그러나 그렇게 하지는 않으실 것이다. 이 **에베소교회는 후삼년 반中(중)에 삼분의 일이 순교하는 교회의 모형중 (서머나교회와 함께) 에 하나이다.**

(6) 오직 네게 이것이 있으니 네가 니콜라당의 행위를 미워하는도다 나도 이것을 미워하노라

니콜라당의 뜻은 이미 앞에서 알아본 바와 같다. 그래도 복습겸 다시한번 보자.

언어적으로 '니콜라'에 해당하는 헬라어 '니콜라이톤'은 '백성'을 뜻하는 '라오스'와 '없애다' 혹은 '정복하다'를 의미하는 '니카오'의 합성어로 구약성경에 기록된(민22:12) '발람'과 동일한 의미를 지닌다. 그래서 발람의 행위와 동일시하여 하나님의 백성들을 파괴하는 거짓 무리들로 추측한다. 대부분의 학자들이 동의하는 바와 같이 니콜라당은 발람의 교훈을 따른 자들

로 이해된다.-주석

그렇다면 교회안에서 니콜라당이라함은 성도를 지배하고 억압하려는 성격을 가진 자들을 의미하는 것이겠다. 그러나 그런자들 가운데서도 **성도를 섬기고 높이는 그런 니콜라당도 존재한다.** 어떤 니콜라당과 함께 하는 것이 복받은 성도인지는 모두 아실 것이다. 그러나 문제는 주님께서는 니콜라당 자체를 미워하시는 것 같다. 그래서 어려운 일이다.

(7)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하나님의 낙원에 있는 **생명나무의 과실을 주어 먹게 하리라**

**이 말씀을 듣고 깨달으라고 하신다. 그런 자에게는 생명나무의 과실을 주어 먹게 하신다. 이것은 구원과 더불어 영생을 약속하시는 하나님의 약속이다.**

## 2) 서머나교회, 후삼년반기간中(중) 순교.

(8) 서머나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기를 처음이요 나중이요 죽었다가 살아나신 이가 가라사대

(9) 내가 네 환난과 궁핍을 아노니 실상은 내가 부요한 자니라 자칭 유대인이라 하는 자들의 훼방도 아노니 실상은 유대인이 아니요 사단의 회라

'서머나 교회'에 대해서는 본 서신 외에 잘 알려진 것이 없으며 다만 '폴리갑의 생애'에서 바울이 이곳에 전도하였다고 전한다. 그리고 사도 요한의 제자이며 서머나 교회의 초대 감독이었던 폴리갑(B.C.155-166)이 이곳에서 순교하였다.-주석

이 서머나 교회는 모든 곳에 있겠지만, 특히 현재의 이스라엘땅에 유대인이라고 주장을 하고 또 유대인들의 모임이라고 불리고 있지만 거짓일 뿐이며, 사실은 사단의 모임일 것이다라고 추측을 하고 있는 곳이 있다. 그것에 대한 증거가 불충분하여 자료를 모으고 조사해봐야겠지만 천년왕국에서 이스라엘민족을 모으시겠다고 했던 하나님의 약속을 마치 지금이 그때인 것마냥 디아스포라를 모으는 일을 시작했고, 또 그 일을 지속하고 있는 자들이 있는 땅이 바로 서머나교회의 대표가 아닌가하고 분별하고 있다.

(10) 내가 장차 받을 고난을 두려워 말라 볼찌어다 **마귀가 장차 너희 가운데서 몇 사람을 옥에 던져 시험을 받게 하리니 너희가 십일동안 환난을 받으리라** 네가 죽도록 충성하라 그리하면 내가 생명의 면류관을 네게 주리라

**십일동안은 완전한 환란을 얘기하다. 따라서 이 서머나교회는 후삼년반기간中(중)에 삼분의 일이 순교를 당하는 두 교회중 (에베소교회와함께) 하나의 모형이다.**

(11)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기는 자는 둘째 사망의 해를 받지 아니하리라

## 3) 버가모교회, 후삼년반기간初(초) 최초 순교.

(12) 버가모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기를 죄우에 날선 검을 가진 이가 가라사대

(13) 내가 어디 사는 것을 내가 아노니 거기는 사단의 위가 있는 데라 내가 내 이름을 굳게 잡아서 **내 충성된 증인 안디바가 너희 가운데 곧 사단의 거하는 곳에서 죽임을 당할 때에도 나를 믿는 믿음을 저버리지 아니하였도다**

(14) 그러나 네게 두어 가지 책망할 것이 있나니 거기 네게 발람의 교훈을 지키는 자들이 있

도다 발람이 발락을 가르쳐 이스라엘 앞에 올무를 놓아 우상의 제물을 먹게 하였고 또 행음하게 하였느니라

(15) 이와 같이 네게도 니골라당의 교훈을 지키는 자들이 있도다

이 니골라당의 교훈을 지키는 교회는 카톨릭일 가능성이 농후해 보인다. 이들은 초대교회부터 면면이 흘러내려오는 교리를 변개시키고, 마리아를 하늘의 여신으로까지 격상시킴으로 성경과는 거리가 먼 교리를 채택함으로 많은 사람들앞에 올무를 놓았다. 또 이들은 베드로성전 광장에 오벨리스크를 세움으로 그들이 모시는 신이 어떤 신인지를 간접적으로 표하고 있다. 그런데도 아직 이것을 깨닫지 못하는 천주교인들이 많이 있으니 통탄할 일이 아닐 수 없다. 이것을 아는 성도들은 그들에게 진실을 알려야함은 물론이겠지만, 깨닫지 못하고 계속 따라가는 자들에게도 하나님께서는 죄없다 하지 아니할 것이다. 성도들은 그래서 항상 깨어 있어야 한다. 말씀을 보고 분별할 줄 알아야 한다. 성경이 있는 한 심판대앞에서 어떠한 변명도 통하지 않을 것임을 알아야한다. 이들을 이끌어 지옥으로 인도하는 니골라당의 형태를 가진 그들의 받을 형벌은 꽤나 심각할 것으로 분별이 된다.

(16) 그러므로 회개하라 그리하지 아니하면 내가 네게 속히 임하여 내입의 검으로 그들과 싸우리라

(17) 귀 있는 자는 성령이 敎會(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찌어다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감추었던 만나를 주고 또 흰 돌을 줄 터인데 그 돌 위에 새 이름을 기록한 것이 있나니 받는자 밖에는 그 이름을 알 사람이 없느니라

이 흰돌위에 새겨진 새 이름은 받는 자 외에는 알 사람이 없다. **이 새로운 이름을 받는 것만 보더라도 전삼년반에 인을 맞는 십사만사천은 유대인이 아니더라는 증거가 된다.** 이렇듯 계시록은 숨은 의미들로 點綴(점철)되어 있고 영적인 의미를 가지고 해석해야 할 象徵(상징)의 홍수인 것이다.

#### 4). 두아디라교회 (주님재림시에 휴거)

(18) 두아디라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기를 그 눈이 불꽃 같고 그 발이 빛난 주석과 같은 하나님의 아들이 가라사대

(19) 내가 네 사업과 사랑과 믿음과 섬김과 인내를 아노니 네 나중 행위가 처음 것보다 많도다

(20) 그러나 네게 책망할 일이 있노라 자칭 선지자라 하는 여자 이세벨을 내가 용납함이니 그가 내 종들을 가르쳐 피어 행음하게하고 우상의 제물을 먹게 하는도다

**이 이세벨은 가증한 음녀교회의 형태를 띠고 있다. 교리를 변질시킴으로 인해 교회를 타락케 한 가증한 유사기독교의 형태를 취하고 있는 모든 이단의 종교를 포함한다.**

(21) 또 내가 그에게 회개할 기회를 주었으되 그 음행을 회개하고자 아니하는도다

(22) 볼찌어다 내가 그를 침상에 던질 터이요 또 그로 더불어 간음하는 자들도 만일 그의 행위를 회개치 아니하면 **대환난 가운데 던지코**

(23) **또 내가 사망으로 그의 자녀를 죽이리니** 모든 교회가 나는 사람의 뜻과 마음을 살피는 자인 줄 알지라 내가 너희 각 사람의 행위대로 갚아주리라

(24) 두아디라에 남아 있어 이 교훈을 받지 아니하고 소위 사단의 깊은 것을 알지 못하는 너희에게 말하노니 다른 짐으로 너희에게 지울 것이 없노라

(25) 다만 **너희에게 있는 것을 내가 올 때까지 굳게 잡으라**

(26) 이기는 자와 끝까지 내 일을 지키는 그에게 만국을 다스리는 권세를 주리니

(27) **그가 철장을 가지고 저희를 다스려** 질그릇 깨뜨리는 것과 같이 하리라 나도 내 아버지께 받은 것이 그리하니라

계시록19장에 예수님께서 철장으로 다시리신다는 말씀이 언급이 된다.

....

(15) 그의 입에서 이한 검이 나오니 그것으로 만국을 치겠고 친히 **저희를 철장으로 다스리며** 또 친히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의 맹렬한 진노의 포도주 틀을 밟겠고 ...

이처럼 주님께서 철장으로 만국을 다스리는 권세를 가지고 계신다. 이 권세를 두아디라고 인물에게도 허락하신다는 것이다. 그들도 둘째사망으로 들어가지 않는다.

(28) 내가 또 그에게 새벽 별을 주리라

**이 새벽별은 주님을 상징한다. 새벽별을 소유한자는 모든 것을 소유한 것이다.**

(16) 나 예수는 교회들을 위하여 내 사자(angel, 천사)를 보내어 이것들을 너희에게 증거하게 하였노라 나는 다윗의 뿌리요 자손이니 곧 광명한 새벽별이라 하시더라 -계시록22장

(29) 귀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찌어다

**두아디라교회는 마지막열매로 주님재림시 사데교회와 함께 휴거되는 교회로 분별한다.**

## 22 계시록3장, 나머지 세교회의 시기분별과 상급

### 1) 사데교회, (주님재림시 휴거)

(1) 사데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기를 하나님의 일곱 영과 일곱 별을 가진 이가 가라사대 내가 네 행위를 아노니 네가 살았다 하는 이름은 가졌으나 죽은 자로다

(2) 너는 일깨워 그 남은 바 죽게 된 것을 굳게 하라 **내 하나님 앞에 네 행위의 온전한 것을 찾지 못하였노니**

(3) 그러므로 네가 어떻게 받았으며 어떻게 들었는지 생각하고 지키어 회개하라 만일 일깨이지 아니하면 **내가 도적같이 이르리니 어느 시에 네게 임할는지 네가 알지 못하리라**

(4) 그러나 사데에 그 옷을 더럽히지 아니한 자 몇 명이 네게 있어 흰 옷을 입고 나와 함께 다니리니 그들은 합당한 자인 연고라

(5) 이기는 자는 이와 같이 흰 옷을 입을 것이요 내가 그 이름을 생명책에서 반드시 흐리지 아

니하고 그 이름을 내 아버지 앞과 그 천사들 앞에서 시인하리라

(6)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찌어다

**도적같이 오실 것이라는 말씀에 비추어 두아디라교회와 함께 주님재림시에 마지막열매로써 휴거될 것으로 분별이 된다.**

## 2) 빌라델비아교회, (대환란에서 지키시는 교회, 십사만사천)

(7) 빌라델비아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기를 거룩하고 진실하사 다윗의 열쇠를 가지신 이 곧 열면 닫을 사람이 없고 닫으면 열 사람이 없는 그이가 가라사대

(8) 볼지어다 내가 네 앞에 열린 문을 두었으되 능히 닫을 사람이 없으리라 내가 **네 행위를 아노니 네가 적은 능력을 가지고도 내 말을 지키며 내 이름을 배반치 아니하였도다**

(9) 보라 사단의 회 곧 자칭 유대인이라 하나 그렇지 않고 거짓말 하는 자들 중에서 몇을 내게 주어 저희로 와서 **네 발 앞에 절하게 하고 내가 너를 사랑하는 줄을 알게 하리라**

(10) **내가 나의 인내의 말씀을 지켰은즉 내가 또한 너를 지키어 시험의 때를 면하게 하리니 이는 장차 온 세상에 임하여 땅에 거하는 자들을 시험할 때라**

대환란에서 구해내신다는 뜻이다. 영어킹제임스를 보면서 ...keep...from...어찌고 하는 사람들을 보면 답답하기 이를데 없다. 그럼 말씀은 코에걸면 코걸이, 귀에걸면 귀걸이인 말들임을 진정 모르겠는가, 작은 것을 보지 말고 큰 것을 보라. 한국어로 봐도 시험의 때를 면하게 한다고 해석할 수도 있고 지켜주신다고 해석할 수도 있다. 한편으로만 주장하는 사람들은 치우친 시선으로 편벽되게 어느 한 가지만 주장하는 것이다. 그러나 그 의미는 두가지 모두 일 수 있음을 간과하지 말아야 한다. 그러나 이렇게 해석해야 할 이유는 따로 있다. 그 이유는 교회들 시기분별이 끝난 후 숫자에 대한 설명으로, 말미에 따로 언급하기로 하겠다.

(11) **내가 속히 임하리니 네가 가진 것을 굳게 잡아 아무나 네 면류관을 빼앗지 못하게 하라**

**이미 이들은 면류관을 가지고 있다. 승리했다는 것이다. 이들이 바로 하나님성전에 기둥이 되는 자들이다. 부러워만하지 마시고 이만한 믿음을 소유하시는 성도님들이길 진심으로 바란다.**

(12) **이기는 자는 내 하나님 성전에 기둥이 되게 하리니 그가 결코 다시 나가지 아니하리라 내가 하나님의 이름과 하나님의 성 곧 하늘에서 내 하나님께로부터 내려오는 새 예루살렘의 이름과 나의 새 이름을 그이 위에 기록하리라**

이 새 이름은 버가모교회에도 주신 것으로서 공히 모든 교회에 포함되는 것으로 봐야 할 것이다. 특별히 빌라델비아교회에 이렇듯 상세하게 기록하신것은 이 빌라델비아교회가 십사만사천임을 암시하신 것이라고 할 수 있다. 계시록21장의 내가 하나님의 이름과 하나님의 성 곧 하늘에서 내 하나님께로부터 내려 오는 새 예루살렘이라 말씀하신 이 성에는 네 방위에 각 방위마다 세문씩이 있는데 이 문위에 세지파씩 이스라엘12지파의 이름이 쓰여 있다. 그렇다면 육적인 이스라엘민족만이 예루살렘성에 들어간단 말이겠는가, 그렇지 않다는 것쯤은 이제 스스로 잘 아실 것이다. 성도들은 새로운 지파와 새 이름을 받음으로 영적인 이스라엘이 되는 것이다. 그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마고 하셨던 처음과 끝이신 분의 신실한 약속인 것이다.

(13)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찌어다

### 3) 라오디게아교회 (후삼년반初(초) 순교교회)

(14) 라오디게아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기를 아멘이시요 충성되고 참된 증인이시요 하나님의 창조의 근본이신 이가 가라사대

(15) 내가 네 행위를 아노니 네가 차지도 아니하고 더웁지도 아니 하도다 네가 차든지 더웁든지 하기를 원하노라

이 라오디게아교회는 말세에 있을 대다수교회의 모형이라고 볼 수 있다. 그러나 적그리스도의 등장을 알게 되는 계기로 인하여 목숨을 아끼지 않고 순교하는 대단한 믿음의 교회로 탈바꿈 되어진다. 이들이 버가모교회와 함께 전삼년반동안 가장 앞장서서 사탄의 세력에 대항하여 싸울 것으로 분별이 되며 그러한 이유로 말미암아 마흔두달(후삼년반)시작과 동시에 두교회가 함께 순교하게 될 것으로 보인다.

(16) 네가 이같이 미지근하여 더웁지도 아니하고 차지도 아니하니 내 입에서 너를 토하여 내 치리라

(17) 네가 말하기를 나는 부자라 부요하여 부족한 것이 없다 하나 네 곤고한 것과 가련한 것과 가난한 것과 눈먼 것과 벌거벗은 것을 알지 못하도다

(18) 내가 너를 권하노니 내게서 불로 연단한 금을 사서 부요하게 하고 흰 옷을 사서 입어 벌거벗은 수치를 보이지 않게 하고 안약을 사서 눈에 발라 보게 하라

(19) 무릇 내가 사랑하는 자를 책망하여 징계하노니 그러므로 네가 열심을 내라 회개하라

(20) 불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로 더불어 먹고 그는 나로 더불어 먹으리라

(21)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내 보좌에 함께 앉게 하여 주기를 내가 이기고 아버지 보좌에 함께 앉은 것과 같이 하리라

(22)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찌어다

이렇듯 사랑하시면서 계속 권고하심을 볼 때, 라오디게아교회는 최초의 순교자를 낸 버가모교회와 함께 후삼년반시작에 같이 순교할 것으로 분별된다.

## 23. 종합, 각 교회의 순교숫자에 대한 비밀과 휴거시기에 대한 증명

우리는 처음에 하나님께서 다니엘과 계시록을 기록하시는데 있어 규칙을 사용하였음을 알아 보았다. 하나님께서 위에서 나눴던 그런 규칙만 사용하신 것일까, 혹시 또 다른 것이 있는 것은 아닐까, 한번 찾아보기로 했다. 그동안 늘상 숫자로도 증명하겠다고 했던 바로 그 숫자의 비밀이다.

$$7-1=6 \quad -2=4 \quad +2+1+=7, \quad 6-4=2 \quad (2=1/3)$$

먼저 7은 일곱교회를 얘기한다. 이 교회는 우리가 앞서 봤던 예수님께서 편지를 보낸 아시아에 있는 교회의 수이고, 또 7이 하나님께 완전수임은 모두 알고 계실 것이다. 또 하나님은 삼위로 존재하신다. 우리가 주목해야 할 것은 그래서 7과 3이다.

이 일곱교회의 시기별 들림순서는 이렇다. 순서를 좀 바꿔보자.

1. 빌라델비아교회. 십사만사천, 한때와 두때와 반때의 여인, **첫 번째 열매**

2. 버가모교회. 대환란初(초)에 순교하는 교회, 두 증인, **두 번째 열매**

3. 라오디게아교회. 상동 (위와 같다는 뜻임 ^^)

4. 에베소교회. 대환란中(중)에 순교하는 교회, 두 증인에 포함

5. 서머나교회. 상동

6. 사데교회. 주님재림시 휴거(계시록 19장에) **세 번째 열매**

7. 두아디라교회. 상동

보다시피 7교회중에서도 3가지순서의 열매교회로 나뉜다. 이 3교회가 다시 모여 완전한 수의 교회인 일곱교회가 된다. 따라서 일곱교회는 주님의 완전한 성도이며 백성임과 동시에 주님의 몸을 이루는 지체가 되는 것이라고 볼 수 있겠다.

여기서 또 한가지 깨닫게 되는 것은 삼위의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성도들을 모으시는데 그 신부의 완성을 위해 모두 세 번의 순서에 걸쳐 열매를 취하심으로 삼위하나님되심을 계시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는 것이다. 잠깐 계시록19장을 보자

(9) 그때 그가 내게 말하기를 "어린 양의 혼인 잔치에 초대된 그들은 복이 있다고 기록하라." 하고 또 내게 말하기를 "이것들은 참된 하나님의 말씀들이라."고 하더라.

이 말씀은 이런 뜻을 가지고 있다. 복이 있다는 의미다.

맨~날맨~날 잔치하~고, 맛있는 거 먹~고, 요트도 타~고, 따뜻한 햇살에 공원에 누워 낮잠도 자~고, 윈드서핑도 하~고, 잠수함 타~고 바다속 구경도하~고, 행글라이딩도하~고, 가보고 싶은 스위스도 가~고, 각 국으로 무전여행도하~고, 스키도 타~고, 수영도 하~고, 잔디밭에서 책도 읽~고, 물놀이 가~고, 단풍놀이도 가~고, 일년에 한번 주님뵈러 예루살렘가고, 또 잔치하~고 맛있는거 먹~고, 요트 타~고..... 이렇게 천년동안 살다보면 질릴거 같다.-.;; 그래서 주님께서 또 이렇게 말씀하셨다.

이사야65장

...

(17) ○ 보라, 내가 새 하늘들과 새 땅을 창조하나니, 이전 것이 기억되거나 생각나지 아니할 것이다.

(18) 그러나 너희는 내가 창조하는 것으로 영원히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보라, 내가 예루살렘을 즐거움으로 창조하고 그 백성을 기쁨으로 창조하노라.

너무 감사하다. 우리는 지루할 틈이 없겠다.

자, 그럼 이제 숫자연구를 다시 계속 해보자.

앞에 숫자중에 7-1=6 에서 7은 교회의 숫자다. 그럼 1은 뭘까,

그렇다. 바로 빌라델비아교회다.

이 빌라델비아는 말세에만 존재하는 교회이기도 하거나와 가장 먼저 빠져나와야 한다. 먼저 면류관을 받아 들림받았으니까 말이다. 그렇게 해서 6이라는 숫자가 완성된다. 그렇게 하고 나니 처음 순교자교회 2교회와 중반에 순교하는 2교회, 마지막열매교회 2교회가 남게 된다. 그럼 순교자 교회는 남아있는 2+ 2+ 2교회중에 2교회이므로 6/2가 되고 약분하면 3/1이 된

다. 3/1, 그러고보니 어디서 많이 보던 숫자다. 3분의 1이라는 숫자 말이다. 한번 찾아보자.

계시록9장

...

(15) 그 네 천사가 풀려나더라. 그들은 사람들 **삼분의 일을** 죽이려고 그 **연, 월, 일, 시**를 위하여 예비해 둔 자들이라.

이 구절을 자세히 살펴보면 알게 되겠지만 그렇다면 이들은 그 연, 월, 일, 시에 동시에 순교하는 첫 순교교회가 되겠다. **동시에 순교하게 된다는 것을 어떻게 아느냐하고 묻는다면** 그 연, 월, 일, 시를 보면 짐작으로 알 수 있다. 연도 아니고 월도 아니고 일도 아니고, 그 시까지 적혀있는 것으로 보아 동시에 죽을 것으로 판단이 되는 것이다. 아닐 수도 있다라고 주장하는 사람이 있다면 그는 하나님의 완벽하심을 모르고 하는 얘기이다. 하나님께서는 허튼 글을 함부로 기록하시는 분이 아니다. 그렇다면 과연 몇 명이나 순교하게 되는 걸까, 찾아보자. 바로 그 다음절이다.

(16) 기병대의 수는 이억이니 내가 그들의 숫자를 들었노라.-계시록9장

이 이억이란 숫자가 순교자 이억명을 같은 시간대에 동시에 죽이는 것이다. 사람죽이는 기병대의 숫자가 이억이라고 굳이 밝히신 것은 그 앞 절과 연계해, 즉 동시에 죽인다는 의미와 같이 살펴보라는 것이다. 깨달아 알라는 것이다. 그렇다면 이 이억의 군대가 이억의 성도들을 세계각지에서 같은 시간대에 죽이게 된다는 것을 자연스럽게 알 수 있게 될 것이다. 그렇다면 이 절로 순교교회는 끝인가, 아니다. 다음절에 보자,

(17) **또 내가 환상 가운데 말들과 그 위에 탄 자들을 보았는데** 그들은 불과 제신스와 유황으로 된 흉배를 지녔으며, 말들의 머리는 사자들의 머리 같고 그들의 입에서는 불과 연기와 유황이 나오더라.

(17) **And thus I saw the horses in the vision, and them that sat on them,** having breastplates of fire, and of jacinth, and brimstone: and the heads of the horses [were] as the heads of lions; and out of their mouths issued fire and smoke and brimstone.

(18) 이 세 가지, 즉 그들의 입에서 나오는 불과 연기와 유황으로 말미암아 **사람들의 삼분의 일이 죽더라.**

(18) **By these three was the third part of men killed,** by the fire, and by the smoke, and by the brimstone, which issued out of their mouths.

그리고 또 보았다는 이 환상은 앞의 이억과는 별개의 상황이다. 하나님께서는 한번 말씀하시면 되지, 굳이 또 확인하시려고 두 번을 기록하는 분이 아니시다. 그런건 하나님의 전능함과 거룩함에 역행한다. 그러므로 여기 삼분의일이라는 숫자도 우리가 깨달아 알라는 것이다. 그렇다면 순교자 교회가 두 교회였는데 이억의 숫자였으므로 이 삼분의 일이란 숫자도 환란중에 순교하는 두 교회인 삼분의일에 속하므로 또 이억의 숫자가 순교하게 됨을 알 수 있다. 따라서 순교하는 교회는 모두 네개교회인 사역의 숫자가 되는 것이다. 그렇다면 나머지 남아있는 교회인 두 교회도 이억정도의 숫자가 됨을 자동으로 알 수 있게 되겠다. 그래야 각각의 삼분의 일이 세 개가 더해져 완전하고 온전한 한 개의 교회를 이루게 되니 말이다. 그렇게 해서 살펴본바 모든 교회의 숫자는 육억이 되는 것이며, 십사만사천을 포함하면 육억십사만사천이 되는데, 이 중 마지막열매때에 선지자들과 사도들과 초대교회 순교성도들이 모두 같이 일어날 것으로 보인다.

이 유프라데스강에 묶여있던 네 천사나, 요한이 환상중에 봤다는 말을 탄 자들이 누구이겠는가 하는 것은 이미 알아본바 있다. 다시 한번 확인해 보시라, 그들은 사람으로는 보이지 않는

것이다. 무엇인가 풍기는 면모가 남다른 것을 보니 영적인 것이 아닌가 싶다. 바로 이들이 앞에서 언급했었던 창세기6장의 네피림을 낳았던 하나님의 아들들이라 불리던 타락한 천사들인 것이다.

그들의 입에서 나오는 불과 연기와 유황으로 말미암아 사람들의 삼분의 일이 죽더라. 불과 연기와 유황을 내는 이것을 탱크나 장갑차로 분별하시는 분들도 있는 걸 봤다. 그것은 좀 심했다는 생각이 든다. 아무렴 하나님께서 그런 것들을 표현하셨겠는가, 그러나 그럼에도 사탄 측인 세계정부에서는 그점을 이용해 세가지 환상적인 색깔을 입힌 탱크를 만들어 내놓을 것이다, 화염방사기도 달 것이며, 따라서 연기도 나오게 될 것이고, 유황을 담은 폭탄도 장착하게 될 것이다. 베리칩을 666처럼 보이게 만들고 성도들로 하여금 그리 믿게 하는 것을 보면 말이다. 얘기가 잠깐 다른 데로 샀다. 개인적인 분별로는 이 타락한 천사들이 나서서 대환란을 주도하게 될 것이고, 그들이 어느 시점 물러간 이후에 거짓선지자가 올라 오므로 짐승경배 사건이 일어날 것으로 분별하고 있다. 그러나 아직 그것에 대한 분별을 주지 않으므로 정확하지 않고, 또 대환란이 어떤식으로 이루어지고 실현될지도 미지수이다. 실체를 알 수 없는 환란, 그래서 대환란이 더욱 두려워지는 것이다.

## 24. Last계시록해석의 비밀(세가지 시기중 오류발견하시는 분께 천만원증정)

이 계시록의 시기를 의심하는 분들에게 이 상급에 대한 약속을 한다. 확인하지도 않고 비난하지만 말고 틀리다는 것을 증명해서 보이시기 바란다. 그러면 상급 천만원을 드리고 이 모든 글들을 지우고 이것에 대한 것을 아시는 모든 성도앞에 사죄하겠다.

계시록해석의 비밀 (하나님께서 사용하신 규칙)

1. 한때와 두 때와 반때는 항상 전삼년반을 표현하는데 사용했고 성도들이 주격(주어)일때 사용되었다.
2. 마흔두달은 성도를 대적하는쪽의 기간이고 후삼년반에 사용하셨으며, 사탄이나 짐승, 이방인들이 주격(주어)일 때 사용되었다.

\* 따라서 후삼년반에는 한 때와 두때와 반때란 말이 사용될 수 없고, 전 삼년반에는 마흔두달이란 말이 사용될 수 없다. 이걸 철칙이며 다니엘서를 포함한다.

3. 한 이레는 적그리스도에게만 사용되었다. 7년의 기간을 의미한다.
4. 한 시간은 열왕의 기간을 표현할 때만 사용되었다. 역시 7년의 기간이다.
5. 사흘반은 삼년반이고 두 증인이 죽은기간으로만 사용되었으며 후삼년반을 뜻한다.
6. 많은 오해를 불러 일으키고 있는 1,260일은 전삼년반이나 후삼년반이 될 수 없다. 이 기간은 12장의 여인에게도 사용되었고, 11장의 두 증인에게도 사용되었다. 일천이백육십일의 여인과 일천이백육십일의 두 증인은 같은 신분이며, 주님의 지체된 교회로 봐야 한다. 그러나 이후에 해를 입은 여인(이스라엘)은 교회로 화하게 되고 (이것은 구약과 신약의 복음의 원리를 이해해야 한다).한 때와 두때와 반 때의 성도(교회)가 되며, 여인의 남은 자들인 두 증인은 사흘반 (후삼년반) 동안 죽는 성도(교회)로 다른 길을 걷게 된다.

이것은 주님께서 일곱교회에 주시는 말씀가운데 이기는 자에게 주시겠다고 했던 각각의 주님의 약속으로 교회마다 구원되는 시기와 방법과 상급이 다름을 알려주는 것이다. 그 상급은 말미에 따로 올리기로 하겠다.

가장 많은 오해를 일으키고 있는 11장의 일천이백육십일의 두 증인이 놀라운 능력을 가진 것은 하나님께서 그들과 함께 하신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지 결코 이들이 그런 능력을 갖고 휘두르고 있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고 누누이 강조했다. 아무도 이 두 증인으로 표현된 교회

를 멸할 수 없다는 뜻인 것이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이들과 함께 하시기 때문이다. 이렇게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명맥을 유지하는 교회는 일천이백육십일의 여인에게서도 볼 수 있는 능력으로 거기서는 하나님의 예비하신 처소로 표현되었으며 그녀를 먹이게 하려 하심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다. 표현만 다를 뿐 의미하는 것은 같다.

그 후에 한 때와 두 때와 반때의 시기에 - 규칙에 의하면 전 삼년반- 여인은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는다. 이 시기에 용은 여인을 핍박하기만 할 뿐(다니엘서7장25절에는 지극히 높으신이의 성도들을 지치게한다라는 것으로 표현되어 있다) 여인을 죽이지는 못한다. 그것도 역시 하나님의 도우심 때문에 (땅이 입을 벌려 물을 삼키는 이적- 상징) 그들을 죽일 수 없음을 뜻한다. 곧 이것은 다섯 번째 나팔이-곧 전 삼년반- 불릴 때와 동일한 상황으로 다섯달동안 괴롭히기만 할 수 있을 뿐 죽이지는 못한다는 것과 똑같은 결과인 것이다, 따라서 인맞은 십사만사천은 한 때와 두 때와 반때의 이 여자와 동일한 성도이며 교회이고, 곧 환란에서 지켜주신다고 하셨던 빌라델비아교회를 지칭하는 것이다. 그리고 이후 사탄과 전쟁을 하게 되는 남겨진 여자의 남은 자들, 곧 두 증인은 서머나교회와 버가모교회로 분별이 된다. 왜냐하면 두 교회 모두 순교자를 배출했기 때문이다. 하나님께서는 아시아의 일곱교회에 이런 비밀을 숨겨 놓으신 것이고 때가 되어 드러내시고 계신 것이다.

많은 사람들의 주장대로 이 일천이백육십일이 후삼년반이라면 그 뒤에 한 때와 두 때와 반때는 어디로 가야 하는가? 그렇게 되면 환란기간이 10년반이 된다. 이는 시기를 계산하지 않고 해석을 했다는 얘기가, 그렇다고 이 일천이백육십일을 전삼년반으로 보내면 그럼 앞에 부분에 여섯나팔까지의 재앙은 어디로 가야 하는가? 역시 앞으로 밀리면 10년반의 동일한 결과를 도출한다. 왜 이런 결과가 나오느냐면 모든 것을 다 칠년안에 넣으려고 하니 시기조절이 안 되는 것이다.

그렇다면 규칙대로 이렇게 풀이하는 해석이 맞는지 확인을 해보자. 계시록 11장의 1절과 2절이다. 다른 부분들은 앞선 글들에 많이 있으므로 이장과 절을 택했다.

(1) 또 내게 지팡이 같은 갈대를 주며 말하기를 일어나서 하나님의 성전과 제단과 그 안에서 경배하는 자들을 척량하되

(2) 성전 밖 마당은 척량하지 말고 그냥 두라 이것을 이방인에게 주었은즉 저희가 거룩한 성을 마흔 두 달 동안 짓밟으리라

2절에 마흔 두 달은 짐승이나 이방인의 기간이며 동시에 후삼년반이 공식이라고 얘기를 했으니 틀림이 없고, 그렇다면 1절에 하나님의 성전과 제단과 그 안에서 경배하는 자들을 척량하는것은 전 삼년반을 의미하는 것이겠다. 즉 한때와 두때와 반때를 뜻하는 것이니. 이 경배하는 자들의 측량은 하나님의 인맞은 십사만사천을 의미하는 것이고 아울러 한때와 두때와 반때의 여인임도 자연적으로 알 수 있게 되는 것이다.

또 다니엘 7장이다.

(25) 그가 지극히 높으신 분을 대항하여 큰 말을 하며, 또 지극히 높으신 분의 성도들을 지치게 할 것이고, 또 때와 법을 변경시키려고 생각할 것이다. 그들은 그의 손에 주어져서 한 때와 두 때와 반 때를 지내리라.

여기 이곳에도 주어가 그들이다. 이 그들은 성도를 얘기한다. 그러므로 한때와 두때와 반때를 사용했고, 이 기간인 전삼년반동안 다섯째 나팔인 9장에서 보았듯이 죽이지는 못하고 지치게 한다라고만 표현한 것이다. 전삼년반도 환란의 기간이긴 하지만 본격적인 마수를 드러내지는 못함을 볼 수 있다. 본격적인 환란은 역시 후삼년반이다. 이 표현은 계시록 7장에 대환란이란 말로 기록되어져 있다.

...

(14) 내가 그에게 말씀드리를 "주여, 당신이 아시나이다." 하니 그가 내게 말하기를 "이들은 대환란에서 나온 사람들이며 자기들의 옷을 씻어 어린 양의 피로 희게 하였느니라.

이 대환란에서 나오는 자들은 바로 11장의 두증인이다. 목숨을 바쳐 용과 전쟁을 한, 그래서 그에게 죽임을 당해 사흘반동안 죽어있던 하나님의 증언을 간직한 신실한 증인들인 것이다. 또 이들은 6장에 다섯 번째 봉인이 떼어졌을 때, 원수를 갚아달라고 신원을 했던, 하나님의 말씀과 자기들이 간직한 그 증언으로 인해 죽임을 당한, 유리바다앞의 그 흔들이기도 하다. 그나저나 전쟁(사탄의 발악)의 고통이 얼마나 심했었으면 하나님의 보좌앞에서 주님께 원수를 빨리 갚아달라고 하는 걸까, 그야말로 아비규환이 아닐까 싶다.

규칙 확인차 두가지만 더하자, 이번에는계시록13장 5절을 보도록하자.

(5) 그 짐승이 큰 일들과 모독하는 말을 하는 입을 받았으며 또 마흔 두 달 동안 지속할 권세를 받았더라.

(5) And there was given unto him a mouth speaking great things and blasphemies; and power was given unto him to continue forty [and] two months.

이 짐승은 적그리스도이다. 그러니 한 이레동안의 활동을 하기는 하는데 첫 삼년반에 대한 언급은 없다. 왜냐하면 그 때는 성도의 기간인 한때와 두때와 반때의 시기이기 때문이다. 그렇다고 그가 전삼년반동안 활동을 안하는것은 아니다. 다만 그때는 성도들이 주격이되는 기간이기에 그의 활동을 서술안하는것 뿐인 것이다. 그리고 이후 후삼년반이 마흔두달로 표기되었고 전삼년반에 이어 지속된다고 기록한 것이다. 따라서 그의 활동기간은 전삼년반과 후삼년반의 마흔두달, 총7년인 한 이레가 되는 것이다.

이제 한 시간이란 표현을 살펴보자,

17장

...

(12) 또 네가 본 그 열 뿔은 열 왕이라. 아직 왕국을 받지는 못하였으나 그 짐승과 더불어 한 시간 동안 왕들로서의 권세를 받으리라.

짐승과 더불어 한 시간 동안 권력을 받으므로 짐승과 거의 동시에 나옴을 알 수 있다. 그 이후에는 주님재림이후 멸망이 기다리고 있으니 더 이상 권세를 유지할 수도 없다. 이렇듯 적그리스도는 한이레, 그리고 세계정부주의자들인 열왕에게는 한 시간을 사용함으로써 하나님께서 어떤 규칙을 펴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그런데 이렇게 깨달아 알 수 있게 된 것은 성경을 최소 5가지는 보고 이리저리 살펴봐야 알 수가 있다. 해석이 각각이기 때문에 이글을 확인하시려면 최소 개역성경, 킹제임스한글, 킹제임스흠정, 킹제임스영문판, 개역영문판정도는 가지고 있어야 한다. 이렇듯 사탄은 우리가 올바르게 해석하기를 싫어한다. 그 바람에 헛갈리고 어려워하는 분들이 많은 것이다.

이제 약속했던 각 교회들에 이기는 자들에게 주마고 약속했던 주님의 약속을 올린다.

(1) **에베소 교회의 천사에게 편지하라.** 오른손에 일곱 별을 가지고 일곱 금촛대 사이를 거니시는 분께서 이 일들을 말씀하시느니라.

(7) 귀 있는 자는 성령께서 교회들에게 말씀하시는 것을 들을지어다. 이기는 자에게는 내가 하나님의 낙원 가운데 있는 생명 나무를 주어서 먹게 하리라.

(8) **스머나 교회의 천사에게 편지하라.** 처음과 마지막이요, 죽었으나 살아 계신 분이 이 일들을 말씀하시느니라.

(11) 귀 있는 자는 성령께서 교회들에게 말씀하시는 것을 들을지어다. 이기는 자는 둘째 사망으로부터 해를 받지 아니하리라.

(12) **피가모 교회의 천사에게 편지하라.** 날카로운 양날 가진 칼을 가지신 분이 이 일들을 말씀하시느니라.

(17) 귀 있는 자는 성령께서 교회들에게 말씀하시는 것을 들을지어다. 이기는 자에게는 내가 감추어진 만나를 주어서 먹게 하리라. 또 그에게 흰 돌을 주리니, 그 돌에는 새로운 이름이 기록되어서 그것을 받는 자 외에는 아는 사람이 없으리라. (이스라엘 각 지파에 속하는 새로운 이름이다, 따라서 십사만사천은 유대인만을 의미하지 않는다는 뜻이기도 하다.)

(18) **두아티라 교회의 천사에게 편지하라.** 그의 눈은 불꽃 같고 그의 발은 빛나는 놋 같은 하나님의 아들이 이 일들을 말씀하시느니라.

(24) 그러나 내가 너희와 두아티라에 나머지 사람들, 즉 이 교리를 받지 아니하고 그들이 말하는 사탄의 깊은 것들을 알지 못하는 많은 자에게 말하노니, 내가 어떠한 짐도 너희에게 지우지 아니하겠노라.

(25) 그러나 너희가 이미 가진 것을 내가 올 때까지 굳게 잡고 있으라.

(26) 이기고 나의 일들을 끝까지 지키는 자에게는 내가 민족들을 다스리는 권세를 줄 것이요

(27) 그가 철장으로 그들을 다스리리니, 그들이 질그릇같이 산산조각으로 부서지리라. 나도 내 아버지께로부터 받은 것이 그러하니라.

(28) 또 내가 그에게 새벽별을 주리라.( 이 새벽별은 주님을 의미한다, 주님을 소유하면 모든 것의 주인인 것이나 마찬가지다. 곧 그분의 아들이 된다는 것이다)

(1) **사데 교회의 천사에게 편지하라.** 하나님의 일곱 영과 일곱 별을 가지신 분이 이 일들을 말씀하시느니라. 내가 네 행위를 아나니 네가 살아 있다는 이름은 가졌으나 죽었느니라.

(5) 이기는 자는 흰 옷을 입을 것이요, 내가 그의 이름을 생명의 책에서 결코 지우지 아니할 것이며, 또 그의 이름을 내 아버지 앞과 그의 천사들 앞에서 시인할 것이니라.

(7) **필라델피아 교회의 천사에게 편지하라.** 거룩하신 분, 진실하신 분, 다윗의 열쇠를 가지신 분, 열면 아무도 닫을 수 없고 또 닫으면 아무도 열 수 없는 분께서 이 일들을 말씀하시느니라.

(10) 네가 나의 인내의 말을 지켰기 때문에 나도 시험의 때에 너를 지키리니, 이는 온 세상에 임하여 땅 위에 사는 사람들을 시험하는 때라.

(11)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네가 가진 것을 굳게 붙들어서 아무도 너의 면류관을 빼앗지 못하게 하라.

(12) 이기는 자는 내가 내 하나님의 성전에 기둥으로 삼으리니, 그가 결코 다시 나가지 아니하리라. 또 내가 그 사람 위에 내 하나님의 이름과 내 하나님의 도성의 이름, 즉 내 하나님으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는 새 예루살렘을 기록하고, 또 나의 새 이름도 그 사람 위에 기록하리라.

(14) **라오디케아인들의 교회의 천사에게 편지하라.** 아멘이시요 신실하고 진실한 증인이시며, 하나님의 창조를 시작하신 분이 이 일들을 말씀하시느니라.

(21) 이기는 자에게는 내가 내 보좌에 나와 함께 앉을 자격을 주리니, 이는 내가 이겨서 내 아버지와 함께 그의 보좌에 앉은 것과 같으리라.

## 결론

이렇듯 이런식으로 시기를 판별해서 알아낸 것이 바로 이 결론이었던 거다.

**첫 번째 열매**- 한때와 두때와 반때의 여인, 그리고 두증인, 빌라델비아교회 (전삼년반끝무렵에 들림) 십사만사천명

**두 번째 열매**- 두 증인(순교자), 최초순교, 버가모, 라오디게아교회. 이역명 uc0 uc0 uc0 uc0 uc0 uc0 uc0 uc0 uc0 uc0 uc0 uc0 uc0 uc0 uc0 후삼년기간 중에 에베소, 서머나 교회 (후삼년반끝무렵 승천). 이역명

**세 번째 열매**- 마지막남은성도, 사데, 두아디라교회 주님재림시 휴거. 이역명

이상 첫 부활에 참여하는 자들이다. 어디에 속할 것인지는 본인에게 달려있다. 사실 어디에 속 하던 모두 영광스러운 성도들인 것만은 틀림없다. 바로 이들이 천년왕국의 왕이며 제사장이며 통치자가 될 것이다. 이들에겐 둘째 사망도 없다. 천년왕국은 물론 새하늘과 새땅인 하나님께로부터 내려오는 예루살렘성에 들어갈 수 있는 자격까지 주어지게 된다. 또 이들에겐 앞서 말한 일곱교회에 주어지는 축복도 모두 주어진다. 그들은 하나님의 아들이라 불릴 것이다.

### 24-1. 오류를 발견했다는 여러 반론들

이하의 반론은 오류를 발견하신 분들의 글입니다. 그에 대한 대답을 같이 올리니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반론.**

이 글은 오류로 시작하여 모든 것을 풀어가고 있습니다.

우선 쉬운 것부터 지적합니다. 마흔 두달(계 13:5)은 짐승이 권세를 받은 기간입니다. 그 짐승 이 바다로부터(바다는 세상열국- 17:1, 15) 올라와서 성도들과 싸워 이긴 다음 진행되는 기간입니다. 따라서 환난의 시작에 주어진 기간입니다. 따라서 그것은 전삼년반입니다. 후삼년부터 있는 다음에 전3년반이 나중에 있습니까?

다음, 다시 사흘반이라는 말은 11장 9절에 나오며, 그것은 11장 7절에서 짐승이 무저갱에서 올라와 두 증인과 싸워 이긴다음에 진행되는 기간입니다. 따라서 그것도 전 3년반입니다. 42 개월과 3일반은 동일 기간입니다. 성도들과 짐승이 싸워이긴 이후에 진행되는 기간입니다.

**답변.**

계시록 13장 5절에 대한 글은 제가 앞에 올려놓았습니다. 마흔두달의 권세를 받았다고 하지 않고, 지속하는 권세를 받았다는 것이 그것입니다. 지속하는 권세라는 것은 그 앞에 전삼년반 기간부터 활동하고 있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쉽게 말하자면 재선됐다는 뜻입니다. 그가 전삼년반이 끝나고 마흔 두달을 이어받는 권세를 받기에 그 시기의 표현이 그렇다고 했던 것입니다. 13장 1절에서 4절까지는 전삼년반의 기간이고, 그 이후 마흔두달동안 활동할 권세를 또 받는다는 것입니다.

(5) The beast was given a mouth to utter proud words and blasphemies and to exercise his authority for forty-two months. -NIV

(5) And there was given unto him a mouth speaking great things and blasphemies; and power was given unto him to **continue** forty [and] two months. KJV

저는 킹제임스를 조금 신뢰하는 편입니다. 혹시라도 헬라어는 사용하지 마십시오. 여기서 헬라어를 들이미는 것은 아무소용이 없습니다. 변개하려고 마음 먹는다면 저들이 헬라어는 변

역시키지 못하겠습니까? 또 1,000년 이전에 기록된 헬라이어성경의 뜻이 지금과 동일할지도 없구요, 우리말들도 30년이 지나면 동일하지만 다른 뜻으로 사용하는 말들도 있고 잘 사용하지 않는 말들도 있지 않습니까? 예를 들면 삼십년전에는 예배당가자고 했지 교회가자고 하지 않았었습니다. 더욱 결정적인 것은 저는 한가지 믿음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런것조차 보 존못하신다면 하나님되심을 포기하시는 거라고 생각한다는 것이죠, 물론 찾으려고 하는 저 같은 자에게는 말이죠. 이 오류를 발견하기까지 돌아온 시간이 너무 아까워서 다른 분들은 그러지 않았으면 하는 바람에 한 번 적어봅니다.

11장7절의 짐승이 무저갱에서 올라오는 장면은 12장의 용(짐승)이 더 이상 한때와 두때와 반때의 (전삼년반) 여인과 싸울 수 없기에 그 남은 자들, 즉 후삼년반시작에 여인의 남은자인 두 증인과의 전쟁에 승리했다는 것을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서의 포인트는 11장3절이하와 12장의 6장이하는 거의 같은 시기인 교회의 시작으로 봐도 틀림없다는 점입니다. 그래서 11장과 12장은 떨어질 수 없는 조합입니다.

또 계시록 10장의 예수그리스도께서 -이 천사는 예수그리스도입니다.- 말씀하시는 것이 어지는데 10장과 연결된 부분인 11장2절까지는 후삼년반까지 말씀하시는 것이고 3절부터 말씀하시는 부분은 다시 과거로 되돌아가서 교회의 태동부터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이것의 증명은 12장의 여인이 두 증인과 같은 기간인 일천이백육십일을 양육받는다는 것으로 드러 납니다. 이것이 계시록의 특성이기도하다고 합니다. 제가 계시록을 공부하다보니 그런식으로 모두 계시록이 이루어져 있음도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계시록은 소설책 읽듯이 스웁스웁 읽 어나갈 수 있는 쉬운 책이 아니라는 것은 제가 언급하지 않아도 누구나 알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11장 3절의 시작기간은 예수그리스도이후 교회시대인 1,260일이고, 두 증인이 증거를 마치는 시간은 전삼년반이고, 죽음을 당하는 시기는 후삼년반시작지점인 것입니다. 이 전삼년반 끝무렵-후삼년반시작- 전쟁때는 144,000에 속하는 교회도 있고 순교하는 교회도 있습니다. 또 이 두증인과의 전쟁은, 여섯째나팔에 나오는 이역의 군대와 치루게 될 것이라고 봅니다.

계시록 9장 - 이 9장15절이하의 후삼년반기간입니다.

...

(15) 그 네 천사가 풀려나더라. 그들은 사람들 삼분의 일을 죽이려고 그 연, 월, 일, 시를 위하여 예비해 둔 자들이라.

보시면 아시겠지만 년,월도 아니고 일, 시까지 기록해 놓으셨습니다. 이것은 두증인의 명단이 그들에게 있거나, 정보를 이미 모두 보유하고 있다는 것을 가리킨다고 볼 수도 있겠습니다. 또 이 때부터 두증인이 순교를 시작하는 것으로 볼 수도 있습니다. 정확하진 않지만 이 이역의 군대는 거짓선지자때 짐승의 경배하라고 할 때도 힘을 발휘하지 않을까하고 분별하고 있습니다.

또 우리가 오해하기 쉬운 것은 12장 마지막절인 17절과 13장 1절이 서로 연결되어 있는 듯이 보인다는 것입니다. -개역성경은 그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아주 나쁜).- 그러나 그런 것이 아니고 12장17절에 용이 전쟁하려고 나오는 시기는 후삼년반시작이고, 13장 1절은 전삼년반시작이라는 것입니다. 12장17절에 한 때와 두때와 반때의 시작 기간이 13장의 바다에서 짐승이 올라오는 시간과 동일한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12장17절의 한때와 두때와 반때의 시작시간과 용이 올라오는 13장1절은 같은 전삼년반인 것입니다.

이 두증인은 후삼년반(사흘반,마흔두달)시작에 죽습니다. 그리고 거짓선지자가 올라오는 것도 후삼년반입니다. 이 때는 적그리스도와 거짓선지자가 함께 활동을 하게 될 것입니다. 적그리스도는 한이레동안 꾸준히 권세를 가지고 있는 것이고, (전삼년반은 당연히, 그리고 후삼년반은 지속적으로) 또 거짓선지자는 후삼년반에 그를 도와 환란을 주도하게 되는 것입니다.

다른 관점에서 보면 12장 17절의 용이 예수의 증거를 가진 자들과 전쟁을 하려고 나가는 시점입니다. 이 시점이 바로 후삼년반인 것이며, 전삼년반에는 한때와 두때와 반때의 여인을 흥

수에 떠내려가게 하려 했으나 실패했던 것입니다. 이 여인은 십사만사천입니다. 또 그 실패의 원인은 여인이 들림받았기에 더이상 싸울수도 또 발견할 수도 없기 때문입니다. 이들은 시온 산에 있게 되니까요, 이 시온산이 하나님의 보좌앞을 얘기하는 것은 주지의 사실입니다. (14 장 1절이하)

전삼년반의 시기는 두 증인과, 한때와 두때와 반때의 여인이 공존하는 시기입니다. 전삼년반이라는 얘기대로 맞습니다. 그러나 같은 교회였던 여인과 두 증인은 한때와 두때와 반때와 사흘반으로 갈라진다고 설명했습니다. 교회는 꾸준히 흘러옵니다. 그러나 7년환란기에 여인은 144,000으로 전삼년반 끝에 들림을 받아 시온산에 있게 되고, 두 증인은 남아 용과 전쟁을 함으로 순교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 이후 순교자인 두증인은 후삼년끝에 승천하게 되는 것이구요, 그래서 그가 죽는 기간이 사흘반입니다. 이 때는 일곱 번째나팔, 즉 주님의 일곱진노가 쏟아지기 전이며 또 11장14절에 두 번째화라고 했으므로 후삼년기간이 맞습니다. 짐승의 기간인 마흔두달이기도 하구요.

### 반론.

전 3년반, 후 3년반 구분이 결코 용이하지는 않은데....저는 7년 환란의 중간시점을 짐승이 나타나는 시기(시점)로 잡습니다. 이렇게 기준을 잡아놓아야 전체의 틀이 흔들리지 않습니다.. 그 짐승이 계 11:7에 처음 나타납니다..그 다음 계 13:1에 좀 더 구체적으로 모습을 드러냅니다..짐승이 나타나기 전의 기간이 전 3년 반인데 바로 11장의 두 증인이 활동하는 기간입니다..두 증인이 활동하던 기간은 비교적 온화한 환란기라고 생각합니다..이 짐승이 바로 살후 2:3의 불법의 사람, 멸망의 아들입니다..이자는 하나님 성전에 앉아 자기를 보여 하나님이라고 합니다. 이 적그리스도가 바로 단 7:25의 그,,입니다..그리고 이자가 또한 단 9:27의 그,,라고 생각합니다..따라서 저는 다니엘서의 한 때 두 때 반 때는 후 3년 반으로 분별하고 있습니다..이 상황이 마 24:15에 다시 나타납니다..이 짐승이 전3년 반이 끝나는 시점에서 자신을 드러내는(reveal, KJV) 것입니다..저는 일단 큰 흐름을 이렇게 잡아놓고 세부적인 것을 살펴 봅니다. 우선 이것부터 찬찬히 살펴보시기 바랍니다..저는 98%정도의 확신을 가지고 있습니다..이것은 제가 연구(?)한 것입니다..누가 또 이런 견해를 가지고 계시는지 모르겠네요.

### 답변.

감사합니다. 찬찬히 살펴보다가 올립니다.  
그럼 제가 그렇게 볼 수 없었던 이유도 한번 올려보겠습니다.

다니엘 9장에 보면

...  
(27) 그가 많은 사람들과 더불어 한 주(이레) 동안 언약을 확정하고 그 주의 중간에 그가 희생제와 예물을 금지시킬 것이요, 그는 가증함을 확산시킴으로 황폐케 하리니 진멸할 때까지 할 것이며, 정해진 것이 황폐케 한 자에게 쏟아지리라." 하더라.

일단 7년환란의 중간시점을 짐승이 나타나는 시기로 잡게되면 한이레동안의 언약을 잡고 나고 나와 있는 이 구절말씀이 오류가 되어 버립니다. 이레의 중간에 한이레동안의 언약을 확정한다면 환란기간이 10년반이 되어버립니다.

또 계시록 17장에

...  
(12) 또 네가 본 그 열 빨은 열 왕이라. 아직 왕국을 받지는 못하였으나 그 짐승과 더불어 한 시간 동안 왕들로서의 권세를 받으리라.

이 말씀 역시 오류가 되어 버립니다. 왕들이 권세를 받는데 짐승과 더불어라고 합니다. 이 한 시간은 7년이므로 역시 또 그렇습니다.

말씀하신

“짐승이 나타나기 전의 기간이 전 3년 반인데 바로 11장의 두 증인이 활동하는 기간입니다..

두 증인이 활동하던 기간은 비교적 온화한 환란기라고 생각합니다”

이 말씀은 정확하다고 봅니다. 이 때는 절대로 짐승이 죽일 수 없고 괴롭게하거나 지치게만 할 수 있습니다. 바로 다니엘7장의 말씀입니다.

(25) 그가 장차 말로 지극히 높으신 자를 대적하며 또 **지극히 높으신 자의 성도를 괴롭게 할 것이며** 그가 또 때와 법을 변개코자 할 것이며 성도는 그의 손에 붙인 바 되어 한 때와 두 때와 반 때를 지내리라 -개역

(25) 그가 지극히 높으신 분을 대항하여 큰 말을 하며, 또 **지극히 높으신 분의 성도들을 지치게 할 것이고**, 또 때와 법을 변경시키려고 생각할 것이다. 그들은 그의 손에 주어져서 한 때와 두 때와 반 때를 지내리라.-킹제임스

이렇듯 성경이 증명하니 사실일겁니다.

그리고 두 증인이 전삼년반의 온화한 시기에 활동하는 것의 말씀은 동의합니다. 그런데 아마도 제 생각에 넘겨서 오해하시는 부분이 뭐냐면 그들이 바로 짐승의 활동으로 후삼년반에 죽게 된다는 것 때문일 것입니다. 이 두 증인은 한때와 두때와 반때의 여인과 같이 비교적 온화한 시기에 같이 사역을 합니다. 그리고나서 한때와 두때와 반때의 여인(십사만사천)은 들림받아 시온산에 있게 되고 여인의 남은 자인 이 두 증인은 (계 12장17절 ) 짐승과 전쟁을 벌이게 되어 순교하게 되는 것입니다.

계시록13장

...

(7) 그가 성도들과 싸워 그들을 이기는 권세를 받았으며 모든 족속과 언어와 민족을 다스리는 권세를 받았더라.

이렇듯 두증인이 사역하는 기간은 전삼년반이며, 순교하는 시작시간이 후삼년반시작인 것입니다. 그런데 왜 짐승은 성도들을 전삼년반에는 죽이지 못했을까요, 그 구절은 계시록8장입니다. 한번 보겠습니다. 이 다섯 번째 나팔은 전삼년반기간입니다.

(4) 그들에게 명령이 내려지기를 땅의 풀이나 또 어떤 푸른 것이나 어떤 나무도 해치지 말고 다만 **그들의 이마에 하나님의 인장으로 표시 받지 아니한 사람들만 해치라고 하더라.**

바로 이 명령때문입니다. 또 이 명령에는 많은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앞서봤던 단7장25절에 상응하는 명령일 수도 있고,(성도들을 괴롭게 한다는...) 또 계시록 7장에서 나타나는 인맞은 십사만사천을 뜻하는 등, 내포한 의미가 심오한 뜻을 가지고 있는 구절입니다. 사실 이 다섯 번째 나팔을 전삼년반으로 분별한것은 바로 이 구절 때문이기도 했습니다. 잠깐 언급하자면 계시록 7장에

...

(3) 말하기를 "**우리가 우리 하나님의 종들인 그들의 이마에 인장으로 표시할 때까지** 땅이나 바다나 또는 나무들을 손상시키지 말라."고 하더라.

이 때는 아직 인 맞지 않은 때입니다. 그런데 8장4절은 이미 인을 맞은 상태입니다. 그리고 나서 여섯 번째 나팔이 불리고 이역의 군사가 나타납니다. 이것들이 자그만치 사람들을 삼분의 일을 죽입니다. 엄청난 환란이 아니라 할 수 없습니다. 넘겨서도 주지하고 있다시피 전삼년반은 비교적 온화한 환란기라고 얘기합니다. 그런데 주님께서서는 마태복음에 그 환란은 이 땅에 다시 없을 환란이라고 하셨습니다.

마태복음24장

...

(21) 이는 그 때에 **큰 환란이 있겠음이라 창세로부터 지금까지 이런 환란이 없었고 후에도 없**

## 우리라

그렇다면 이 전삼년반은 대환란기가 아니라는 것이 확실합니다. 바로 후삼년반이 대환란기간이 되겠지요. 그런데 주님께서 이미 2,600년전에 다니엘에게 말씀하셨듯이 죽이지는 못하고 괴롭게 하리라고 하십니다. 따라서 이걸 대환란이라고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알다시피 이 큰 환란은 이역의 군사로 사람 삼분의 일이 죽는 후삼년반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후삼년반의 앞은 당연히 전 삼년반이겠지요. 그런데 사실 이것뿐만이 아니고 이 기간을 전삼년반으로 분별하는 결정적인 또 하나의 증거가 있습니다. 넷째나팔까지의 재앙에서는 어떤 실체가 드러나지 않다가 다섯째 나팔 때 하늘에서 떨어지는 별이라는 실체가 드러납니다. 이 별은 천사를 얘기하는데 무저갱의 천사를 얘기합니다. 이 별은 12장의 하늘의 전쟁에서 패하게 되는 별인데, 바로 용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이 용이 하늘의 전쟁에서 패해 자기 때가 얼마 남지 않음을 알고, 땅으로 떨어져서 바로 그때에 자신의 권세를 짐승에게 주는 것입니다. 이것을 표현한 장이 9장의 1절과 13장의 4절인 것입니다. 얘기가 너무 왔다갔다해서 다른분들도 이해가 되고 있으실래나 모르겠습니다. 제가 표현력이 부족해서....

### 반론.

짐승이 바로 살후 2:3의 불법의 사람, 멸망의 아들입니다..이자는 하나님 성전에 앉아 자기를 보여 하나님이라고 합니다. 이 적그리스도가 바로 단 7:25의 그,,입니다..그리고 이자가 또한 단 9:27의 그,,라고 생각합니다..따라서 저는 다니엘서의 한 때 두 때 반 때는 후 3년 반으로 분별하고 있습니다..이 상황이 마 24:15에 다시 나타납니다..이 짐승이 전3년 반이 끝나는 시점에서 자신을 드러내는(reveal, KJV) 것입니다

### 답변.

이 말씀들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나누고 싶어 다시 이리로 가져 왔습니다. 빨간색글씨 위의 부분들에 대해서는 대체적으로 저도 같은 입장입니다. 그런데 다니엘서의 한때 두때 반때가 후삼년반이라고 하신다면, 역시 신실하신 하나님께서는 계시록에서도 그 때를 후삼년반으로 사용하심으로 하나님이신 그 분의 흠없음을 증명하셨을 것입니다. 다니엘서에는 후삼년반으로 사용하시고, 계시록에서는 전삼년반으로 사용하신다면 신실하지 않습니다. 한때와 두때와 반때가 전삼년반임을 증명하는 글은 앞에 너무 많습니다.

그러나 다른 구절을 한번 찾아서 보겠습니다.

### 다니엘12장

....

(7) 내가 들은즉 그 세마포 옷을 입고 강물 위에 있는 자가 그 좌우 손을 들어 하늘을 향하여 영생하시는 자를 가리켜 맹세하여 가로되 만드시 한때 두때 반때를 지나서 **성도의 권세가 다 깨어지기까지니 그렇게 되면 이 모든 일이 다 끝나리라 하더라**

(7) 내가 들으니 강물 위에 있던 세마포를 입은 사람이 그의 오른손과 그의 왼손을 하늘로 들어올리고 영원히 사시는 분으로 맹세하기를 "한 때와 두 때와 반 때가 되리니, **그가 거룩한 백성의 권세를 흠어 버리는 것을 마치게 되면 이 모든 일이 끝나게 되리라.**" 하더라.

성도의 권세가 다 깨어지는 시간은 언제이겠습니까, 바로 성도들이 가장 핍박을 받는 후 삼년 반입니다. 이 기간은 마흔두달의 짐승이 최악의 발악을 하는 때이기도 하고 두중인이 사흘반 동안 죽어있는 기간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 앞에 한때와 두때와 반때가 있습니다. 이 때는 우리가 앞서서도 알아봤지만 온화한 때입니다. 이 때를 지나서, 즉 한때와 두때와 반때를 지나서, 마흔두달기간인 후삼년반의 시기에 성도의 권세가 깨어지는 것입니다. 한때와 두때와 반때이후에 마흔두달이라고 하지 않은 것은 가리워져서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분별을 하기 어려운 것이기도 합니다.

반론.

계 11:7과 13:1의 짐승은 적그리스도로서 짐승 자신의 본연의 모습을 드러내는(reveal) 것입니다. 살후 2:3과 6을 보십시오. 거기에 보면, 멸망의 아들이 나타난다, 저로 하여금 저의 때에 나타나게 하려 한다, 는 표현이 있는데 이것은 없던 자 갑자기 하늘에서 떨어지는 것이 아니고 (외계인같이~ㅎ), 숨겨두었던 자기 자신 본연의 모습을 있는 그대로 드러낸다, 라는 의미입니다. KJV에는 이것이 reveal로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홈정역과 한킹을 참조하여 보시기 바랍니다. 나타나다(개역)와 드러내다(reveal, KJV)는 뉘앙스가 좀 다릅니다. 단 9:27의 그, 라는 자는 26절의 한 왕을 지칭한다고 생각합니다. 한 왕은 로마의 황제로 KJV 에는 소문자로 시작하는 prince로 표현되어 있습니다. 바로 위의 25절에도 왕이 나오는데 이것은 대문자 Prince로 표현되어 있습니다. 이 대문자 Prince는 메시아이신 예수님입니다. 계13:1의 이 짐승은 열뿔, 일곱 머리, 열 면류관을 쓰고 있습니다. 이 자는 말세에 나타날 거짓 그리스도 중의 하나입니다(마 24:24). 예수님과 말세의 적그리스도는 분간이 쉽지 않습니다. 적그리스도는 칠년 환난 시작점에서 피스 메이커(peace maker)로 타나날 가능성이 농후합니다. 사탄도 광명의 천사로 나타나는 것입니다.(고후 11:14).

한이레의 시작점에 불법의 비밀이 이미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살후 2:7). 그러나 그 자(피스 메이커)가, 본연의 모습을 드러내며(reveal) 이미 맺었던 약속을 파기하고 성도를 괴롭히기 시작하는 것은 한이레의 중간시점인 것입니다. “짐승이 나타나기 전의 기간이 전 3년반, 11장의 두 증인이 활동하는 기간입니다..두 증인이 활동하던 기간은 비교적 은화한 환난기라고 생각합니다”

이 말씀은 정확하다고 봅니다. 이 때는 절대로 짐승이 죽일 수 없고 괴롭게하거나 지치게만 할 수 있습니다.

이것은 님의 자의적 해석입니다. wear out (KJV)이라는 표현은 더 이상 참을 수 없게 하다, 기진맥진케 하다, 라는 의미입니다. 이 표현은 이른바 목시적인 표현(이른바 목시 문학)입니다. 님이 언급하신 짐승이 죽일 수 없다, 는 것은 목시적인 표현을 너무 문자적으로 해석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저는 그 표현(wear out)이 다양한 상황(성도들을 죽이는 것까지)을 포함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 자는 한이레 동안의 언약을 확정(confirm!!)하는 자입니다. 아마도 이 언약은 무슨 평화조약(peace treatment) 같은 것으로, 세상 사람들의 큰 호응을 얻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 자는 한 주의 중간에 제사와 예물을 금지할 것입니다(종교활동 탄압). 이 사람은 원래부터가 배도한 자입니다(살후 2:3). 그러나 막는 자가 그 중에서 옮길 때가 오게 됩니다(살후 2:7). 이때가 불법의 사람이 자신의 본연을 드러내는 때이며(살후 2:8), 계 11:7과 13:1에서 <짐승>으로 좀 더 구체적으로 소개가 되며 나타나는 상황(무저갱과 바다에서 올라오는)이 되는 것입니다. 저는 이 죄의 사람 멸망의 아들(살후 2:3)이 한이레 동안의 언약을 확정할 때는 광명의 천사로 나타날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고후 11:14). 아마도 그는 신세계 질서(NWO)하의 세계 대통령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 부분도 님의 또 다른 관심사이지요?

아예 KJV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And I heard the man clothed in linen, which was upon the waters of the river, when he held up his right hand and his left hand unto heaven, and swore by him that liveth for ever that it shall be for a time, times, and an half; and when he shall have accomplished to scatter the power of the holy people, all these things shall be finished. (단 12:7, KJV)

이 문장에서 중요한 것은 줄이 그어진 부분인데, 이 부분은 님이 생각하시는 대로 한 때 두 때 반 때 이후에나 있을 일이 아닙니다. 이 일은 바로 한 때 두 때 반 때의 기간 중(for, during)에 일어날 일입니다. 즉, ;(세미 콜론) and when 이라는 것은 바로 앞의 기간(for a time, times, and an half)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세미콜론(; ) when은 거의 100% 바로 그 앞에 나온 기간을 가리킵니다(이것은 저의 오랜 경험~ㅎ). 즉, 앞의 그 기간 동안에 이런 일이 일어난다는 것이지요. 특히 위의 KJV 문장에서 네 번째 줄에 shall have accomplished 는 미래완료 구문이 사용되었습니다. 이 미래완료 표현은 미래의 어떤 시점이 기준일 때 사용되는데, 위의 문장에

서는 그 기준시점이 바로 앞에서 언급이 된, 한 때 두 때 반 때인 것입니다.(이해가 되시려나;;)

쉽게 설명 드리면 A가 <지나서>(단 12:7, 개역성경) B라는 사건이 일어나는 것이 아니고 A의 기간 동안에 B라는 사건이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모든 일이 끝난다는 것입니다(all these things shall be finished).

결국 개역성경에서 <지나서>, 라는 표현이 쓸데없는 오해를 불러일으키고 있는 것입니다.

답변.

이해가 잘 안되긴 합니다. 그러나 감사합니다. 예리함을 가지고 계신분이라는 것을 다시 한번 느끼는 좋은 시간입니다. 참 기쁩니다. 우리나라에 님같은 분이 계시다는 것이요, . 같은 것을 봐도 풀이하는게 틀릴 수 있다는 것을 다시한 번 생각나게 하십니다. 이해를 위해서 반론을 나눠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반론

계 11:7과 13:1의 짐승은 적그리스도로서 짐승 자신의 본연의 모습을 드러내는(reveal) 것입니다. 살후 2:3과 6을 보십시오. 거기에 보면, 멸망의 아들이 나타난다, 저로 하여금 저의 때에 나타나게 하려 한다, 는 표현이 있는데 이것은 없던 자 갑자기 하늘에서 떨어지는 것이 아니고 (외계인같이~ㅎ), 숨겨두었던 자기 자신 본연의 모습을 있는 그대로 드러낸다, 라는 의미입니다. KJV에는 이것이 reveal로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흥정역과 한킹을 참조하여 보시기 바랍니다. 나타나다(개역)와 드러내다(reveal, KJV)는 뉘앙스가 좀 다릅니다.

답변.

정말 지당하신 말씀이고 옳은 풀이입니다. 저도 그런 식으로 말씀드렸던것 같은데... 그리고 저는 짐승이 하늘에서 떨어진다는 표현을 한 적이 없습니다. 그건 용이 그렇다는 것이지 짐승이 그렇다는 것이 아닙니다. 하늘에서 떨어진 용, 계시록12장(별,(천사),계9장)이 짐승에게 권세를 준다는 뜻이었습니다.

반론.

단 9:27의 그, 라는 자는 26절의 한 왕을 지칭한다고 생각합니다. 한 왕은 로마의 황제로 KJV에는 소문자로 시작하는 prince로 표현되어 있습니다. 바로 위의 25절에도 왕이 나오는데 이것은 대문자 Prince 로 표현되어 있습니다. 이 대문자 Prince는 메시아이신 예수님입니다. 계 13:1의 이 짐승은 열 뿔, 일곱 머리, 열 면류관을 쓰고 있습니다. 이 자는 말세에 나타날 거짓 그리스도 중의 하나입니다(마 24:24). 예수님과 말세의 적그리스도는 분간이 쉽지 않습니다. 적그리스도는 칠년 환난 시작점에서 피스 메이커(peace maker)로 타나날 가능성이 농후합니다. 사탄도 광명의 천사로 나타나는 것입니다.(고후 11:14)

답변.

저도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다른 말은 다 동의하지만 계시록 13장의 1절을 거짓그리스도로 분별하는것은 저하고 좀 틀린 것 같습니다. 저는 적그리스도로 분별합니다. 거짓 그리스도는 지금도 많이 있습니다. 또 광명의 천사를 가장한다는 것은 적그리스도가 전 삼년반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적그리스도를 분별하는 것은 어렵지 않고 시기만 알면 비교적 간단합니다.

다니엘 7장입니다.

...

(24) 그 열 뿔은 이 나라에서 일어날 열 왕이요 **그 후에 또 하나가 일어나리니** 그는 먼저 있던 자들과 다르고 또 세 왕을 복종시킬 것이며 -NIV

(24) 이 왕국에서 나온 열 뿔은 장차 일어날 열 왕이며, **또 하나가 그들 뒤에 일어나리라.** 그는 먼저 있던 자들과는 다르며 그가 세 왕들을 복종시킬 것이라. -KJV

(24) And the ten horns out of this kingdom [are] ten kings [that] shall arise: and **another shall rise after them;** and he shall be diverse from the first, and he shall subdue three kings.-KJV

이 구절을 살펴보면 열왕이 먼저 권세를 잡고 나서 그 후에 적그리스도가 등장할 합니다. 이 열왕은 바로 말씀하신대로 세계정부주의자들을 얘기합니다. 그들은 지금 거의 세계정복을 눈앞에 두고 있습니다. 경제가 모든 것을 장악합니다. 그들은 경제를 무너뜨릴 만반의 준비를 하고 지금 실행중에 있습니다. 아시는 내용일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에게 오류가 있습니다. 아무래도 적그리스도를 한이레처음에 알아내는 것은 불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짐승이 누가 될런지는 모르겠지만 그가 적그리스도임을 알아 내는 것은 후삼년반을 시작하기 한달 전이 아닐까 싶습니다. 이 지면을 들어 사과드립니다.

더불어라는 계시록의 표현은 비교적 짧은 시간내에 그가 모습을 드러낸다는 것을 의미하는데 적그리스도에 대해서는 다음기회에 기간과 더불어 다시 나눠보겠습니다.

반론.

한이레의 시작점에 불법의 비밀이 이미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살후 2:7). 그러나 그 자(피스 메이커)가, 본연의 모습을 드러내며(reveal) 이미 맺었던 약속을 파기하고 성도를 괴롭히기 시작하는 것은 한이레의 중간시점인 것입니다.

답변.

네 그렇습니다. 저도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반론.

“짐승이 나타나기 전의 기간이 전 3년반, 11장의 두 증인이 활동하는 기간입니다..두 증인이 활동하던 기간은 비교적 온화한 환난기라고 생각합니다”

이 말씀은 정확하다고 봅니다. 이 때는 절대로 짐승이 죽일 수 없고 괴롭게하거나 지치게만 할 수 있습니다.

이것은 님의 자의적 해석입니다. wear out (KJV)이라는 표현은 더 이상 참을 수 없게 하다, 기진맥진케 하다, 라는 의미입니다. 이 표현은 이른바 목시적인 표현(이른바 목시 문학)입니다. 디클레어님이 언급하신 짐승이 죽일 수 없다, 는 것은 목시적인 표현을 너무 문자적으로 해석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저는 그 표현(wear out)이 다양한 상황(성도들을 죽이는 것까지)을 포함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답변.

그 표현을 목시문학이고 자의적인 표현이라 하신다면 저는 할 말이 없습니다. 님 본인글에서 더 이상 참을 수 없게 하다, 기진맥진케 하다, 라는 의미입니다라고 말씀을 하시면서 죽일 수도 있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은 그 말씀을 저는 어떻게 받아들여야 할 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그 말씀도 틀린 말씀은 아니라고 사려됩니다.

(4) 그들에게 명령이 내려지기를 땅의 풀이나 또 어떤 푸른 것이나 어떤 나무도 해치지 말고 다만 그들의 이마에 하나님의 인장으로 표시받지 아니한 사람들만 해치라고 하더라.

(4) And it was commanded them that they should not hurt the grass of the earth, neither any green thing, neither any tree; but only those men which have not the seal of God in their foreheads.

□hurt [h□ : rt] v. (p., pp. ~)

—vt. ① 상처 내다, □을 다치게 하다(wound).

② □에 아픔을 느끼게 하다[주다].

③ (감정을) 상하게 하다(offend); (아무를) 불쾌하게 하다.

④ (비유) 상하게 하다, 해치다.

—vi. ① 고통을 주다.

② 아프다.

이 해친다(hurt)는 의미가 죽인다고 해석이 된다면 말이지요, 좋은 가르침 감사합니다.

그러나 그 말씀이 맞다해도 시기와는 관계가 없는 내용이며 역시 개인적인 분별로 해석해야 할 것 같습니다.

반론.

이 자는 한이레 동안의 언약을 확정(confirm!!)하는 자입니다. 아마도 이 언약은 무슨 평화조약(peace treatment) 같은 것으로, 세상 사람들의 큰 호응을 얻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 자는 한 주의 중간에 제사와 예물을 금지할 것입니다(종교활동 탄압). 이 사람은 원래부터가 배도한 자입니다(살후 2:3). 그러나 막는 자가 그 중에서 옮길 때가 오게 됩니다(살후 2:7). 이때가 불법의 사람이 자신의 본연을 드러내는 때이며(살후 2:8), 계 11:7과 13:1에서 <짐승>으로 좀 더 구체적으로 소개가 되며 나타나는 상황(무저갱과 바다에서 올라오는)이 되는 것입니다. 저는 이 죄의 사람 멸망의 아들(살후 2:3)이 한이레 동안의 언약을 확정할 때는 광명의 천사로 나타날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고후 11:14). 아마도 그는 신세계 질서(NWO)하의 세계 대통령일 가능성이 높습니다.(이 부분도 디클레어님의 또 다른 관심사이지요?~ㅎ)

답변.

대부분 공감합니다. 그런데 무슨 말씀을 하시는 건지는 잘... 이해력이 좀 떨어져서요, 그래서 제가님과 같은지 한 번 올려보겠습니다.

살후2장

...

(3) 아무도 어떤 모양으로든지 너희를 미혹하지 못하게 하라. 이는 먼저 배교하는 일이 이르지 않고서는 그날이 오지 아니함이라. 그리고 나서 죄의 사람 곧 멸망의 아들이 나타나리라.

배도의 기간은 바로 지금 현대에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전삼년환란 전 시기)에 일어나고 있는 것입니다. 배교하는 자들과 적그리스도는 틀립니다. 적그리스도가 한이레동안의 약속을 정해 놓고 올라온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는 배도자가 적그리스도라고 하시는건지... 아니라면 죄송합니다. 제 생각에도 적그리스도는 배도자가 될 수 없습니다. 배도자는 믿는자들중에서도 눈에 띄게 돌아서는 자들, 제가 생각하기에 카톨릭을 중심으로 거기에 동조하는 기독교측 연합주의자들이 될 가능성이 높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만....

또 NWO(세계정부)이 부분에 대해서는 앞에 절에서 말씀 드린 걸로 대신하겠습니다.

반론.

아예 KJV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And I heard the man clothed in linen, which was upon the waters of the river, when he held up his right hand and his left hand unto heaven, and swore by him that liveth for ever that it shall be for a time, times, and an half; and when he shall have accomplished to scatter the power of the holy people, all these things shall be finished. (단 12:7, KJV)

이 문장에서 중요한 것은 줄이 그어진 부분인데, 이 부분은님이 생각하시는 대로 한 때 두 때 반 때 이후에나 있을 일이 아닙니다. 이 일은 바로 한 때 두 때 반 때의 기간 중(for, during)에 일어날 일입니다. 즉, ;(세미 콜론) and when 이라는 것은 바로 앞의 기간(for a time, times, and an half)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세미콜론(; ) when은 거의 100% 바로 그 앞에 나온 기간을 가리킵니다(이것은 저의 오랜 경험~ㅎ). 즉, 앞의 그 기간 동안에 이런 일이 일어난다는 것이지요. 특히 위의 KJV 문장에서 네 번째 줄에 shall have accomplished 는 미래완료 구문이 사용되었습니다. 이 미래완료 표현은 미래의 어떤 시점이 기준일 때 사용되는데, 위의 문장에서는 그 기준시점이 바로 앞에서 언급이 된, 한 때 두 때 반 때인 것입니다.(이해가 되시려나;;)

쉽게 설명 드리면 A가 <지나서>(단 12:7, 개역성경) B라는 사건이 일어나는 것이 아니고 A의 기간 동안에 B라는 사건이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모든 일이 끝난다는 것입니다(all these things shall be finished).

결국 개역성경에서 <지나서>, 라는 표현이 쓸데없는 오해를 불러일으키고 있는 것입니다.

답변.

앞에서 다른 해석들은 서로 대체로 비슷한 것 같았는데 저만 그렇게 느꼈는지는 모르겠습니다. 시기에 대한 것은 알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계시록에서 한때와 두때와 반때가 후삼년반임을 증명해 주시면 제가 믿겠습니다. 그게 아니라면, 계시록의 한때와 두때와 반때와 다니엘의 한때와 두때와 반때는 한쪽에선 전삼년반을 다른쪽에서는 후삼년반을 서로 다르게 말씀한 것임을 저보고 믿으라는 건데, 저로서는 불가합니다. 그게 아니라고 하시는 것, 자체를 제가 받아들이기 힘들겠습니다. 주격과 상황에 따라 다르게 표현되어 있는 1,260일, 마흔두달, 사흘반, 한 이레, 한 시간등 다른 시기를 봐서라도 말이지요. 그런데 가장 중요한 한때와 두때와 반때가 그렇게 사용되었다는것은 하나님의 무원칙을 인정하라는... 아시겠지만 저는 계시록의 한때와 두때와 반때를 전삼년반으로 분별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럼 마흔두달은 전삼년반이란 말씀이신지...혹은 전삼년반이나 후삼년반을 아무 때나 어느때는 1,260일 또 어느때는 마흔두달, 또 어느때는 한때와 두때와 반때, 어느때는 사흘반이라고 표현했다라는것을 믿으라고 하시는 건지... 제가 아는 하나님은 그런 무원칙의 하나님이 아닙니다. 세상을 수학적으로 빈틈없이 지혜로 창조하신분이 그렇게 계시하셨을 것이라는게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상식적으로 제가 알고 있기로는 성경에서 세미콜론이나 괄호같은 경우는 이해를 돕기 위해 나중에 삽입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것을 알고 해석하셨는지, 혹은 그것에 너무 치우쳐 계신지는 아닌지, 다시 한번 살펴보시기 바라며, 또 이런것에 대해서는 주관이 들어갈 수 밖에 없으나, 앞뒤를 살펴야 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제가 가지고 있는 자료, 성경에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7) And I heard the man clothed in linen, which [was] upon the waters of the river, when he held up his right hand and his left hand unto heaven, and sware by him that liveth for ever that [it shall be] for a time, times, and an half; and when he shall have accomplished to scatter the power of the holy people, all these [things] shall be finished.

그리고 인터넷에서 찾은 자료입니다. keep bible에서요.

7 And I heard the man clothed in linen, which [was] upon the waters of the river, when he held up his right hand and his left hand unto heaven, and sware by him that liveth for ever that [it shall be] for a time, times, and an half; and when he shall have accomplished to scatter the power of the holy people, all these [things] shall be finished.

왜 넘자료에는 [it shall be] 에 괄호가 없는지 모르겠습니다. 그 말씀대로라면 그럴 것이지만 제가 가지고 있는 자료나 킵바이블의 자료는 나중에 이해를 돕기위해 추가된 것으로 되어 괄호가 있습니다. 확인해 보시구요.

그리고 일단 저는 제가 옳다는것만 증명하겠습니다. 그리고 나면 어느 분별이 맞는 것인지 알게 될 것이라 생각합니다. 저는 성도가 주격일때는 전 삼년반이라고 했고, 넘께서는 후 삼년반이라고 했습니다. 그럼 이제 제가 전 삼년반임을 증명하겠습니다. 이 다니엘 12장 7절의 때가 성도의 때가 맞다면 제가 옳은 분별을 하고 있다고 생각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서는 영어권도 사랑하시지만, 특히 한국도 그에 못지 않게 사랑하십니다. 저는 그래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우리 민족을 사랑합니다. 사탄은 어느 한 구절은 번역시킬 수 있을지 모르나 전체를 번역시키지는 못합니다. 왜냐하면 그건 사탄성경이 되어 믿는 성도들이 보지 않기 때문이겠지요, 저는 넘께서 일부러 그렇게 번역하시지는 않았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그렇게 번역하게끔 유도한 사탄이 더 대단한 이가 되겠지요, 그래서 제가 증명하기 위해

말씀하신 12장에서 일, 이, 삼, 사절을 가져와서 보면서 7절의 한때와 두때와 반때가 어느 때 인가를 증명하겠습니다

## 다니엘12장

(1) "그때에 미카엘이 일어서리니, 이는 네 백성의 자손을 위하여 일어서는 위대한 통치자라. 또 고난의 때가 있으리니 그것은 민족이 생긴 이래로 그 때까지 결코 없었던 것이다. 그 때에 네 백성이 구제될 것이니, 곧 그 책에 기록되어 발견될 모든 자들이라.

(2) 땅의 흙 속에서 잠자는 많은 사람들이 깨어날 것이며, 얼마는 영원한 생명을 얻겠고 얼마는 수치와 영원한 모욕을 받으리라.

(3) 현명한 자들은 창공의 밝음처럼 빛날 것이요, 많은 사람을 의로 돌이키는 자들은 별들처럼 영원 무궁토록 빛나리라.

(4) 그러나, 오 너 다니엘아, 마지막 때까지 그 말씀을 닫고 그 책을 봉하라. 그 때에는 많은 사람이 이리저리 달릴 것이요, 지식이 증가하리라." 하더라.

(5) ○ 그때에 나 다니엘이 쳐다보았더니, 보라, 다른 두 사람이 서 있는데 한 사람은 강독 이편에, 다른 사람은 강독 저편에 서 있더라.

이 1, 2, 3, 4절의 주체가 누가 되는가를 생각해 보십시오, 성도입니까, 아니면 짐승입니까, 어차피 한 이레는 성도의 때와 짐승의 때로 나뉘어져 있습니다. 대환란에 속하는 것은 후 삼년 반이고, 그가 권세를 갖고 성도를 죽이는 기간도 후삼년반입니다. 1절부터 3절까지 누구를 말씀하시는가, 성도인가, 아니면 짐승인가, 성도가 핍박을 당하는가, 아니면 짐승이 주격이 되어 환란을 주도하는가, 누가 구제되는 것이고, 누가 깨어나며, 누가 영생을 얻고, 누가 수치와 모욕을 받으며, 누가 빛이나고, 누가 많은 사람을 의로 돌이키는가, 성도인가, 짐승인가, 누구의 지식이 증가하는가를 보면 당연히 성도입니다.

이것이 성도들을 의미하는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면 저는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다른 한 사람이 이 말을 한 세마포를 입은 사람에게 질문을 합니다. 이러한 이적들의 끝이 언제인가.

(6) 한 사람이 강물 위에 있던 세마포를 입은 사람에게 말하기를 "이러한 이적들의 끝이 언제까지겠느냐?" 하더라.

이 사람이 물어보는 것은 1,2,3,4절에 관한 때를 물어보는 것이 분명해 보이지 않으십니까, 확실히 보시기 바랍니다. 그러자 세마포를 입은 사람이 얘기합니다.

(7) 내가 들으니 강물 위에 있던 세마포를 입은 사람이 그의 오른손과 그의 왼손을 하늘로 들어올리고 영원히 사시는 분으로 맹세하기를 "**한 때와 두 때와 반 때가 되리니**, 그가 거룩한 백성의 권세를 흠어 버리는 것을 마치게 되면 이 모든 일이 끝나게 되리라." 하더라.

세마포를 입은 사람이 하는 얘기를 주목해야 합니다. 한때와 두때와 반때가 된다고요, 이렇듯이 기간은 성도가 주격인때를 말씀합니다. 그후에 환란의 때가 있다고 기록이 되면 누구나 알 수 있는 글이지 감춰진 글이 아닌겁니다.

이 두사람의 대화만 옮겨와 보겠습니다.

A: uc0 그때에 미카엘이 일어서리니, 이는 네 백성의 자손을 위하여 일어서는 위대한 통치자라. 또 고난의 때가 있으리니 그것은 민족이 생긴 이래로 그 때까지 결코 없었던 것이다. 그 때에 네 백성이 구제될 것이니, 곧 그 책에 기록되어 발견될 모든 자들이라. 땅의 흙 속에서 잠자는 많은 사람들이 깨어날 것이며, 얼마는 영원한 생명을 얻겠고 얼마는 수치와 영원한 모욕을 받으리라. 현명한 자들은 창공의 밝음처럼 빛날 것이요, 많은 사람을 의로 돌이키는 자들은 별들처럼 영원 무궁토록 빛나리라. 그러나, 오 너 다니엘아, 마지막 때까지 그 말씀을 닫고 그

책을 봉하라. 그 때에는 많은 사람이 이리저리 달릴 것이요, 지식이 증가하리라."

B:"이러한 이적들의 끝이 언제까지겠느냐?"

A:"**한 때와 두 때와 반 때가 되리니**, 그가 거룩한 백성의 권세를 흠어 버리는 것을 마치게 되면 이 모든 일이 끝나게 되리라."

B의 질문은 앞선 이 성도들의 일이 언제쯤 끝나느냐고 묻는 것입니다. 그래서 A는 그 질문에 대한 답으로 한때와 두때와 반때를 언급한 것입니다. 그리고 그가 거룩한 권세를 흠어버린다고 합니다. 여기서 그는 적그리스도입니다. 앞에서 설명한 바와 같습니다. 다니엘서에는 마흔두달에 대한 언급은 없습니다. 또 없어야 합니다. 있다면 감춰진 글이 아닐 것입니다. 그러나 한때와 두때와 반때만 가지고 모두 해결을 해야 합니다. 계시해야 하는 하나님의 입장이라면 어찌시겠습니까? 이 시기는 계시록없이는 절대로 분별할 수가 없습니다. 바로 하나님께서 인봉하셨기 때문이지요. 이제 우리에게 계시록이 주어짐으로 분별할 수 있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저는 킹제임스만 보지 않습니다. 아주 가끔 이런 경우도 있어서 개역성경도 버릴 수가 없습니다.

## 25. 다니엘과 계시록의 숫자에 관한 심도있는 제안

이 글을 읽으시고 밑에 질문에 답해보십시오. 만일 그렇게 하실 수 있다면 시기에 대한 모든 의문이 풀릴 것입니다.

다니엘7장

...

(25) 그가 장차 말로 지극히 높으신 자를 대적하며 또 지극히 높으신 자의 성도를 괴롭게 할 것이며 그가 또 때와 법을 번개코자 할 것이며 성도는 그의 손에 붙인 바 되어 **한 때와 두 때와 반 때를 지내리라**

다니엘8장

...

(10) 그것이 하늘 군대에 미칠만큼 커져서 그 군대와 별 중에 몇을 땅에 떨어뜨리고 그것을 짓밟고

(11) 또 스스로 높아져서 군대의 주재를 대적하며 그에게 매일 드리는 제사를 제하여 버렸고 그의 성소를 헐었으며

(12) 범죄함을 인하여 백성과 매일 드리는 제사가 그것에게 붙인바 되었고 그것이 또 진리를 땅에 던지며 자의로 행하여 형통하였더라

(13) 내가 들은즉 거룩한 자가 말하더니 다른 거룩한 자가 그 말하는 자에게 묻되 이상에 나타난바 매일 드리는 제사와 망하게 하는 죄악에 대한 일과 성소와 백성이 내어준바 되며 짓밟힐 일이 어느때까지 이를꼬 하매

(14) 그가 내게 이르되 **이천 삼백 주야**까지니 그 때에 성소가 정결하게 함을 입으리라 하였느니라

다니엘9장

(27) 그가 장차 많은 사람으로 더불어 한 이레 동안의 언약을 굳게 정하겠고 그가 **그 이레의 절반에 제사와 예물을 금지할 것이며** 또 잔포하여 미운 물건이 날개를 의지하여 설 것이며 또 이미 정한 종말까지 진노가 황폐케 하는 자에게 쏟아지리라 하였느니라

다니엘 12장

...

(11) 매일 드리는 제사를 폐하며 멸망케 할 미운 물건을 세울 때부터 **일천 이백구십 일**을 지낼 것이요

(12) 기다려서 **일천 삼백 삼십 오일**까지 이르는 그 사람은 복이 있으리라

마태복음 24장

(15) 그러므로 너희가 선지자 다니엘의 말한바 **멸망의 가증한 것이 기록한 곳에 선 것을 보거든** (읽는 자는 깨달을찌저)

(16) 그 때에 **유대에 있는 자들은 산으로 도망할찌어다**

(17) 지붕 위에 있는 자는 집안에 있는 물건을 가질러 내려 가지 말며

(18) 밭에 있는 자는 겹옷을 가질러 뒤로 돌이키지 말찌어다

살후 2장

(3) 누가 아무렇게 하여도 너희가 미혹하지 말라 **먼저 배도하는 일이있고 저 불법의 사람 곧 멸망의 아들이 나타나기 전에는** 이르지 아니하리니

(4) 저는 대적하는 자라 범사에 일컫는 하나님이나 숭배함을 받는 자위에 뛰어나 자존하여 **하나님 성전에 앉아 자기를 보여 하나님이라** 하느니라

계시록 9장

(10) 또 전갈과 같은 꼬리와 쏘는 살이 있어 그 꼬리에는 **다섯달 동안** 사람들을 해하는 권세가 있더라

계시록 9장

...

(15) **네 천사가 놓였으니** 그들은 그 **년, 월, 일, 시**에 이르러 **사람 삼분의 일**을 죽이기로 예비한 자들이더라

(16) **마병대의 수는 이만만**이니 내가 그들의 수를 들었노라

...

(18) 이 세 가지, 즉 그들의 입에서 나오는 불과 연기와 유황으로 말미암아 **사람들의 삼분의 일**이 죽더라.

계시록 13장

...

(5) 또 짐승이 큰 말과 참람된 말하는 입을 받고 **또 마흔 두달** 일할 권세를 받으니라

질문.

1. 이 곳의 날짜들을 풀이하면 성도를 내어준 기간(단8장)에 대한 시기가 나오게 되고,
  2. 다니엘 9장 27절의 이레의 절반이 어느 때인가가 나오게 되며,
  3. 이천삼백일의 의미를 알게 되고,
  4. 멸망의 가증한 것이 거룩한 성전에 서는 날짜가 나오며,
  5. 더불어 그가 누구인지 알게 되고,
  6. 일천이백구십일과 일천삼백삼십오일의 기간이 설명이 되며,
  7. 십사만사천이 정확히 어느 때에 들림받는가를 알게 되고,
  8. 메뚜기때가 성도들을 괴롭히는 시기인 다섯달동안이 어느 곳에 들어가는가를 알게 되며,
  9. 또 그 다섯달이 어느 시기에 시작되고, 끝나는지 알 수 있게 되며,
  10. 유대에 있는 자들은 산으로 도망하라는 뜻을 알게 되고,
  11. 그 유대인이 누구를 말함인가도 알게 되고,
  12. 또 사흘반동안 죽어있는 두 증인의 수가 얼마나 되는지,
  13. 마태복음 24장의 멸망의 가증한 것은 언제 서는지,
  14. 용이 여자를 떠내려 보내려 했다는 홍수가 무엇이였는지와 그 시기를 알게 되고,
  15. 그리고 마지막으로 하나님의 진노의 기간을 분별하실 수도 있게 됩니다.
- 그리고, 바라기는
16. 한 때와 두 때와 반때가 어느 때인지,
  17. 마흔 두달이 어느 때인지 정확히 분별할 수가 있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유대력의 일년은 삼백육십일입니다. 참고 하시기 바랍니다.

제가 풀이하는것을 보시는 것보다 노력하여 푸실 때의 기쁨이 더 있을 것이라고 믿습니다. 사실 힌트는 모두 다 드린 거나 마찬가지이기에 더하기, 빼기만 할 줄 아시면 모든 분들이 푸실 수 있습니다.

## 25-1. (해답)다니엘과 계시록을 읽는데 이해하고 있어야 할 날짜의 맥-총괄

다니엘12장

...

(7) 내가 들으니 강물 위에 있던 세마포를 입은 사람이 그의 오른손과 그의 왼손을 하늘로 들어 올리고 영원히 사시는 분으로 맹세하기를 "한 때와 두 때와 반 때가 되리니, 그가 거룩한 백성의 권세를 흠어 버리는 것을 마치게 되면 이 모든 일이 끝나게 되리라." 하더라.

한때와 두때와 반때는 전삼년반을 의미하고 이 후 거룩한 백성의 권세를 흠어버리는 것을 마치게 되는 때는 후 삼년반뒤에 주의 날이나 주의 진노가 온다고 하는 의미이다.

다니엘 8장

...

(13) ○ 그때 내가 한 성도가 말하는 것을 들었는데, 말하였던 그 어떤 성도에게 또 다른 성도가 말하기를 "매일 드리는 희생제와 멸망의 죄와, 즉 성소와 군대를 내어 주어 발 아래 짓밟히게 하는 환상이 얼마나 오래 가겠느냐?" 하니

(14) 그가 나에게 말하기를 "**이천삼백 일까지니, 그때에 성소가 깨끗하게 되리라.**" 하였더라.

이 열쇠를 푸는데 우리가 한 가지 생각하고 있어야 할 것은 짐승이, 곧 적그리스도가 언제 올라오느냐 하는 거다. 그건 우리가 알다시피 한이레 시작때이다. 그 한이레인 7년은 2,520일의 날짜를 가지고 있다(360x7). 그렇다면 2,300일 까지의 차이는 220일이 나는데 이 220일의 기간은 무슨 날이냐는 것이다. 또 한 가지는 거꾸로 생각해서, **그때에 성소가 깨끗하게 되리라.** 라는 그 때의 기간이 끝나는 날도 이천삼백일임을 잊지 말아야 한다. 이제 그것을 알아보자, 일단 220일의 의미이다.

요한복음5장

...

(43) 내가 내 아버지의 이름으로 왔으나 너희가 나를 영접하지 아니하는도다. 만일 다른 이가 자기 이름으로 오면 너희는 그를 영접하리라.

유대인(여기서는 믿지않는 모든 이방인들을 포함)들은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받아들이지 않고 있고, 지금도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다. 모두 그렇다는 것은 아니다. 그럼 다른 이가 자기 이름으로 오면 영접하는데, 이는 과연 누구이겠는가? 영접받는 그는 그들이 보았을 때 분명 그리스도일 것이다. 이 땅에 평화를 실현시키고, 유대인의 나라를 세우는 그런 그리스도말이다. 그러나 이 그리스도는 우리가 알다시피 적그리스도이다. 이 적그리스도는 많은 사람들과 약속을 맺는다고 한다.

다니엘9장

...

(27) 그가 많은 사람들과 더불어 한 주(이레-개역) 동안 언약을 확정하고 그 주의 중간에 그가 희생제와 예물을 금지시킬 것이요, 그는 가증함을 확산시킴으로 황폐케 하리니 진멸할 때까지 할 것이며, 정해진 것이 황폐케 한 자에게 쏟아지리라." 하더라.-이 절에는 7년의 요약판이 들어있다.

자, 많은 사람들과 더불어 한 주(이레-개역) 동안 언약을 확정하는데 전쟁하겠다고 약속을 맺겠는가? 그건 아닐 것이다. 다 잘해보자고 언약을 맺는 것이다. 그럼 이 짐승도 눈이 있으니까 한이레시작 때는 잘해보려는 자세를 모두에게 보여줘야 되는 거 아니겠느냐 말이다. 적어도 우리 정서에는 그렇다. 그래서 그 거짓평화기간이 220일이 되는 것이다. 그리고 결국은 220일 끝나면 본색을 드러내고, 매일 드리는 희생제와 멸망의 죄와, 즉 성소와 군대를 내어 주어 발 아래 짓밟히게 하는 일이 생기는 것이다. 그것이 바로 다니엘 8장 14절의 2300일이 내포하고 있는 의미이다.

그렇다면 그는 언제 거룩한 성전에 앉아 자기를 드러 내어 하나님이라고 하는것인가, 확인해보자, 데살로니가후서 2장이다.

(4) 그는 대적하는 자이며 또 하나님이라고 불리우는 모든 것과 숭배받는 대상 위에 자신을 높여 하나님의 성전에 앉아 하나님처럼 보여 자신을 하나님이라고 하느니라.

자, 그럼 거짓 평화기간이 끝나고, 전삼년반 남은 기간은  $1260-220=1040$ 일이다. 그럼 1040일째가 짐승이 하나님이라고 망발을 하는 시기인가, 그렇지 않다. 이쯤에서 다시 기억해야 할 것이 다니엘 12장이다.

...

(11) 날마다 드리는 희생제가 폐지되고 멸망케 하는 가증한 것이 세워질 때부터 일천이백구십일이 될 것이니라. 1290일

그리고 이외에 한가지 더 생각하고 있어야 할 것이 전삼년반에 메뚜기떼가 성도들을 괴롭히는 기간인 다섯 달, 즉 150일이다.

계시록9장

....

(10) 그들에게는 전갈과 같은 꼬리가 있고 그들의 꼬리에는 쏘는 침이 있으며 다섯 달 동안이나 사람들을 해치게 하는 권세가 있더라.

그리고 마태복음24장이다.

(15) 그러므로 너희가 선지자 다니엘을 통하여 말씀하신 멸망의 가증한 것이 거룩한 곳에 선 것을 보리니, (읽는 자는 깨달으라.)

이 멸망케하는 것이 바로 적그리스도임을 우리는 이 분별이 끝나면 알 수 있을 것이다. 보자, 짐승의 기간인 1,290일이 지나면 그의 시대는 끝난다고 다니엘12장11절의 이 사람이 얘기하고 있다. 그렇다면 바로 이때가 후삼년반이 끝나는 시기임을 알 수 있을 것이다. 우리는 후삼년기간도 날짜로 치면 1260일임을 알고 있다. 그런데 여기는 1290일이다. 30일이 더 추가된 것이다. 이것은 무슨 뜻인가? 그렇다면 바로 전 삼년반의 마지막 반때(6개월)중에 한달을 묻고 들어감이 확실해 보인다,

그렇다. 바로 이 시간이 적그리스도가 거룩한 성전에 서는 때가 되는 것이고, 멸망케하는 가증한 것이 세워질 때인 것이다. 사실 이 거룩한 성전에 선다는 의미는 그가 하나님임을 선언한다는 의미로 받아들일 수 있다. 그가 하나님의 자리에 서려한다, 혹은 하나님임을 공포한다라는 의미가 숨어있는 것이다. 이것은 개인적인 분별이니 받아 들이지 않으셔도 좋다. 그러하다면 그는 후삼년반(1260일)이 시작되기 한달 전(1260+30=1290)에 자신이 하나님이라 선언하게 되는 것이다. 따라서 그 전에 증인들을 괴롭게 하는 일(계시록9장의 다섯 번째 나팔, 전삼년반, 세때반)이 벌어져야 한다. 그럼 계산해 보자.

$360 \times 3 = 1080$ , 그리고 물려들어간 한달 30일, 그리고 그앞에 전삼년반에 성도들을 괴롭히는 기간인 다섯달은 150일, 이것을 모두 더하면  $1080 + 30 + 150 = 1,260$ 일이 되어 한때와 두때와 반때, 즉 전 삼년반이 되는 것이다.

자, 이렇게 하고 나면 정확하게 날짜가 맞아 떨어짐을 알게 되는데, 그 후에 전 삼년반의 한달과 후삼년반을 합한 1260일의  $30 + 1260 = 1290$ 일 뒤에 1335일은 무슨기간이겠는가? 빼보면 된다.  $1335 - 1290 = 45$ 일 이되어 바로 주님재림전 마지막나팔인 일곱 번째 나팔이 불림으로 **하나님의 진노의 일곱대접이 이 땅에 떨어지는 기간이 45일정도가 됨을 쉽게 알 수 있게 되는 것이다.**

그러나 주님께서 이 기간을 믿는 자들을 위해 줄이겠다고 하셨으므로 너무 엄메일 필요는 없다. 무슨 날짜에 맞춰 움직이는 하나님도 아니고, 그렇게 하겠다고 정하셨고, 또 그 날을 줄이겠다고 하셨으니, 그저 우리는 조금 많이 줄여 주시기를 바랄 뿐이다.

그런데 이런 와중에 아주 엄청 놀라운 일이 우리 앞에 일어나고 있었음을 우리는 간과하고 지나왔다. 무슨 말인가, 그동안 너무나도 궁금해 했던 **지금 현재 이스라엘은 과연 하나님이 모으셨는가?** 라는 것의 의미인데, 이제 그 의미를 살펴보자. 먼저 말씀 한 구절 보자. 마태복음 24장이다.

(15) 그러므로 너희가 **선지자 다니엘을 통하여 말씀하신 멸망의 가증한 것이 거룩한 곳에 선 것을 보리니**, (읽는 자는 깨달으라.)

(16) 그때에 유대에 있는 자들은 산들로 도망하라.

(17) 지붕 위에 있는 사람은 집 안에 있는 물건을 가지러 내려가지 말고

(18) 들에 있는 사람은 자기 옷을 가지러 돌아가지 말라.

18절까지 이 글의 의미가 와 닿지 않는가, 우리는 앞서서 그가 성도들을 다섯달동안 죽이지는 못하고 괴롭게 한다는 것을 알고 있었다. **19절부터는 후삼년반에 들어가서의 상황이다.**

계시록 9장

...

(4) 그들에게 명령이 내려지기를 땅의 풀이나 또 어떤 푸른 것이나 어떤 나무도 해치지 말고 다만 그들의 이마에 **하나님의 인장으로 표시받지 아니한 사람들만 해치라**고 하더라.

(5) 또 그들에게 명령이 내려지기를 그 사람들을 죽이지는 말고 **오직 다섯 달 동안 고통만 주** 라고 하는데, 그 고통은 마치 전갈이 사람을 쏘 때의 고통과 같은 것이다.

이 다섯달 동안이 끝나고 그가 하나님성전에 앉아 하나님이라고 하는 순간, 그러니까 멸망의 가장한 것이 거룩한 곳에 서는 것을 보는 순간 유대인들은 도망하라는 것이다. (확인부탁드린다) 그 땐 무엇이랴도 가지고 갈려고 돌이키지 말라는 것이다. 이 말은 돌이킬 수조차 없다는 의미로 해석 될 수 있다.

그럼 이 유대에 있는 자들은 누구인가? 그건 이들이 바로 우리가 전삼년반에 휴거된다고 분별했던 시온산의 인맞은 십사만사천인 것이다. 이 인맞은 십사만사천을 유대에 있는자라고 주님께서 언급하신 것이다. 받아들이시기 힘들지 모르겠다. 물론 이 말씀은 누가복음등 다른곳에 서는 이렇게 언급되어 있지 않다. 그러나 누가복음은 사도행전으로 이어지는 역사적인 측면에서 기록이 된 것이니 이런 영적인 의미는 마태복음에 있음이 너무도 당연한 것이라고 생각이 된다. 같은 내용이라고 여겨지는 이 4대복음모두 한 데 모아져 있음 또한 주님의 섭리요, 특별히 바로 하나님이 모으셨기 때문이다.

또 우리는 앞에서 이 십사만사천은 이스라엘의 족속이 아니라고 이미 알아본 바가 있다. 그렇다면 이 유대인과 이스라엘을 같이 볼 수는 없지 않은가라고 반문할 수도 있을 것이다. 거기에 대한 답은 여러 가지가 있고 구약을 통해서도 증거해 온바 있다. 간단하게 말하자면 일단 유대에 있는 자들은 이스라엘을 대표하는 족속이다. 그리고 앞에서 기억하시고 계시라고 얘기한바 있지만, 계시록 7장의 인맞은 자중에서도 유다족속은 장자인 르우벤을 포함해서도 가장 먼저 언급이 되어 있다. 이것은 매우 큰 상징적인 의미를 지닌다. 유다족속이 이스라엘의 대표이기도 하지만 십사만사천의 대표그룹이기도 한 것이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사랑하시는 것은 확실하다.

그런데 여러분께서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택하신 이유를 무엇이랴 생각하는가? 그 택하심 역시 대표적인 성격을 지니고 있을 뿐이다. 하나님께서는 그 분을 증명하기 위해 어느 민족이건 한 민족을 택하셔야 했었고, 또 하나님이 이스라엘민족뿐 아니라 이 세상 모든 역사를 주장해 나가신다는 것을 모든 나라에 알리시기 위해서라도 한 사람을 택하셔야 했던 것이다. 공교롭게도 그가 바로 우리 믿음의 조상인 아브라함이었던 것이고... 다시 말하자면 바로 유대에 있는 자들이란 하나님이 선택한 족속들이라는 의미를 내포하고 있는 상징적의미로 봐야 한다라는 거다. 너무 영적으로 해석하는거 아니냐고 하시는 분들이 계실지 모르겠다. 그러나 그 분은 영적인 분이시니 이런 해석은 지극히 당연한 것이라고 생각한다. 역시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해석에 동의하지 않는 것은 아직 시기에 대한 분별이 끝나지 않아서일 것이다. 그래서 동의하는 분이 많지 않을 것이라고 얘기했던 것이다. 이 시기에 대한 것만 이해되고, 끝난다면 이런 해석을 받아들이는 것은 지극히 당연한 것임을 알게 될 것이라 믿는다. 이걸 강요할 수도 없고, 강요하고 싶지도 않다. 믿음으로 받아야 할 영적인 것이다. 그럼이제 모든 성도들이 들어가고 싶어하는 영원한 천국으로 가보자.

## 26. 계시록 21장,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

(1) 또 내가 새 하늘과 새 땅을 보니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없어졌고 바다도 다시 있지 않더라

'새'에 해당하는 헬라어 '카이논'은 '시간적으로 최근이나 새로운'을 의미하는 헬라어 '네오스'와는 달리 질적으로 새로운 것을 가리킨다. 그러기에 '새 하늘과 새 땅'은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의 갱신이 아니라 질적으로 완전히 다른 새 질서의 창조를 의미한다.-주석

이 하늘과 땅은 지금과는 차원이 다른 공간이다. 우리가 살고 있는 이 하늘과 땅은 하나님께서 인간들을 위해 특별히 만드신 우주공간인 것이다. 이 우주를 만드시면서 하나님께서는 인간이

거주할 수 있는 경계를 정하사 벗어나지 못하도록 하셨다.

(26) 인류의 모든 족속을 한 혈통으로 만드사 온 땅에 거하게 하시고 저희의 년대를 정하시며 거주의 경계를 한하셨으니 -사도행전17장

이 居住(거주)의 境界(경계)를 限(한)하신것 때문에 인간이 땅밖으로 나가는 것은 금지되어 있다. 지구상의 많은 사람들중에는 아직도 아폴로 13호가 달에 갔다고 굳게 믿는 사람이 많은 것으로 알고 있다. 그런데 미국 Fox TV에서 발표한 조사를 보면 미국인들의 60%에 가까운 사람들이 그것을 믿지 않고 있다고 하니 참 아이러니한 일이 아닐 수 없다. 누가 잘못된 것인가, 혹시 그들이 뭔가를 감추고 있는 것은 아닌가, 또 그것에 더해서 UFO와 관련해서도 모든 나라들이 정보를 공개하고 있는데 반해, 유독 미국만이 그것을 공개하지 않고 오히려 Top secret으로 분류, 공공연히 비밀화하고 있다. 다만 극소수만이 그 파일을 볼 수 있게 되어 있다고 한다. 심지어는 미국대통령도 자격이 되지 않으면 그것을 볼 수 없다고 하니 도대체 그 이유는 무엇인가, 지금 언급하는 이 모든 말들은 증인도 있고 증거하는 자료 또한 많으니 확인들 하시기 바란다. 혹 이 사실을 모르는 분들은 현실에 너무도 충실하시거나 드라마에 빠져 계시거나 그들이 보여주는 뉴스만 보고 있는 분들일 뿐이니 흥분하지 마시고 잠깐 눈을 좌우로 돌려 살펴보시기 바란다. 앞에서도 잠깐 언급했지만 이러한 일들은 어떤 마귀적인 존재와 연관이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그래서 속지 않도록 깨어 있으시라고 이 지면을 빌어 말씀드리는 것이다.

(2) 또 내가 보매 기록한 성 새 예루살렘이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니 그 예비한 것이 신부가 남편을 위하여 단장한 것 같더라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거하실 곳이니 두 말하면 잔소리다. 이 예루살렘성은 바울이 갔었던 삼층천에 존재할 것이다. 바로 하나님 계신 그곳 말이다.

(3) 내가 들으니 보좌에서 큰 음성이 나서 가로되 보라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들과 함께 있을 때 하나님께서 저희와 함께 거하시리니 저희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은 친히 저희와 함께 계셔서

저희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은 친히 저희와 함께 계셔서. - 본문은 구약성경에 자주 나타나는 관용구로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구속하신 목적이다. 이것은 하나님과 자기 백성간의 밀접한 교제를 시사한다. '하나님의 백성'에 해당하는 헬라어 '라오이 아우투'는 문자적으로 '그의 백성들'이란 의미로 복수이다. 이는 새 예루살렘인 하나님의 백성이 모든 민족을 초월하여 새롭게 변화된 백성임을 시사한다-주석

(4)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씻기시매 다시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음이라

우리가 이 땅에서 겪었던 모든 것들은 마귀적인 것들이었으며 하나님께서는 진정으로 사랑하는 백성들을 모으시기 위해 그런 고난을 우리에게 허락하셨던 것이다. 이제 예루살렘성에서는 그러한 악의 분출물들은 작은 씨알조차도 찾아볼 수 없을 것이다.

(5) 보좌에 앉으신 이가 가라사대 보라 내가 만물을 새롭게 하노라 하시고 또 가라사대 이 말은 신실하고 참되니 기록하라 하시고

(6) 또 내게 말씀하시되 이루었도다 나는 알파와 오메가요 처음과 나중이라 내가 생명수 샘물로 목마른 자에게 값 없이 주리니

(7) 이기는 자는 이것들을 유업으로 얻으리라 나는 저의 하나님이 되고 그는 내 아들이 되리라

(8) 그러나 두려워하는 자들과 믿지 아니하는 자들과 흉악한 자들과 살인자들과 행음자들과 술객들과 우상 숭배자들과 모든 거짓말 하는 자들은 불과 유황으로 타는 못에 참여 하리니 이것이 둘째 사망이라

(9) 일곱 대접을 가지고 마지막 일곱 재앙을 담은 일곱 천사중 하나가 나아와서 내게 말하여 가로되 이리 오라 내가 신부 곧 어린 양의 아내를 네게 보이리라 하고

(10) 성령으로 나를 데리고 크고 높은 산으로 올라가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는 기록한 성 예루살렘을 보이니

(11) 하나님의 영광이 있으며 그 성의 빛이 지극히 귀한 보석 같고 벽옥과 수정같이 맑더라

(12) 크고 높은 성곽이 있고 열 두 문이 있는데 문에 열 두 천사가 있고 그 문들 위에 이름을 썼으니 **이스라엘 자손 열 두 지파의 이름들**이라

(13) **동편에 세 문, 북편에 세 문, 남편에 세 문, 서편에 세 문**이니

(14) 그 성에 성곽은 열 두 기초석이 있고 그 위에 **어린 양의 십 이 사도의 열 두 이름**이 있더라

(15) 내게 말하는 자가 그 성과 그 문들과 성곽을 측량하려고 금 갈대를 가졌더라

(16) 그 성은 네모가 반듯하여 장광이 같은지라 그 갈대로 그 성을 측량하니 **일만 이천 스다디온**이요 **장광 광과 고가** 같더라

'일만 이천 스다디온'은 2,200km이다. 지금 미국땅의 절반이 넘는 거대한 입방체로 볼 수 있겠다. 그 위용을 보지 않고서는 그 미려함이나 장관을 도저히 설명할 수가 없다.

(17) 그 성곽을 측량하매 일백 사십 사 규빗이니 사람의 척량 곧 천사의 척량이라

사람의 척량 곧 천사의 척량이라는 말은 천사가 측량한 치수가 사람이 측량하는 것과 동일한 방법으로 계산된 것임을 의미한다. 고로 천사와 사람의 치수는 같다. 여기에 더해서 한가지 덧붙이자면 천사는 날개를 가진 그런 신비한 존재가 아니고 사람과 똑같은 크기와 몸을 가졌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사람들과 그 형질은 다를지 모르지만 외형적인 크기나 모양으로는 구별을 할 수 없다는 얘기가 되겠다. 고로 가끔 그림에서 보는 날개달린 천사나 날개달린 아기들의 그림은 사람들의 상상에서 나온 부산물일 뿐이다. 그리고 들림받는 성도들은 휴거가 되면서 이 땅의 육체가 아닌 하늘의 육체로 탈바꿈되게 된다. 고린도전서15장이다.

(51) 보라, 내가 너희에게 한 가지 신비를 말하노니, 우리가 다 잠잘 것이 아니요 오히려 우리가 모두 변화될 것이니

(52) 마지막 나팔에 눈깜짝하는 순간에 그러하리라. 나팔 소리가 나면 죽은 자들이 썩지 아니하는 몸으로 일으켜지며, 우리도 변화되리라.

(53) 그리하여 이 썩을 몸이 반드시 썩지 아니할 몸을 입고, 이 죽을 몸이 반드시 죽지 아니할 몸을 입으리라.

(54) 이 썩을 몸이 썩지 아니함을 입고, 또 이 죽을 몸이 죽지 아니함을 입게 되면 "사망이 승리 속에 삼킨 바 되었느니라."고 기록된 말씀이 이루어지리라.

이상 본 바와 같이 우리의 몸이 하늘에서 난 천사의 형질과 같아지는 것이다.

(18) 그 성곽은 벽옥으로 쌓였고 그 성은 정금인데 맑은 유리 같더라

(19) 그 성의 성곽의 기초석은 각색 보석으로 꾸몄는데 첫째 기초석은 벽옥이요 둘째는 남보석이요 셋째는 옥수요 넷째는 녹보석이요

(20) 다섯째는 홍마노요 여섯째는 홍보석이요 일곱째는 황옥이요 여덟째는 녹옥이요 아홉째는 담황옥이요 열째는 비취옥이요 열 한째는 청옥이요 열 두째는 자정이라

(21) 그 열 두 문은 열 두 진주니 문마다 한 진주요 성의 길은 맑은 유리 같은 정금이더라

(22) 성안에 성전을 내가 보지 못하였으니 이는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와 및 어린 양이 그 성전이심이라

(23) 그 성은 해나 달의 비춤이 쓸데 없으니 이는 **하나님의 영광이 비취고 어린 양이 그 등이 되심이라**

(24) 만국이 그 빛 가운데로 다니고 **땅의 왕들이 자기 영광을 가지고 그리로 들어오리라**

이 땅의 왕들은 천년왕국때부터 주님께서 주신 **철장을 가지고 만국을 치리하던 그 왕들이다. 이들에게는 이와 같이 둘째사망의 해가 없음은 물론이다.**

(25) 성문들을 낮에 도무지 닫지 아니하리니 거기는 **밤이 없음이라**

하나님께서 친히 빛이 되시고 그들과 함께 거한다는 말씀이다. 이렇듯 빛이신 분이 항상 함께 하시니 어찌 어둠이 있을 수 있겠는가,

(26) 사람들이 만국의 영광과 존귀를 가지고 그리로 들어오겠고

**들림과 승천과 휴거를 받은 땅에서 구속받은 첫 열매들이다. 그리고...**

(27) 무엇이든지 속된 것이나 가증한 일 또는 거짓말하는 자는 결코 그리로 들어오지 못하되 오직 어린 양의 생명책에 기록된 자들뿐이라

생명책에 녹명된 자들은 그리스도의 구속 사역에 의하여 믿음을 소유하고 영생을 받은 자들로서 하나님과 어린양의 성품과 뜻에 일치하는 자들일 것이다.

## 27. 영원한 안식

(1) 또 그가 나에게 하나님과 어린 양의 보좌에서 흘러나오는 수정처럼 맑은 생명수의 정결한 강을 보여 주더라.

(2) 그 도성의 거리 한가운데와 그 강의 양편에는 **생명나무가 있어 열두 가지 과실을 맺으며 달마다 과실을 내더라.** 그리고 그 나무의 잎사귀들은 민족들을 치유하기 위한 것이더라.

천국에서는 먹고 마시지 않을거라고 하시는 분들이 계시는데 주님께서 말씀하신바를 보면 전혀 그렇지 않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창세기에도 천사들이 먹는 장면이 나오지만, 오늘은 직접 주님께서 하신 말씀으로 마무리 하겠다.

(29)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이제부터 내가 너희와 함께 내 아버지의 왕국에서 새 것으로 마시는 그 날까지 이 포도열매에서 난 것을 마시지 아니하리라."고 하시더라. -마태복음 26 장.

사실 먹는 기쁨은 천국에서도 마찬가지여야 한다. 그렇지 않은가, 그 맛을 뺏긴다면 천국도 其實(기실) 좋지 않아 보일 수 있기 때문이다. 하나님께서는 그 즐거움을 결코 뺏지 않으실 것이다.

(3) 다시는 저주가 없고 하나님과 어린 양의 보좌가 그 안에 있을 것이며 그의 종들이 그를 섬기리니

(4) 그들은 그의 얼굴을 볼 것이며 그의 이름이 그들의 이마 위에 있으리라.

(5) 거기에는 밤이 없겠고 그들에게는 촛불도 햇빛도 필요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주 하나님께서 그들을 비추시기 때문이다. 그들이 영원 무궁토록 통치하리라.

(6) 또 그가 나에게 말하기를 "이 말씀들은 신실하고 참되도다. 거룩한 선지자들의 주 하나님께서 반드시 속히 되어질 일들을 그의 종들에게 보이시려고 그의 천사를 보내셨느니라.

(7) 보라, 내가 속히 오리라. 이 책의 예언의 말씀들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도다."라고 하더라.

너무도 信實(신실)하신분의 말씀이고 그 말씀을 듣는 우리에게 말로 다 할 수 없는 행복감을 안겨다주는 더할 수 없이 尊貴(존귀)하고 完全(완전)한 말씀이 아니신가, 기쁘다.

(8) 나 요한이 이런 일들을 보고 들었노라. 내가 듣고 또 보고 나서 이 일들을 내게 보여 준 그 천사의 발 앞에 경배하려고 엎드렸더니

(9) 그가 내게 말하기를 "보라, 그리하지 말라. 나도 선지자들인 네 형제들과 이 책의 말씀들을 지키는 자들과 같은 너의 동료 중이니 하나님께 경배하라."고 하니라.

(10) 또 그가 내게 말하기를 "이 책의 예언의 말씀들을 봉인하지 말라. 이는 그 때가 가까움이라.

(11) 불의한 자는 그대로 불의함에 있게 하고 더러운 자는 그대로 더러움에 있게 하라. 반면에 의로운 자도 그대로 의로움에 있게 하고 거룩한 자도 그대로 거룩함에 있게 하라.

(12)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내가 줄 상이 내게 있어 각 사람에게 그의 행위에 따라 주리라.

(13) 나는 알파와 오메가요 시작과 끝이며, 처음과 마지막이라.

(14) 그의 계명들을 행하는 자들은 복이 있나니 이는 그들이 생명 나무에 대한 권리를 가지며 또 그 문들을 통하여 도성 안으로 들어가게 하려 함이니라.

(15) 그러나 개들과 마술사들과 음행자들과 살인자들과 우상 숭배자들과 누구든지 거짓말을 즐겨 행하는 자는 모두 다 성 밖에 있으리라.

(16) 나 예수는 교회들에 관한 이런 일을 너희에게 증거하기 위하여 나의 천사를 보내었노라. 나는 다윗의 뿌리요 자손이며 또 빛나는 새벽별이라." 하시니라.

(17) 또 성령과 신부가 말하기를 "오라." 하더라. 듣는 자도 "오라." 말하게 하고 또 목마른 자도 오게 하며 원하는 자는 누구든지 생명수를 값없이 마시게 할지어다.

(18) 이는 내가 이 책의 예언의 말씀들을 듣는 각 사람에게 증거함이니 누구든지 이것들에 더하면 하나님께서 이 책에 기록된 재앙들을 그에게 더하실 것이요

(19) 또 누구든지 이 예언의 책의 말씀들에서 삭제하면 하나님께서 생명의 책과 거룩한 도성과 이 책에 기록된 것들에서 그의 부분을 제하여 버리시리라.

(20) 이런 일들을 증거하신 분이 말씀하시기를 "반드시 내가 속히 오리라." 하시니라. "아멘. 그러하십시오.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21)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너희 모두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이것으로 요한계시록에 대한 모든 구절의 해석을 마치도록 한다. 사실 마지막은 어떤 주석이 나 해석을 달 필요가 없는 그런 말씀들이었다. 한 번씩 읽어보며 상상할 수 있는 즐거움을 빼앗고 싶지도 않다. 그저 성도들이 이 곳에 소망을 두고 살아갔으면 하고 또 그렇게 살아간다면 무에 두려울 것이 있으며 이 땅에 무슨 아쉬움이 있겠는가, 필시 그런 성도들에게는 하나님께 명만을 지키고 살아가겠다는 결단과 도전만이 남아 있을 뿐이다.

## 28. 부록, 못다한 이야기들

앞에서 했던 얘기들도 있으나 한 번쯤 되돌아본다는 의미에서 올리는 것이니 재미로 봐 주시기 바랍니다.

### 1) 다니엘과 계시록에 바탕을 둔 환란시나리오.

최근 돌아가는 정세와 성경을 통해 본 것들을 종합하고 적그리스도의 출현시기가 언제쯤 될까 싶어 이 글을 작성합니다. 주님이 오시는 날은 아무도 알 수 없습니다. 또 그 시기를 얘기하면 이단으로 몰리기 쉽습니다. 그래서 저 또한 이 글을 쓰는데 조심스러울 수 밖에 없음을 고백하면서 시작할까 합니다.

먼저 요엘서에 있는 것을 베드로사도가 인용한 것을 한 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엘 2장

...

(28) ○ 그 후에, 내가 내 영을 모든 육체 위에 부으리라. 그러면 너희 아들들과 너희 딸들이 예언할 것이요, 너희 노인들은 꿈들을 꿀 것이며, 너희 청년들은 환상을 보리라.

베드로사도는 오순절날 성령이 임하는 것을 보면서 의아해 하는 많은 사람들앞에서 설교를 하며 이 구절을 인용했습니다.

사도행전 2장

...

(16) 이것은 선지자 요엘로 말씀하신 바이니

(17)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마지막 날들에 내가 내 영을 모든 육체 위에 부으리라. 그러면 너희 아들과 딸들이 예언할 것이요, 또 너희 젊은이들은 환상을 볼 것이며, 너희 노인들은 꿈을 꾸리라.

그럼 이 요엘 2장에서 근래에 많은 사람들이 인용하고, 특히 사도들이라고 주장하는 그들이 말씀하신 요엘의 “그 후에”라고 말씀하신 이 때는 과연 언제를 말씀함일까요. 그것은 앞, 뒤 문맥과 구절을 살펴보면 명백히 천년왕국시대를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말세에 살고 있다는 우리에게 부여될 것이라는 말씀이 아니구요. 천년왕국때에 하나님께서 내영을 모든 육체위에 부으신다고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러면 과연 어떤 일이 생길까요,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을 알게 된다는 것입니다. 물론 그 때는 그 분이 만왕의 왕이시오, 주가 되시니 누가 모르겠습니까마는 특별히 믿는 자들에게 더욱 더 큰 성령의 은혜를 부여하실 것이라는 약속일 것입니다. **은사주의자들은 바로 이 천년왕국때나 있을 일을 시기적으로 앞당겨 놓았습니다. 왜 그렇게 했을까요.**

그리고 이번에는 베리칩을 보겠습니다. 베리칩이 666표이고 이 세상 모든 사람들이 받게 될 날이 오려면 아마도 과장해서 한 20년정도는 걸리지 않을까요?

많은 분들도 주장하고 계시고 저도 그렇게 생각하는 7년의 환란중 특히 후 삼년반은 적그리스도와 영적인 어떤 무리들, 그리고 거짓선지자가 합동으로 작전을 펼치는 시대가 됩니다. 이때를 바로 주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마태복음24장입니다.

(19) **그 날들에는 아이 벤 자들과 젓먹이는 자들에게 화가 있으리하다**

(20) 너희의 도망하는 일이 겨울에나 안식일에 되지 않도록 기도하라

(21) 이는 그 때에 큰 환난이 있겠음이라 창세로부터 지금까지 이런 환난이 없었고 후에도 없으리라

(22) 그 날들을 감하지 아니할 것이면 모든 육체가 구원을 얻지 못할 것이나 그러나 택하신 자들을 위하여 그 날들을 감하시리라

19절을 주목해 보십시오. 이 말씀은 여자들에게 더 큰 화가 있다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왜 일까요, 왜 하필 여자들에게는 더 큰 화가 있다고 하는 것일까요. 다른곳에서 한 번 찾아 보겠습니다.

(1) 보라, 주의 날이 오나니, 네 약탈물이 네 가운데서 나뉘리라.

(2) 내가 모든 민족들을 모아 예루살렘을 대적하여 싸우게 하리라. 성읍은 함락되고 집들은 강탈당하며 **여자들이 옥을 당하고**, 성읍의 절반이 사로잡혀 갈 것이나 백성의 나머지는 성읍에서 끊어지지 아니하리라.

이곳에서도 여자들이 옥을 당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똑같이 환란을 당하는데 굳이 여자를 따로 끄집어내신 이유가 뭘겠습니까, 믿기 어려우시겠지만, 제가 앞에서 언급했던 바로 그 이유 때문입니다.

## 창세기6장

(1) 사람들이 지면에서 번성하기 시작하고 **딸들이 그들에게서 태어났을 때**

(2)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들의 딸들이 아름다운 것을 보고, 그들이 택한 모든 자를 아내들로 삼으니라.

(3) 주께서 말씀하시기를 "내 영이 항상 사람과 다투지는 않으리니, 이는 그도 육체임이라. 그래도 그의 날들이 일백이십 년이 되리라." 하시니라.

(4) 그 당시에 땅에는 거인들이 있었고, 그 후에도 있었으니, 즉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에게 들어와서 그녀들이 그들에게 자식들을 낳았을 때이며, 그들은 옛날의 용사들로 유명한 사람들이 되었더라.

이 때는 노아때의 홍수가 일어나기 120년 전입니다. 그리고 다시 마태복음 24장입니다.

(37) 그러나 노아의 때와 같이 인자의 오는 것도 그러하리라.

이렇듯 노아의 때에 벌어졌던 일들이 다시 한번 벌어질수도 있을 거라고 얘기하는 것은 아닐까요, 워낙 짧은 삼년반의 일이라 자식을 낳아 장성할 때까지 키우고 그러지는 못하겠지만, 그런 것과는 상관없이 육체가 되어버린 이 타락한 천사들은 정욕에 못 이겨 사람의 딸들을 強制(강제)적으로 劫姦(겁간)하게 할 만한 사태들이 이 시기에도 일어나게 될 것이라는 無言(무언)의 暗示(암시)는 아니겠는가 하는 것입니다. 가능성이 전혀 없다고 할 수는 없다고 봅니다. 느부갓네살의 금신상의 열발가락에서 보았듯이 저들이 씨를 섞으려 한다고 했으니깐요. 암튼 이것에 대한 분별도 함께 가지고 계셨으면 하는 마음에서 드린 말씀이었습니다. 다시 베리칩으로 돌아와서,

실로 하나님께서는 그 날들을 줄이지 아니하시면 구원받을 육체가 없다고 하십니다. 고문과 핍박이나 그 괴로움이 엄청날 것이라라는 말씀이지요. 그리고 이때에 비로소 많은 사람들이 666표를 시행할 거라고 합니다. 뭐 딱히 이거다라고 할 수 있는 것이, 지금 많이 들 얘기하는 베리칩이 아닐까 싶습니다. 지금은 베리칩이 너무 크다. 앞으로 더 작아질 것이다. 라고 저도 얘기했었고, ^^;; 많으신 분들이 또 그렇게 알고들 계실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 너무 공교로운것이 하나 있습니다.

이것은 어찌보면 신용카드같은 기능을 하는 것입니다. 베리칩으로 그것을 받는 사람의 병적, 인적사항이나, 기타 여러 가지 정보를 입력해두어 위급할 때 사용하겠다는 것이지요. 근데 말이지요, 도대체 이런 기능이 하나님과 무슨 상관이 있을까요, 그것은 우상을 섬기는 것도 아니고, 그를 따르는 것도 아닙니다. 그저 생활의 편리를 위해서 받는 신용카드보다 조금 발전된 형태의 개인인식시스템일 뿐이라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그들(세계정부주의자들)은 그것을 희한하게도 오른손에 넣겠다는 것이구요, 생각을 신중히 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하겠다는 그들의 발상에 대해서 말이지요, 그렇다고 제가 그것이 나오면 666표가 아니니 나는 받겠다라는 뜻은 아니니 걱정마시기 바랍니다. 다만 분별을 해보자는 것입니다. ^^

자,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왜 그들은 하필 성경에 그런 글이 있다는 것을 아는 성도들에게 그것이 마치 666표인것처럼 사인을 보내는 것일까요, 그들은 믿는 자들도 아닌데요, 그들 스스로 사탄의 하수인임을 내세우는 걸까요? 그들은 바보인가요? 아니면 우리가 바보일까요. 또 그 표를 666표라고 그러는게 그들의 입으로 그러는 건가요, 아니면 우리가 그것일 것이라라고 하는 건가요.

그리고 칩에다 라디오무선주파수를 달아서 사람의 뇌를 조종한다? 그것이 가능할까요? 또 그렇게 하는 것을 하나님께서는 허락하시나요? 그리고 그렇게 정신병자가 되어버린 그들을 하나님께서 공의로 심판하시나요? 너무 과학을 맹신하는 것은 아닌가요? 우리를 그렇게 조종할 수 있게끔 그들은 그러한 시스템을 이미 갖추고 있는가요?

혹시 하프 (HARRP) 얘기를 하시는 분들이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하프는 저도 어느 정도는 알고 있지만 아직까지는 기상을 조절하는 역할 이상을 기대하기는 힘든 실정이라고 알고 있습니다. 그것으로 비나 눈을 내리게 하거나, 지진이나 쓰나미를 일으키는 것은 가능합니다. 그리고 폭풍이나 허리케인, 태풍을 일으키는 것도 가능하구요, 추위나 더위까지도 어느 정도는 가능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그것을 가지고 사람 정신까지 조종할 수 있다는 상상까지 발전하는 것은 너무 심한 오버 아닌가요? 그들이 그 정도까지 할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자체가 하나님의 능력을 과소평가하는 것이고, 그들의 능력이 하나님보다 뛰어나다라고 믿는 것이며, 성도스스로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깎아 내리는 것이라는 것을 알고나 있는 건가요? 그런 사람이 과연 온전히 믿는 사람인가요? 하나님께선 사람을 그렇게 단순하게 만드셨던가요?

세상에는 아직까지 사람들이 정복하지 못한 분야가 너무도 많이 있지만, 그 영역중에 하나가 바로 사람의 뇌입니다. 뇌의 5%도 채 사용하고 있지 못하다고 한 때 과학 잡지에 발표된 적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영역별로 무엇을 하는지 겨우 감을 잡아가는 이때에 그 복잡하고 어렵고 오묘한 사람의 정신을 조종한다구요? 말도 안됩니다. 그것을 믿는 것은 또하나의 진화론을 믿는 것입니다.

Wake up, please. 하나님의 자녀인 여러분, 그들의 마술에 속지 마십시오.

각설하구요. 지금부터 여러분의 상상력을 자극해 보겠습니다.^^

베리칩,

그런데 혹시라도 이 베리칩이 666표가 아니라면 어떻게 될까요, 만일에 아니라면....,

적그리스도는 이 시스템이 일찍 시행되게 하는 것처럼 보이는 것이 유리할까요, 아니면 아직 멀리 요원한 것처럼 보이게 하는 것이 유리할까요, 만약에 그들이 우리를 속이고 있는 것이라면, 어떤 것이 유리하겠습니까? -저는 지금의 세계주의자들이 알게 모르게 사탄의 조종을 받고 있다고 분별하고 있습니다.

666표가 시행될 날이 멀었다라고 생각한다면 말이지요, 사람들이 종말에 대해 관심이 없을 것입니다. 특히나 그리스도인들이라면 말이지요. 그럼 그들에겐 그렇게 하는 것이 훨씬 유리할 것입니다. 마음 놓고 자신들이 하고 싶은 일들을 할 테니까 말이지요. 그런데 그들이 하는 것은 반대입니다. 안 가르쳐 주는 척, 몰래 하는 척 하면서 다 공개되고 있고, 정확히 말하자면 다 공개하고 있습니다. 아주 자그마한 것들까지 말이지요, 도대체 무엇을 얻자는 것일까요, 또 세계정부주의자들에게 666표란 대체 무슨 의미가 있는 것일까요, 왜 그들이 666표를 운운하는 것일까요, 이렇게 한 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시나리오가 있는데 말이지요. 함 보시죠.

666표는 일단 모습은 드러냈다고 보여집니다. 그러면 그리스도인들은 이 666표에 많은 관심을 가지게 되고, 누가 기독교에 대해 무슨 짓을 하든, 쉽게 말해서 세계 많은 종교들이 종교연합을 한다거나, 경제적으로 세계통일을 하려고 한다고 하면 일단의 비평만 가할 뿐 사실 그다 관심은 없을 것입니다. 며 좋은 일처럼 보일 수도 있으니까 말이지요. 기독교인의 모든 관심은 미국에서 시행되고 있는 베리칩이 언제쯤이나 세계로 퍼지게 되는가를 눈여겨만 보고 있을테니까요. 그 전에 성도는 휴거될 것이라는 부푼 희망을 가지고 말입니다. 지금 계시록의 휴거시기에 대해 너무나 많은 분별들이 돌아다니고 있습니다. 죄송하게도 그것에 저도 한 몫을 했지요.

어쨌거나 사실 우리는 적그리스도의 출현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 때부터 칠년이고 아마도 우리가 그의 출현을 알기 위해서는 먼저 열왕의 존재와 출현여부를 알아야 할 것 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이 열왕은 누가 될까요, 과연 적그리스도의 등장이전에 먼저 세계를 열나라로 통합할 수 있을까요? 그들의 계획대로 열 개국의 유니언그룹으로 말입니다. 아프리카유니언, 유럽유니언, 아시아유니언, 오세아니아유니언, 등등, 그런데 지금 상황에서는 진척되는 상황이 보이지 않고 있고 또 상당히 시일도 걸릴 듯 보여집니다. 웬지 이 연합하겠다는 것은 속임수인 것 같습니다. -( 저도 그렇게 알고 있었는데 속았다는 느낌이 강하게 듭니다.) - 우리

는 생각하기에 최소 10년 이상은 있어야 그런 일이 일어날 것 같다는 생각만 어렵듯이 하고  
있구요, 아니, 환란전 휴거론자들은 가까운 시일에는 휴거를 기다리고 있죠, 그런데 666의 등  
장은 좋았지만 전 세계로의 시행은 역시 아직이라는....

이제부터 시작입니다.

미래의 어느 시점에서 인가 성도들이 이것을 알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그 표가 시행되려고  
했었는데 시행되지 못하고 폐기처분되었다라는 소식을 듣게 되면요. 흠, 아마도 허탈함에 빠  
지게 될 것이고, 이제 두 번 다시는 그런 것에 대해 관심을 가지려 하지 않을 것입니다. 하지  
만 그렇다고 그 표가 완전히 없어졌다고 생각하지는 않겠지요. 다만 그 표의 시행이 더 먼 미  
래로 늦춰졌다고 생각할 뿐이겠지요, 그래서 주님 오시는 시간이 늦춰졌다고 생각하게끔 생  
각할 것이고 그렇게 만드는 것이 그들의 목적일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이 베리칩의 운명은  
바로 그런 것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사람들의 관심을 있는 대로 끌어 놓고 어느 순간 폐기처  
분, 역시 아주 대단한 시나리오 아납니까?

그 666표라는 것을 모양만 바꿔가면서 계속 새로운 것으로 만들어 내는 방법도 있습니다,이  
미 우리는 그것을 한 번 경험한 바가 있습니다. 바로 바코드가 그것이죠, 그런데 결국 폐기처  
분됐죠, 그러다가 성도들은 이게 아닌갑네, 하고 기다렸었는데 누군가에 의해 베리칩이라것  
이 나오게 되고, 그래서 잔뜩 기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말이죠 어느 순간, (아직은 아니  
지만...) 역시 폐기처분된다면, 그러면 또 이건아닌가부다.하고 기다리다가 더 작은것, 그런  
데 역시나 또 폐기처분, 허탈, 이렇게 계속 반복된다보면 어느샌가 적그리스도는 성도들을  
짓밟고 있다는...

이런 시나리오가 존재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중심으로 풀어나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이 시점에서, 베리칩이 폐기처분되면 그리스도인들은 그야 말로 맥을 놓게 되는 겁  
니다. 패닉상태에 빠져 이제 다시는 그런 것에 관심을 두려하지 않을 것이라는 거지요. 그러  
나 그들 중에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다른 것을 찾는 사람들도 존재하겠지만요. 아마 대다수  
의 사람들은 그 문제에 대해 잠시 접어야겠다고 생각을 할 것입니다, 그런 때에 알게 모르  
게 세계화는 마무리되어가고 있을 것이구요, 그런데 눈에 뵈히 보이던, 666표는 사라지고, 대  
신 어느 **영웅이 출현**해서 세계를 놀라킬 만한 업적을 달성하게 됨으로, 많은 사람들이 그를  
우상으로 떠받들게 됩니다. 그의 등장보다 먼저 나라를 경제적으로 통합했던 **열왕들도 그의  
출현에 놀라움을 표하면서 두려움반, 존경심반으로 자신들의 권세를 그에게 이양**하게 되는  
것이구요. 평화를 위해서 말입니다, 비야호로 명실상부한 세계의 대통령이 탄생되는 것입니  
다. 그의 카리스마는 엄청날 것입니다. 골치아픈 중동문제를 해결하게 될 것이구요, 또 경제  
문제, 정치문제를 해결하는 듯이 보이고 그로 인해 세계를 평화롭게 이끌어 나가게 되는 듯이  
보일 것입니다. **(그러나 이때까지도 일반인들은 그런 일이 있었는지, 그가 누군지도 알 수 없  
습니다. 아직 그의 존재가 드러나지 않았기 때문이지요. 최근에 깨달은 것이라... 사과드립니다  
^.;)**

그렇게 좋은 시기로 접어들 이 때에, 항상 그들의 속을 썩이던 종교통합문제가 그와 그들의  
앞에 걸림돌로 등장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는 집권 7개월이 조금 넘은 시점에 세계의 종교를  
강제로 통합하겠다는 선언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세계통합종교외에는 다른 어떤 신에게도  
제사나 예배를 드리지 못하도록 법으로 정하는 것입니다. 그의 능력으로 그 모든 일들을 추진  
해 나가는 가운데 성도들은 지치게 되고, 숨어서 예배를 보기도하고 종교의 자유를 위해서 탄  
원도하고, 싸우고, 집회하고, 힘을 모아 대적하게 되겠지요, 세계는 그것으로 인해 시끄러울  
것이구요. 기독교는 특히 많은 미움을 받을 것입니다. 그러는 동안 집권한지 **삼년만에** 적그  
리스도는 큰 음모를 꾸미게 됩니다. 심한 반발을 하는 그들을 무너뜨리기 위해, 같은 종교인  
(연합한 타종교)들을 동원하여 그들을 물리치려고 하는 것입니다. 말로나 능력으로 그들에게  
호된 공격을 당하던 기독교인들은 그들의 무법함과 가증함에 **다섯달 동안** 쓰라린 괴로움을 당  
하게 되고, 결국 힘이 빠져, 주님의 은혜만을 구하게 되는데, 그러한 가운데서 이제 드디어 적  
그리스도는 승리를 눈앞에 둔 것처럼 보이는 시점에 **자랑스러운 듯 거룩한 곳에 앉아 자신이  
곧 하나님이라고 하는 망발을 하게 됩니다. 자신이 곧 신이라고 공표를 하는 것입니다.** 아마도  
태양신의 아들이라고 하게 되겠지요.

이 때 사실을 정확히 모르고 그러한 것에 관심도 없는 비기독교 세계인들은 그 시끄러운 싸움을 비판하며 지켜보고 있었을 것인데, 그런 어느날 그들 앞에 서서 주의 이름을 증거하던 **십사만 사천명의 증인들**이 순식간에 사라져 버립니다. 대체 무슨일이 일어난 것일까요, 그러나 적그리스도는 절대로 놀라지 않습니다. 이미 알고 있었던 일이거든요, 그 대신 그는 그러한 사건을 무마시키기 위한 놀라운 계획을 꾸미게 됩니다. **자신에게 대항하는 기독교인들을 모조리 죽여 버리기로 회의를 하고 드디어 그렇게 결정을 내리고 그 일이 있고 난후 한달후에** 그 거국적인 일을 실행하게 됩니다. - **이상 전삼년반상황, 계시록 9장 1절로 11절까지,**

사실 적그리스도는 이러한 사태가 일어날 것을 미리 알고 있었고, 그래서 없어진 자를 제외한 그들 중에 남아있는 증인들의 명단을 모두 확보한 상태였습니다. 그래서 그의 명령에 의해 십사만사천이 들림 받은 **한달 후인, 그 해, 그 달, 그 일, 그 시**에 동시에 주의 증인 **이역명**을 죽여버리는 것입니다. - 후삼년반시작( 계시록 9장13절이하) 같은 숫자의 **그의 영적인 군대 이역명**을 동원해서 말이죠, 세계의 평화를 이루겠다는 명목을 가졌으니, 이 때에 그를 따르는 세계 수많은 사람들이 드디어 이 땅에 완전한 평화가 실현되었다면서 서로 축하하고, 축하해주고, 같이 즐거워 춤을 추며 종교통합과 경제통합과 각 나라의 통합이 동시에 완성되었음을 기뻐하게 될 것입니다. 때 마침 거짓선지자까지 등장해서 그(적그리스도, 짐승)를 신격화하는 작업을 진행하게 되고, 드디어 그를 하나님이라 칭하며, 많은 이적을 보이고, 가증한 말을 하며, 만유의 하나님을 모독하는 말을 하게 되고, 더불어 그에 의해 세상 곳곳에서 짐승을 숭배하는 일이 벌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모든 나라의 백성들이 각 나라의 일요일날이나 혹은 나팔(싸이렌)을 불어 그 시간을 알리면 (태양을 향하게 될것이라는 추측이 가능), 그에게 경배를 하는 다니엘서 3장의 우상경배사건이 벌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이 때 경배에 참석하지 않는 자들은 고발을 당하고, 그러면 가차 없이 끌려가 고문을 당하고 죽거나, 그 자리에서 어디론가 끌려가 쥐도 새도 모르게 역시 죽임을 당하게 되는, 역사상 유례가 없는 대환란이 이 땅에 시작되는 것입니다. 바로 그 말씀이 마태복음 24장 19절이하에 예언하신 말씀들입니다.

환란의 징조였던 666표는 온데 간데 사라져 얘기도 없구요, 성도들은 왜 이런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의아해 할 수 밖에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런 일을 벌이는 자가 적그리스도였음을 그제서야 눈치챈 남아 있는 그리스도인들은 그것을 믿는 자들에게 전하면서 그를 경배하지 말라는 것이 바로 666표의 의미였다는 것을 전하게 되고, 목숨을 바쳐 순교도 하게 될 것입니다. 사실 666표가 베리칩이었어도 안 받을 사람들이었기에 그 때에는 목숨을 걸고 짐승을 경배하지도 않을 것입니다. 그 때, 그들은 자신의 목숨으로 본인의 믿음을 증명하게 될 것입니다. 이역명이 순교한 후에 거짓선지자이후 짐승의 경배를 거부하는 성도가 또 이역명이 순차적으로 순교하게 될 것입니다. 아마도 주님오시기전까지 피비린내 나는 살육적이 벌어지겠지요. 그리하여 모두 총 4억명이 순교를 하게 됨으로 자신의 믿음을 증명하게 될 것입니다.

이 후 시나리오에는 여러분도 아시는대로 진행이 됩니다. 역시 삼년반 후에 주님 진노전에 이렇게 죽임당한 많은 증인들이 살아나 승천을 하고, 하나님의 진노가 이 땅에 쏟아지고, 주님 재림하시면서 남아있는 성도 이역정도가 휴거가 되고, 짐승과 거짓선지자가 붙잡혀 심판을 받아 불못에 던져지고 사탄은 무저갱에 천년동안 갇히는 1차적인 심판이 있게 됨으로 이 땅에 고대하고 고대하던 천년왕국이 시작되는 것입니다.

결론을 내리겠습니다. 제가 본 바 이제 환란의 날이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계시록이 풀리고 있음을 보고, 제 자신이 매일 말씀을 볼 때마다, 그러한 영감을 주심을 깨닫습니다. 달란트받은 종의 비유를 아십니까, 다섯달란트, 두 달란트, 한 달란트비유 말입니다. 누구나 그렇듯이 저도 그것이 재능에 관한 비유인 줄 알았습니다. 헌데 아니었습니다, 그 비유를 말씀하신 시기가 놀랍게도 주님 말세의 말씀을 하셨던 마지막 다섯번째 산상설교, (마태복음24장) 이 후임을 알게 되었습니다. 이제 그 비유의 의미를 다시 알려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속히 될 일을 종들에게 알리시려고** 하신 것입니다. **이 글을 보는 여러분들이 바로 하나님의 종들입니다.** 그 받은 바 사명(놀라운 비밀)을 전파하지 않고 땅에 묻어두는 자가 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그런 자는 어두운 곳에 내쫓겨 이를 값이 있으리라라고 하셨습니다. 그

런 좋은 게으르고 악한 종입니다. 주의해서 보십시오, 주의 날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의심나시면 이 글을 연구하시고, 계시록을 보시고 또 제 글들을 참고 하십시오, 제 글에는 오류가 있을 수 있습니다. 또 제가 미처 발견하지 못한 것도 있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연구하시면서 더 발견하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을 찾아보고 연구하십시오, 그래야 환란날에 견뎌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주위성도들에게 알려십시오, 핍박도 당할 것입니다만 더욱 주님만 의지하십시오, 힘을 달라고 말입니다. 지금 당장 시작하십시오, 시간이 많지 않은 것으로 분별이 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저는 제 글이 옳음을, 증명해 나가는 것을 계속할 것입니다. 의심나시면 확인하십시오, 성경을 앞에 두고 제 말이 맞는가 오류가 없는가를 확인하십시오, 그리고 제 말과 성경이 일치되면 믿으십시오, 글로 쓰는 것이 답답한 일임을 느낍니다. 얼마나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지, 이해되고 있는지, 제가 알 수가 없으니깐요. 제가 그동안 말씀드린대로 이 계시록에 하나님께서 정하신 규칙을 가지고 확인을 하시면서 읽으신다면 누구나 이 결론에 도달하게 될 것입니다. 아무쪼록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길 기원합니다. 항상 평강하십시오. 감사합니다.

## 2) 말세에 관한 말씀들

### 말세성도에게 하시는 말씀

마태복음 10장

...

(21) 장차 형제가 형제를, 아버가 자식을 죽는데 내어주며 자식들이 부모를 대적하여 죽게 하리라

(22) 또 너희가 내 이름을 인하여 모든 사람에게 미움을 받을 것이나 나중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 환란을 예고하심

(23) 이 동네에서 너희를 핍박하거든 저 동네로 피하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스라엘의 모든 동네를 다 다니지 못하여서 인자가 오리라 - 속히 오시겠다는 약속

...

(26) 그런즉 저희를 두려워하지 말라 감추인 것이 드러나지 않을 것이 없고 숨은 것이 알려지지 않을 것이 없느니라 - 사단의 음모와 술수는 그날에 모두 드러나게 된다는 의미.

(27) 내가 너희에게 어두운데서 이르는 것을 광명한데서 말하며 너희가 귓속으로 듣는 것을 집 위에서 전파하라 - 깨어있는 자는 전하라

(28) 몸은 죽여도 영혼은 능히 죽이지 못하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오직 몸과 영혼을 능히 지옥에 멸하시는 자를 두려워하라

...

(32) 누구든지 사람 앞에서 나를 시인하면 나도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앞에서 저를 시인할 것이요

(33) 누구든지 사람 앞에서 나를 부인하면 나도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앞에서 저를 부인하리라

(34) 내가 세상에 화평을 주러 온 줄로 생각지 말라 화평이 아니요 검을 주러 왔노라  
-계시록6장 붉은말을 탄자, 칼을 받았더라

(35) 내가 온 것은 사람이 그 아비와, 딸이 어미와, 며느리가 시어미와 불화하게 하려 함이니

(36) 사람의 원수가 자기 집안 식구리라

(37) 아비나 어미를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는 내게 합당치 아니하고 아들이나 딸을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도 내게 합당치 아니하고

(38) 또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좇지 않는 자도 내게 합당치 아니하니라

(39) 자기 목숨을 얻는 자는 잃을 것이요 나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잃는 자는 얻으리라

어떠한 어려움 가운데서도, 주님을 향한 진실한 사랑이 변함이 없어서는 안된다는 권면의 말씀이다. 예를 들자면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의 믿음 말이다. 죽음앞에서도 결코 굽히지 않는 신념과 믿음을 지키라는 말씀인 것이다.

마태복음 24장

...

(37) 노아의 때와 같이 인자의 임함도 그러하리라 -

노아의 때는 어떠한가? 뒷절에서도 말씀하고 계시지만, 바로 지금우리가 살고 있는 현 세상이 그렇지는 않은가 돌아봐야 할 시점이 되었다. 우리는 아직 주님이 오시지 않을 것이라고 얘기한다. 왜냐면 주님께서 그날은 아무도 모른다고 하셨고, 아버지만 아신다고 하셨으니 말이다. 그리고 우리는 웬지 그날에 대해 얘기하면 이단처럼 보이는 그런 현실에 살고 있다. 바로 이런 때가 노아의 때가 아닌지... 항상 둘러보고, 특히 말씀의 의미를 깨닫기 위해 노력을 경주해야 할 때가 바로 지금 이 때인 것이다.

(38) 홍수 전에 노아가 방주에 들어가던 날까지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장가 들고 시집 가고 있으면서

우리는 666표가 드러나기 전에는 멸망이 오지 않을 것이라고 알아왔고, 특히 배도의 일이 일어나고, 멸망의 아들, 적그리스도가 나타나기 전까지는 그런 날이 임하지 않을 것이라고 알고 있다. 그런데 적그리스도의 출현을 확실히 알 수 있는 것은 후삼년전 한달전이라고 분별이 된다. 따라서 그가 한이레 시작인 7년동안의 약속을 맺을 때 성도는 그것을 정확히 모를 수도 있고 그가 거룩한 곳에 앉아 자신을 하나님이라고 선언할 때에야 그가 짐승인것을 정확히 분별할 수 있게 될 것으로 보인다. 언제가 전삼년반의 시작인지 정확히 모를 수 있다는 얘기이다. 이것에 대한 추측은 바로 데살로니가 2장을 봄으로 분별할 수 있다.

(3) 누가 아무렇게 하여도 너희가 미혹하지 말라 먼저 배도하는 일이있고 저 불법의 사람 곧 멸망의 아들이 나타나기 전에는 이르지 아니하리니-살후 2장

(3) Let no man deceive you by any means: for [that day shall not come], except there come a falling away first, and that man of sin be **revealed**, the son of perdition;

여기 쓰인 reveal이 비로소 이 때에야 드러난다는 의미를 가지고 있어서이다. 이렇듯 다른것에 관한 것도 이미 알아본 바대로 사실임을 알 수 있다. 그러나 생각보다 가까이에서, 그런 일이 벌어지고 있음도 알아야 할 것이다. 2013년에 우리나라에서 세계종교협의회(WCC)가 열린다. 그보다 더 많은 행사들이 우리나라에서 계속 열릴 것으로 생각이 된다. 계시록의 일곱교회 중에 우리나라는 라오디게아교회에 속하는 것이 틀림없음으로 보인다. 라오디게아교회는 부했고 잘사는 그런 동네였다. 학자들의 연구결과를 보자.

라오디게아는 빌라델비아 동남쪽 약72km, 에베소에서 동쪽으로 약 160km 지점에 위치한 도시로서 라이커스(Lycus) 계곡에있는 여러 도시들 중 하나이다. 또한 맞은 편으로 10km 지점에는 히에라블리가 약14km 지점에 골로새가 위치해 있었는데 이 세 곳은 바울 서신에서 밀접한 관련이 있는곳이다(골4:13,16). 이곳의 특징은 교통의 요충지였을 뿐만 아니라 모직물 공업의 중심지였으며 '브루기아 가루'마 알려진 안약과 의학교가 있었다. 또한 활발한 금융거래로 풍요로운 생활을 누렸다.

우리는 이렇게 먹는것, 입는것에 부족함이 없이 잘 살고 있지만, 지금 세계적으로는 많은 어려운 일들이 벌어지고 있다. 미처 깨닫지 못하고 있기도 하고, 그들의 어려움과 고통에 마음이 아파, 보고도 못본 척, 알아도 모르는 척 살고 있으며, 언젠가 저들도 좋아지겠지라는 단순한 바램으로 그들을 나몰라라하고 있음도 양심에 손을 얹고 생각해 봐야 할 때인 것이다. 주님께서 처처에 지진과 기근이 있으리라는 말씀이 바로 우리 시대에 닥친 현실임도 깨달아 알아야 한다는 얘기이다. 우리의 문제가 무엇인가? 바로 주님을 향한 뜨거움이 없는 것은 아닌지, 라오디게아교회에 주는 말씀의 교훈에 귀를 기울여야 할 때가 아니겠나 싶다.

(39) **홍수가 나서 저희를 다 멸하기까지 깨닫지 못하였으니 인자의 임함도 이와 같으리라**

(40) **그 때에 두 사람이 밭에 있을 때 하나는 데려감을 당하고 하나는 버려둠을 당할 것이요**

(41) **두 여자가 매를 갈고 있을 때 하나는 데려감을 당하고 하나는 버려둠을 당할 것이니라**

- 분명 7년 환란은 어려운 때임에 틀림없을 것이다. 그런데 이 말씀은 무엇을 얘기하는가, 평상적인 생활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다. 그렇다면 이 시기는 시온산에 거할 들림받는 첫 번째 열매(십사만사천)를 취하시는 장면으로 생각되어 지지 않는가. 후삼년반 세상에는 어려움과 고통과 전쟁, 핍박도 있을 것이지만, 이 시기에는 그렇게 심하지 않다는 것을 알 수 있다.

계시록의 일곱교회중에는 이 세상에서 먹는 걱정은 잠시라도 접어둔 채 살고 있는, 한마디로 부유한 모든 나라의 성도들은 바로 라오디게아교회 성도일 것이다. 교회(큰 의미로는 각나라를 교회로 볼 수도 있고, 작게는 나라에서 성도를 구성하고 있는 교회모임)들중에는 사탄의 자리에 있는 교회도 있을 수 있고, 지진과 기근에 시달리는 교회도 있고, 흉년과 전염병에 시달리는 교회도 있고, 환란과 핍박에 시달리는 교회도 있으며, 죽음으로 자신의 믿음을 증명해야 하는 교회도 있고, 거짓사도들이 판을 치는 교회도 있을 수 있으며, 음행하는 교회도 있을 것이다. 또 각나라에 이 모든 교회들이 모두 존재할 것이다. 지금 우리가 처한 현실은 바로 라오디게아교회임을 깨닫고 더욱 뜨거운 믿음을 소유하는 그런 성도로 거듭나야 할 것이다.

(42) 그러므로 **깨어 있으라 어느 날에 너희 주가 임할는지**

(43) 너희가 알지 못함이니라 너희도 아바니 만일 집 주인이 도적이 어느 경점에 올 줄을 알았더라면 깨어 있어 그 집을 뚫지 못하게 하였으리라

(44) 이리므로 **너희도 예비하고 있으라 생각지 않은 때에 인자가 오리라** - 이 생각지 않은 때에 라는 말이 무슨 말인가, 앞에서 알아 보았듯, 주님 오실 때가 멀었다고 생각하는 자들에게 하시는 말씀 아니겠는가, 노아때와 같이 혹시라도 우리가 살고 있는 지금 이때에 주님이 오신다면 우리는 뒷통수 맞는 격이 될 것이다. 지금 오신다는 얘기가 아니다. 항상 깨어 있자는 권면의 의미이다.

(45) 충성되고 지혜 있는 종이 되어 주인에게 그 집 사람들을 맡아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눠 줄 자가 누구뇨 -여기서의 양식이란 깨어있도록 알려주고 믿음에 굳게 서 있을 수 있도록 주님 말씀 안에서 권면하고 힘을 북돋아 주는 것이다. 밥을 준다는 의미가 아니다.^^ 가령 아프리카 쪽에 살고 있다면 이 말씀은 그 쪽으로 크게 와 닿을 것이다. 그러나 여기는 한국이다. 또 주님이 소중히 여기시는 건 영이지 육이 아니다. 이 사실을 잊지 말아야 한다.

- (46) 주인이 올 때에 그 종의 이렇게 하는 것을 보면 그 종이 복이 있으리다
- (47)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주인이 그 모든 소유를 저에게 맡기리라
- (48) 만일 그 **악한 종이 마음에 생각하기를 주인이 더디 오리라 하여**
- (49) 동무들을 때리며 술친구들로 더불어 먹고 마시게 되면 - 같은 교우들과 어울려서 모임을 이루고 말씀을 나누지는 않고, 세상과 어울려 거기에 취해 있게 되면,
- (50) **생각지 않은 날 알지 못하는 시간에 그 종의 주인이 이르러**
- (51) 엄히 때리고 외식하는 자의 받는 율에 처하리니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값이 있으리라
- (31) **오직 너희는 그의 나라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런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 (32) 적은 무리여 무서워 말라 너희 아버지께서 **그 나라를 너희에게 주시기를 기뻐하시느니라**
- 누가복음 12장.
- (33) **너희 소유를 팔아 구제하여 남아지지 아니하는 주머니를 만들라 곧 하늘에 둔바 다함이 없는 보물이니 거기는 도적도 가까이 하는 일이 없고 좀도 먹는 일이 없느니라**
- (34) **너희 보물 있는 곳에는 너희 마음도 있으리라** - 주님의 나라에 마음을 둘 것, 가장 중요한 말씀이다. 주의 나라를 사모하지 않으면 그 나라는 자신의 것이 될 수 없을뿐더러, 허락하지도 않을 것이다.
- (35) 허리에 띠를 띠고 등불을 켜고 서 있으라 - 열처녀비유가 생각한다.
- (36) **너희는 마치 그 주인이 혼인 집에서 돌아와 문을 두드리면 곧 열어 주려고 기다리는 사람과 같이 되라**
- (37) **주인이 와서 깨어 있는 것을 보면** 그 종들은 복이 있으리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주인이 띠를 띠고 그 종들을 자리에 앉히고 나와 수종하리라 - 첫번째 들림(십사만 사천)
- (38) 주인이 혹 **이경에나 혹 삼경에** 이르러서도 종들의 이같이 하는 것을 보면 그 종들은 복이 있으리다 - 두 번째 승천(두 증인), 세 번째 휴거(종말성도)의 상징적의미로 볼 수 있다.
- (39) 너희도 아는바니 집 주인이 만일 도적이 어느 때에 이를 줄 알았다면 그 집을 뚫지 못하게 하였으리라 - 어느 때에 주님이 오실 줄 알았다면... 과 같은 뜻이다.
- (40) 이리므로 너희도 예비하고 있으라 **생각지 않은 때에 인자가 오리라 하시니라**
- (41) 베드로가 여짜오되 주께서 이 비유를 우리에게 하심이니이까 모든 사람에게 하심이니이까
- (42) 주께서 가라사대 **지혜 있고 진실한 청지기가 되어 주인에게 그 집 종들을 맡아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누어 줄 자가 누구냐** - 주의 종된자는 말씀을 보고 먼저 깨달아, 알지 못하는 다른

종들이나 성도를 깨우는 역할을 해야 한다. 그러나 그 중에는 그 깨움을 비웃거나 무시당하는 일도 있을 것이나 듣든지 아니 듣든지 전하고 권면하는 일에 힘써야 할 것이다.

(43) 주인이 이를 때에 그 종의 이렇게 하는 것을 보면 그 종이 복이 있으리다

(44) 내가 참으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주인이 그 모든 소유를 저에게 맡기리라

(45) 만일 그 종이 마음에 생각하기를 주인이 더디 오리라 하여 노비를 때리며 먹고 마시고 취하게 되면

(46) 생각지 않은 날 알지 못하는 시간에 이 종의 주인이 이르러 엄히 때리고 신실치 아니한 자의 받는 율에 처하리니

(47) 주인의 뜻을 알고도 예비치 아니하고 그 뜻대로 행치 아니한 종은 많이 맞을 것이요

(48) 알지 못하고 맞을 일을 행한 종은 적게 맞으리라 무릇 많이 받은 자에게는 많이 찾을 것이요 많이 받은 자에게는 많이 달라 할 것이니라

(49) 내가 불을 땅에 던지러 왔노니 이 불이 이미 붙었으면 내가 무엇을 원하리요

(50) 나는 받을 세례가 있으니 그 이루기까지 나의 답답함이 어떠하겠느냐 - 가까이는 십자가 사건을, 멀리는 말세에 깨우치지 못하는 성도들을 두고 하시는 말씀이다. 주님은 이후에 일어난 일들을 모두 알고 계셨다. 그 분 말씀 하나하나가 모두 다 그분의 나라에 관한 말씀이기 때문이다. 그 분께서 만왕의 왕으로 계시는 그분의 왕국말이다. 그래서 우리보고 그곳에 소망을 두고 살라고 하시는 말씀이며, 비록 내가 칼을 던지고 가지만 너희는 내가 남긴 그 모든 것을 보고 깨달아, 소망을 나의 왕국에 두고 살라는 말씀을 하시는 거다.

(51) 내가 세상에 화평을 주려고 온 줄로 아느냐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아니라 도리어 분쟁케 하려 함이로라

(52) 이 후부터 한 집에 다섯 사람이 있어 분쟁하되 셋이 둘과, 둘이 셋과 하리니

(53) 아버지가 아들과, 아들이 아버와, 어머니가 딸과, 딸이 어머니와, 시어미가 며느리와, 며느리가 시어미와 분쟁하리라 하시니라

(54) 또 무리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구름이 서에서 일어남을 보면 곧 말하기를 소나기가 오리라 하나니 과연 그러하고

(55) 남풍이 불을 보면 말하기를 심히 더우리라 하나니 과연 그러하니라

(56) 외식하는 자여 너희가 천지의 기상은 분변할 줄을 알면서 어찌 이 시대는 분변치 못하느냐 - 주님오실 때를 판단하지 못하고 눈과 귀를 막은 이 시대 마지막 믿는 자들에 대한 꾸짖음이다.

(57) 또 어찌하여 옳은 것을 스스로 판단치 아니하느냐 - 스스로 마음을 완악하게 하지 말라는 뜻이다. 복음을 듣고 귀를 막는 것이나, 말씀을 보고 분별하지 않는 것 또한 포함한다. 이 시대에는 남이 해석해 놓은 것만 보고, 대충 그러려니 하는 신실하지 못한 증인들이 너무 많다. 하나님의 종이려면 스스로 보고, 판단하고, 분별할 줄 아는 눈을 키워야 한다.

(58) 네가 너를 고소할 자와 함께 법관에게 갈 때에 길에서 화해하기를 힘쓰라 저가 너를 재

관장에게 끌려가고 재판장이 너를 관속에게 넘겨주어 관속이 옥에 가둘까 염려하라 - 주님과  
의 관계회복에 힘을 쓰라는 말씀이다, 이를 현실세계에 적용하는 것도 물론 가능하다. 하지만  
하나님께서서는 과거와 현재와 미래를 관통하는 말씀을 하고 있으심을 기억해야 한다.또 하나  
그렇게 해석하는 결정적인 이유는 그분의 나라를 말씀하시는 중에 이 말씀을 하셨다는 것이  
다. 그러니 모든 것이 바로 그분의 나라에 관련된 얘기인 것이다.

(59) 네게 이르노니 호리라도 남김이 없이 갚지 아니하여서는 결단코 저기서 나오지 못하리  
라 하시니라 - 죄가 있으면 결단코 구원받을 수 없다는 말씀이다. 그 죄는 우리가 예수그리스  
도를 온전히 믿음으로 씻어진다. 그러면 그 분이 세마포를 주시면서 우리에게 입혀주시고 우  
리의 죄를 가리워 주시는 거다. 온전한 믿음은 예수그리스도를 구주로 모심으로 나는 것이고,  
그 믿음은 천국으로 들어갈 수 있는 입장료가 될 것이다.

### 3) 마지막나팔과 재림나팔은 시기적으로 같은 나팔인가?

고리도전서15장

.....

(51) 보라 내가 너희에게 비밀을 말하노니 우리가 다 잠잘 것이 아니요 **마지막 나팔에 순식간  
에 홀연히 다 변화**하리니

(52) **나팔** 소리가 나매 죽은 자들이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고 우리도 변화하리라

(53) 이 썩을 것이 불가불 썩지 아니할 것을 입겠고 이 죽을 것이 죽지 아니함을 입으리로다

(54) 이 썩을 것이 썩지 아니함을 입고 이 죽을 것이 죽지 아니함을 입을 때에는 사망이 이감  
의 삼킨 바 되리라고 기록된 말씀이 응하리라

고린도전서 15장 51절과 52절에 나팔은 마지막나팔을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또 계시록에서  
말씀하시는 나팔은 일곱째나팔이 마지막 나팔입니다. 그리고 이 마지막 나팔에 죽은 성도나  
살아 있는 성도가 몸이 순간적으로 변화한다고 말합니다. 그런데 그것에 대해 서술하는 계시  
록 11장 15절 이하에는 주님 오신다는 소식이 바로 나오는 것이 아니고, 이런 말씀들이 들립  
니다.

.....

(15) 그 후에 **일곱째 천사가 나팔을 부니**, 하늘에서 큰 음성들이 있어 말하기를 "**이 세상의  
나라들이 우리 주와 그의 그리스도의 왕국들이 되어서 그 분이 영원 무궁토록 통치하시리  
라.**"고 하더라.

(16) 그러자 하나님 앞 그들의 좌석에 앉은 스물 네 장로가 얼굴을 대고 엎드려 하나님께 경  
배드리며

(17) 말씀드리기를 "지금도 계시고, 전에도 계셨고, 앞으로 오실, 오 전능하신 주 하나님, 우  
리가 주께 감사드리는 것은 주께서 주의 크신 권세를 가지고 통치하셨기 때문이니이다.

(18) 민족들이 분노하나 주의 진노가 임하였고 죽은 자들의 때가 임하였으니, 이는 그들이  
심판받으며, 주께서 주의 종들인 선지자들과 성도들과 주의 이름을 두려워하는 크고 작은 자  
들에게는 상을 주시며, 땅을 훼손한 자들을 멸망시키려 하심이니이다."라고 하더라.

(19) 그러자 하늘에서 하나님의 성전이 열리며 성전 안에 있는 그의 언약궤가 보이더라. 또 거기에는 **번개들과 음성들과 천둥들과 지진과 큰 우박이 있더라.**

마지막 나팔은 일곱 번째 나팔입니다. 그 후에 불어지는 나팔은 없습니다. 이 나팔이 불어진 이후로 또 불어 질 나팔은 없다는 얘기입니다. 그렇다면 바울은 기준을 어디다 두어야 하느냐는 고민이 생깁니다. 결론은 마지막 나팔 이후에는 기준으로 삼을 만한 마땅한 일이 없습니다. 그래서 마지막 나팔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또 고린도전서는 정확한 어떤 시기를 지정했다기 보다는 그러한 일이 일어나는데 그 시점은 마지막나팔소리 이후다 라고 말씀하는것 뿐입니다. 더 정확한 서술은 계시록에 양보하는 것이고, 거기까지만 고린도교회에 설명하는 것입니다.

살전 4장

....

(16)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로 친히 하늘로 좇아 강림하시리니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17) 그 후에 우리 살아 남은 자도 저희와 함께 구름 속으로 끌어 올려 공중에서 주를 영접하게 하시리니 그리하여 우리가 항상 주와 함께 있으리라

이 데살로니가전서 4장에 있는 나팔은 마지막나팔과는 성격이 다릅니다. 비로 재림나팔입니다. 확인한 바, 그동안의 분별로 마지막 일곱번째나팔과 45일정도의 차이가 있을 것으로 말씀드린바 있습니다. 주님께서 오실 때의 시기는 이스라엘에 적그리스도의 군대가 억압과 횡포를 자행하고 있을 때이고(후삼년반의 환란), 그들이 이스라엘(민는 성도)을 없애기 위하여 사방을 에워쌀 때입니다. 이 때 만왕의 왕, 만주의 주님께서 재림하시는데, 쥐 죽은 듯 조용하게 오시겠습니까? 생각건대 하늘의 천사들과, 십 사만 사천과, 후 삼년반에 순교를 당한 성도들, 주님 재림시 휴거받은 백성들, 즉 열방과 민족과 방언중에서 택함 받은 주의 군사가 내려오는 것입니다. 절대 조용히 오실 리가 없습니다. 하늘의 천사들은 나팔을 불 것이고, 십 사만 사천은 노래할 것이며, 또한 휴거된 주의 백성들은 기쁨에 화답하고 박수를 치고 즐거워 할 것입니다. 물론 땅에 있는 자들 중에서도 믿지 않는 자들은 두려움에 떨 것이나, 그때까지 살아 남아 주님을 고대했던 휴거되지 못한 땅의 백성들 역시 같이 기뻐할 것입니다.

마태복음24장

(30) 그 때에 인자의 징조가 하늘에서 보이겠고 그 때에 땅의 모든 족속들이 통곡하며 그들이 인 자가 구름을 타고 능력과 큰 영광으로 오는 것을 보리라

(31) 저가 큰 **나팔 소리**와 함께 천사들을 보내리니 저희가 그 택하신 자들을 하늘 이 끝에서 저 끝까지 사망에서 모으리라

이 나팔소리는 후삼년반에 하나님의 일곱 대접진노가 끝나고, 주님 재림하실 때, 순교하지 않았으나 믿음을 지키며 살아 남아 있던 자들이 휴거됨을 알려준다고 볼 수 있습니다. 자고 있던 자들은 먼저 휴거되었고, 그 무렵에 살아있는 자들도 휴거되어 들림 받는다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상으로 길고 지루했던 요한계시록의 모든 풀이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의 소망을 천국에 두고 살아야 함을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그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길은 오직 예수그리스도를 말미암지 않고는 이루어질 수 없음도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것을 아시고 살아 가시는 분은 정말 행복한 분입니다. 그 분에게는 상급이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연구하시다가 이상하다거나, 궁금한 것이나 의문사항이 있으시면 메일이나 카페를 이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무쪼록 주님앞에 서는 그날까지 성도 여러분의 승리를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